

韓國書院學報

제
12
호



韓國書院學會

2021. 6

목차

■ 논문

- 서원의 지식 네트워크 활동의 실제 **채광수** ◦ 7
- 상주 道南書院의 詩會를 중심으로 -
- 陶山書院 刻板活動 研究 **裴賢淑** ◦ 49
- 조선시대 학파의 '도통' 의식과 서원의 확산 **이광우** ◦ 127
-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퇴계학파를 중심으로 -
- 한국 서원 장서의 구축과 관리 제도의 변화 **이병훈** ◦ 181
- 19세기말 서원 강회를 통한 학파의 분화와 학설의 형성과정 ... **정순우** ◦ 241
- 주리사상을 중심으로 -

■ 후보

- 연혁·활동 보고 | 269
- 회칙 | 273
- 편집 규정 | 280
- 논문투고 규정 | 284
- 원고작성 규정 | 290
- 연구윤리 규정 | 294
- 임원 및 편집위원 | 297

■ 논문

- 서원의 지식 네트워크 활동의 실제
 - 상주 道南書院의 詩會를 중심으로 -
- 陶山書院 刻板活動 研究
- 조선시대 학파의 '도통' 의식과 서원의 확산
 -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퇴계학파를 중심으로 -
- 한국 서원 장서의 구축과 관리 제도의 변화
- 19세기말 서원 강회를 통한 학파의 분화와 학설의 형성과정
 - 주리사상을 중심으로 -

서원의 지식 네트워크 활동의 실제*

—상주 道南書院의 詩會를 중심으로—

채 광 수**

- I. 머리말
- II. 도남서원 주도 세력 네트워크의 성격
- III. 도남서원 지식 네트워크 활동의 실제
- IV. 맺음말

【국문초록】

도남서원은 지식 네트워크 활동과 실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시회 자료가 현전하는 곳이다.

먼저 도남서원 주도세력의 네트워크 성격을 분석한 결과, 원장을 배출한 상위 가문은 부림흥·안동권·장수항·진양정·풍산류·흥양이씨 6개 성관이었다. 정경세와의 밀접한 관계성, 남인과 노론이 병존하고 있는 모습, 원장의 높은 소·대과 합격자와 관직자 비율, 원장을 지낸 다수가 다른 서원의 원장을 중복해 역임하는 일련의 현상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인적구성을 토대로 낙동강과 도남서원을 무대로 삼은 '임술시단'과 '개별 학자의 문화·시회' 축으로 지식 네트워크의 활동 양상을 살펴보았다.

전자는 소동파의 적벽놀이를 본받아 1607년부터 1778년까지 이어졌는데, 본고에서는 시회의 출발점인 1607년을 대상으로 도남서원과 관계, 구성원 면면, 선유 경유지, 공동시 창작 등 지식 네트워크의 활동을 탐색해 보았다. 이준이 작성한 공동시 서문에 '간략히 일의 전말을 써서 책머리에 놓아 도남서원에 갈무리해 뒷날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2813).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corhkdt911@naver.com

이 놀이를 잇는 자의 선구가 되고자 한다라는 말처럼 이후 도남서원에서는 시회를 통해서 연대와 결속, 나아가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견인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후자는 영남학파의 적맥을 계승한 유수의 학자들이 배출된 지역 특성상 首院인 도남서원은 활발한 강학이 전개된 서원으로 꼽힌다. 이중 이만부·권상일·정종로의 강학과 어우러진 시회 사례를 주목했다. 이만부는 1697년 상주 이주 직후 도남서원에서 열린 문회와 선유를 경험했고, 1724년 講長의 자격으로 『근사록』 강회를 주관하였다. 서원 교육에 관심이 남달랐던 권상일은 1723년 원장 신분으로 『심경』 강회를 선보였고, 선유를 즐겼다. 1816년 수백명이 참석한 정종로의 도남서원 강회는 특기할 만하며, 강회 후에는 생전 마지막으로 추정되는 시 1수를 남겼다.

이러한 도남서원의 시회 활동을 통해서 서원의 지식 생성과 네트워크 형성, 지식 확산의 과정을 밝힘으로서 서원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

주제어 : 도남서원, 시회, 이만부, 권상일, 정종로

I. 머리말

한국의 서원은 교육과 제향이라는 기본 기능을 넘어 지식문화의 거점으로 서 다양한 문화 활동과 지역의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장소였다.¹⁾ 서원의 지식문화와 네트워크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상주 도남서원의 시회가 이를 입증하는 좋은 실례가 될 것 같다. 서원에서는 시회를 통해 지식을 교류했고, 서원과 관련된 각종 詩文을 지어 지식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시는 서원, 제향자, 자연, 선배의 시문 등 서원에 관련된 것을 주제로 삼았다. 또한 서원이 위치한 탁월한 산수 경관은 유학자들에게 遊食과 학습의 대상이었다.²⁾ 서원 영역 전면에 배치된 樓亭이 그런 기능을 수행한 건물이다. 조선시

1) 이해준, 「한국 서원의 지역 네트워크와 사회사적 활동」, 『한국 서원의 전통가치와 현대적 계승』,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170쪽.

대 학자들의 여러 문집 및 서원 내 게시된 편액 등이 증거이다.

서원의 문화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①서원의 네트워크에 대한 시론적 정리,³⁾ ②서원의 출판·도서관적 기능 분석,⁴⁾ ③심원록·문집 등을 통한 문학적 고찰⁵⁾ 등의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 현재 학계에서는 두 번째 연구 외에는 매우 저조한 편이다. 자료와 관심 부족에 기인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중 상주의 도남서원은 ①·③의 문제점을 해소시켜 주고, 그 문화사적 실체를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서원이라 할 수 있다. 서원의 지식 네트워크 활동과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시회 자료가 현전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크게 두 장으로 구성해 보았다. 우선 II장에서는 도남서원 주도 세력의 네트워크 성격을 분석하고, III장에서는 詩帖과 문집 등의 기록을 토대로 선유와 강학 후 실시된 시회를 통한 지식 네트워크의 구체적 활동 양상을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 지식사적 관점에서 제기하는 지식의 생성과 네트워크 형성, 지식 확산의 과정을 도남서원의 시회 활동 사례를 통해 탐색하였다.⁶⁾

2) 이상해, 「도동서원과 조선시대 서원건축」, 『道, 東에서 꽃피다』, 달성군, 2013, 99~102쪽.

3) 이해준, 「앞의 논문」, 『한국 서원의 전통가치와 현대적 계승』,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4) 서원의 출판·도서관적 기능은 서지학 분야에서 보다 연구가 활발하며, 역사학에서는 이병훈, 「경주 玉山書院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 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민족문화』 58, 2016 ; 임근실, 「16세기 書院의 藏書 연구」, 『한국서원학보』 4, 201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5) 김학수, 「德川書院 : 경의학(敬義學)을 지향한 조선의 학술문화공간」, 『남명학』 20, 2015; 정우락, 「도산서원에 대한 문화론적 독해 - 일기와 기행록을 중심으로 -」, 『영남학 27』, 2015; 권진호, 「한시로 쓴 심원록 - 한시에 그려진 도산서원과 그 위상」, 『조선후기 서원의 위상』, 새물결, 2015.

6) 임근실, 「迎鳳志의 지식사적 의미」, 『민족문화논총』 69, 2018, 496쪽.

II. 도남서원 주도 세력 네트워크의 성격

도남서원⁷⁾은 조선시대 영남을 대표하는 서원 중 한 곳이다. 임란 뒤 상주 전 사족의 참여와 노력으로 ‘우리의 道가 남쪽에 있다’는 큰 뜻을 가진 院號와 그에 걸맞는 제향인(정몽주·김굉필·정여창·이언적·이황)을 모셔 1604년(선조 37) 창건되었다. 조선의 도통 정맥이 영남에 있고, 영남에서 상주가 이를 계승했음을 천명한 의미이다. 道院의 초대 원장 趙淸의 손자 趙稜은 ‘도학의 연원은 洛水에서 찾을 일, 도원은 영남 사림의 으뜸 일세⁸⁾’라고 하여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리고 1616년(광해군 8) 노수신, 1631년(인조 9), 류성룡, 1635년(인조 13) 정경세의 연이은 추향은 향론이 반영된 결과로 상주를 안동과 대등한 또 하나의 영남학파의 거점으로 삼으려 한 것이었다.⁹⁾ 도원에 처음 추향되는 노수신은 상주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양명학적 학문 성향 때문에 크게는 주류 성리학계에서, 작게는 안동권으로부터 배척을 받은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도원 입향이 가능했던 것은 사상을 떠나 이준을 위시한 지역 후배 집단의 공조와 노력 덕분이다. 상주목사이면서 노수신의 高弟 康復誠이 입향 발의를, 노수신의 각종 문자를 지은 이준과 전식이 측면에서 지원을,¹⁰⁾ 노수신의 증손을 사위로 맞은 정경세가 중향제문을 지어 봉안에 일조를 하였다. 강복성을 제외하면 이들 모두 류성룡의 문인이며, 세칭 ‘商山三老’라 불리는

7) 이하는 편의상 도원으로 약칭한다.

8) 조릉, 「홍판관운」 『도남서원사실 하』; 권태을, 「도남서원 관련 詩文의 機能考」, 『도남서원의 사적과 도학정신』, 제1회 상주 문화사적과 역사인물 학술대회 자료집, 2011, 127쪽, 재인용.

9) 이와 관련해서는 김학수, 「17세기 영남학파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08이 크게 참고가 된다. 한편 1710년 이준 추향에 대한 여론이 있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권상일, 『(국역) 청대일기』 권1, 「1710년 11월 21일」.

10) 이준이 노수신 관련문자는 총 9편에 이른다. 김학수, 「정경세, 이준의 소재관 - 정경세의 비판적 흡수론과 이준의 계승적 변호론을 중심으로」 『영남학』 71 2019, 137쪽.

명망가이다. 이들이 노수신을 도원에 추향하고자 한데는 스승 류성룡과 노수신 간의 양명학적 동질성과 인간적 친밀성이 일정한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무엇보다 당대 상주 사람들이 노수신을 향현이자 서원에 추향할 존모의 대상으로 여겼으며, 한편으로는 소재 학맥이 건재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상주의 퇴계학맥은 류성룡 ⇨ 정경세 ⇨ 류진 ⇨ 정도응·정종로 ⇨ 柳壽春으로 전승이 된다. 상주권은 류성룡 문인이 가장 많이 포진한 고장이면서 핵심 문인 정경세와 이준, 그리고 3남 류진이 이거한 서애학맥의 근거지이다. 16개 성관에서 배출된 상주의 서애문인 23명은 임란시에는 의병활동, 임란 후에는 사족을 대변하는 낙사계 결성과 존애원 설립, 향약 시행 등 향촌 복구 사업 전반을 기획하고 주도했다. 여기에 구성원 가운데 20명에 달하는 높은 소·대과 합격자와 관직자의 비율, 또 ‘오현종사소’·‘퇴계변무소’·‘이이첨 탄핵소’를 통한 정치 활동 등 그 위상이 남다른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이 시기 지역 사회를 이끈 주역들이며, 그 중심에는 정경세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도원 창건 당시 류성룡의 자문을 받아 서원의 위치·院號 등을 낙점했고, 1619년(광해군 11) 『서애집』 첫 교정을 상주 용암 修善書堂에서 진행한 것이다. 1631년(인조 9) 류성룡의 도원 추향은 지역 분위기 상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이때 추향제문은 이준이 맡았다.

“젊어서는 친구였고, 늙어서는 스승이다”¹¹⁾라는 정경세와 동문수학한 전식의 말처럼 류성룡 사후 서애문인은 우복학단으로 흡수 및 이행되었다.¹²⁾ 그 과정에서 정경세의 학문적 입지와 위상은 보다 고양되어갔다. 류성룡 추향이 그 문인들 협의 하에 성사되었듯 정경세 추향 역시 우복문인들이 주도를 했다. 정경세 사망 2년이 지난 1635년(인조 13) 문인 金廷堅·韓克述·洪皓 등이 앞장섰고, 전식이 후원자로서 지휘하였다. 이때 김정견이 도원 원장에 재직 중이

11) 정경세, 『(국역) 우복집 별집』 권12, 「부록- 又 全滯」.

12) 서애문인에서 우복문인으로 흡수된 인원은 모두 16명이다. 김학수, 앞의 논문, 2007, 178~179쪽.

라 여러모로 유리한 환경이었다. 당초 이 일이 불가하다고 입장을 피력한 趙靖과 이 자체를 못 마땅히 여긴 金榮祖 등 일부의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단 2개월 만에 추향이 실현된다.¹³⁾ 추향이 단시일에 성공한 요인은 도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우복학단의 강한 결속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봉안일의 집사와 예식문자 역시 문인들이 맡아 마무리했다.¹⁴⁾ 정경세의 도원 추향은 이항-류성룡-정경세로 이어지는 영남학통의 적전 계보를 정립한 사업인 동시에, 서애·우복학단의 남인계 서원으로서의 성격을 대내외에 분명히 한 것이다.

도원에 현전하는 「임원록」 4책에 수록된 원장 204명의 인적분석을 통하여 그 네트워크 실체와 성격을 추적해 볼 수 있다.¹⁵⁾ 「임원록」의 자료는 1664년~1747년[1책] 73명과 1802년~1871년[3책] 131명으로 구분되며, 성관 구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도남서원 원장 성관 구성

①1664년~1747년[84년]					
성관	인원	원장명	성관	인원	원장명
창녕성 [老]	7	成德徽(3)·成世瑛·成爾漢·成爾鴻·成震丙	홍양이	7	李麟至(2)·李在憲(2)·李增曄(2)·李曾喆
경주손	4	孫萬雄(3)·孫景錫	장수황	4	黃馮·黃翼再·黃緬·黃浚
청도김 [老]	4	金時泰(2)·金必大·金字泰	평산신	4	申彌成(4)
풍산류	4	柳千之(3)·柳經河	부림홍	3	洪相民(2)·洪汝河
상산김	3	金鍵(3)	안동권	3	權坵(2)·權相一

13) 일례로 현풍 도동서원 증건에 크게 이바지한 제향자 김굉필의 외증손인 정구만 하더라도 추향에 소요된 기간이 14년이나 걸렸다. 도동서원에서 정구의 위상과 서원 운영을 문인들이 장악하고 있던 상황임에도 녹록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14) 초헌 李峽·아헌 申楫·중헌 郭龍伯 이었고, 고유문은 李峽, 봉안문은 전식이 찬술했다. 김령, 『(국역) 계암일록』, 5권, 한국국진흥원, 2013, 516~517쪽 ; 김학수, 「앞의 논문」, 2011, 93쪽.

15) 도남서원 원장에 대한 연구물로는 송석현,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도남서원 운영과 상주 사족의 동향」, 『조선시대사학보』 79, 2016이 있다.

진양정	3	鄭胄源·鄭錫喬(2)	남양홍	2	洪道達(2)
동래정	2	鄭堯錫·鄭之鍵	순천김	2	金堧·金壽翀
신평이	2	李葆英(2)	여산송	2	宋頰(2)
의령남 [첩]	2	南躡·南塾	의성김	2	金以載·金國采
전주이	2	李知聖(2)	개성고	1	高師聖
광주이	1	李世瑗	벽진이	1	李挺奎
선산김	1	金在鎔	안동김	1	金楷
연안이	1	李萬敷	영동김	1	金世維
인천채	1	蔡獻徵	진주강	1	姜稅
함안조 [첩]	1	趙重台	풍양조	1	趙稜
②1802년~1871년[70년]					
성관	인원	원장명	성관	인원	원장명
진주강	22	姜世綸(4)·姜世揆(3)·姜申永(3)·姜秉欽(2)·姜胄永(2)·姜世白(2)·姜長欽(2)·姜哲欽(2)·姜肱欽·姜文永·姜世鷹	진양정	18	鄭象晉(6)·鄭允愚(6)·鄭象樞(4)·鄭民秀(2)
풍산류	17	柳尋春(7)·柳厚祚(7)·柳敦祚·柳疇睦·柳喆祚	연안이	11	李建基(5)·李敬需(4)·李敦九(2)
장수황	10	黃磻老(6)·黃贊熙(3)·黃莘老	부림홍	6	洪殷標(5)·洪錫壽
풍양조	6	趙穗(3)·趙得和·趙凝·趙學洙	인천채	6	蔡光禹(4)·蔡周相(2)
안동권	4	權世永(3)·權訪	여산송	4	宋台霖(3)·宋奎弼
선산김	3	金聲鶴(2)·金驥燦	홍양이	3	李升培(3)
경주손	2	孫鎮翼·孫會慶	봉화금	2	琴英潭(2)
비안손	2	孫興祖(2)	개성고	1	高聖謙
경주김	1	金熙永	순천박	1	朴光錫
안동김	1	金顯奎	의령남	1	南必錫
의성김	1	金揚壽	진성이	1	李彙寧
진주류	1	柳榮國	청주정	1	鄭述
풍산김	1	金重夏	기타	3	李正煥(2)·李鉉駿

※ ()는 역임횟수, [첩]는 노론, 상주목사 신분으로 원장을 역임한 4명은 제외함.

총 38개 성관에서 108명의 원장이 선임되었으며, 홍여하·이만부·권상일·류심춘·류후조·류주목 등 당대 영남을 대표하던 관료와 학자군은 도원의 위

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도원 원장 구성의 특징적인 성격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전·후 시기 원장의 성관 구성, 곧 諸 가문의 변화상을 언급할 수 있다. ①의 80년간은 30개 성관에서 51명의 원장이, ②의 70년간은 25개 성관에서 59명이 나왔다. 도원은 제향자의 후손이 명확한 도산·병산·옥산서원과 달리 특정 가문에 의해 독점되지 않는 운영 체계였다. 다만 시기별 제 가문의 원장 배출 비율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상위권을 대상으로 그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시기 : 홍양이·창녕성·경주손·장수항·청도김·평산신·풍산류·부림홍·상산김·안동권·진양정
- ② 시기 : 진주강·진양정·풍산류·연안이·장수항·부림홍·풍양조·인천채·안동권·여산송·선산김·홍양이

양 시기 모두 원장을 배출한 상위 가문은 부림홍·안동권·장수항·진양정·풍산류·홍양이씨 6개 성관이다. 전반적으로 정경세의 문인 후손들에서 제향자 후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홍양이씨는 감소, 창녕성·청도김씨는 탈락, 장수항·부림홍씨는 유지, 진주강·연안이·인천채씨 등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양 시기를 비교하며 제향자 가문 성관의 증가, 홍양이씨와 진주강씨의 성쇠로 요약된다.

진양정씨는 정경세의 직계 증손자 정석교를 시작으로 정주원(鄭仁樞-정종로¹⁶⁾-정상진-정민수까지 세대를 이어 원장에 취임할 만큼 도원과 특수한 관계를 유지했다. 1871년(고종 8) 대원군 서원 훼철 반대 영남유소를 도원에서 주관할 때 정경세의 8대손 鄭民秉이 疏首를 맡아 중심적 역할을 한 것도

16) 정인모와 정종로가 활동한 시기의 도남서원 원임록이 전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종로의 경우 당대 명성과 도남서원 관련 문자 찬술 및 강학활동, 도산·덕천·옥동서원 원장에 부임한 경력을 감안하면 원장을 역임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 같은 사정에 말미암은 것이다.¹⁷⁾

진양정씨와 특별한 世宜가 있는 풍산류씨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진양정씨 상주 입학조 류진은 1618년(광해군 10) 안동 하회에서 이거해 이준의 딸과 정경세의 손자를 며느리와 사위로 맞이하며 지역사회에 안착을 한다. 장남 류천지를 비롯해 특히 6대~8대 중손 류심춘[7회] - 류후조[7회]¹⁸⁾ - 류주목이 대를 이어 도원 원장에 취임했다. 이들의 명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19세기 대다수의 서원들의 기능이 추락하던 추세임을 감안하면 이것이 도원의 위상 제고에 크게 일조했음은 물론이다. 18세 중후반 영남지역 首 서원들에서 목격되는 외부 명망가를 추대하는 京·道원장제가 도원에 보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서원 운영에 관의 지원을 기대해 현지 지방관을 원장으로 초빙한 것이 도원에서는 19세기 4명에 불과 한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재임 또한 사마시 합격자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통규로 삼았을 정도였다.¹⁹⁾

‘篤學君子’로 칭송받은 정종로의 문인 류심춘은 아들 류후조와 함께 가장 오랜 기간 원장에 재임을 했다. 1848년(헌종 14) 여름 도원에서의 문집 간행은 그가 원장에 있으며 강학·원생들과 교감·문자 친술 등 다양한 활동을 한 것의 소산이었다. 손자 류주목은 이 사실을 告成文으로 남겼다.²⁰⁾

현직 관료로 있으면서 13년간 원장을 겸임한 류후조는 400년 만에 배출된 영남 출신 정승으로 유명하다. 그는 도원에 대해 남다른 자긍심을 가졌던 만큼 명예직에 머물지 않고, 여러모로 도움을 줬을 것이다.²¹⁾ 서원 입장에서

17) 이수환, 「대원군의 사원휘철과 영남유소」,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375쪽.

18) 류심춘 : 도산(1823)·병산(1828), 류후조 : 도산(1868)·병산(1863·1875), 류철조 : 도산(1832)·병산(1831), 류주목 : 병산서원(1868) 원장을 역임했다.

19) 권상일, 『(국역) 청대일기』 2권, 「1724년 윤4월 14일」, 한국국학진흥원, 2015, 369쪽.

20) 류주목, 『溪堂先生文集』 권12, 「奉安文·常享文·告由文·王考江舉先生文集告成文」.

도 류후조가 원장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다. 실제 1883년(고종 20) '정경세 문묘종사소'는 류후조의 주선으로 추진된 추송 사업이었다.²¹⁾

한편 홍양이씨와 진주강씨는 자못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전자는 최다 원장 배출 가문에서 1명으로, 후자는 그 반대로 바뀌었다. 후손의 浮沈 소·대과 급제자 수, 서원 출입처 분산,²²⁾ 혼인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을 듯하다. 이 중 명확한 수치를 나타내는 문과 급제자를 기준 삼아 비교해 보면, 18세기 이후에 홍양이씨가 2명인데 비해서 진주강씨는 7명이나 된다.²⁴⁾ 진주강씨는 상주에서 풍양조씨[9명]와 진양정씨[8명] 다음으로 많은 인원을 보유한 성관인 것이다. 이는 후술할 도원 원장 구성원들의 높은 과거 합격률을 고려하면 중요한 척도가 된다. 또한 양반의 사회적 지위를 가늠하는 혼인에서도 서로 일정한 격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정경세와의 밀접한 관계성을 볼 수 있다. 정경세는 총 107명의 문인을 두었는데 본향인 상주권에 절반이 넘는 55명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그의 학통적 계보는 향촌의 중추적 기구 도원에서 구현 및 계승되어 갔다. 1676년(숙종 2) 도원 청액소에 “만력 갑오년에 문숙공 정경세가 학궁을 세워 5현의 습관을 꾀했으니, 이른바 도원이 이것입니다”²⁵⁾라는 구절은 정경세가 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시 疏首 이재현의 경우 조부가 정경세와 동문인 이전이며, 부친 李德圭는 정경세의 문인이다. 전형적인 우복문인 계열의 후학인 셈이다. 그는 1687년(숙종 13)에 도원 원

21) 류후조, 『洛坡先生文集(全)』, 『南嶽祠記』, 대보사, 1994, 445쪽.

22) 김자상, 「文莊公 愚伏 鄭經世 陞祀聖廟疏 小巧」, 『상주문화』 7, 1998, 13쪽.

23) 홍양이씨 : 1631년 玉成書院 설립[享 김득배·신잠·金範·이전·이준, 진주강씨 1817년 景德祠 설립[享 姜淮仲·姜詞].

24) 18세기 이후 대과 급제자 : 홍양이씨 - 李增祿(1708)·李瑛(1789), 진주강씨 - 姜杭(1726)·姜世鷹(1780)·姜世綸(1783)·姜世檉(1786)·姜世白(1794)·姜長煥(1837)·姜景熙(1893).

25) 『숙종실록』 5권, 숙종 2년 10월 25일.

장에 취임을 한다. 이재현 외에도 이러한 유형의 인물 상당수가 도원의 운영을 담당했다. 서원 창건 당시부터 서애·우복문인 참여자가 절대다수를 점하던 전통이 이어진 것이다.²⁶⁾

〈표 1〉의 앞 시기를 대상으로 이 같은 실상을 파악해 보자. 51명 원장 중 정경세와 직간접으로 연계된 자는 28명에 달한다. 28명은 자료상 확인된 숫자일 뿐 정경세와 연관이 있었던 자는 이보다 더 많았을 개연성이 높다. 여기에 서인계 8명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정경세 문인 중에서 서인은 3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²⁷⁾ 이 시기 도원 원장 65% 이상이 정경세와 관련 있는 인적구성이다. 그 구성원은 크게 학연과 혈연 그룹이다. 세분하면 앞에는 문인 1명과 문인 후손 23명이며, 뒤에는 정경세의 증·현손과, 류진의 장남·손자들이다.

정경세 문인의 연령대는 1557년 생 金涌부터 1616년 생 柳直河까지 60년의 편차가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이중 『임원록』에 등재되어 1664년까지 생존했던 직계 문인은 15명이었는데 黃緬 1명만이 원장에 취임을 했다. 이미 원장을 지냈거나 타 지역 거주자, 서인계 문인은 배제 등의 이유와 닿아 있을 것이다.²⁸⁾ 도원 원장에 재임하며 스승의 추향을 이끈 김정견처럼 아마도 1604년(선조 37) 창건 후 60년 동안은 〈표 1〉 기간보다 정경세 문인들의 참여율과 활동이 더 활발했을 것은 자명하다.

문인 후손 23명은 흥양이·장수황씨 각 4명, 청도김씨 3명, 경주손·동래정·부림홍·의성김씨 각 2명, 여산송·영동김·창녕성·평산신·풍양조씨 각 1명씩 순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위권인 흥양이씨와 장수황씨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 보자.

26) 창설계안에는 1605년(선조 38)부터 1656년(효종 7)까지 422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상주 전체 사족이 참여하고 있다. 이수건, 『조선시대 영남서원자료』, 국사편찬위원회, 1999 ; 김학수, 앞의 논문, 2011, 73~76쪽.

27) 채광수, 「우복학단의 성격과 계보학적 갈래」, 『한국계보연구 10』, 2020.

28) 1660년(현종 1) 도원 강당 화재 때 1664년 이전의 임원록이 소실되어 확인이 불가하다.

상주를 대표하는 남인계 사족가문인 홍양이씨는 정경세와 생전 異姓형제로 불린 李堧·李竣과 아들 대 7명이 그 문하에서 공부한, 각별한 交契가 있는 후예들이다.²⁹⁾ 이증록을 제외한 3명은 모두 중임을 했고, 이재현과 이인지는 부자가 원장을 지냈다. 부자가 원장을 맡은 또 다른 사례에는 鄭燦後의 손자 정요석과 증손 정지건, 洪鎬의 아들 홍여허와 손자 홍상민이 있다.

장수황씨는 정경세의 증조모가 출가해 戚聯이 있는 가문이다. 입향조 黃保身의 차남 黃從兄을 파조로 하는 참판공파에서 4명이 정경세와 사제를 맺었다.³⁰⁾ 원장은 황중형의 5대손 黃紉·黃紳 형제계열에서 나왔다. 특히 황뉴는 10세 때 정경세 문하에 입문한 이래 학문, 관직, 일상사까지 공유하는 막역한 사이였다. 그런 그가 먼저 사망하자 정경세는 만사를 지어 곡하고, 제문을 지어 조문했는데 ‘정신과 혼 모두 녹아 다 없어졌고, 몸체만이 흙덩인 양 홀로 남았네’³¹⁾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1786년(정조 10) 玉洞書院에 위패를 모실 때 상향축문을 정경세의 5대손 정종로가 지은 것도 이 때문이다.³²⁾ 반대로 장수황씨에서 1791년(정조 15) 『우복문인록』 修補와 『우복별집』·『연보』 간행을 주도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한편 4차례나 원장직을 중임한 신필성은 정경세에 입문해 스스로 덕을 증진시키고 학문을 닦는 데 노력한 申尙哲의 증손자이다. 서울에 살던 신상철이 1618년(광해 10) 상주 영순리에 이거해 영남 사람이 되는데는 정경세와 인연이 일정한 계기가 되었다.³³⁾ 신필성은 원장에 있는 동안 후배들에게는 興感이 되어 주었고, 전통과 모범이 있는 서원 구축에 이바지 했다.³⁴⁾

29) 홍양이씨 가문의 정경세 문인 : 이진 아들 - 李一圭·德圭·身圭, 이준 아들 - 李大圭·元圭·文圭·光圭.

30) 황뉴·황신 형제, 황뉴의 아들 黃德柔, 황면 4명이다.

31) 정경세, 『(국역) 우복집』 권2, 「시·持平 黃會甫紉에 대한 만사」, 민족문화추진회, 2003.

32) 정종로는 황뉴를 비롯해 정경세 문인과 후손들에 대한 많은 문자를 작성하였다.

33) 李敏求, 『(국역) 東州集』 권8, 「戶曹正郎申公墓碣銘」, 한국고전번역원, 2018.

34) 신필성, 『盧峯遺稿-부록』 권1, 「祭文-道南士林祭文」.

도원에서 1657년(효종 8) 『우복집』이 간행되고, 1693년(숙종 19) 정경세의 ‘文莊公’ 시호 개정을 추진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19세기 들어서도 정종로의 문인 9명이 원장에 취임하며 이러한 기조에 조응했다.³⁵⁾

셋째, 남인과 노론이 병존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른 영남 남인계 서원에서는 거의 목격할 수 없는 흥미로운 현상으로 지역적 특성의 하나로 지적해 들 만하다.³⁶⁾ <표. 1>에서 창녕성·청도김·의령남·함안조씨가 바로 노론계 성관이다. 영남 남인을 대표하는 서원에 왜 노론 색목의 원장이 있는 것일까? 이는 정경세의 사위가 노론의 영수 송준길이라는 점과 서인계 사족인 창녕성·평산신씨 등 친서인 세력의 존재에 기인한다. 상주의 노론이 1702년(숙종 28) 송준길을 모신 흥암서원을 창건해 자파 서원을 확보한 뒤, 중앙의 노론 정국에 편승해 도원으로 세력을 확대한 결과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향촌 헤 게모니 문제로 봐야하나 이들은 도원 출입의 명분을 정경세가 보여준 서인과의 친연성³⁷⁾ 및 世誼³⁸⁾라고 강조하였다. 또 현종연간 청액을 시도를 주도하며 사액 서원이 되는데 공로도 있었다.³⁹⁾

창녕성씨는 우울 문인 成灑이 상주에 입향한 이래 서인계라는 정체성을 고수하며, 영남 노론세력을 선도한 가문이다. 이 가문은 지속적인 노론계 문인 배출, 우울·사계·양송종사소 등 각종 상소 기획 및 주관, 영남 내 노론계 서원 설립 주도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⁴⁰⁾ 원장의 일면을 보면 성덕정은 1718년(숙종 44) ‘양송문묘 종사소’ 疏首, 성이한은 조야에 파란을 일으킨 안동 김상헌 서원 창건 유사를 지냈으며, 성이홍은 권상하의 문인이다.

35) 정석진, 『愚山史積大觀』, 「附 及門諸子錄」, 愚山先生記念事業會, 1975.

36) 18세기 초반 도산·병산서원에 노론으로 전향한 安鍊石이 원장에 취임하기도 하나 도원과 같이 장기간 여러 명은 아니었다.

37) 김학수, 「앞의 논문」, 2011, 233~247쪽.

38) 성이한, 「歲戊午三月上丁」, 『흥판관운』.

39) 채광수·이수환, 「昌寧成氏 聽竹公派의 상주 정착과 노론계 院宇 건립 활동」, 『조 선시대사학보』 79, 2016, 399쪽.

40) 채광수·이수환, 앞의 논문, 2016.

청도김씨 상주과의 김필대는 우복문인 金百鎰 증손으로 성이흥과는 동문이다. 일찍이 5대조 金洽이 이이에게 증유를 했고, 종조부 金三樂이 창녕성씨를 三娶로 맞으면서 노론으로 밀착되었다. 청도김씨 세거지 판곡에 西山書院享 김상용·상헌을 창건하고, 청액소를 올리는 金必千·必粹와는 재종간이다.⁴¹⁾ 아울러 임란 때 순절한 고조 金俊臣의 노론계 사우인 忠義壇 추향 역시 지역 노론의 연대물이다.

이렇게 한때 도원을 장악했으나 이들 가문의 원임직 유지에는 한계가 있었다. 1738년(영조 14) 서원 강회 뒤 詩會에서 노론계 원장 성이한이,

“어찌다 말세가 되니 논의는 갈수록 격렬하여 배움집이요, 예절을 가르칠 서원[도원]이 문득 이쪽은 들이고 저쪽은 내치는 장소가 되어, 옛 모습은 찾을 길이 없으니 어찌 통탄치 않으랴.”⁴²⁾

라는 토로 속에 그러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도원은 집권 노론의 지원을 받은 이들에게 원임직을 내주는 일시적인 변동을 겪었지만 곧바로 남인계가 주도권을 회복한다.

넷째, 원장의 높은 소·대과 합격자와 관직자 비율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여타의 영남지역 서원과 구별되는 도원만의 특징 중 하나이다. 생원에서 참판에 이르기까지 원장 전원이 소·대과 합격과 관직 경력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중복을 포함해 소·대과에는 생원 39명·진사 18명, 대과 56명 그리고 관직은 참봉 15명, 현감 9명, 부사·正言 각 5명, 別檢·奉事 각 4명, 都正·翊衛·장령·주부·지평 각 3명, 都事·목사·부윤·승지·翊贊·典籍·正字·헌납·현령 각 2명, 교리·군수·副學·수찬·정랑·좌랑·집의·찰방·판관 각 1명씩이다. 다만 당상관 경력자는 목사 손만웅, 승지 강세륜·조덕·이휘녕, 참판 류후조 정도로 그 숫자가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대과 합격자 비율이 50.9%에 달하는 점은

41) 채광수·이수환, 앞의 논문, 2016.

42) 권태을, 『洪判官韻 해제』, 『상주문화연구 6』, 1996, 241쪽.

18·19세기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의 22%⁴³⁾와 14.5%⁴⁴⁾ 비교하면 대단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⁴⁵⁾ 임원록 기간 내 상주 출신으로 문과에 합격한 52명 중에서 30명이 도원 원장을 거친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이는 서애·우복학단의 경세가적 특성과의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다섯째, 서원 수의 증가와 역량을 가진 인사 감소 등으로 인해 원장을 지낸 다수가 다른 서원의 원장을 중복해 역임했다. 이러한 현상은 18세기 후반부터 영남지역 서원의 보편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도원 성격의 일면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당대 영남을 대표한 이만부는 도남[1729]·덕천서원[1721] 원장을, 권상일은 도남[1723]·옥동[1726]·도산서원 원장[1733]을 차례로 지냈다.⁴⁶⁾ 이뿐 아니라 상주의 같은 남인계 사액 서원인 옥동서원에는 무려 23명이 원장에 취임을 했다. 주로 도원 원장을 먼저 수행한 다음 옥동서원 원장에 취임한 사례가 많았다. 또 도원과 동질성이 큰 서애학파의 근거지인 병산서원 원장은 19세기에만 등장을 한다. 풍산류씨 愚川派 일원과 상대적으로 고위직에 오른 부사 이건기⁴⁷⁾·승지 이휘령⁴⁸⁾·교리 김종희⁴⁹⁾ 그리고 정종로의 증손자 정윤우 등이 그 대상이었다.

43) 우인수, 「조선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2013.

44) 김명자, 「조선후기 屏山書院 院長 구성의 시기별 양상」, 『한국서원학보』 6, 2018.

45) 참고로 경주 옥산서원 원장의 경우 17세기 유학 신분이 34.2%, 18세기 70.5%, 19세기 67.8%나 차지했다. 이병훈,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운영과 역할」,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43쪽.

46) 홍상민, 강세륜도 도남·옥동·도산서원의 원장을 지냈다.

47) 이건기는 이만부의 현손으로 정종로 문인이다.

48) 이휘령은 이항의 10대손으로 도산서원[1842, 1846~48]과 병산서원[1843]의 원장을 지낸 후 1853년 도원 원장에 초빙되었다.

49) 金榮祖의 7대손으로 1835년(헌종 1) 문과에 급제했으나 한 번도 관직에 나아가지 않아 '南州高士'로 불렸다.

Ⅲ. 도남서원 지식 네트워크 활동의 실제

도원을 논하면서 시회와 문회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후기 서원의 다양한 모습과 지식 네트워크의 실체를 보여주기에는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대상이라 생각한다.

낙동강은 상주의 동쪽에 있다. 상주 사람들은 낙동강을 끼고 삶의 터전을 이루었고, 낙동강의 물로 농사를 경영했으며, 선비들은 낙동강을 조망하며 시를 읊은 특별한 강이다.⁵⁰⁾ 上洛·洛陽·洛邑으로 불린 상주는 낙동강의 고장으로 불리도 전혀 손색이 없다. 지역의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李堧은 ‘낙동강에는 신비로운 거북이 나온다’ 했으니,⁵¹⁾ 곧 상주는 洪範의 원본이 되는 神龜의 출현지라는 의미이다. 상주 선비들의 낙동강에 대한 강한 자부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상주 땅 동남으로 흘러가는 낙동강은 북쪽 三灘津 ⇨ 檜洞津 ⇨ 飛鸞津 ⇨ 竹岩津 ⇨ 洛東津까지 30리 수로가 펼쳐져 있다.⁵²⁾ 상주에 301개에 달하는 누정이 분포한 것도 낙동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⁵³⁾ 특히 30리 수로에는 명승지 擎天臺, 首학궁 도원, 류진의 수암종택, 영남 3대 누각인 觀水樓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그리고 위쪽 경천대와 아래쪽 관수루 사이에 위치한 도원은 상주 낙동강 구간 명승지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⁵⁴⁾

조선후기 상주를 대표했던 시회·詩社로는 ‘淵嶽文會’, ‘洛江詩會’, ‘秋水社’ 등이 꼽힌다. 3개의 단체 중 도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서 가장 오랜 기간 존속하며 지역 사족사회에 영향을 준 것은 ‘낙강시회’였다. 이를 통해 서

50) 임재해, 「낙동강으로 읽는 상주의 문화와 인물」, 『낙동강을 품은 상주 문화』, 상주박물관, 2012.

51) 이진, 『(국역) 월간선생문집』, 「壬戌之秋七月既望泛舟東江同遊凡二十五人以赤壁賦從頭分韻得之字」, 2008.

52) 『상산지』, 「산천-낙동강」.

53) 상주문화원, 『상주의 누정록』, 2008.

54) 황위주, 「낙동강 연안의 유람과 창작 공간」, 『한문학보』 18, 2008, 1295쪽.

원의 지식 네트워크의 실재를 조명해 보려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연약문화’에 대해 잠시 살필 필요가 있다. 연약문화는 조선시대 상주에서 최초로 공동 시문집을 낸 시회이자 낙강시회의 모범이 되기 때문이다. 연약은 상주의 명산 甲長山 북쪽 정상부 九龍淵에서 유래했다. 경관이 무척 빼어난 갑장산은 서원·서당·누정·종택 등이 망라되어 있는 상주문화의 淵藪인 유서가 깊은 공간이다.⁵⁵⁾ 그 중에서 목사 신잠이 세우고, 손수 편액을 건 연약서당은 갑장산 문화권의 일등 교육기관이었다. 그러나 연약서당은 임란 당시 소실되고 만다. 이를 애석히 여긴 康應哲이 동몽재 옛 터에 작은 집을 지어 ‘淵岳書屋’이라 편액을 걸어 유식의 장소로 삼았다.⁵⁶⁾ 참고로 강응철은 처남 정경세와 더불어 17세기 초·중반 상주학풍을 주도한 인물이다.

1622년(광해군 14) 5월 25일 상주목사 趙繼韓이 사위를 대동해 서옥을 내방했고, 이 소식을 접한 여러 벗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내방의 목적은 강학이었고, 여흥으로 문화가 개최된 것이다. 정경세와 이준은 일찍 도착해 목사를 맞이했다. 앞의 두 사람과 전식에게도 편지로 기별했으나 병으로 인해 움직이지 못했다.⁵⁷⁾ 3명은 이미 중앙정계에 있을 때부터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 이들의 이러한 만남은 처음이 아니었다. 조찬한은 상주목사 부임 전 1614년(광해군 6) 榮川郡守 재직 때 朴檜茂⁵⁸⁾의 정자인 六友堂에서 이준과 相韻을 나누는 바 있다.⁵⁹⁾ 상주에 와서도 이준의 溪堂, 류성룡의 별서 鳳笙亭, 仙遊洞에서 詩遊를 즐겼고, 멀리 충청도 葩串까지 유람하는 등 수시로 모여 우의를 다졌다. 詩賦에 정평이 있는 조찬한은 그 감회를 詩로 남겼음은 당연했고,⁶⁰⁾

55) 김학수, 「상주지역 갑장산 유교문화」, 『갑장산』, 상주박물관, 2016, 85쪽.

56) 강응철, 『南溪集』 권4, 「부록-淵藪書院上樑文」.

57) 전식, 『사서집』 권4, 「書-答鄭景任」·「答李叔平」.

58) 박희무[1575~1666] : 본관 반남. 호 옥우당. 박승임의 손자로 정구와 정경세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59) 조찬한, 『(국역) 玄洲集(상)-2』 권6, 「次蒼石星巖韻」,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60) 조찬한, 『앞의 책(상)-1』 권5, 「蒼石溪堂會愚伏鄭經世」, 2019.

둘과의 인연을 ‘鷄黍夢’으로까지 표현을 했다.⁶¹⁾

연악에서의 모임은 바로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악 일대는 상주 선비들이 즐겨 찾던 유상처이며, 시회가 꾸준히 열린 곳으로 낯선 공간이 아니었다.⁶²⁾ 이준은 문회록 서문에 이때를 아래와 같이 회고했다.

(중략)

이 사람 저 사람 주고받는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은 비록 아무런 격식이 없이 어울리는 뜻에 나왔으나 그래도 서로가 권면하는 것은 서로 경계하고 바로 잡아주는 뜻이 아닌 게 없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끝내 추구하는 사실은 술이 깨고 나면 그때의 일에 대해서 뒷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술을 깨었다가 다시 뒤쫓다가 깨면서 옛날 사람들의 聯句의 시를 본떠서 글 짓는 재미로 삼기로 했다. 흰 눈썹에 야인 복장을 한 사람들이 산 속을 흰하게 비추니 마치 그림 속에 있는 도사의 모습 같았는데 이렇게 지낸 것이 4일간이었다.⁶³⁾

추최자 강응철이 마련한 술과 연주에 음악까지 어우러진 문회는 격식 없이 4일간 이어졌다.⁶⁴⁾ 재미 삼아 10명이 지은 「淵巖聯句」 시 1수와 ‘여러 친구들이 행차하여 무리지어 다닐 때 나이도 잊고 친구들 사귄데 격식을 버린 다(群行忘先後 朋息棄拘儉)⁶⁵⁾라는 글자로 分韻해 10수를 지었다. 마지막은 먼저 돌아간 조목사가 참석자들의 작품을 玩賞한 뒤 문회의 장소·인물·광경·감회 등을 시간별대로 정리하여 시상을 마무리했다. 그는 이 문회를 무릉도원에까지 비견할 정도로 값진 경험이었다고 술회했다.

61) 鷄黍夢 : 닭 잡고 기장밥 지어 대접하겠다는 약속을 말하는데 친구 사이의 우의가 깊어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로 쓰인다. 조찬한, 『앞의 책(상)-1』 권5, 「蒼石溪堂會愚伏鄭經世」, 한국학호남진흥원, 2019.

62) 권태을, 「尙州 淵巖圈 詩會研究」, 『상주문화연구』 제3집, 1993.

63) 김정찬 譯, 『淵巖門會錄』, 「序文」, 상주박물관, 2009.

64) 4일이나 서옥에 머문 이유는 폭우 때문이며, 목사는 공무로 25일 당일 먼저 자리를 떴다.

65) 이 운자는 한유의 「陪杜侍御遊相西兩寺」 시 중에서 4구의 ‘群行忘先後 朋息棄拘儉’을 취한 것이다.

어떤 성향의 인물이 문회에 참석한 것일까? 목사와 그 사위는 논외로 하면, 문회 참여자는 정경세·이전·이준·金憲·黃廷幹·金遠振·강응철·金安節·趙光璧·金知復·康用侯·許翀龍·金縝 총 13명이다.⁶⁶⁾ 이들은 넓게는 남촌,⁶⁷⁾ 좁게는 연악권 일원에 세거했다. 이 중에서 강응철의 아들 강용후와 문인 허충룡·김진은 모임의 핵심 同人으로 볼 수 없다. 나머지 10명 가운데 김안절을 제외한 9명이 서애문인이라는 학문적 동질감 그리고 전원이 도원 창건에 참여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나아가 거개가 본인 내지 후손들이 정경세에게 입문하여 사승관계를 맺는 동시에 김지복처럼 도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서원 운영에도 적극 참여를 하였다.⁶⁸⁾

이제 본고가 주목하는 ‘낙강시회’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낙강시회에 대한 문학적 연구는 상당 부분 밝혀졌고,⁶⁹⁾ 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에 여기서는 도원과의 관계 및 시회의 인적구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조선시대 서원의 지식 네트워크 기능이 곧 지식 확산과 결속이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구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도원에서 실시된 시회·문회는 크게 3가지 갈래로 전개가 되었다. 世傳된 기록에 따라 공동시집을 엮은 ①『임술범월록』의 ‘壬戌詩壇’, ②『洪判官韻』의 ‘木齋詩壇’,⁷⁰⁾ 그리고 개별 학자들이 남긴 ③‘문회’ 및 ‘시회’로 구분할 수 있다.

①은 1607년(선조 40)부터 1778년(정조 2)까지 171년 동안 8차례 시회를 개최해 序·跋 21편, 詞·賦 4편, 시 119수가 전한다. ②는 1663년(현종 4)부터 1798년(정조 22)까지 135년 간 홍여하의 ‘道南書院講堂重修詩’에 대를 이어

66) 연악서당이 1702년(숙종 28) 서원으로 승격할 때 강응철이 제향되고, 1726년(영조 2) 조광벽·강용량은 추향이 된다.

67) 상주목의 남쪽 일대인 靑南面, 靑東面, 功西面, 功東面을 말한다.

68) 채광수, 「앞의 논문」, 2020, 21쪽.

69) 권태을, 「洛江詩會 研究」, 『상주문화연구』 제2집, 1992 ; 권태을, 「앞의 논문」, 1996.

70) 이구의, 「낙강범월시 해제」, 『(역주) 낙강범월시』, 아세아문화사, 2007.

차운한 序 3편과 시 109수를 남겼다. ③은 양쪽 시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만부·권상일·정종로처럼 서원 강화 후 진행한 문화와 시회가 있었다. 이를 통칭해서 ‘낙강시회’라 부른다. 모두 도원을 근간으로 활동을 했고, 낙동강을 주 무대로 삼은 공통점이 있다. 자료적 비중은 본 시회를 도원의 전통으로 안착의 계기를 마련해 준 ①과 구체적 실상이 비교적 소상히 담겨있는 ③이 높다. ②는 이를 보완해주는 자료이다. 이를 고려하여 ①과 ③을 중심으로 그 활동 양상을 서술해보려 한다.



[승江船遊錄 ; 상주박물관 제공]

1. 선유와 시회를 통한 지식 네트워크 - ‘임술범월회’를 중심으로

도원은 낙동강 가에 위치하여 뱃놀이가 무척 용이하다. 더구나 낙동강 상주 구간은 물결이 잔잔하고, 다른 곳과는 달리 좌우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또 산기슭과 물이 닿는 지점 곳곳에 위치한 기암절벽들 사이에는 누정들이 포진해 있다. 아래 정종로의 말이 그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우리 상주의 도남서원은 바로 낙동강 가에 임하여 강과 산이 넓고도 그윽하

니 영남의 좋은 구역이라고 부른다. 아, 서원을 창설한 이후로 선배 유자들이 가운데 무릇 여기에 의귀한 이들이 진실로 이해 이날을 만나거나 혹은 임술년이 아니더라도 이날을 만나면 반드시 서로 더불어 앞 강물에 배를 띄워 놀이를 하고, 또 적벽부로 분운하여 시를 지어 그 흥을 적어 내었다.⁷¹⁾

도원 낙성 이듬해인 1607년 9월 처음 배를 띄워 시회를 가졌다. 새로 부임한 수령 김정목의 서원 방문에 따른 歡迎宴 일환으로 개최된 것 같다. 참석자는 상주 출신 전·현직 관료들로 구성되었다. 해당 시회는 도원에서 가진 첫 시회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때 읊은 30韻 60句의 聯句詩의 내용을 보면 단순한 선유가 아니었다. 임란 의병활동 당사자들이 참석한 시회 성격상 당시 울분의 심정과 憂國을 추동하는 자리였다.⁷²⁾ 상주의 역사와 문화를 집약한 『상산지』까지 수록되어 있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⁷³⁾ 이후 개최된 ‘임술범월시회’의 활동 내역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한 것이 <표 2>다.

임술범월회의의 출발점과 본 시회를 도원의 전통으로 확고히 정착시킨 당사자는 애향심이 남달라 향중의 존경을 받은 이준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1622년 7월 시회는 오로지 國士적 선비들이 망라했으며, 후대 시회의 전범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 했다.⁷⁴⁾ 따라서 본 시회의 소개만으로도 ‘임술범월시회’의 양상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할 듯하다.

71) 정종로, 『앞의 책』 권2, 「시-東坡赤壁之遊 膾炙千古 誦其賦者 莫不想像而禮讚之 每遇壬戌七月既望 則思欲泛舟弄月 以辦勝遊 吾商道院 正臨洛水之上 江山曠幽 號爲嶺中勝區 粵自創設以後 先輩繼夜之凡依歸於此者 苟遇是年是日 或雖非是年而遇是日 則必相與泛舟前江而遊 又用赤壁賦分韻賦詩 以寫其興 蓋至去壬戌而遵古無廢 至於今日 則我正考終祥甫過於前月 故臣民之情 感涕未已 不忍遽事遊遊而泛月故事遂廢焉 非盛德至善 有使人沒世不忘者 何以如是 聊賦一律以識, 경북대학교출판부, 2017, 106쪽.

72) 권태을, 앞의 논문, 1992, 85쪽.

73) 『상산지』, 「文翰-題詞」.

74) 권태을, 「앞의 논문」, 『상주문화연구』 2, 1992, 87쪽.

〈표 2〉 임술범월시회 개최 현황

개최연대	시회 제목	참석자
1607년	洛江泛舟詩會	金廷珪·趙翊·이준·전식·趙戩·김혜·황정간
1622년 7월	蒼石洛江泛月詩會	李希聖·조정·이전·이준·강응철·김혜·김지복·金廷獻·柳珍·趙又新·李大珪·韓克禮·金堅·李元珪·李文奎·李身圭·禹處恭·丘山立·孫胤業·全湜·全克恒·全克恬·趙光虎[조찬위·金廷賢]
1622년10월	蒼石洛江泛月詩會	이준·丘希炭·손운업·金音+業·이원규 외 15인
1657년	湖翁洛江泛月詩會	曹拔驪·조릉 외
1682년	四友堂洛江泛月詩會	조릉·趙大胤 외
1768년	靜窩洛江泛遊詩會	金致龍·李世峰·趙敏經·趙錫册·曹錫中·申宅仁·洪天休·趙錫喆·趙益經·趙錫魯·趙錫龍·金致元·徐佑漢·趙禮和·趙之經·柳光漢·趙錫玉
1770년	芝翁洛江泛月纒遊	曹景稷·金守鼎·조천경·鄭緯相·李增述·邊屋·蔡穀·琴一協·趙亨經·全始復·柳聖霖·全克渾·李師膺·金光五·金光澈·權綬·金履常·金益彬·金光溥·曹顯國·黃翊休·柳聖穆·李厚根·李承延·高衡瑞·金白彬·王虎臣·李堯佐·金光七·姜世師·李華國·류광한·郭起孝·王俊臣·金光九·金彦高·李堯臣·柳光謙·琴英澤·金克禮·金宗運 追到 - 申漢台·조석봉·李東燮·柳必天·李秉燮·柳復天·河世淹·申慶麟·盧處元·盧允文·柳聖愚·柳雨+油·盧起文
1778년	姜世魯洛江泛月遊	姜世魯·康思欽·鄭泰巖·金南璣 외

시회는 1622년 7월 16일~17일 양일간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되었다. 당초 조목사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병환으로 걸음하지 못하고 후일 시만 보내왔다. 그는 이미 전년 늦봄에 선유를 체험한 바 있다.⁷⁵⁾ 김정견 또한 조목사와 동일했다. 시회 발의자 이준은 '소동파의赤壁놀이는 고금에 공경하여 사모해 부러워하는 바요, 우리들이 賦 짓는 재주는 없으나 정경에 촉감하여 흥취를 이룬즉 굳이 옛 사람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다'⁷⁶⁾라며 개최의 사유를 밝혔다. 그는 1082년[임술] 7월 송나라 蘇軾이 호북성에서 赤壁賦를 남긴 9甲을 맞이해 이를 재연하기 위함이라 덧붙였다.⁷⁷⁾

75) 조찬환은 상주에 복거를 계획했으며, 목사 재직 때 상주관련 여러 문자들을 남겼다.

76) 이준, 『(국역) 추금록』, 「추금록 서문」, 상주박물관, 2012.

이준은 상주를 文鄕의 반열에 올린 인물 중 1명이다. 그는 鄕風의 진작을 위해 읍지 편찬, 향약 보급, 학교의 활성화, 향현사 설립, 기로회 제안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 당대 문장가답게 스스로 많은 문자들을 작성했는데 그중에서 詩에 주목해 보면 그 분량이 상당하다. 그의 『蒼石集』에는 무려 530수가 전할 뿐 아니라, 완상할 만한 본인의 시를 선별해 묶은 별도의 『籌金錄』을 남겼다. 개인적으로 경치를 보며 시 읊는 일을 좋아했기 때문이다.⁷⁸⁾ 정치가이자 걸출한 시인으로 알려진 이수광은 백지어를 흠모한 이준의 시에 대해서 ‘풍부하고 상세하게 통달한 시라 칭송하며, 화려함에 치중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됬됨이와 같다’는 평을 남겼다.⁷⁹⁾ 청백리로 이름난 이원익도 이준이 보내준 시를 아들에게 가보로 삼게 할 정도로 뛰어난 작품성을 자랑했다.⁸⁰⁾

이들은 앞서 ‘연악문화’의 구성원과 성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명단에 낙향해 있던 정경세가 보이지 않는 것은 다소 의외이다. 도원의 원장 조정이 가장 연장자이고, 1616년생 이전의 3남 이신규가 최연소자다.⁸¹⁾ 1550~60년대 생과 그 아래 세대로 양분되는데 후자는 아들 대 인물들이다. 주축자 이준의 아들 3명과 조카·사위 각 1명이며, 전식의 아들 2명도 동석을 했다. 이밖에 이준의 문인이면서 그의 차남 이원규와 매우 가까이 지낸 조우신이 있다.⁸²⁾ 세대를 아우르는 시회의 시작점은 바로 도원이었다.

77) 이준 외, 「낙강범월 序」, 『(역주) 낙강범월시』, 아세아문화사, 2007, 35~36쪽.

78) 이준, 앞의 책, 2012.

79) 李敏求, 『추금록』, 「추금록 발문」, 상주박물관, 2012.

80) 이원익은 자신의 묘지명을 이준에게 부탁할 만큼 서로 교분이 두터웠다. 이원익, 『(국역) 오리선생문집』 권1, 「鄕障花草帖」, (주)추현, 1995, 55~56쪽 ; 또 향인 孫胤業은 이준을 詩山으로 표현해 하지않았다. 손윤업, 「得夏字」, 『앞의 책』, 아세아문화사, 2007, 104쪽.

81) 李希聖, 韓克禮, 金墜, 禹處燕, 丘山立 5명은 출생연도가 파악되지 않아 제외했다.

82) 蔡瀛徵이 지은 조우신 행장을 이원규의 말로 매듭지는 것도 이러한 관계를 감안했기 때문이다. 채헌징, 『(국역) 愚軒先生文集』 권4, 「행장-白潭趙公行狀」, 愚軒先生文集重刊委員會, 1996.

본격적인 선유에 앞서 참석자들은 도원에 집결해 사당 道正祠에 배알 의식을 치렀다.⁸³⁾ 강응철의 문집에 당일 시제를 ‘泛舟道南前江分韻得七字’라 명명하면서 알 수 있듯 이들은 도원 앞에서 두 척의 배에 올랐다.⁸⁴⁾ 서원의 누각 옆 詠歸門 밖에서 배를 출발시켰다.⁸⁵⁾ 이 배가 도원의 것인지 그리고 배의 규모가 어떠한지는 확인되지 않는다.⁸⁶⁾ 참석인원을 참작하면 약간 규모가 있는 사당나무로 제작한 돛단배를 사용했을 것이다. 첫날⁸⁷⁾의 선유는 도원에서 낙동강 하류로 내려가 ⇨ 龜巖 ⇨ 楓湖 ⇨ 簞岩을 경유해 도원으로 다시 귀로하는 일정으로 기획되었다.

먼저 구암은 현 중동면 신암리 兎津나루 뒤 산 退治巖 밑에 있는 천연 石臺이다. 거북 모양의 큰 바위 뜻을 가진 구암은 임란 때 運餉使로 활약한 姜績의 소유였다. 그는 이 터를 얻고서 구암이라 명명했으며, 자호로 삼았다. 선조 초기 우의정을 지낸 姜士尙이 바로 그의 백부이며, 1619년(광해군) 도원수로 후금 정벌에 나섰던 강홍립은 族姪이다.

구암을 잠시 감상한 뒤 도남팔경 중 제 4경 풍호로 이동했다.⁸⁸⁾ 풍호가 있는 長川일대는 풍양조씨 동성촌이 형성되어 있다. 강 연안의 풍호 주인 역시 풍양조씨 家의 일원 趙徽가 遊食한 정자였다.⁸⁹⁾ 5·6세 때 詩作을 선보여 신동으로 이름을 떨친 조휘는 1567년(선조 즉위년) 생원시 장원으로 입격한 뒤, 이듬해 바로 문과에 급제한 인물이다. 이러한 출중한 능력과 함께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선비였기에 정자를 세운 것이다. 그러나 풍호의 내력에 대해서 더

83) 趙靖, 『黔澗集』, 「연보-1622년(임술)」.

84) 강응철, 『南溪集』 권1, 「詩-泛舟道南前江分韻得七字」.

85) 권상일, 『(국역) 청대일기』 2권, 「1724년 윤4월 11일」, 한국국학진흥원, 2015, 367쪽. 시회를 그린 『함강선유록』을 보면 도남서원 바로 아래에 배를 띄우고 있다.

86) 현전하는(상주박물관 소장) 도원 『傳掌記』에는 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같은 낙동강가에 위치한 현풍의 도동서원의 경우에는 배를 소유하고 있었다.

87) 이만부, 『息山先生文集』 권17, 「記 - 上洛文會記」.

88) 柳欽睦, 『克菴文集』 권1, 「시-道南八景 并序-40」.

89) 조휘는 조정의 조부 禧와 재종간이다.

이상의 기록을 상고할 수 없는 점이 이쉽다.

점암은 류진의 8대손 류흠목이 어느 곳인지 알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한 승경이다.⁹⁰⁾ 다행히 『상산지』 樓觀條에 ‘洛濱에 典翰 金弘敏의 所卜인데, 지금은 서원의 것이 되었다’⁹¹⁾라는 점암의 설명이 수록되어있다. 짧지만 두 가지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점암이 소재한 烏巖현 도남동 일대는 고려시대부터 김홍민의 상산김씨 內苑令과의 田莊이 산재해 있는 거처이기에 언급한 것이다. 그러다가 도원이 창건되자 점암을 서원에 편입시켰다. “점암 아름다운 곳에 儒宮을 세워...”⁹²⁾라는 이전의 시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아마 도원이 세워진 無任浦 근방의 바위 어디로 추정이 된다. 여기에 정박해 언어 회 안주에 술을 곁들이면서 시를 읊었다. 깊은 밤까지 계속되었다. 이준의 3남 李文圭가 ‘遊자를 얻어 쓴 시에 첫날밤의 풍경을 이렇게 노래했다.

이윽고 달이 구름 틈으로 나오고, 하늘이 시인을 위해 멋진 놀이 제공하네. 끊임없는 범패 소리 절에서 들려오고, 점점이 고깃배 불은 물가 섬에서 반짝이네. 강이 텅 비니 때로 은어 뛰는 소리 들리고, 노 저어 나아가니 나는 白鷗 만나네. 서늘한 바람 문득 양 겨드랑에서 나누는가 싶은데, 온갖 경치 다 다가와 두 눈에 드네. 간드러진 통소 소리 어디서 나는가, 응당 천 길 못 속의 虬龍도 춤을 추리. 용궁이 처량하니 오래 머무를 수 없어, 돌아오니 옥 이슬이 옷을 적시네.⁹³⁾(이하 중략)

달이 뜬 밤에 들려오는 범패 소리는 아마 도원 동쪽에 있는 靑龍寺에서 들려왔을 것이다. 청룡사는 도원의 屬寺⁹⁴⁾로 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자 원생의 휴식처로 기능을 한 사찰이다.⁹⁵⁾ 통소가 어우러져 규룡까지 춤추게

90) 류흠목, 앞의 책, 권1, 「시-道南八景 并序-40」.

91) 『상산지』, 「樓觀-점암」.

92) 이전, 「得之字」, 앞의 책, 2007, 46쪽.

93) 이문규, 「得遊字」, 앞의 책, 2007, 95쪽.

94) 도원은 청룡사 외 상주 김룡사와 대구 동화사에도 院奴가 거주하고 있었다. 김영나, 「조선후기 경상도 서원노비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00쪽.

한 놀이를 만끽한 뒤 배를 타고 다시 도원으로 돌아와 숙박을 했다. 서원에서
의 숙박은 빈번한 일이었고, 관련 기록도 어렵지 않게 산견이 된다. 이를테면
1832년(순조 32) 류후조 등이 낙강선유를 한 당시에도 도원에 유숙하며 시를
지은 기록이 남아있다.⁹⁵⁾

다음날 술을 실은 배는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낙동강의 제1경 경천대로 향
했다. 읍치 동쪽 20리 낙동강 상류 지점의 경천대는 蔡壽의 현손 蔡得沂가
병자호란 후 이곳 玉柱峰 아래 초가와 舞雩亭을 지어 여생을 보낸 寓居所다.
원래 기이한 바위가 높이 쌓여 天作으로 臺를 이룬 까닭에 ‘自天臺’라 불렀
다. 하지만 채득기가 살고부터 사람들이 ‘공은 하늘을 떠받드는 의리가 있다’
고 하여 ‘경천대’라는 명칭을 붙였다.⁹⁷⁾ 증손인 蔡休徵이 증조부의 尊華攘夷
정신을 기리기 위해 암벽에 ‘大明天地 崇禎日月’을 새겼다.

경천대는 효종과 관련된 일화가 전한다. 채득기는 심양에서 주치의로 효종
을 극진히 보필해 충애를 받았다.⁹⁸⁾ 환국 후 효종은 그에게 출사를 권유했으
나 나오지 않자 대신 화원을 보내 그가 사는 경천대를 화폭에 담아오게 해
御屏을 만들어 옆에 두고 감상했다고 한다.⁹⁹⁾ 28경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
하는 경천대를 두고, 김상헌·이식·최명길·李沃·이만부·권상일·송명흠·류주
목 등 여러 문사들이 방문 또는 전언을 듣고 쓴 글들이 즐비하다.

다음날, 애초부터 함께할 예정이었으나 비 때문에 차질을 빚은 전식 부자
도 경천대에서 합류를 했다. 臺 왼편 玉峯에 하선해 명승지 龍沼와 龜巖을 두
루 탐승했다. 용소는 용이 거처하고 있어 수재나 가물 때 빌면 應驗한다하여
붙여진 명칭으로 雩潭亭 아래에 있다. 구암은 큰 돌이 강 속에 있는데 가운데
가 불룩한 게 마치 살아있는 듯한 거북 형상의 바위이다.¹⁰⁰⁾ 다만 강물이 적

95) 『상산지』, 「사찰- 청룡사」. 권상일, 『(국역) 청대일기』 2권, 「1727년 1월 26일」.

96) 상주박물관, 『낙유첩』, 『宿道南書院』, 2020, 45~6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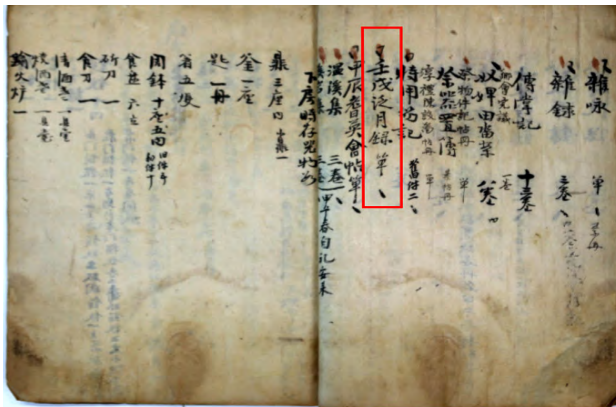
97) 류후조, 『앞의 책』, 「행장-雩潭蔡公行狀」.

98) 채득기는 호란 직후 심양행을 명령 받았지만 병을 이유로 거부하여 보은현에
3년간 유배되었다. 해배 후 1638년 다시 심양에 파견이 되었다.

99) 김기탁, 「雩潭 蔡得沂의 樓亭詩歌 연구」, 『상주문화연구 1』, 1991, 163쪽.

막하고, 차가워 오래 머무르지는 못했다. 다시 노를 저어 석양이 질 무렵 伴鷗亭에 당도했다. 당시 반구정은 趙靖의 둘째 동생 趙紘의 소유였다. 그러므로 이들은 부담 없이 반구정에 올라 시회를 열었다. 적벽부의 머리글 ‘壬戌之秋 七月既望 蘇子與客 泛舟遊於赤壁下 清徐來水’를 韻子해 글을 지었다. 통소와 거문고 연주로 흥취를 더한 가운데 25명이 508聯句의 공동 장편시를 창작했다. 10월에 재차 모이기로 약속한 뒤 선유는 마무리가 되었다.

시집이 완성되자 이준은 서문 끝자락에 중요한 당부를 적기했다. ‘간략히 일의 전말을 써서 책머리에 놓아 도원에 갈무리하여 뒷날 이 놀이를 잇는 자의 선구가 되고자 한다’라는 말이 그것이다. 도원을 출입하는 후학들에게 시회의 전통을 계승하기를 피력한 말이다. 이후 도원의 시회를 통한 연대와 결속, 다시 말해서 이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견인하는 계기를 제공한 셈이다. 실제 도원의 후학들은 <표 2> 뿐 아니라 한말까지 이준의 당부를 충실히 수행하고 전승시켜 나갔다. 아래의 사진은 그 증거 중 하나로, 도원의 임원 교체 시에 작성하는 『傳與記』에 「임술범월록」이 온전히 수록되어 있는 모습이다.



도남서원 傳與記(상주박물관 소장)

100) 류주목, 『自天臺記』; 이만부, 『息山先生文集』 권17, 「記-上洛文會記」. 현재 경천대에서 구암은 보이지 않는다.

이후 상주에서 결성되는 ‘秋水社’와 ‘竹雨社’의 구성원 역시 도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¹⁰¹⁾ ‘추수사’는 1784년(정조 8) 鳳姜北李라 불리며 세 의가 돈독한 봉대의 진주강씨와 북곽의 연안이씨가 주축이 되어 관아의 二香亭에서 조직된 시사이다.

강·이 家는 근기 남인적 성향이 짙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시사의 핵심 회원인 이경유의 경우 기존 임술범월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1804년(순조 4) ‘추수사’를 계승한 ‘죽우사’는 앞의 양 가문 후예에 더해서 홍양이·장수환·진주정·풍산류씨가 참여하면서 명실상부한 지역의 대표 시사로 자리매김했다. 그 참여자들의 면면은 아래와 같다.

〈표 3〉 추수사와 죽우사 구성원

추수사	죽우사
이경유, 李挺儒, 李承延, 姜世白, 姜世淸, 姜必岳, 姜世晉, 姜鳳欽, 姜世文, 申匡稷, 姜長欽, [李承輝, 朴宗樞, 金岳柱 ¹⁰²⁾	강세진, 李承延, 강필악, 강세문, 이경유, 강세백, 姜世綸, 姜世淸, 姜世間, 姜世揆, 이진기, 강봉흥, 강장흥, 姜龍欽, 정종로, 鄭象觀, 鄭象履, 정상진, 이승배, 李學培, 황반로, 黃麟老, 류십춘, 趙承洙, 姜哲欽, [박중추, 김약주]

〈표 3〉에서 진한 이름은 도원 원장과 재임을 지낸 인사다. 재임은 姜世間과 鄭象履 두 명 뿐이고, 나머지는 원장을 역임했다. 상술한 바대로 18세기 후반 ~ 19세기 도원의 주도권을 가진 성관들이자 지역의 명문 사족들이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죽우사의 경우에는 정종로의 문인들이 여럿 보인다.

아무튼 서원과 시사 세력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상주 시사의 길을 연 이래 지역 사회·시사 결성과 활동의 母胎라 할 수 있는 의의를 가진다. 渭川과 낙동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명승지 淸江亭의 주인 金光轍이 1770년(영조 46) 7월 뱃놀이 후 남긴 「詩眞訟」은 이 같은 물음에 대한 좋은 답이 될 것 같다.

101) ‘秋水社’와 ‘竹雨社’에 대해서는 상주박물관 김주부 박사가 제공해주신 자료로 정리한 것이다.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02) 李承輝는 4세, 朴宗樞와 金岳柱는 향리이다.

지난 1770년 7월 뱃놀이도 실은 천계 임술년의 일을 잇는 것이었다. 장로는 다 上洛의 덕망 있는 노인들이요, 젊은이도 동남방의 名勝 아님이 없었다, 뜻을 나란히 하고 돛대를 묶어 만경창파를 넘으며 술을 싣고 달을 띄워 몇 날의 한가한 놀이에서 각기 四齋詩 여러 편을 읊어서 뛰어난 놀이를 기록하되, 이미 전후의 이름 첩과 記·序·詩·賦 제 작품을 모아서 한 책에 싣고 이름하여 『낙강범월록』이라 하니, 그 사이 풍류를 이는 호걸인사가 소문을 듣고는 추가 和韻한 자가 또한 무수하다.¹⁰³⁾

2. 강학과 시회를 통한 지식 네트워크 —이만부·권상일·정종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서원은 ‘尊賢養士’ 곧 교육과 제향이 핵심 기능이다. 조선에 서원 제도를 보급·정착시킨 퇴계가 둘 중 교육을 더 중요시 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퇴계를 모신 도원은 지속적으로 강학이 전개된 서원으로 손꼽힌다. 서원에서 실시된 강학의 종류에는 居齋, 居齋, 강회, 旬題, 백일장 등이 있다. 안타깝게도 도원의 경우 거재, 거접, 순제를 파악할 만한 직접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제반 비용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 명망가를 초빙해 진행되는 강회 활동은 상당히 활발했다. 서원의 강회는 학문적 성과를 확인 및 공유하는 집단적 교육의 장으로 이용되었다.¹⁰⁴⁾ 율곡은 『隱屏精舍學規』를 제정하며 매월 초하루에 서원에서 강회를 정기적으로 열도록 규정해 그 중요성을 일찍부터 강조했다.¹⁰⁵⁾ 도원에서 18세기 초반 규약이긴 하나 춘추에 날짜에 연연하지 말고 1책을 다 통독한 다음 강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¹⁰⁶⁾

더구나 상주는 정경세·이준·홍여하·이만부·권상일·정종로·류심춘·류주

103) 권태을, 『상주의 한문학』, 상주문화원, 문창사, 2001.

104) 박종배, 「學規에 나타난 조선시대 서원교육의 이념과 실제」, 『한국학논총』 33, 2010, 59쪽.

105) 이이, 『율곡선생전서』 권16, 「잡저 2-隱屏精舍學規戊寅」.

106) 권상일, 『청대선생문집』 권10, 「잡저-도원條約」.

목 등 영남학파의 嫡脈을 계승한 학자들이 배출된 지역이다. 이른바 강회를 주관할 충분한 자격을 갖춘 유수의 학자 群이 형성되어 있는 환경이었다.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강회가 전후 개최하는 시회 부분이다. 도원의 강회와 시회는 지식 확산의 발판이 되었음은 물론이고, 내부의 결속력을 높여준 좋은 매개체로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이만부·권상일·정종로를 중심으로 도원의 강회 뒤 문회의 구체적인 양상을 추적해 보았다. 먼저 이만부는 1697년(숙종 23) 34세 나이로 상주 魯谷으로 이주하며 영남 사람이 되었다. 이만부의 이주는 지역의 학문 발전에 큰 활력소로 작용을 했다.¹⁰⁷⁾ 그는 이현일과의 교류, 각종 저술, 이현일의 아들 李裁 및 권상하의 문인 成晩徵과의 논쟁, 강론, 문인 양성 등 왕성한 학문적 행보를 보여주었다.

앞서 그는 이주한 해 겨울 도원에서 열린 문회와 선유를 겸한 모임에 참석한 바 있다. 아마 지역 인사들과 상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던 것 같다. 1박 2일간 진행된 행사의 참석자는 원장 李葆英과 원생 12명이었다. 첫날은 서원 부근의 숲에 있는 詠歸亭에 모였다. 달빛 아래에 강물은 투명하고, 소나무 그림자가 나부꼈다. 다들 흥취에 젖어 말없이 머물다 야밤에서야 서원으로 돌아왔다. 다음날은 배를 타고 영귀정에서 자천대까지 유람하는 일정이었다. 그는 처음 본 자천대·귀암·石峯·용암·龍潭에 대해서 아주 세밀히 묘사를 해두었다.¹⁰⁸⁾

이어서 1724년(경종 4) 2월에는 講長의 자격으로 도원 강회를 주관했다. 당시 원장 권상일의 요청으로 성사된 장이었다.¹⁰⁹⁾ 이 시기 이만부는 남인 학계에서 大儒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권상일·申正模·吳尙遠과 5일 동안 『근사록』을 강론하고 토론을 벌였다. 『근사록』은 이만부 공부론의 핵심 텍스트이며, 평소에도 그 요점을 뽑아 自撰한 교재를 강학에 활용하였다.¹¹⁰⁾

107) 권태을, 『식산 이만부 문학연구』, 문창사, 1990, 113쪽.

108) 이만부, 『앞의 책』 권17, 「記-上洛文會記」.

109) 권상일, 『앞의 책』 권6, 「書-與李息山」.

강회에 참여한 3명 모두 이만부의 문인으로 볼 수 있다. 권상일은 이만부에 대해 각별한 존경심을 가졌으며, 선생으로 예우를 다하는 모습은 그가 쓴 일기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100리 길을 마다않고 참석한 의성 출신의 신정모는 1715년(숙종 41)에 이만부에게 入門을 청하는 편지를 보내 사제의 연을 맺은 관계였다.¹¹¹⁾ 오상원은 이만부와 같이 경기 파주에서 상주 성북으로 이거한 근기 남인으로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다. 그런 오상원이 1733년(영조 9) 먼저 사망하자 만사와 제문을 지어 애뜻한 마음을 표했다.¹¹²⁾

서원 교육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이만부였지만 이 강회는 근래 흔치 않는 일로서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¹¹³⁾ 강회가 끝난 직후에 권상일이 보내 온 운자에 酬唱한 이만부의 시구에 그런 감정이 잘 녹아있다.

도원의 학문을 하는 모임에, 사립문 열고 안석과 지팡이 옮겨왔지요.
은미한 말씀으로 차례대로 논하니, 품도는 다른 길과는 구별이 됩니다.
강처럼 넓어 연원을 증험하겠고, 산처럼 맑아 기상을 알겠습니다.
조용히 5일 동안의 가르침이, 다음 십 년의 벼슬살이보다 나를 것입니다.¹¹⁴⁾

한편 신정모는 이 강회의 배움 성과를 10년의 독서와 맞먹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자평했고, 이후 『근사록』 관련 다른 의문점들은 편지로 문답을 이어갔다.¹¹⁵⁾ 또李裁에게도 동일한 문제를 보내어 거듭 확인을 받으려는 노력도

110) 신두환, 「息山 李萬敷의 教育思想 研究」, 『한문교육연구』 29, 2009, 426쪽.

111) 신정모, 『二恥齋集』 권2, 「書-與息山李丈-萬敷-乙未·與息山李丈-丙申」.

112) 이만부, 『앞의 책』, 「부록-挽詞」.

113) 이만부, 『앞의 책』 권9, 「書-答河聖則」.

114) 이만부, 『앞의 책』 권2, 「詩-甲辰仲春 權台仲 相-號清臺 與申景楷 正模 來
도원 約吳致重 尙遠 號峩峩 文會 老人亦重違其勤意 擺病而赴 仍留數日 諸君
共讖近思錄 頗有講磨之益 老人以病冗先歸 台仲寄來一律 遂步其韻 屬三君焉甲
辰」.

115) 신정모, 『二恥齋集』 권3, 「答吳致重 尙遠 甲辰」.

포착이 된다.¹¹⁶⁾ 오상원의 경우는 본 강회가 이만부의 문인이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 같다.

다음 권상일은 서원 교육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졌으며, 평생 도남·근암서원 양 서원을 중심으로 활발한 서원 활동을 펼쳤다.¹¹⁷⁾ 그는 25세인 1703년(숙종 29) 처음 도원을 출입한 이래 향사 참석, 문자 찬술, 원장 역임, 강학, 자문 등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권상일은 문과에 합격한 뒤 중앙 관료를 거치면서 지역 내 명성도 높아졌고, 1723년(경종 3)에는 도원 원장에 취임하게 된다. 원장에 있는 동안 瓦役, 편액·屋舍·담장 수리 등 서원 건물 정비와 강론, 정몽주와 오현의 필적 각석·원규 개수·원규 재계시·장서 확보 등 내실화에도 힘을 기울였다.

권상일은 안동 廬江書院에서 강학을 주도한 이상정과 함께 18세기 영남 서원의 강학을 이끈 대표적인 학자로 평가된다.¹¹⁸⁾ 그는 원장 2년차에 신임 목사 송인명의 방문을 맞아 도원에서 첫 강학을 선보였다. 1월 26일 서원에 도착한 송목사는 夾室의 敬齋·義齋 이름을 본 뒤 ‘이는 긴요하고, 절실하니 講을 해볼 만하다’라며 강론 주제로 정해 주었다. 이에 따라 서원에 소장된 『心經』을 가져와 ‘곤괘’의 六二에 대해 「敬以直內章」을 스스로 한 번 읽고, 附註의 마지막 편까지는 권상일이 읽도록 하였다. 그 장의 의심스러운 뜻을 서로 강론하였다. 이어 科文과 『성리대전』 4~5곳, 이기설의 여러 설을 논하며 강학을 마쳤다.

다음날 목사 역시 자천대까지 선유했다. 권상일도 일주일 전 두 차례나 낙동강에서 선유를 즐기며, 공동으로 시를 창작한바 있다.¹¹⁹⁾ 낙동강에서 선유는 도원의 특징적인 성격의 하나로 불만하다. 이후에도 권상일은 1748·49년

116) 신정모, 『이치재집』 권2, 「答與密菴李丈」.

117) 이수환, 「청대일기를 통해 본 권상일의 서원활동」, 『민족문화논총』 62, 2016.

118) 이수환, 「앞의 논문」, 2016, 31쪽.

119) 권상일, 『앞의 책』, 「1724년 1월 21일~27일」, 한국국학진흥원, 2015, 354~361쪽.

에도 강론 및 출제 등 강회를 직접 주관했다.¹²⁰⁾ “우리 고향에서는 淸翁이 돌아가신 이후에 적막하여 ‘강학’ 두 글자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¹²¹⁾ 권상일의 강학 활동을 함축한 정종로의 評이다.

도원은 정종로에게 의미가 특별한 서원이다. 도원의 門樓인 「淸虛樓記」, 강당 중수기 「一貫堂重修記」 등의 문자 찬술과 1816년(순조 16) 생을 마감하기 3개월 전 펼친 ‘도원 강회’가 그러한 인식의 발로였다. 특히 시회와 어우러진 강회는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흥학에 열성적이었던 정종로는 서실, 서당, 존애원, 道存堂 등 강학처에서 지속적으로 강회를 개설했고, 그때마다 수백 명이 운집을 했다. 1798년(정조 22) 9월에는 도원 훈장에 선임되어 상주지역 교육 전반을 관장했다.¹²²⁾ 훈장 선임의 배경은 당대 ‘좌대산 우입재’라 불렸고, 체제공으로부터 ‘경학과 문장이 蔚然하여 영남 제1인자’라는 격찬을 받은 대학자로서의 위상을 지녔기 때문이다.¹²³⁾ 이때 지역 현실에 맞는 강규를 제정해 일향의 서당에 통지하여 교육 환경 개선을 꾀했다. 강규의 요지는 1차적으로 각기 서당·서숙에서 강학을 거친 뒤 講案과 問目을 도원에 통보하고, 다시 우수자들을 모아 강론과 토론하는 것을 관례로 삼도록 한 것이었다.¹²⁴⁾

강회는 이만부의 증손이자 원장 李敬儒의 초청에 응한 덕분에 실행이 된 것이다. 정종로의 문인이기도 한 이경유는 스승의 문장에 대해 “경전이 속에 가득하여 문장이 典雅하다. 그 詩도 그 사람과 같았으니 발을 걸으니 맑은 하늘 나타나고, 미미하게 맑은 이슬 드리웠네” 라며 인품과 학문을 존경해 마지

120) 권상일, 『앞의 책』, 「1748년 윤7월 29일·1749년 3월 3일」, 한국국학진흥원, 2015, 3권 733쪽·4권 32쪽.

121) 정종로, 『(국역) 입재집』 권3, 「書-與趙淸窩」, 경북대학교출판부, 2017, 427쪽.

122) 정석진, 앞의 책, 1975, 314쪽.

123) 우인수, 「입재 정종로의 사회적 위상과 현실대응」, 『조선 후기 영남 남인 연구』, 경인문화사, 2015, 338쪽.

124) 정종로, 『앞의 책』 권6, 「잡저-爲講學事 通各書堂文」, 경북대학교출판부, 2017, 376쪽.

않았다.¹²⁵⁾ 그는 1816년 3월 79세의 노구를 이끌고 도원에 도착해 영남 좌·우도 11개 고을에서 수백 명이 걸음한 가운데 『중용』을 통독했다. 통독 후 개인적 물음에 일일이 응대했음은 물론 분석과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는 열의를 보였다. 잠시 쉬면서 하리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상을 받들려고 멀리서 왔으니 그 뜻을 저버릴 수 없다’ 라며 하루 종일 강행을 하였다. 또 다른 문인 李升培는 이날 강회의 분위기에 대해 ‘[정종로] 음성은 맑고도 우렁차서 세찬 비가 쏟아지듯 마치 강하의 물길을 띄워 바다로 들게 하는 것 같아서 듣는 이가 다 충족하여 기뻐하고 감복하였다’라고 회고했다.¹²⁶⁾ 강회가 끝나자 백일장과 선유의 시간을 가졌다. 백일장에서는 孫鎭岳의 손자가 장원을 차지했고,¹²⁷⁾ 이어 도원에서 배를 띄워 물길을 거슬러 자천대에 이르렀다. 그도 여느 선배들처럼 율시 한 수를 지어 선유를 기념하였다.

예전에는 강가 서원에서 이 가을을 만나면, 선배들이 서로 불러 배 띄워 달을 감상했네. 동파의 문장에야 누가 비슷할 수 있겠는가, 교남의 좋은 풍광은 여기가 더욱 좋아라. 마음 아픈 호제에 상복을 겨우 벗고, 뜻 없이 푸른 물가에 자취 다시 남기네. 시험 삼아 美人歌 한 곡조를 부르며, 서풍에 머리 돌리니 눈물 거두기 어려워라.¹²⁸⁾

정종로는 도원의 泛月 전통과 상주 낙강의 좋은 풍광, 그리고 정조의 자취, 즉 그 德善을 잊지 못해서 미인가를 부르니 눈물이 난다고 읊었다. 그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시문으로 보인다.

125) 이경유, 『林下遺稿』 中卷, 「154則」; 조정운, 「李敬儒의 詩文學觀 一考—『滄海詩淵』을 중심으로—」, 『漢文古典研究』, 2019, 130쪽, 재인용.

126) 정종로, 『앞의 책』 권7, 「부록—行狀李升培」, 2017, 쪽.

127) 노상추, 『(국역) 노상추일기 11』, 국사편찬위원회, 2020, 38쪽.

128) 각주 70번.

IV. 맺음말

이상 상주 도남서원의 시회를 중심으로 서원의 지식 네트워크 활동 실재를 조명해 보았다.

먼저 도원 주도세력의 네트워크 성격을 분석한 결과, ①원장을 배출한 상위 가문은 부림흥·안동권·장수황·진양정·풍산류·홍양이씨 6개 성관이었다. ②정경세와의 밀접한 관계성, ③남인과 노론이 병존하고 있는 모습, ④원장의 높은 소·대과 합격자와 관직자 비율, ⑤원장을 지낸 다수가 다른 서원의 원장을 중복해 역임하는 일련의 현상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인적구성을 토대로 낙동강과 도원을 무대로 삼은 ‘임술시단’과 ‘개별 학자의 문화·시회’ 축으로 지식 네트워크의 활동 양상을 서술해 보았다.

전자는 소동파의 적벽놀이를 본받아 1607년부터 1778년까지 이어졌는데, 본고에서는 시회의 출발점인 1607년을 대상으로 도원과 관계, 구성원 면면, 선유 경유지, 공동시 창작 등 지식 네트워크의 활동을 탐색해 보았다. 이준이 작성한 공동시 서문에 ‘간략히 일의 전말을 써서 책머리에 놓아 도원에 갈무리해 뒷날 이 놀이를 잇는 자의 선구가 되고자 한다’라는 말처럼 이후 도원에서는 시회를 통해서 연대와 결속, 나아가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견인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후자는 영남학파의 적맥을 계승한 유수의 학자들이 배출된 지역 특성상 首院인 도원은 활발한 강학이 전개된 서원으로 꼽힌다. 이중 이만부·권상일·정종로의 강학과 어우러진 시회 사례를 주목했다. 이만부는 1697년 상주 이주 직후 도원에서 열린 문화와 선유를 경험했고, 1724년 講長의 자격으로 『근사록』 강회를 주관하였다. 서원 교육에 관심이 남달랐던 권상일은 1723년 원장 신분으로 『심경』 강회를 선보였고, 선유를 즐겼다. 1816년 수백명이 참석한 정종로의 도원 강회는 특기할 만하며, 강회 후에는 생전 마지막으로 추정되는 시 1수를 남겼다.

이러한 도원의 시회 활동을 통해서 서원의 지식 생성과 네트워크 형성, 지

식 확산의 과정을 밝힘으로서 서원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

【참고문헌】

1. 원본

『도남서원 고문서(상주박물관 소장)』, 『도남서원사실 하』, 『상산지』, 『숙종실록』, 『洪判官韻』.

2. 문집

강응철, 『南溪集』; 권상일, 『청대선생문집』; 류주목, 『溪堂先生文集』; 류후조, 『洛坡先生文集(全)』, 1994, 대보사; 柳欽睦, 『克菴文集』, 申正模, 『二恥齋集』; 申弼成, 『盧峯遺稿』; 이경유, 『林下遺稿』; 이만부, 『息山先生文集』; 李敏求, 『(국역) 東州集』, 한국고전번역원, 2018. 이이, 『율곡선생전서』; 이진, 『(국역) 월간선생문집』, 2008; 전식, 『沙西集』; 정경세, 『(국역) 우복집 별집』; 정종로, 『(국역) 입재집』, 경북대학교출판부, 2017; 趙淸, 『黔澗集』; 조찬한, 『(국역) 玄洲集』, 한국학 호남진흥원, 2019; 蔡獻徵, 『(국역) 愚軒先生文集』, 愚軒先生文集重刊委員會, 1996.

3. 단행본

김령, 『(국역) 계암일록』, 한국국진흥원, 2013.
김정찬 譯, 『淵巖門會錄』, 상주박물관, 2009.
권태을, 『상주의 한문학』, 상주문화원, 문창사, 2001.
노상추, 『(국역) 노상추 일기』, 국사편찬위원회, 2020.
상주문화원, 『상주의 누정록』, 2008.
상주박물관, 『갑장산』, 상주박물관, 2016.
_____, 『洛遊帖』, 2020.
이수건, 『조선시대 영남서원자료』, 국사편찬위원회, 1999.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이준 외, 『(역주) 낙강범월시』, 아세아문화사, 2007.
이준, 『추금록』, 상주박물관, 2012.

정석진, 『愚山史積大觀』, 愚山先生記念事業會, 1975.

4. 논문

- 권태을, 「도남서원 관련 詩文의 機能考」, 『도남서원의 사적과 도학정신』, 제1회 상주 문화사적과 역사인물 학술대회 자료집, 2011.
- 권진호, 「한시로 쓴 심원록-한시에 그려진 도산서원과 그 위상」, 『조선후기 서원의 위상』, 새물결, 2015.
- 권태을, 「洛江詩會 研究」, 『상주문화연구』 제2집, 1992.
- _____, 「尙州 淵巖園 詩會研究」, 『상주문화연구』 제3집, 1993.
- _____, 「洪判官韻 해제」, 『상주문화연구』 제6집, 1996.
- 김기탁, 「霧潭 蔡得沂의 樓亭詩歌 연구」, 『상주문화연구 1』, 1991.
- 김명자, 「조선후기 屏山書院 院長 구성의 시기별 양상」, 『한국서원학보』 6, 2018.
- 김영나, 「조선후기 경상도 서원노비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김자상, 「文莊公 愚伏 鄭經世 陞祀聖廟疏 小考」, 『상주문화』 제7호, 1998.
- 김학수, 「17세기 영남학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 _____, 「德川書院 : 경의학(敬義學)을 지향한 조선의 학술문화공간」, 『남명학 제20집』, 2015.
- _____, 「정경세, 이준의 소재관-정경세의 비판적 흡수론과 이준의 계승적 변호론을 중심으로」 『영남학 제71호』 2019.
- 박종배, 「學規에 나타난 조선시대 서원교육의 이념과 실제」, 『한국학논총』 33, 2010.
- 송석현,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도남서원 운영과 상주 사족의 동향」, 『조선시대사학보』 제79집, 2016.
- 신두환, 「息山 李萬敷의 教育思想 研究」, 『한문교육연구』 29, 2009.
- 우인수, 「입재 정종로의 사회적 위상과 현실대응」, 『조선후기 영남 남인 연구』, 경인문화사, 2015.
- 우인수, 「조선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2013.
- 이구의, 「낙강범월시 해제」, 『역주 낙강범월시』, 아세아문화사, 2007.
- 이병훈, 「경주 玉山書院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 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민족문화』 58, 2016.

- _____,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운영과 역할」,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이상해, 「도동서원과 조선시대 서원건축」, 『道, 東에서 꽃피다』, 달성군, 2013.
- 이수환, 「『청대일기』를 통해 본 권상일의 서원활동」, 『민족문화논총』 62, 2016.
- 이해준, 「한국 서원의 지역 네트워크와 사회사적 활동」, 『한국 서원의 전통가치와 현대적 계승』,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 임근실, 「16세기 書院의 藏書 연구」, 『한국서원학보』 4, 2017.
- _____, 「『迎鳳志』의 지식사적 의미」, 『민족문화논총』 제69집, 2018.
- 임재해, 「낙동강으로 읽는 상주의 문화와 인물」, 『낙동강을 품은 상주 문화』, 상주 박물관, 2012.
- 정우락, 「도산서원에 대한 문화론적 독해-일기와 기행록을 중심으로-」, 『영남학 27』, 2015.
- 채광수·이수환, 「昌寧成氏 聽竹公派의 상주 정착과 노론계 院宇 건립 활동」, 『조선시대사학보』 79, 2016.
- _____, 「우복학단의 성격과 계보학적 갈래」, 『한국계보연구 10』, 2020.
- 황위주, 「낙동강 연안의 유람과 창작 공간」, 『한문학보』 18, 2008.

Abstract

The Actuality of Seowon's Knowledge Network Activities

—Focusing on the a Poetry Club of Sangju Donam—Seowon

Chae Gwang-Soo*

Donam-seowon is a current place where the valuable social data that may confirm the activities of knowledge network and its actuality.

First of all,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network characteristics of Donam-seowon-led influences, the upper-echelon clans that produced heads of such seowon (a place for scholars to study or holding ritual services) were 6 clans including Burim Hong, Andong Gwon, Jangsu Hwang, Jinyang Jeong, Pungsan Ryu and Heungyang Lee. A series of phenomenon could be confirmed from the following facts: close relationships with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powerful sectors, appearance of contrasting stance of Namin and Noron (political factions), high ratio of head of seowons in passing minor and major national examinations and working in government positions, and many heads of seowon concurrently serving as the head of seowon for other seowons. This study has taken a look at the activity trends of knowledge network on the foundation of culture and social aspects by 'Imulsadan' that was

* Institute of Korean Cultural Studies Yeungnam University /
corhkdt911@ynu.ac.kr

mainstay in Nakdong-gang River and Donam-seowon and individual scholars on the basis of such personnel structure. The former had been descended from 1607 to 1778 by accommodating Jeokbyeoknori of Su Dong Po (Chinese poet, writer and philosopher), and under this article, it has sought the activities of knowledge network of relationship with Donam-seowon, aspects of constituents, detouring sites of scholars, creative writing for joint poetry and others from 1607 as the starting point of poetry session. As demonstrated on the introductory statement of the joint poetry that was written by Lee Jun, in pertinent part, 'By writing the brief summary to place in the outline of this book, it is intended to be the pioneer for those who handed down at a later time by placing the same at Donam-seowon', and thereafter, Donam-seowon came up with the solidarity and bonding through poetry session, followed by its starting point to lead the close network structuring.

The later is considered as the seowon where the active study was undertaken in Donam-seowon as the capital of such seowon with its regional feature in advancing numerous famous scholars that were schemed from the influence of the Youngnam academic faction. The attention was paid to the cases of poetry sessions that were harmonized with the studies of Lee Man-bu, Gwon Sang-il and Jeong Jong-ro. After moving to Sangju in 1697, Lee Man-bu experienced literature sessions and encountering of scholars at Donam-seowon, and in 1724, he served led the 『Geunsarok』 study session as the head. Gwon Sang-il who was extremely interested in the seowon education held the 『Simgyeong』 study session as the head of seowon in 1723 and he enjoyed the scholars. In 1816, the Donam-seowon study session of Jeong Jong-ro with the attendance of several hundreds of audience was worth of

special attention, and after the study session, he left a piece of poem that is presumed to be his last one.

Through such poetry session activities of Donam-seowon, this article displays the knowledge generation, network formation and process of knowledge dispersion by seowon with significant implication to demonstrate the diversified aspects of seowon.

Key word : Donam-seowon, poetry session, Lee Man-bu, Gwon Sang-il, Jeong Jong-ro

논문 투고일: 2021. 05. 31 심사 완료일: 2021. 06. 21 게재 확정일: 2021. 06. 22

陶山書院 刻板活動 研究*

裴賢淑**

- I. 緒言
- II. 陶山書院 刻板 書籍
- III. 陶山書院 刻板 過程의 記錄
- IV. 陶山書院 冊板의 特徵과 意義
- V. 結言

【국문요약】

중종 38(1543)년 풍기에 백운동서원이 건립된 후 서원에서 처음으로 서적을 각판한 것은 선조 7(1574)년 鄭逵가 성주의 川谷書院에서 각판한 『薛文淸公讀書錄(要語)』이었다. 이후 각지 서원에서 각판하였는데, 그 가운데 도산서원은 講學, 藏修, 藏書, 刻板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 전국적이었다. 본고에서는 도산서원에서 각판한 서적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나마 그 흐름을 살펴보았다.

도산서원에서 최초로 각판한 서적은 선조 9(1576)년 각판한 『宋季元明理學通錄』이다. 마지막 각판본은 1924년의 『吾家山志』이다. 도산서원 각판과 관련있는 서적은 26종이었다. 그중 16세기 각판은 3종, 17세기에는 8종, 18세기 8종, 19세기 3종, 20세기초 4종이다. 조선 후기 학술이 가장 발달했던 17~18세기에 가장 많은 서적을 간행하였으며, 이는 서원의 흥성이 조선 문예의 흥성과 궤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도산서원에서 초각한 서적은 16종 61%, 초각·중각한 서적은 1종, 초각·중각·삼각한 서적도 1종이다. 도산서원에서 중각한 서적은 4종, 중각·삼각한 서적은 3종이다. 九刊本을 각판한 서적은 『朱子書節要』 1종이다. 따라서 도산서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2813).

** 계명문화대학교 명예교수 / hspae7714@nate.com

원에서 초각한 서적이 중심인 것을 볼 수 있다.

도산서원의 주향자인 퇴계의 저작은 10종 38%, 퇴계 일문의 저작은 6종 23%, 퇴계학파와 관련이 있는 저작은 6종 23%였다. 퇴계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에 있어서는 경부서적 2종, 사부서적 5종, 자부서적 4종, 집부서적 15종 57%이다. 집부서적이 압도적으로 많다. 유가류 서적을 중심으로 각판했지만, 강학과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서적이 주류였음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서원에서는 강학과 관련 있는 서적의 간행이 거의 없다할 정도인 반면, 도산서원에서 판각한 서적에는 강학과 관련 있는 서적도 상당수 있는 점은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도산서원에서 각판한 서적은 23종이고, 藏板한 판목은 3종이었다. 장판본인 『嶠南賓興錄』은 경상김영이 주관해 각판했고, 『松齋先生文集』은 충주목에서 각판했으며, 『退溪先生自省錄』은 나주목에서 각판한 것인데, 도산서원에 옮겨 장치한 것이다. 또 도산서원 각판본으로 서원에 수장되어 있던 판목이 후에 당해 종가로 반출된 판목은 『溪巖先生文集』, 『近始齋文集』, 『鷲巖先生文集』, 『雲巖逸稿』의 4종이다. 『經書釋義』의 판목은 전혀 행방을 알 수 없다. 따라서 도산서원에 장치되어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된 책판은 21종이다.

낙장 없이 전체 판목이 전래되고 있는 책판은 『嶠南賓興錄』을 위시하여 12종이다. 가장 많은 책판이 남아 있지만, 결판도 많은 판목은 『退溪先生文集』이다. 『溪巖先生文集』, 『古鏡重磨方』, 『溫溪先生逸稿』, 『朱子書節要』는 1판이 부족하다.

또한 간행의 전말도 기록해두었는바 『退溪先生文集』의 보각과 중각시의 간행 과정을 기록한 『先生文集改刊日記』와 『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 『陶山及門諸賢錄』의 간행과정을 기록한 『及門錄營刊時日記』, 퇴계의 숙부 송재 이우의 문집 간행시의 기록인 『先祖松齋先生文集重刊時記事』, 이이순의 문집 『後溪集』의 간행과정을 기록한 『先祖文集刊役時日記』의 5종이 확인되고 있다. 이들 5종을 통해 책판의 간행논의 과정·인적인 구성·원고 교정·경비의 규모, 경비 마련과 결산·판재마련·장인 동원·각판, 인출, 장황의 제작 과정·간본의 반질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그 간행과정과 당시의 경제사정까지 알 수 있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도산서원의 각판을 통해 도산서원은 학문적인 면에서도 선도적인 기능을 하였으며, 서적 간행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기능을 한 것이 증명되었다.

주제어 : 도산서원, 퇴계, 이항, 각판, 장판, 판목, 개간일기, 중간시일기, 영간시일기, 간역시일기

I. 緒言

조선 최초의 서원은 중종 38(1543)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건립한 백운동서원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조선 서원의 鼻祖는 이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세종 즉위(1418)년 11월에 사사로이 서원을 설치하여 생도를 가르치면 포상할 것이라는 유시를 반포하자, 사재로 서원을 설치하고 생도를 교육하는 서원이 생겨났다. 세종 2(1420)년 1월 金堤에서 전 敎授官 鄭坤, 光州의 생원 崔保民, 9월에는 평안도에서 생원 姜友諒이 서원을 설립하고 생도를 교수하였다.¹⁾ 이로써 조선 최초로 서원이 설립된 것은 국왕 세종의 방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서원에서 강학한 내용과 자세한 활동상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 계승되지 못하였으므로 백운동서원을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서원과 유사한 성격의 기관으로 祠宇를 들 수 있다. 사우는 여말 鄭夢周 등이 제창하여 설치한 家廟에서 발전하였고, 이후 조선 건국 후 충의를 다한 공신과 명현들을 적극 추존한 것이 전국 각지의 사우 건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후 別廟·世德祠·影堂·里祠·遺愛祠·鄉廟·鄉賢祠 등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사우를 설치한 목적은 공이 많은 공신과 명현에 대한 예우와 祀賢을 통해 향촌민을 교화하는 것이었다. 향촌민을 교화한다는 점에서 서원과 사우는 동일선상에 있으나, 사우는 공신과 명현을 奉祀하는 기능이 위주였다.

그러나 서원은 先賢祭享의 기능 외에 講學과 藏修의 기능도 중시되었다. 따라서 서원은 선현과 선사를 봉사하는 祠와 강학과 장수하는 齋가 결합된 형태이다. 이 점에 있어 서원은 존립 목적과 기능에 있어 사우와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서원을 건립하기 위한 전 단계로 사우를 건립

1) 『世宗實錄』, 권2, 즉위(1418)년 11월 3일 기유; 권7, 2(1420)년 1월21일 庚申; 권9, 2(1420)년 9월 24일 己丑.

鄭錫共波, 趙偉, 「조선왕조 서원제도 수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한국서원학보』 9, 2019, 210쪽.

한 후 서원으로 승격시키기도 하여 점차 두 개념은 혼용되고,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서원은 강학과 장수하는데 있어 타고난 본성을 밝히는 인격 도야가 핵심이었다. 대개의 서원은 과거시험을 중시한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참다운 학문인 爲己之學을 중시한 교육을 하였다. 이에 서원의 교육은 개별학습인 讀書와 공동학습인 講會를 병행시켰다. 독서, 강학과 장수에 있어 불가결의 요소가 서적이다.

서원은 지역사회 학술활동의 중심기구로서 강학·출판·장서를 통해 성리학을 발전시켰으며, 지역사회에 지식 확산과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서원 설립 초기에는 기증이나 구매로 서적을 마련하다가, 점차 서원이 직접 서책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는 서원이 향촌 내 교육기관으로서 출판문화를 발전시켰고, 나아가 이를 수장하여 교육문고로서의 기능도 하였기 때문이다. 서원은 장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장서목록도 비치하고, 서책을 서원 밖으로 유출시키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정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했다.

임진왜란을 지나면서 서원은 급속도로 파급되어 전국 도처에 서원이 없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확산되었다. 철종연간까지 무려 900여 서원이 건립되었고, 그 중 265여 서원이 사액되었다. 서원이 보급되면서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서적을 각관하는 서원도 생겨났다. 종래 최초의 서원판은 中和의 淸涼書院板으로 알려졌으나,²⁾ 실은 書院藏板本이었다. 명실상부한 서원판의 효시는 성주의 川谷書院板이라 하겠다. 최초의 서원판은 천곡서원의 원장 鄭述(1543~1620)가 선조 7(1574)년 간행한 『薛文淸公讀書錄(要語)』이고, 선조 8 (1575)년 간행한 『夙興夜寐箴』과 『朱子書節要』가 뒤를 이었다.³⁾

이후 수많은 서원이 건립되고 자체에서 필요한 서적을 많이 간행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정조 20(1796)년 徐有榘가 편찬한 『鏤板考』에 수록된 서원

2)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탐구당, 1974, 273쪽;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범우사, 1990, 180쪽.

3) 裴賢淑, 「書院 板刻本의 淵源 研究」, 『韓國書院學報』 11, 2020.12, 219~250쪽.

장판은 84개 서원의 184종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설립된 서원수에 비해 활발하게 서적을 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서적이 서원에서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윤상기는 경남지방의 서원에서 각판한 서적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망한 논문⁴⁾을 위시하여, 산청·진주·함안·함양의 서원 간본과 禮林書院·德川書院의 간본에 대해 집중적으로 발표⁵⁾한 바 있다. 동시에 여러 학자들이 옥산서원 각판의 서적에 대해서도 여러 편 발표하였고,⁶⁾ 소수서원에서 각판한 서적에 대한 논문도 발표⁷⁾된 바 있다. 이들 논문에는 『누판고』에 누락된 서적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서원에서 빠질 수 없는 서원이 도산서원이다. 그 서원의 주향자인 퇴계 이황은 도학을 통해 두각을 나타내었고, 퇴계의 학맥은 영남학파를 이루면서 신유학을 중흥시켰다. 이 영향으로 서원문화를 발달시켜 유교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도산서원에서 각판한 서적의 개별 연구는 이루어졌지만,⁸⁾ 각판한 서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룬 연구는 극히 드물어⁹⁾ 활발

-
- 4) 윤상기, 「鏤板考에 수록된 경남지역 서원 藏板」, 『書誌學研究』 50, 2011.12, 187~230쪽; 윤상기, 「조선조 경남지방의 서원판본」, 『書誌學研究』 60, 2014. 12, 5~35쪽.
- 5) 윤상기, 「경남 산청의 서원판본」, 『書誌學研究』 52, 2012.09, 101~136쪽; 윤상기, 「경남 진주의 서원판본」, 『書誌學研究』 40, 2008.09, 295~322쪽; 윤상기, 「경남 함안의 서원판본」, 『書誌學研究』 44, 2009.12, 301~330쪽; 윤상기, 「경남 함양군의 서원판본」, 『書誌學研究』 32, 2005.12, 237~271쪽; 윤상기, 「密陽 禮林書院 版本考」, 『문화콘텐츠연구(동의대)』 9-2, 2004, 1~20쪽; 윤상기, 「山淸 德川書院 版本考」, 『東義論集:인문사회 I』 40, 2004.2, 423~443쪽.
- 6) 차창承, 「慶州 소재 書院·祠에서 刊行한 典籍考」, 『신라사학』 19, 2001, 227~268쪽; 윤상기, 「慶州 玉山書院版本에 관한 연구」, 『東義論集: 인문·사회과학편』 38, 2003.2, 77~95쪽; 南權熙, 「朝鮮御製代 慶州 刊行의 書籍」, 『新羅文化』 33, 2009, 1~58쪽; 이명훈, 「경주 옥산서원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민족문화』 58, 2016.2, 423~480쪽.
- 7) 裴賢淑, 「紹修書院 收藏과 刊行 書籍考」, 『書誌學研究』 31, 2005, 263~296쪽.
- 8) 金鍾錫, 「陶山及門諸賢錄의 集成과 刊行에 관하여」, 『韓國의 哲學』 28, 2000, 1~20쪽; 徐廷文, 「退溪集의 初刊과 月川·西厓 是非」, 『北岳史論』 3, 1993, 215~

하게 진행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도산서원에서 각판하거나 장판한 서적에 대해 개략적으로나마 그 성격을 살펴서 후속 연구의 불쏘시개가 되고자 한다.

II. 陶山書院 刻板 書籍

조선시대 예안은 그리 크지 않은 지방이지만 건립된 서원은 4곳의 서원이 알려져 있다. 『俎豆錄』에는 易東書院과 陶山書院만 수록되어 있으나,¹⁰⁾ 『東國文獻院宇錄』¹¹⁾, 『增補文獻備考』¹²⁾, 『慶尙道誌』¹³⁾, 『嶠南誌』¹⁴⁾, 『東儒書院總錄』¹⁵⁾에는 두 서원 외에 淸溪書院과 汾江書院도 수록되어 있다. 4곳 서원 가운데 고종 5(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 당시에 훼손되지 않고 존속된 서원은 도산서원이다. 선현 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동시에 영남 유림의 정신적 중추 구실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또한 4곳 서원 중 서적을 간행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서원은 도산서원뿐이었다.

265쪽; 沈慶昊, 「錦城開刊 溪山齋詠과 庚子本 退溪文集의 刊行 經緯에 대한 일고찰」, 『季刊書誌學報』 19, 1997, 65~98쪽; 呂增東, 「退溪先生自省錄 初刊羅州本 解題」, 『退溪學報』 61, 1989, 65~72쪽; 鄭錫珪, 「退溪集의 編刊 經緯와 그 體裁」, 『退溪學論集』 2, 2008, 157~326쪽; 崔彩基, 「退溪 李滉의 朱子書節要 編纂과 刊行에 관한 研究」, 博士論文(성균관대), 2013.2.

9) 이병훈, 「도산서원의 자료정리, 성과·현황·과제」, 『서원 기록문화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2012), 125~137쪽.

http://k-seowon.or.kr/?act=board&bbs_code=sub6_2&page=5&bbs_mode=vi ew&bbs_seq=210 2021.05.10. 15:25.

10) 『俎豆錄』, 木版本, [刊年未詳], 張22.

11) 金性澈, 『東國文獻院宇錄』, 木版本 [刊寫地未詳], 張26.

12) 朴容大 等, 『增補文獻備考』, 鉛活字本, 隆熙 2(1908), 卷213, 禮安, 張18.

13) 李鉉式, 『慶尙道誌』, 鉛活字本, 金海: 具翰會方, 1936, 卷9, 祠院一覽, 張60.

14) 鄭源鎬, 『嶠南誌』, 鉛活字本, 大邱: 李根永房, 1940, 卷12, 禮安郡, 張4.

15) 『東儒書院總錄』, 筆寫本, [刊寫地未詳], 慶尙道 禮安, 張39.

도산서원의 판목은 정조연간 편찬된 『鏤板考』에 17종이 수록되어 있다.¹⁶⁾ 憲宗 13(1846)년에 편찬된 『禮安縣邑誌』에는 刊缺된 판목이지만 31종의 판목이 현내에 수장되어 있는데, 이중 판에 수장되어 있는 것은 『小學諺解』 뿐이고, 나머지 30종은 도산서원에 수장되어 있다¹⁷⁾고 하였다. 邑誌에는 『經書釋義』가 『三經釋義』와 『四書釋義』로 나누어져 있고, 『鏤板考』에 수록되어 있는 『嶠南賓興錄』은 누락되어 있다. 그 30종 가운데 『退溪遺墨(梅花詩·大寶箴·陶山記·四勿箴·屏銘·四時吟·丹砂八詠)』, 『元朝五箴』, 『惺惺齋八詠』, 『林居十八詠』, 『漁父辭』는 문학작품과 잠명으로서 서책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 하겠다. 이들을 모두 인출해서 하나의 책자로 장책한 것은 별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판각한 서적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도산서원에서 각판한 책판의 목록을 작성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 하겠다. 2006년도에 발간된 목록에 의하면 도산서원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판목은 59종 4,014판이다.¹⁸⁾ 이는 책판, 시판, 서판, 현판을 망라한 것

16) 徐有築, 『鏤板考』, 京城 大同出版社, 1941.

『經書釋義』, 『啓蒙傳疑』, 『溪巖文集』, 『古鏡重磨方』, 『嶠南賓興錄』, 『近始齋文集』, 『鶴巖文集』, 『宋季元明理學通錄』, 『松齋集』, 『溫溪逸稿』, 『雲巖逸稿』, 『月川文集』, 『朱子書節要』, 『耻齋遺稿』, 『退溪先生文集』, 『退溪先生言行錄』, 『退溪自省錄』의 17종이다.

17) 『禮安縣邑誌』, 寫本, [憲宗 13(1846)], 張36; 『嶠南邑誌』, 寫本, [高宗 8(1871)], 冊10, 禮安縣 冊板, 張34~35.

두 읍지에는 『啓蒙傳疑』, 『溪巖文集』, 『古鏡重磨方』, 『近始齋文集』, 『鶴巖文集』, 『梅花詩大寶箴』, 『四書釋義』, 『三經釋義』, 『宋季元明理學通錄』, 『松齋集』, 『溫溪逸稿』, 『雲巖逸稿』, 『月川文集』, 『朱子書節要』, 『耻齋遺稿』, 『退溪先生文集』, 『退溪先生文集續集』, 『退溪先生言行錄』, 『退溪先生年譜』, 『退溪自省錄』과 陶山記, 四勿箴, 屏銘, 四時吟, 丹砂八詠, 元朝五箴, 惺惺齋八詠, 林居十八詠의 退溪遺墨과 漁父辭도 수록되어 있다. 다만 『嶠南賓興錄』, 『陶山及門諸賢錄』, 『誣書辨皮錄』는 누락된 상태이다.

18) 『陶山書院 古典籍』, 한국국학진흥원, 2006, 303~306쪽;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의 정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52, 2012, 426쪽.

이다. 이 가운데 책판은 28종 3,928점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기탁된 책판에는 『鏤板考』에 수록되어 있던 『經書釋義』·『溪巖文集』·『近始齋文集』·『韓巖文集』가 누락되었고, 『溪山世稿』·『陶山及門諸賢錄』·『梅花詩板』·『蒙齋先生遺稿』·『誣書辨破錄』·『吾家山誌』·『後溪集』이 더 수록되어 있다.

한편 순조 19(1819)년 2월 청송향교에서 도산서원에 보낸 통문에 따르면, 청송향교 인사들은 퇴계의 위패가 모셔진 도산서원에서 『心經』을 각판할 예정이란 소식을 듣고 축하하면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문서가 남아있는데,¹⁹⁾ 다른 기록이나 판목이 전래되지 않아 『心經』의 각판은 확신할 수 없는 형편이다. 『鏤板考』, 『禮安縣邑誌』, 『陶山書院 古典籍』과 현전하는 판목을 망라하면 <표 1>과 같다.²⁰⁾

<표 1> 도산서원 각판의 책판과 전래본

	書名	鏤板考	邑誌	冊板	現傳板	傳來本	備考
01	經書釋義	●	●			●	四書釋義, 三經釋義, 識記
02	溪山世稿			●	56	●	
03	溪巖先生文集	●	●	●	106	●	藏書記, 光山金氏, 雪月堂宗家
04	古鏡重磨方	●	●	●	26	●	
05	嶠南賓興錄	●		●	24	●	
06	近始齋文集	●	●	●	72	●	光山金氏, 後彫堂宗家
07	韓巖先生文集	●	●	●	83	●	汾川李氏, 韓巖宗家
08	陶山及門諸賢錄			●	102	●	增補版, 刊記
09	梅花詩大寶箴		●	●	24	●	退溪遺墨, ²¹⁾ 刊記
10	蒙齋先生文集			●	49		刊記, 石印本
11	誣書辨破錄			●	1	●	刊記

19) [1819년 徐浩 등 15명이 도산서원으로 心經 판본의 간행사업을 축하를 알린 통문 필사본.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고문서. 書簡·通告類, 通文.

20) <표 1>의 冊板은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는 책판을 의미하며, 現傳板 그 기탁된 판목의 수량이며, 傳來本은 그 인본을 의미한다. 現傳板에서 굵은 글씨는 완판이 전래되는 경우이다.

21) 『嶠南邑誌』에는 退溪遺墨은 大寶箴, 陶山記, 四勿箴, 屏銘, 四時吟, 丹砂八詠, 梅

12	文純公退陶李先生 墓碣銘			●	2	●	刊記
13	宋季元明理學通錄	●	●	●	300	●	重刊, 刊記
14	松齋先生詩集	●	●	●	55	●	藏板
	松齋先生續集			●	21	●	
	松齋先生別集			●	40	●	
15	易學啓蒙傳疑	●	●	●	42	●	重刊.
16	吾家山誌			●	37	●	
17	溫溪先生逸稿	●	●	●	119	●	
18	雲巖逸稿	●	●	●	36	●	光山金氏 後彫堂宗家
19	月川先生文集	●	●	●	109	●	
20	朱子書節要	●	●	●	462	●	重刊.
21	眞城李氏族譜			●	10	●	
22	耻齋先生遺稿, 附錄	●	●	●	70	●	
23	退溪先生文集(庚子)	●		●	737	●	邑誌에는 版次의 구별 없음
	退溪先生文集(甲辰)					●	重刊. 癸卯本과 결합
	退溪先生文集(癸卯)		●	●	1,143	●	三刊.
	退溪先生年譜	●		●	66	●	
	退溪先生文集續集	●	●	●	150	●	
24	退溪先生言行錄	●	●	●	102	●	.
	退溪先生言行錄			●	100	●	重刊
25	退溪先生自省錄	●	●	●	42	●	
26	後溪集			●	2	●	

『鏤板考』, 『嶺南邑誌』, 『陶山書院 古典籍』에 수록된 도산서원에서 각판한 판목을 종합하여 그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漁父辭』는 『鏤板考』에도 저록되지 않았고, 판목도 전래되지 않는다. 명칭만으로는 『龔巖先生文集』의 일부로 볼 수도 있으므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도산서원에서 각판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적은 26종이다. 해당 서적의 책판 전부가 다 전래되지 않고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도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으면 대상으로 하였다. 편의상 한글 자모순으로 판목마다의 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花詩, 元朝五歲, 惺惺齋八詠, 林居十八詠이다.

1. 『經書釋義』

琴應熏(1540~1616)이 퇴계의 『經書釋義』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광해군 원(1609)년에 간행한 유학 경서의 주석서이다. 퇴계는 평소 삼경과 사서에서 어려운 구절을 뽑아 선학의 주석을 종합하고, 제자와 토론한 내용도 정리해두 있었다. 퇴계는 사망할 때까지 계속 수정하고 있었다. 이 원고를 제자들이 필사해서 돌려 읽었는데, 퇴계의 권유로 이산서원을 건립한 인연이 있는 中和郡守 安璫이 그 원고를 입수했고, 이 가운데 『大學』과 『中庸』 부분을 각판하였다. 퇴계는 중화군에서 『庸學釋義』를 간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원접사의 막료로서 관서를 지나는 奇大升에게 이 책판을 거두어 불살라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렇게 『경서석의』 중 『용학석의』 초간본의 판목은 불살라졌고,²²⁾ 중화판의 인본의 전래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퇴계가 수장하고 있던 원고도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렸다고 한다.

전란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자 제자들이 각자 수장하고 있던 전사본을 찾아내어 비교하고 교정한 뒤 간행하려고 시도하였다. 제자들이 수장하고 있던 전사본을 수습해 교정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경서석의』는 이황이 편찬한 것이 아니라, 금응훈이 편찬했다”고 보는 견해²³⁾도 있다. 어쨌든 퇴계의 초편이었던 것은 틀림없다고 하겠다.

마침 선조 41(1608)년 겨울 경상감사 崔瓘이 도산서원에 와서 참배하고, 『경서석의』의 간행비를 담당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로서 각판에 박차를 가하게 되어 광해군 원(1609)년 윤3월에 간행되었다. 도산서원의 『傳掌記』에 판각 각수 식량 쌀17석, 각수 인건비 무명 90필이라 기록되어 있다.²⁴⁾ 따라서 감사

22) 李滉, 『退溪先生文集』, 木板本, [刊年未詳], 卷17, 與奇明彦 丁卯, 張32~33; 裴賢淑, 「書院 板刻本の 淵源 研究」, 『韓國書院學報』 11, 2020.12, 234~235쪽.

23) 전재동, 「퇴계학과 經傳註釋의 전승과 論語釋義」, 『국학연구』 25, 2014.12, 177쪽.

24) 崔宇景, 『陶山書院 光明室 장서의 변천과 서지적 분석』, 博士論文(경북대), 2020. 2, 29~31쪽.

의 지원을 받고 도산서원에서 각관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응훈의 발문에는 서명이 “경서석의”라 표현되어 있고 『누판고』에도 『경서석의』라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도산서원에서 각관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안현읍지』에는 『三經釋義』와 『四書釋義』로 나누어 기록되어 있다. 어떤 연유가 있는지 『경서석의』의 판목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지 않았다. 혹 경상감영에서 각관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규장각에 이관된 嶺營藏板의 목록을 조사해도 순조년간의 판목²⁵⁾만 이관되어 있을 뿐이다. 교서관과 경상감영에서 사서와 삼경의 언해를 간행한 후 수요가 없어 관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전래본 가운데 삼경과 사서가 합질된 경우도 있고, 분질된 경우도 있다. 초간 후 부분적으로 보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서석의』는 대체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삼경석의』는 서울대 소장본이 가장 이른 판본으로 보인다.²⁶⁾ 양자를 다 소장한 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계명대, 고려대, 서울대, 영남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다.

2. 『溪山世稿』

퇴계 후손 3인의 시문집이다. 권1/2는 『蒙齋逸稿』, 권3/4는 『靑壁逸稿』, 권5/6은 『晚湖逸稿』이다. 李頤淳(1754~1832)은 발문에서 퇴계의 가학이 李安道, 李守淵, 李世靖에 이르렀으나, 그 遺文이 산일되어 그들의 글을 모아 『계산세고』를 편찬했다고 하였다.²⁷⁾

『몽재일고』는 퇴계의 장손 이안도(1541~1584)의 문집이다. 자는 逢原, 호는 蒙齋이다. 조부에게 학문을 배워 성리학에 깊은 조예가 있었다. 명종

한국국학진흥원. 정보마당. 문화콘텐츠. 소장자료검색, 도산서원, 고문서.

25) 김남기, 「규장각 소장 嶺營藏板의 현황과 성격」, 『嶺南學』 61, 2017.6, 7~33쪽.

26) 서중학, 「경서석의의 서지 및 국어학적 고찰」, 『人文研究』 17, 1989.8, 23쪽.

27) 李頤淳編, 溪山世稿, 木板本, [憲宗 1(1835)], 李頤淳跋.

16(1561)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선조 7(1574)년 음서로 관직에 나가 穆靑殿參奉·儲倉副奉事·尙書院副直長·司醞署直長을 지냈다. 예안의 東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청벽일고』는 퇴계의 6세손 이수연(1693~1748)의 문집이다. 자는 希顔, 호는 靑壁이다. 가학을 이어 경종 3(1723)년 생원시에 합격하여, 영조 3(1727)년 음직으로 厚陵參奉을 제수받았고, 이어 童蒙敎官을 지냈다. 禮學과 理氣說에 밝았으며, 시문에도 능하였다. 사후 『國朝名臣錄』에 저록되었다. 그는 『退溪先生續集』, 『陶山及門諸賢錄』, 『陶山誌』 등을 편집하였다. 『만호일고』는 이수연의 아들인 이세정(1730~1767)의 문집이다. 자는 敬美, 호는 晚湖이다. 16~18세기에 걸치는 한 집안 주요 인물의 글을 모아 가학의 전승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편집한 시문집이다.

이 책은 현종 1(1835)년경 각판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⁸⁾ 한편 을미년 李中應이 쓴 지문으로 미루어보면 오히려 고종 32(1895)년 판각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말에 각판되었으므로 정조연간에 편찬된 『누판고』에 실릴 수 없다. 도산서원에서 간행했다는 명확한 간기는 없다. 판목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계명대, 고려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국학진흥원 등 여러 기관에 수장되어 있다.

3. 『溪巖先生文集』

조선 중기의 문신 겸 학자인 金垞(1577~1641)의 문집이다. 광산김씨이며, 자는 子峻, 호는 溪巖이다. 김령은 광해군 4(1612)년 문과에 급제하여 權知承文正字가 되고, 광해군 7(1615)년 承政院注書로 승진했으나 대북이 집권하자 즉시 낙향하였다. 광해군 10(1618)년 인목대비가 폐위된 후 17~18년을 病廢人을 자처하여 불사이군의 절개를 지켰다고 한다. 숙종 15(1689)년 도승지에 추증되었다.

28) 한국국학진흥원. 정보마당. 문화콘텐츠. 목판아카이브. 목판명. 계산세고.

필사본으로 전해오던 유고를 영조 48(1772)년 현손 金紘 등이 편집하고 간역 작업을 해서 도산서원에서 간행하였다. 권두에 李象靖의 서문, 권말에 李世澤과 金紘의 발문이 있다. 『누판고』에 수록되어 있으나, 당해 서적에는 간기가 없다. 봉화 冲齋宗家 수장본에 ‘壬辰(1772)七月日自陶山書院印送于靑巖亭’이란 장서기²⁹⁾가 있어, 도산서원에서 영조 48(1772)년 간행했을 알 수 있다. 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 수장되어 있다. 판목은 光山金氏 雪月堂宗家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판목이 있다.³⁰⁾ 도산서원에서 각판한 판목을 서원에서 기탁하지 않고, 종가에서 기탁한 것은 金垓의 『近始齋文集』과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다.

4. 『古鏡重磨方』

‘고경중마’란 ‘옛 거울을 다시 닦다’는 의미로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화두로 수양한다는 뜻이다. 퇴계가 기원전 11세기 殷나라 湯王의 ‘盤銘’, 周나라 武王의 ‘席四端銘’부터 14세기 원나라 吳澄에 이르기까지 모두 25명 78편의 명과 잠을 뽑아 편찬한 것이다. 선조 40(1607)년 간행한 9행14자 도산서원 초간본은 安東大都護存使로 재직 중이던 寒岡 鄭述를 중심으로 문인들이 각판한 것이다.³¹⁾ 이 판목은 『누판고』에 저록되어 있다. 이후 숙종 11(1685)년 10행20자 寧邊府 간본, 영조 20(1744)년 8행16자의 校書館 간본, 고종 8(1904)년 10행20자 密陽 蘆谷 간본 등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³²⁾

도산서원에서 판각한 후의 후쇄본에는 형태·크기·어미가 다른 인면이 있

29) 『2005년 일반도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보고서(2)』, 문화재청·경상북도, 2006, 중재증가(봉화).

30) 『경북지역의 목판자료 (1)』, 한국국학진흥원, 2005, 307~309쪽.

31) 崔宇景, 『陶山書院 光明室 장서의 변천과 서지적 분석』, 博士論文(경북대), 2020.2, 29~31쪽.

한국국학진흥원. 정보마당. 문화콘텐츠. 소장자료검색, 도산서원, 고문서.

32) 임기영, 「古鏡重磨方」의 간행과 판본, 『書誌學研究』 56, 2013.12, 213~247쪽.

는데, 補刻板이 섞인 것으로 보인다. 도산서원에서 보관해오던 초각판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계명대, 고려대 등에 초간본에 가까운 판본이 소장되어 있으나, 각각 일부 보각본 또는 보사가 있다.

5. 『嶠南賓興錄』

정조는 윤지충의 진산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邪學을 금지하고 正學을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경상도와 황해도가 사학에 물들지 않은 이유는 先正인 퇴계·회재·율곡의 유품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에 정확을 진작시키기 위해 옥산서원과 도산서원에서 제사를 지내고, 도산서원에서는 영남 유생을 대상으로 별시를 시행하게 하였다.³³⁾ 이후 관동, 탐라, 풍패, 관북, 관서 지방의 빈흥록도 간행하였다.

『교남빈흥록』에는 규장각신 李晩秀가 왕명으로 도산서원에서 영남지방의 유생들을 대상으로 陶山別科를 시행한 기록과 그 우수한 科作이 수록되어 있다. 정조 16(1792)년 경상감영이 주관해 각판하고, 책판은 도산서원에 장치하였다. 이 책판은 『누판고』에 저록되어 있고, 『群書標記』에도 ‘刊印以進藏其板于陶山/壬子編’이라 기록되어 있다.³⁴⁾ 간본은 계명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정조 20(1796)년에는 퇴계를 성균관에서 致祭한 때의 전말을 담은 「頼村致祭時日記」를 증보해 초각판에 합쳐 간행하였다. 이 판본도 계명대와 서울대에 소장되어 있다. 1922년 도산서원에서 증각했는데, 이 판본은 각급 도서관에 많이 소장되어 있다. 정조연간 각판한 판목과 1922년 보각판도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33) 奎章閣·李忠鎬 編 『嶠南賓興錄』, 木板本, 陶山書院, 1922, 卷1, 傳教, 張1~2.

34) 正祖, 『弘齋全書』, 整理字本, [純祖 14(1814)], 卷184, 羣書標記, 張4~5.

6. 『近始齋文集』

金垓(1555~1593)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숙종 34(1708)년 그의 증손 金錫胤이 편집했고, 정조 7(1783)년에 간행하였다. 김해의 자는 達遠, 호는 近始齋·始齋이다. 선조 21(1588)년 社稷署參奉으로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선조 22(1589)년 延恩殿參奉으로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해서 승문원정자를 지냈고, 翰林에 선발되어 예문관검열에 제수되었다. 그해 10월 鄭汝立의 모반사건이 일어나고, 11월 史草를 태운 사건에 연루되어 면직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향리 예안에서 영남 의병대장으로 추대되어 안동·군위·상주에서 큰 전공을 거두었으며, 5월에는 양산을 거쳐 경주에서 李光輝와 합세하여 싸우다가 진중에서 병사하였다. 고종 30(1893)년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당해 서적에서는 간행지를 확인할 수 없으나, 『누판고』에는 도산서원 각 판이라 기록되어 있다.³⁵⁾ 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책판은 안동 군자마을의 광산김씨 後彫堂宗家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하였다.³⁶⁾ 순조연간 후기에 후조당의 시호와 관련한 문제로 종가에서 책판을 반출했으므로, 누락 없는 72판이 광산김씨 가문에 전래되고 있다.

후조당 金富弼은 雲巖 金緣의 아들이며, 근시재 김해의 백부이다. 순조 25(1825)년 김부필에게 이조판서가 추증되고, 文純의 시호가 내려졌다. 조정에서 후조당의 시호를 퇴계와 같은 문순으로 내린 데 대해 퇴계의 후손 측에서 師門同諡라 하여 불만을 표하였고,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향리·도내·한양의 태학을 통해 후조당의 改諡 내지 破諡를 도모하였다.³⁷⁾ 그러나 개시 내지

35) 鄭亨愚·尹炳泰, 『韓國의 冊板目錄 下』, 保景文化社, 1995, 「鑿板考」, 1125쪽.

36) 『경북지역의 목판자료 (1)』, 한국국학진흥원, 2005, 310~311쪽.

37) 『後凋堂家狀傳破錄』, 木活字本, [刊年未詳], 한국국학진흥원 광산김씨후조당종가 기탁본.

『後彫堂先生延諡後下誣錄』, 筆寫本, 한국국학진흥원 광산김씨후조당종가 기탁본.

파시를 하지 못하였고, 그 와중에 후손들이 도산서원에 있는 조상의 문집 책판을 구해 내온 것이다.

7. 『龔巖先生文集』

龔巖 李賢輔(1467~1555)의 시문집이다. 永川(汾川)李氏이며, 이현보의 자는 斐仲, 호는 농암 또는 雪鬢翁이다. 시호는 孝節이다. 虛白堂 洪貴達에게 수학하였다. 연산군 4(1498)년 문과에 급제하였고, 벼슬은 동부승지·부제학·대구부사·경상관찰사·형조참판에 이르렀다. 부모의 봉양을 위해 대체로 외직을 선호하였으며, 중종 37(1542)년 치사하였다. 연하의 퇴계와도 각별하게 교유하였다. 예안에 퇴거하여 歸去來圖를 벽에 붙이고, 부모의 봉양과 시문의 창작에 힘썼다. 늘 자연과 교감하며 소박하게 자연을 노래한 시와 시조를 많이 남겼다.

문집의 초간은 현종 6(1665)년 외손 金啓光이 중심이 되어 간행한 5권본이다. 현종 4(1663)년 겨울부터 전란으로 산란된 원고를 수집하고, 김계광이 편차를 고증하고, 6대손 李彥弼이 등재본을 선사하고, 퇴계가 지은 행장과 龍洲 趙綱의 서문을 붙여 간행하였다. 1911년에는 속집을 간행하였다. 『누판고』에는 도산서원에 『농암선생문집』의 책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종 6(1665)년 초간본의 책판, 1911년 속집의 책판, 보각판이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이 판목은 도산서원에서 기탁한 것이 아니고, 汾川李氏 龔巖宗家에서 기탁한 것이다. 이는 1931년 퇴계와 농암의 학문적 전수관계를 두고 진성이씨와 영천이씨 사이에 심각한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농

『先祖延謚後辨題錄』, 筆寫本, 한국국학진흥원 광산김씨후조당종가 기탁본.

순조 26(1826)년 기록인 先祖延謚後辨題錄은 烏川答李氏單子(7월), 烏川牌旨(8월 20일), 烏川與鄉員單子(9월), 鄉員答烏川單子(10월23일), 烏川呈陶山單子(10월30일), 烏川答鄉員單子(11월), 鄉員與鄉中單子, 鄉員與烏川單子, 李氏通洛川文, 烏川呈陶山單子, 洛川呈英陽兼官初狀(12월4일), 題辭, 再呈兼官狀(12월7일), 題辭, 三呈兼官狀(12월17일), 題辭로 구성되어 있다. 제사에는 겸임이 처결할 일이 아니므로 본관을 기다려 소장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처분되어 있다.

암의 후손들이 『鶴巖續集』을 간행하면서 「授受錄」에서 ‘退溪李先生’이라고 한 대목을 ‘退溪李滉’이라 고친 것에 대해 퇴계의 후손이 ‘諱’해야 한다면서 반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퇴계의 후손이 영남의 서원·문중·향교·서당 등지로 보낸 통문과 입장을 밝힌 답서를 받고, 도산서원에서 재회를 열고 분천이 씨를 도산서원 儒案에서 영구히 삭제³⁸⁾시킨 일로 해서 판목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로 「漁父辭」의 판목도 농암중가에서 가져갔을 것으로 보인다. 『농암선생문집』의 간본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

8. 『陶山及門諸賢錄』

퇴계와 그의 문인들에 대한 사적을 모은 5권본 문인록이다. 퇴계선생의 제자 蒼雪齋 權斗經(1654~1726)이 약 260여 명의 문인을 추려 『溪門諸子錄』을 편찬하였다. 이후 퇴계의 후손 청벽 이수연(1693~1748)이 60여 명을 추록해 『陶山及門諸賢錄』을 편찬하였고, 이후 山後齋 李守亶(1695~1768)이 10여 인을 추록하였고, 廣瀨 李野淳(1755~1831)이 다시 10여 인을 첨부하면서 체제를 개편하고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해 완성하였다. 이수항이 추가한 문인의 수는 적었지만, 『理學通錄』의 체제를 적용한 것이어서 각판할 등재본의 편집 기준이 되었다. 초간본의 권1-4까지는 본집이고, 권5는 속록이다. 수록된 인물은 총 309명이다. 인명마다 성명, 字號, 生歿年, 本貫, 居住地, 퇴계와의 관계, 官歷, 사제관계를 뒷받침할 증빙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다.

초각은 1913년 4월말 역원을 정한 후 간역에 들어가 1914년 완성하였다. 초각시 역원의 명단이 「陶山諸子錄刊役時爬錄」이다. 도도감은 유학 金基洛이며 도감은 李晷淵 등 8인이며, 교정도감·교정유사·사본·판교도감·감각도

38) 『汾李滉錄事變日記』, 寫本, [1931], 張1.

한국국학진흥원. 정보마당. 문화콘텐츠. 선인의 일상생활 일기. 변무일기 이수환, 「경북지역 서원의 사회적 특성과 교육활동」, 『慶北書院誌』, 개정판, 2009, 56쪽.

감·감인도감·都辦·時到·直日을 두었으며, 마지막에 “癸丑四月二十四日”이라 기록되어있다.

초각 후 서애 후손들이 서애 류성룡과 그의 형인 겸암 류운룡의 서술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 내용은 사림의 공론보다는 퇴계의 몇몇 후손들이 좌지우지해서 공론에 부합되지 않고, 『이학통록』의 체제를 따른다고 했지만 맞지 않고, 『공자가어』나 『이학통록』의 체제와도 멀어졌으며, 배열순서·교정상의 오류·용어와 호칭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비판하였고, 수정한 후에도 문인의 수록 범위 또는 문인들의 행적 기술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였다. 아울러 류성룡과 류운룡의 행적에 대한 기술에도 강한 불만도 제기하였다.³⁹⁾

이를 반영해 1916년 개정하였다. 그 개정판 권말에는 “甲寅(1914)五月日陶山書院刊行”이란 간기가 수록되어 있다. 이 간기는 초간본에 없었는데, 오히려 개정판에 수록되어 있다. 도산서원에서 보관하던 책판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1916년 개정판 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영남대, 전남대, 충남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결국 1919년 병산서원에서 다시 수정해 간행한 바, 이 간본은 계명대에 소장되어 있다. 또 『陶山及門諸賢錄辨訂』도 간행했는데, 국립도서관·계명대·영남대에 소장되어 있다.

9. 『梅花詩·大寶箴』

『梅花詩』는 퇴계가 지은 매화에 관한 시와 글을 목판으로 새겨 인쇄한 것

39) 『單子(安東 眞城李氏 宗家 慶流亭 수장)』, 筆寫本, [1914], (한중연 기탁 MF No.35-007488 單子3)

한국국학진흥원. 정보마당. 문화콘텐츠. 목판아카이브. 목판명. 陶山及門諸賢錄. 金鍾錫, 「陶山及門諸賢錄의 集成과 刊行에 關하여」, 『韓國의 哲學』 28, 2000, 16쪽.

이다. 퇴계는 매화를 끄적이도 사랑해 매화를 노래한 시가 100수가 넘는다. 그 가운데 종종 37(1542)년부터 선조 3(1570)년까지 28년 동안 지은 매화시 62수를 모은 것이다. ‘戊寅(?)冬陶山書院刊’이란 간기가 있으나, 연도를 특정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 시판 13점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간본은 臨東面 柳鍾駿⁴⁰⁾ 성균관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大寶’는 천자의 자리이며, ‘箴’은 문체의 하나로서 풍자하고 훈계하는 내용의 글이다. 이 대보잡은 張蘊古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당 태종에게 올린 글이다. 태종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여 비단 300필을 하사하고, 그를大理寺丞으로 임명하였다. 퇴계가 성균관 대사성으로 있던 명종 9(1554)년 10월 「대보잡」을 써서 왕에게 올렸다고 한다. 이 서판에도 간기가 없어 연도를 특정하기에 어렵다. 이 서판 11점도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각판 년도는 알기 어려우며, 조선말에 각판된 것으로 보인다. 간본은 성균관대, 충남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두 판목은 『누판고』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고종 8(1871)년 『영남읍지』에 수록되어 있다. 미루어 순조 18(1818)년 무인에 각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시판과 서판이 합철된 서적은 울진의 黃壽錫가에 소장되어 있다.⁴¹⁾ 이외 陶山記, 屏銘, 四勿箴, 四時吟, 惺惺齋八詠, 心箴의 서판도 한국국학진흥원 기탁 판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蒙齋先生文集』

퇴계의 손자인 李安道(1541~1584)의 유고집 3권이다. 그의 자는 逢原, 호는 蒙齋이다. 조부에게 학문을 배워 성리학에 깊은 조예가 있었으며, 퇴계 문하의 여러 학자들과 교유하였다. 명종 16(1561)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선조 7(1574)년 음서로 관직에 나가 穆濤殿參奉·豐儲倉副奉事·尙書院副直長·司

40)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 5집, 문화재관리국, 1996, 1026쪽.

41)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 1: 大邱, 慶北』, 文化財管理局, 1986, 692쪽.

醜直長을 지냈다. 예안의 東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조선말에 간행되어 『누판고』에 수록될 수 없다.

『溪山世稿』에 포함된 『蒙齋逸稿』와는 편차가 달라 동일판은 아니다. 당해 문집에는 간기가 수록되지 않았으나, 융희 3(1909)년 이전 도산서원에서 각 판⁴²⁾한 것으로 추정된다. 책판은 도산서원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완판이 전래되고 있다. 판목의 권두서명은 『蒙齋先生遺稿』인데, 전래하는 목판본은 보이지 않는다. 융희 3(1909)년 도산서원에서 간행한 『몽재선생문집』 석판본이 국립중앙도서관·도산서원·의성 김창회·청도 김형수·구미 노진환 덕에 전래되고 있으나, 목판본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된 도서도 모두 석판본이다. 판목이 전래되는데도 목판본의 유통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의아하다 하겠다.

11. 『誣書辨破錄』

晦齋 李彥迪이 강계에서 7년간 유배생활을 할 때 그의 아들 李奎仁이 시봉하면서 아버지와 주고받은 어록과 학문에 대한 문답을 수록한 『關西問答錄』을 현종 6(1665)년 이전인의 손자 李弘炘가 간행하였다. 이후 회재 후손간에 갈등이 생겨 嫡派가 초각판을 숙종 23(1697)년 휘판하였다. 재기를 노린 玉山派에서 숙종 46(1720)년 李弘炘의 손자 李後聃과 李鶴年이 경주부의 지원을 받아 중각하고, 휘판을 방지하기 위해 그 판목은 경주부에 보관시켰다. 이후 순조 11(1811)년 이학년의 손자 李昱이 삼간하였다.

후손 간의 갈등과는 별도로 『關西問答錄』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편지 가운데 퇴계를 언급한 부분을 문제 삼아 영조 43(1767)년 도산서원에서 반발하였다. 도산서원 측에서는 李道顯(1726~1776)을 중심으로 『關西問答錄』을 휘판할 것을 주장하면서, 『誣書辨破錄』을 영조 44(1768)년 간행하였다. 도산서

42) 한국국학진흥원. 정보마당. 문화콘텐츠. 목판아카이브. 목판명. 蒙齋先生文集.

원에서 『關西問答錄』의 휘판을 주장한 이유의 첫째는 퇴계가 이전인에게 潛溪판 호를 준 적이 없다는 점, 둘째는 이언적의 伸冤과 復官은 이전인의 노력이 아니라 선조초 李浚慶 등 대신들의 계청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셋째는 『관서문답록』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盧守愼에게 보낸 李浚 형제의 편지에서 허위로 날조한 내용으로 퇴계를 무함했다는 점이다. 전국 각지의 서원에 통문을 보냈음은 물론 조정에까지 보고하였으나, 결국 도산서원은 『關西問答錄』을 휘판시키지 못하였고, 옥산과도 『誣書辯破錄』을 휘판시키지 못하였다.⁴³⁾

『누판고』에 『關西問答錄』은 경주부 수장이라고 수록되었으나, 『誣書辯破錄』에 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판목 26장 가운데 도산서원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1판만 전래되고 있다. 간본은 계명대, 연세대, 일본 경도대 등에 수장되어 있다. 정조 16(1792)년 간본인 연세대 수장본 『嶠南賓興錄』에는 『誣書辯破錄』이 합철되어 있다.

12. 「文純公退陶李先生墓碣銘」

高峯 奇大升(1527~1572)이 쓴 퇴계의 묘갈명이다. 기대승은 32세부터 12년 동안 퇴계와 서한을 주고받았다. 그 가운데 8년 동안 四端七情을 주제로 주고받은 편지는 유학사상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문순공퇴도이선생묘갈명』은 『高峯集』 권2에 「退陶先生墓碣銘先生自銘并書」로도 수록되어 있다. 이 묘갈명은 『퇴계선생문집』과 『진성이씨족보』에도 수록되어 있다. 도산서원 간행의 두 서적은 10행20자인 점은 동일하지만, 피휘에 있어 개행하거나 대두한 곳과 공격을 둔 곳에 상이한 점이 있다.⁴⁴⁾ 도산서원에서 1916년 간행한 개정판 『도산급문제현록』과 판식이 매우 흡사하여 동시에 각 판된 것이며,⁴⁵⁾ 『도산급문제현록』에 이 묘갈명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국학진

43) 金建佑, 「이언적 관서문답록 휘판시비」, 『藏書閣』 14, 2005.12, 23쪽.

44) 李詒道, 『眞城李氏族譜』, 木版本, 『陶山書院 宣祖 33(1600)』, 墓碣銘.

45) 한국국학진흥원. 정보마당. 문화콘텐츠. 목판아카이브. 목판명. 文純公退陶李先生

흥원에는 별도의 판목으로 2권이 기탁되어 있다. 전체는 4판이다. 별도로 묘갈명만으로 장책한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 묘갈명이 수록된 『도산급문제현록』의 수장처는 국립중앙도서관, 안동대, 영남대 등이다.

13. 『宋季元明理學通錄』

대개 『理學通錄』으로 약칭되고 있다. 이 책은 朱熹 문인들의 계보를 정리하고, 도학의 요체를 규명하며, 주자의 학문을 현창한 이들을 기려 도통 계승을 확립한 책이다. 퇴계는 명종 19(1564)년 『伊洛淵源錄』의 체제를 따라 주희와 그 문인 및 私淑諸子 등 송·명대의 정통 주자학파만을 가려 뽑아 본집 『宋元錄』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비정통 주자학파를 수록할 외집을 준비하다가 완성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월천 등 문인들이 정리하여 선조 8(1575)년 안동부에서 『송계원명이학통록』으로 개명해 간행하였다.⁴⁶⁾ 이 초판본에는 ‘乙亥(1575)刊刻于安東府’란 간기가 있다. 원광대에 수장되어 있다.

그러나 편집과 교정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 수정한 후 선조 9(1576)년 도산서원에서 다시 간행한 것이 도산서원 중각본이다. 이 중각본에 대한 수정 논의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⁴⁷⁾ 이런 이유로 안동부 간본과 도산서원 중각본의 통행본은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영조 19(1743)년 도산서원에서 삼간하였는데, ‘上之十九年癸亥(1743)冬陶山書院重刊’이란 간기가 있다. 여기에 수록된 월천의 발문에 저간의 사정이 밝혀져 있다. 이후 마멸된 책판이 있어 보각한 것으로 보인다. 『누판고』에도 수록되어 있고, 판목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삼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동국대, 성균관대, 안동대, 영남대, 충남대 등 공사의 기관에 많이 수장되어 있다.

生墓碣銘.

46) 李楨 等, 『宋季元明理學通錄』, 木版本, 『陶山書院 英祖 19(1743)], 跋(趙穆).

47) 강경현, 「宋季元明理學通錄의 구성과 의의」, 『한국학연구』 32, 2014.2, 496~498쪽.

14. 『松齋先生文集』

퇴계의 숙부 松齋 李堦(1469~1517)의 시문집이다. 자는 明仲이며, 호는 松齋이다. 송재는 연산군 4(1498)년에 문과에 급제한 후 사간원정언, 이조좌랑, 사헌부헌납 등을 역임하였다. 연산군 12(1506)년 동부승지로 입직하는 날에 중종반정이 일어나자 이에 협력하여 靖國功臣 4등에 녹훈, 靑海君에 봉해지고 우부승지가 되었다. 중종 9(1514)년에 입직 승지로서 신하의 도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는 비난을 받아 삭훈되었다가, 이듬해 안동부사로 서용되었다.

송재 사후 조카인 퇴계가 편집해 시집 3권과 습유를 직접 필사해 가지고 있었는데, 송재의 외증손 竹牖 吳灑이 충주목사로 있던 선조 17(1584)년 4월 퇴계의 필사본을 등재본으로 해서 간행했다.⁴⁸⁾ 이후 판목을 도산서원으로 옮겨 장치해두었으므로, 도산서원 각판본이 아니고 장판본이라 하겠다. 『누판고』에도 도산서원 장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정조 20(1796)년 이전에 이판된 것이다. 죽유는 각판한 그해 겨울 충주를 떠났으므로, 이르면 선조 17(1584)년 겨울에 이판된 것으로 보인다. 간본은 연세대와 한국국학진흥원에 수장되어 있다.

이후 광무 4(1900)년 12대손 李中麟과 李元魯가 속집과 부록을 간행하였다. 간본은 계명대, 단국대, 전남대에 수장되어 있다. 1937년 이원로의 손자 李鍾朱가 별집을 간행하였다. 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경기대, 고려대, 전남대 등에 수장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간본을 보면 원집과 속집·별집의 판식은 유사한 형태이지만 필체가 다른데, 원집은 퇴필을 등재본으로 한 초각판을 활용한 것이다. 眞城李氏 松堂派 松齋宗家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先祖松齋先生文集重刊時記事』가 그 관련기록이다.⁴⁹⁾ 이 책판은 도산서

48) 李堦, 『松齋先生文集』, 木版本, [1937], 跋: 吳灑, 李元魯, 識: 李中麟.

김순희, 「李堦의 松齋先生文集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45, 2010.6, 215~233쪽.

49) 『先祖松齋先生文集重刊時記事』, 筆寫本, [年紀未詳], 1册.

원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것이다.

15. 『易學啓蒙傳疑』

명종 12(1557)년 퇴계가 주자의 『易學啟蒙』에 명대 韓邦奇(1479~1556)의 『易學啓蒙意見』의 해석에서 요점을 뽑고, 자기 의견을 덧붙여 편찬한 『역학계몽』의 대표적인 주석서이다. 이 책을 편찬한 이유는 후대 주석에 의견이 서로 일치되지 않아 후학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인용문의 출처도 알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자가 다룬 주제와 후대 주석에서 쟁점이 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자의 심오한 이치를 드러내고자 하였다.⁵⁰⁾ 이 『역학계몽전』은 조선의 『역학계몽』 관련 저작 가운데 최초의 본격적 저술이어서 후대 퇴계학파의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내용은 河圖洛書의 數理, 八卦의 구성 원리, 占書와 관련된 수리, 팔괘를 중심으로 占의 변동을 설명한 4개의 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자의 『역학계몽』을 본받아 점서로 보아 술수를 중시하는 象數易學과 철학서로 보아 사상적 의미를 중시하는 義理易學을 동일선상에 놓고, 상수역학에 관해 초학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술한 것이다. 그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초학자들도 쉽게 역학에 입문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다.

선조 33(1600)년에 도산서원에서 간행하였고, 『누판고』에도 수록되었다. 충남대에 수장된 간본 중 한 판본이 초간본의 후쇄본으로 보인다. 고종 31(1894)년 3월에 도산서원에서 작성한 『退溪先生年譜重刊時評任 附 啓蒙傳疑 重刊』이 전래되고 있어,⁵¹⁾ 고종 31(1894)년에도 간행한 것으로 볼 수 있

50) 李滉, 『啓蒙傳疑』, 木版本, 重刊, 『陶山書院』 1915], 序 張1.

51) 『退溪先生年譜重刊時評任 附 啓蒙傳疑 重刊』, 筆寫本, 『陶山書院』 1894], 도산서원 기탁본.

『甲午退溪先生年譜重刊時評任』, 筆寫本, 『陶山書院』 1894], 70986, 座目0012.

다. 도감은 柳寅睦이었는데, 그는 당시 도산서원 원장이었으며 상주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명확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이때 중각했다기보다는 전에 각판해둔 판목을 이용해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인출하면서 부분적으로 매목하거나 보각했을 것이다. 1915년 중간한 판본에는 ‘乙卯(1915)六月陶山書院重刊’이란 간기가 있다. 중각본의 판목은 도산서원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것이다. 중간본은 계명대, 전남대, 충남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

16. 『吾家山誌』

일명 『漣涼山誌』라고도 한다. 여기서의 오가산 즉 ‘우리 산’은 봉화군 명호면·재산면과 안동시 도산면·예안면에 위치한 청량산을 말한다. 집에서 가까워 퇴계는 제자들과 자주 청량산을 왕래하면서 많은 시문을 남겼고, 청량산 산수에 대한 사랑이 유별나 ‘오가산’ 즉 ‘우리 산’이라 불렀다고 한다. 범례에도 발문에 퇴계가 오가산이라 한 바, 이를 서명으로 삼은 것⁵²⁾이라 하였다.

청량산을 읊은 퇴계의 시문을 모아 퇴계의 11세손인 鳳岡 李晩興(1861~1904)가 주자가 편찬한 『武夷誌』의 편차를 모방하여 편집한 것이다. 1924년에 목판으로 간행한 2권본이다. 20세기에 각판되었으므로 『누판고』에 수록될 수 없다. 도산서원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판목이 있다. 인본은 국립중앙도서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영남대, 한국국학진흥원 등에 소장되어 있다.

17. 『溫溪先生逸稿』

조선 중기의 학자이며 관료인 溫溪 李滄(1496-1550)의 유고 4권본이다.

52) 李滄, 『吾家山誌』, 木版本, 『陶山書院』, 1924], 凡例, 卷1, 張36.

퇴계의 형인 이해의 자는 景明, 호는 濶溪이고, 시호는 貞愍이다. 숙부 李堦에게 글을 배워 중종 23(1528)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좌승지·도승지·대사헌·대사간·예조참판 등을 역임하였고, 명종이 즉위한 후 강원도관찰사·황해도관찰사·청흥도관찰사·한성부우윤 등을 지내다가 李芾의 심복인 李無疆의 탄핵으로 甲山으로 귀양가다가 楊州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숙종 17(1691)년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정조 8(1784)년 貞愍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영주의 三峰書院과 예안의 淸溪書院에 제향되었다.

문집은 6세손 李見龍과 7세손 李世澤 등이 편집하고, 7세손 李級의 後識와 영조 48(1772)년 李象靖의 서문을 받아, 도산서원에서 각판하였다.⁵³⁾ 『누판고』에도 수록되어 있다. 책판은 도산서원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하였다. 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계명대, 고려대, 연세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

18. 『雲巖逸稿』

조선 중기 관료이며 학자인 雲巖 金緣(1487~1544)의 2권본 시문집이다. 자는 子裕이며, 호는 雲巖이다. 중종 14(1519)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중종 19(1524)년 사간원정언으로 재직할 때 권신 金安老의 비행을 논박하여 파직시켰다. 중종 26(1531)년 김안로가 다시 실권을 잡자 鏡城通判으로 좌천되었고, 중종 32(1537)년 김안로가 주살된 후 사간원사간으로 다시 발탁되었다. 이후 동부승지·우부승지·강원도관찰사를 역임하였고, 중종 39(1544)년 경주 부윤으로 임지에서 사망하였다.

문집은 정조 7(1783)년에 8대손 金鏐이 편집하여 간행하였다.⁵⁴⁾ 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누판고』에 판목이 도산서원에 소장되어 있다고 수록되어 있다. 도산서원에서 판

53) 李滄, 『濶溪先生逸稿』, 木版本, 『陶山書院, 英祖 48(1772)], 跋文(李世澤).

54) 金緣, 『雲巖逸稿』, 木版本, 『陶山書院, 正祖7(1783)], 序(蔡濟恭), 跋(丁範祖).

목 6판을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하였고, 더 많은 30판을 광산김씨 가문에서 기탁하였다.⁵⁵⁾ 책판이 두 곳에 분산된 것은 『근시재문집』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암의 아들인 후조당의 시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가에서 밤중에 판목을 급히 수습하다 보니 다 수습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19. 『月川先生文集』

퇴계의 문인인 月川 趙穆(1524~1606)의 시문집 6권본이다. 자는 士敬이고, 호는 月川이다. 15세에 퇴계의 문하에 들어간 嫡傳弟子이다. 명종 7(1552)년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하였으나, 곧 과거 공부가 道學이 아니라 하여 포기하고 학문에만 정진하였다. 명종 21(1566)년 이후 수차례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부임하더라도 곧 사퇴하였다. 선조 40(1607)년 세상을 떠난 뒤 광해군 6(1614)년 11월 퇴계 제자 중 유일하게 도산서원의 상덕사에 모셔졌다. 다음해 예천의 鼎山書院·봉화의 昌海書院에 배향되었다.⁵⁶⁾ 도산서원 중향이 성사되었으나 문집은 즉각 간행되지 못하였다. 현종 3(1662)년 예안현감 李碩寬의 도움을 받고 월천의 아들 趙錫朋의 주도로 간행할 수 있었다. 이 초간본은 도산서원에 소장되어 있다.⁵⁷⁾ 이 초간본에는 許穆의 서문만 수록되어 있다.

월천의 문인 金澤龍이 지은 「月川言行錄」에 언급된 선조 30(1597)년 월천이 서애에게 보낸 편지와 생질인 琴蘭秀의 아들인 晚修齋 琴業이 지은 「행장」으로 인해 현종 6(1665)년 서애계가 반발하였다. 문제를 제기했던 서애계 김응조의 발문이 수록된 점으로 미루어, 현종 7(1666)년 간본은 월천계가 양보

55) 한국국학진흥원. 정보마당. 문화콘텐츠. 목판아카이브. 목판명. 雲巖逸稿.

『경북지역의 목판자료 (1)』, 한국국학진흥원, 2005, 312~313쪽.

56) 趙穆 『月川先生文集』, 木版本, [陶山書院 顯宗 3(1662)], 卷1. 年譜, 張17.

57) 薛錫圭,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필사본 月川先生文集」, 『국학연구』 5, 2004, 253~254쪽.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간행한 개간본으로 보인다. 실제로는 김응조의 발문을 추가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매목으로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응조의 발문이 수록된 개간본은 계명대에 수장되어 있다. 국립도서관 수장본도 개간본 계열이나 낙장이 많아 보사된 부분이 많다. 이 판목은 『누판고』에 수록되어 있고, 도산서원에서는 보존해오던 책판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중간본의 간행연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연보를 목차 앞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부록에는 초간본에는 제외시켰던 전기류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개간본의 「연보」에 월천은 鼎山書院과 昌海書院에 배향되었다고 했으나, 중간본에는 정산서원과 文巖書院에 배향되었다고 수록되어 있다.⁵⁸⁾ 창해서원은 광해군 3(1611)년 건립되어, 숙종 20(1694)년 문암서원으로 사액되었다.⁵⁹⁾ 따라서 중간본은 숙종 20년 이후 판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간본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전남대 등에 수장되어 있다. 중간본도 부분적으로 개각하거나 보각한 것으로 보인다.

20. 『朱子書節要』

퇴계가 처음 14권으로 편집한 초기 서명은 『晦菴書節要』였다. 퇴계는 중종 말년부터 주자학에 심취하여, 『朱子大全』을 중시하였다. 퇴계는 『주자대전』, 특히 서찰에 감동한 바가 많아서, 서간 1,700여 편 가운데 학문과 관계되는 1,008편을 발취하고 목록과 주해를 달아 입문서로 편찬하였다.⁶⁰⁾ 『心經』에는 心學의 공부법과 敬의 공부론이 완비되어 있지만, 실제 적용하는데 사

58) 趙穆, 『月川先生文集』, 木板本(改刊本), [刊年未詳], 卷1 年譜, 張17.

59) 朴容大 等, 『增補文獻備考』, 鉛活字本, 隆熙 2(1908), 卷213 奉化, 張22.

60) 朱熹著·李滉編, 『朱子書節要』, 古活字本(丁酉字), [陶山書院 正祖年間], 識(奇大升).

우정임, 「退溪 門徒 서적간행과 書院의 기능」, 『지역과 역사』 22. 2003.4, 246쪽.

람마다 다른 자질과 병통에 따른 처방은 기대할 수 없었다. 퇴계는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이 주자의 서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후 『주자서절요』는 남인계 서원은 물론이고, 서인계 서원인 紫雲書院과 老江書院 등에서 科業이 아닌 道學과 爲己之學의 교재로서 활용하였었다.

黃俊良(1517~1563)이 명종 11(1556)년 新寧縣監(1551~1556)으로 있을 때 간행한 판본⁶¹⁾이 초간본으로 보인다. 여기에 잘못된 곳이 있어 개정해 명종 16(1561)년 성주목사(1560~1563) 황준량이 임고서원의 목활자를 빌려 간행한 중간본의 서명은 『회암서절요』이고, 15권본이었다. 고려대 만송문고와 계명대에 잔본이 소장되어 있다. 이후 명종 20(1565)년경 해주에서 柳仲郢이 15권본을 목활자로 간행했고, 명종 21(1566)년경 평양에서는 鄭宗榮의 주도로 간행하였다.⁶²⁾ 도산서원에는 『회암서절요』 완질본 목활자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정확한 간행지, 즉 성주판 또는 해주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주에서 『회암서절요』를 간행한 바 있는 류중영이 명종 23(1567)년 定州牧使로 부임한 후 난해한 문구를 해설하고, 목록 1권·지기·문인의 성명·사실을 수록하여 다시 간행하였다. 이 정주본은 목판으로 간행했으며, 이때부터 서명은 『주자서절요』로 바뀌었다. 선조 8(1575)년 鄭述가 천곡서원에서 20권본을 목판으로 간행하였는데, 후대의 판본은 이 체제를 답습하게 된다. 이 판본에는 퇴계의 서문이 첨가되어 있다. 선조 19(1586)년 김성일이 나주목에서 간행했고,⁶³⁾ 광해군 3(1611)년에는 전라도 관찰사 鄭經世가 전주부에서 간행

61) 李滉編 『退溪先生文集 續集』, 木版本, [正祖年間, 卷4 書, 答黃仲舉, 與黃仲舉, 張4~9.

권차별로 인출되는 대로 장황할 것 없이 보내주면 오자를 고쳐 인출하면 된다고 함. 따라서 이때 소량일지라도 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정임, 「退溪 門徒 서적간행과 書院의 기능」, 『지역과 역사』 22, 2003.4, 246쪽.

62) 崔彩基, 『退溪 李滉의 朱子書節要 編纂과 刊行에 관한 研究』, 博士論文(성균관대), 2013.2, 173~176쪽.

63) 金誠一, 『鶴峯先生文集』, 木版本, [純祖 3(1803)], 附錄 권2, 張15.

했는데, 간기는 萬曆三十九(1611)年仲秋重刊于全州府이다. 고려대에 소장되어 있다. 정주본을 저본으로 영조 19(1743)년에 도산서원에서 다시 각판하였다.⁶⁴⁾ 九刊本人 도산서원에서 간행한 『주자서절요』 20권본에는 “上之十九年 癸亥(1743)秋陶山書院刊”이란 간기가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동국대·서울대·안동대·성균관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판목만 『누판고』에 수록되어 있다. 영조말 이후 교서관에서 무신자로도 간행하였다.

광무 8(1904)년에는 마멸되거나 훼손된 판목을 보각하여 간행하였다. 이때는 默溪의 13명 각수를 동원해 각판하기로 했는데, 마침 南道에서도 『朱子語類』를 간행하게 되어 각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각수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齋任 李晩始 등이 안동군에 보낸 11월 29일자 문서가 있다.⁶⁵⁾ 이 판본에는 ‘元陵癸亥(1743)後百六十二年 今上四十一年甲辰(1904)冬陶山書院重刊’이란 간기가 있다. 판목은 도산서원에서 기탁하여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다. 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동국대, 안동대, 성균관대, 충남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

21. 『眞城李氏族譜』

진성이씨 최초의 족보는 선조 33(1600)년에 발간한 3권본 『眞城李氏族譜』이다. 이는 퇴계가 손수 기록한 譜系에 그 손자 蒙齋 李安道가 속찬한 譜略을 토대로 종중의 李庭檜와 李亨男 등이 자료를 보완하고 교정해 간행한 것이다. 정자와 주자의 『世譜源流圖』를 모방해서 탐방과 검증을 거쳐 편집하고, 퇴계 문인 金功과 吳澐의 서문을 수록하였다. 간기는 없지만 오운의 서문을 통해 도산서원에서 간행⁶⁶⁾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퇴계선생문집』 간행을

64) 崔彩基, 『退溪 李滉의 朱子書節要 編纂과 刊行에 관한 研究』, 博士論文(성균관대), 2013.2, 164~192쪽.

65) [갑진년 이만시와 이용호 등이 겸성주에게 올린 서책 간행건에 대해 내린 제음]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고문서. 牒·關·通報類 牒呈. 牒報. 17.

주관했던 월천과 퇴계의 손자 東巖 李詒道가 중심이 되어 문집각판에 동원되었던 각수와 남은 자재를 활용하여 선조 33(1600)년 발간하였다. 일명 ‘眞城李氏 陶山譜’ 또는 ‘眞城李氏 庚子譜’라 한다. 이 초간본은 한국국학진흥원, 계명대와 (구)성암박물관에 소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쪽 표기는 천자문 순서인 ‘天地玄黃 宇宙洪荒’의 순으로 ‘率濱歸王 鳴鳳在樹’의 ‘鳴’까지 수록되어 있다. 代數는 一代, 二代로 표기되어 있다. 譜圖는 매면 5층의 황간에 시조 李碩으로부터 12대손까지 각 세대마다 출생순으로 수록되어 있고, 자와 여(사위) 및 그 내외손의 계보를 남녀구별 없이 같은 비중으로 수록한 족보이다.⁶⁷⁾ 조선후기에 발간된 족보에 비해 내용이 풍부하고 자세한 것이 특징이다. 이 판목의 일부는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⁶⁸⁾

이후 숙종 14(1688)년 『眞城李氏世譜』 戊辰譜를 중간했고, 영조 23(1747)년에 李允이 可倉齋에서 『진성이씨족보』를 간행했다. 정조 23(1798)년 戊午譜를 간행했고, 철종 11(1860)년 『眞寶李氏世譜』인 庚申譜를 간행했다. 진성이씨는 眞寶李氏라고도 하는데, 이는 진보현이라는 지명에서 온 말이다. 1912년에 壬子譜를 간행했다. 이후는 대동보를 간행하지 못하고, 파보만 간행해왔다. 1913년에 李忠鎬 등이 간행한 上溪派 세보인 『眞寶李氏上溪派世譜』에는 ‘歲癸丑(1913)六月陶山書院刊’이란 인장이 권말에 김인되어 있다. 이 세보는 목활자로 간행되었으므로 판목은 없다.

22. 『耻齋先生遺稿』

恥齋 洪仁祐(1515~1554)의 시문집 3권본이다. 홍인우의 자는 應吉이며, 호는 恥齋이다. 중종 32(1537)년 사마시에 합격한 후 대과에 응시하기보다는 학문에 전념하였다. 부친이 병환일 때 직접 연구하여 약을 처방할 정도로 의

66) 李詒道, 『眞城李氏族譜』, 木版本, [陶山書院 宣祖 33(1600)], 序(吳震).

67) 李東厚, 「眞城李氏 族譜의 概略」, 『東洋禮學』 12, 2004.2, 104~110쪽.

68) 『경북지역의 목판자료 (1)』, 한국국학진흥원, 2005, 368~369쪽.

약에도 조예가 깊었다. 치재는 徐敬德의 제자인 許曄, 朴淳 등과 교유하여 서경덕의 제자로 알려졌다. 그러나 38세에 처음 퇴계를 만난 이후 서로 방문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며 학문을 토론한 인연으로 『도산급문제현록』에 문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도산서원에서 그의 문집을 각판한 것도 이런 인연 때문으로 보인다. 沂川書院에 배향되었으며, 아들 洪進(1541-1616)의 공으로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홍진은 임진왜란 때 호종한 공으로 屢聖功臣 2등에 책록되었으며, 唐興府院君에 봉해졌다

퇴계로 시작하여 율곡으로 끝나는 유일한 책으로 더 유명한 치재의 문집은 두 차례 간행되었다. 초간본은 아들 홍진이 관직을 사직한 후에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許箴의 서문을 받아 선조 40(1607)년 간행하였다. 9행19자 초간본은 고려대에 잔본이 수장되어 있다. 중간본은 인조 17(1639)년 安東判官인 증손 洪有炯이 부록과 시 2제, 잡 1편, 서 6편을 증보하여 도산서원에서 간행한 3권본이다. 중간본은 『누판고』에 기록되어 있다. 중간판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중간본은 계명대, 고려대, 단국대, 연세대, 안동대 등에 수장되어 있다.

23. 『退溪先生文集』

李滉(1501~1570)의 시문집인데, 原集·外集·別集·世系之圖·續集·年譜를 총칭한 것이다. 도산서원에서 각판한 서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질의 서적이다. 『퇴계선생문집』은 우리나라에서의 문집 편성에서 도학적 전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퇴계가 직접 정리해둔 詩藁와 文藁를 적절하게 증산해서 간행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겠는데, 제자들은 퇴계가 등한시했던 서간이 시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고, 정치적·학술적인 내용이 담긴 중요한 작품이라 생각하였다. 이는 주자의 서간을 중시한 퇴계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퇴계의 글을 수집, 정리, 편차하는 과정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방대한 편수이다 여러 차례 수집과 편차를 거치게 됨으로써 판종은 복잡하게 되어 갈피를 잡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전래하는 기록과 서적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문집은 판본에 따라 크게 사본과 목판본으로 나눌 수 있다.

사본은 6차례 정리되었다. 퇴계 자신이 정리한 親筆稿本, 初本이라고 하는 『退陶先生集』, 中本으로 불리는 『退溪先生集』, 中本の 重校本, 中草本, 定稿本인 『退溪先生集』, 全書本인 『退溪先生全書』이다.⁶⁹⁾

親筆稿本: 퇴계는 자신의 시문을 산정하고 분류해서 詩藁와 文藁로 나누어 보관했다. 현재는 『문고』 2책이 전래되고,⁷⁰⁾ 『시고』는 일실되었다.

初本: 퇴계 사후 최초로 정리한 원고로서 서명은 『퇴도선생집』이다. 퇴계의 손자 李安道와 문도 趙穆·禹性傳 등이 퇴계 사후 이듬해인 선조 4(1571)년부터 유문을 정리하여 선조 12(1579)년경 완료하였다. 서애와 眉巖 柳希春의 건의로 선조 6(1573)년 9월 퇴계의 문집을 교서관에서 인출하란 명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선조 11(1578)년에 이안도가 어느 정도 정리된 초고를 가지고 서울로 갔었다. 월천이 정리한 초고는 퇴계의 모든 저작을 망라하고자 하여, 원집에 덧붙여 심지어 퇴계가 제외한 시까지 모아 별집·외집으로 편집하고, 서간도 수집한 것이었다. 교서관에서 인출하라는 선조의 명이 있을 후, 이안도가 집록한 원고를 수습해 가지고 선조 11(1578)년 상경했을 때는 집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퇴계가 鄭惟一에게 보낸 편지로 해서 갈등이 유발되었다. 앞서 신

69) 徐廷文, 「退溪集의 出刊과 月川·西厓是非」, 『北岳史論』 3, 1993. ; 沈慶昊, 「錦城刊行 溪山齋稿과 庚子本 退溪文集의 刊行 經緯에 대한 일 고찰」, 『季刊書誌學報』 19, 1997, 65~98쪽; 문석윤, 「退溪文集의 정본 편성 과정에 대한 일 고찰」, 『退溪學論集』 17, 2015.12, 9~48쪽; 鄭錫胎, 「退溪集의 編刊 經緯와 그 體裁」, 『退溪學論集』 2, 2008, 157~326쪽; 鄭錫胎, 「書簡 중심의 문집 출현과 退溪集: 退溪集 諸 異本에 대한 한 고찰」, 『退溪學論集』 17, 2015.12, 141~178쪽.

70) 鄭錫胎 外, 『退溪李滉圖版稿發 韓國書藝史特別展 21』, 修訂版, 예술의 전당, 2001, 42쪽, 재인용함. 각급 도서관에 소장된 서적은 초판본인데, 수정판과 다른 점이 있다.

진사림이 李訥·林百齡 등 을사사화의 주모자를 삭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퇴계는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한 別紙 2폭이 문제가 되었다. 在京門徒들은 닥쳐올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서애를 중심으로 乙覽을 위해 보내 온 초고를 편집·교정·정사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완성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을람 계획도 무산되었다. 서애와 재경문도들은 대폭 산거해서 퇴계 학문의 정수만 선별해 간행하자고 주장하였고, 월천과 향촌의 문도들은 퇴계의 전체 원고를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원고는 일반 문집체제로 편집된 것은 아니며, 중복과 누락이 많은 상태였다.

전체는 100여 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도산서원에 20책이 전래되고 있다. 표지의 책차는 천자문순으로 기록되어 있고, 면지에 土純校·安道校·而見校 등 교정자명이 기록되어 있고, 書眉 또는 부전지에 교정하고 산절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서간문에는 작성연대가 기록되어 있다.⁷¹⁾

中本 : 퇴계의 시문 전체를 수록할 목표로 만든 문집 초고본이다. 이안도가 주관하여 『퇴도선생집』을 저본으로 선조 13(1580)년부터 일반 문집 체제의 원고로 작성하다가, 선조 17(1584)년 이안도가 사망하였다. 월천이 뒤를 이어 편집을 담당해 선조 19(1586)년 완성한 원고가 中本 『퇴계선생집』이다. 내집 시권 2책과 별집 1책은 이미 초본 편집시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중본은 목록을 포함해 51책으로 편집되었다. 현재는 목록 3책과 중교 대상이 된 37책을 합한 40책이 전래되고 있다.⁷²⁾ 퇴계 친필본을 제외하고 가장 원형에 가깝다는 평이 있다.

中本の 重校本 : 중본 『퇴계선생집』 51책을 『주자대전』의 체재를 따라 편차하고 중교한 원고이다. 월천과 서애의 편집방침이 달라 선조 19(1586)년 산절을 주장한 서애와 이를 반대하는 월천의 대립에서 학봉이 중재하여 산절

71) 鄭錫珪 外, 『陶山書院 光明室 및 上溪 光明室 所藏資料 撮影 結果 解題』, 退溪學報114, 2003, 243쪽.

72) 鄭錫珪, 「書簡 중심의 문집 출현과 退溪集 諸 異本」, 『退溪學論集』 17, 2015.12, 149쪽.

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이에 선조 20(1587)년 여강서원에서 서애와 학봉의 주도로 교정하기 시작해 선조 21(1588)년 초까지 산절해 재차 교정하였고, 그 해 6월에 병산서원에서 교정 및 편집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중본 『퇴계선생집』 40책 가운데 목록 3책을 제외한 37책이 중교본이다. 면지의 교정자 명을 통해 이안도, 김성일, 류운룡, 류성룡, 琴鳳瑞, 金垓, 金允安 등이 교정한 것을 볼 수 있다. 서미 또는 부전지에 교정하고 산절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中草本 : 선생의 片言隻字라도 빠지 않고 전부 수록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한 월천과 秋淵 禹性傳을 위시한 제자들이 선조 21(1588)년 중교가 끝난 후 다시 수정하고 보완해 선조 22(1589)년 가을 정서를 마치고 교정한 원고가 중초본 『퇴계선생문집』이다. 重校本을 정서하고 여기에 내집 시권 3책을 더한 원고이다. 이 과정에서 서간을 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하였고, 체제와 편차가 정해졌다. 선조 25(1592)년 월천이 주관해서 여강서원에서 목활자로 간행하려고 했으나, 임진왜란으로 중단되었다. 선조 25년 문집의 간행이 추진된 것으로 보아, 정리가 어느 정도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이 원고를 재활용하여 定稿本을 작성하였다. 정고본으로 유추하면 48권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⁷³⁾

定稿本 : 정유재란이 끝난 선조 31(1598)년 월천의 주도로 도산서원에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여, 선조 32(1599)년 완료하였다. 초간한 경자본 『퇴계선생문집』 등재본의 저본이다. 전쟁 후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중초본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었다. 정고본은 내집 27책, 별집 1책, 외집 1책과 후에 서애가 편집한 연보 1책을 합한 30책이었지만, 번남본 필사 이후 3책 정도 유실된 듯하며 현재는 내집 27책만 전래되고 있다.⁷⁴⁾

73) 鄭錫胎, 「書簡 중심의 문집 출현과 退溪集 諸 異本」, 『退溪學論集』 17, 2015.12, 150쪽.

74) 鄭錫胎, 「書簡 중심의 문집 출현과 退溪集 諸 異本」, 『退溪學論集』 17, 2015.12, 150쪽.

全書本 : 『퇴계선생문집』은 선조 33(1600)년 초간한 이후, 현종 9(1843)년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중간되었다. 후손 痴翁 李彙傳(1809-1869)가 주도하여 퇴계의 모든 저작을 집대성하고자, 고종 6(1869)년 40여 명이 도산서원에 모여 『주자대전』의 체제를 따라 광명실에 수장된 문집 초본을 바탕으로 전존 모든 시문을 정리한 것이다. 이때는 문집의 범위를 넘어 퇴계의 저작과 관련한 자료 전체를 모은 전서를 편성한 것이다. 전체는 내집 66권, 별집 2권, 외집 1권, 속집 8권, 유집 내편 10권, 외편 15권으로 모두 102권으로 편찬했으나 공간하지는 못하였다.

이 『退溪先生全書』는 樊南本·上溪本·下溪本の 3종 필사본이 있다. 번남본은 李彙傳가 자신의 樊南家塾에 수장한 97권의 원고본이다. 상계본은 1910년 이후에 후손들이 번남본을 저본으로 유집을 보충하고 재정리한 것이며, 상계의 중간에 보관했기 때문에 상계본이라고 한다. 목록 1권과 원집 66권, 속집 8권, 별집 1권, 외집 1권, 유집 20권을 합한 96권이다. 1950년 6·25전쟁 때 몇 책이 유실되었다. 하계본은 아직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다.⁷⁵⁾

목판본은 세 차례 각판되었다. 선조 33(1600)년 간행한 庚子初刊本, 영조 즉위(1724)년의 甲辰重刊本, 현종 9(1843)년의 癸卯三刊本이 있다. 초간본은 물론 중간본과 삼간본에도 보각이 있다.⁷⁶⁾

庚子初刊本 : 임진왜란이 끝난 선조 32(1599)년 월천의 주도로 도산서원에서 퇴계의 문집간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선조 33(1600)년 월천은 서애가 산절한 중본의 중교본을 무시하고 산절되지 않은 정교본으로 도산서원에서 『퇴계선생문집』을 간행하였다. 당시 북인이 서애가 국왕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야 하는데도 도리어 ‘和’자로서 국가의 대사를 그르쳤으니(誤國), 이

75) 鄭錫珪 外, 『陶山書院 光明室 및 上溪 光明室 所藏資料 撮影 結果 解題』, 『退溪學報』 114, 2003, 254~257쪽.

76) 李謙魯, 「退溪先生文集 重刊時日記 解題」, 『奎章閣』 2, 1978, 102~129쪽; 李源周, 『退溪先生文集 研究』, 『嶠南漢文學』 1, 1988, 1~108쪽; 李源周, 「退溪先生文集과 退溪先生全書」, 『退溪學報』 62, 1989.6, 63~72쪽; 鄭錫珪, 「退溪集의 編刊 經緯와 그 體裁」, 『退溪學論集』 2, 2008, 157~326쪽.

는 송나라의 秦檜보다 더한 간신이며, 특히 산림에 있는 鄭仁弘과 趙穆과 같은 인재의 등용을 막고 있다고 탄핵하였으므로, 결국 서애는 선조 31(1598)년 삭탈관작 되었다. 이로서 서애는 퇴계의 문집 간행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각판된 문집은 원집 49권, 별집 1권, 외집 1권 등 모두 51권본이다. 초간본에는 당시까지 수집된 퇴계 이황의 모든 저작이 수록되었다. 원집은 퇴계가 직접 편집한 작품을 수록한 것이고, 별집은 퇴계가 제외시킨 시를 모아 수록한 것이다. 초간본은 옥산서원 5책과 계명대 잔본 25책이 전래되고 있는데, 이를 합하면 완질이 된다. 단국대에도 잔본의 일부가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는 초각판은 보물 1895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경자본 책판에는 보각판도 포함되어 있다.

庚子本에서 발견된 오류를 교정해 개각한 판본이 庚子本補刻版이다. 이들 보각판을 擬庚子本 또는 庚子本覆刻本이라고도 한다. 경자본 간행 직후 서애를 중심으로 개간이 논의되었다. 개간의 이유는 처음 합의한 것과 같이 원고를 산절하지 않고 문집을 간행했다는 것과, 경자본에서 오류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서애의 제자 鄭經世 등이 교정하였지만, 전면적인 개각에는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다만 오류만 개각했고, 류성룡이 편찬한 연보 3권과 부록 1권·세계도를 경자본에 추가시킨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차례 부분적으로 개각과 보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경희대, 단국대, 도산서원, 서울대, 영남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 소장되어 있다.

甲辰重刊本 : 전체를 다시 각판한 중간본은 영조 즉위(1724)년의 甲辰重刊本이다. 이는 三嘉公⁷⁷⁾이 중심이 되어 각판한 것이다. 갑진중간본은 초간본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시킨 것이며, 처음으로 교감기록을 書眉에 첨각한 것이다. 갑진중간본은 외집과 별집을 포함해 51권이다. 초간본 경자본의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차이점은 두주가 첨각되었다는 점이다. 이때는 등

77) 三嘉公은 퇴계의 5대손 李集(1672-1747)이다. 자는 伯生, 호는 洗心齋이다. 음관으로 의금부도사, 삼가현감 등을 지냈다. 저서는 『從心錄』, 『禮論』과 문집 『洗心齋集』이 있다.

재본을 새로 써서 간행했다기보다 상당부분 보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래본의 상당수는 갑진중간본이다. 중간본은 경북대, 계명대, 고려대, 도산서원, 동국대, 서울대, 영남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중각 이후 속집을 간행하였다. 속집은 6세손 청벽 이수연(1693-1748)이 경자본에 수록되지 못한 습유를 수집해 영조 22(1746)년 8권으로 편찬한 것이다. 완전한 판본을 만들기 위해 중초본을 바탕으로 일고를 수집하고 교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 내용이 완비되었음은 물론, 판식이 전체적으로 엄격하고 자체도 해정한 편이다. 저본이 된 필사본도 전래되고 있다. 간본 발문에 ‘上之三十二年丙寅仲春上澣六代孫守淵謹跋’이란 문구가 있는데,⁷⁸⁾ 사후에 글을 쓸 수 없으므로 아마도 영조 31년이 아닌 영조 22년 병인년의 오각으로 보인다. 『누판고』에는 『퇴계선생문집』에 부기되어 있다.

속집까지 언급된 것으로 보아 『누판고』에 수록된 『퇴계집』은 갑진중간본으로 보인다. 정조 12(1788)년에 편찬된 『退溪先生文集攷證』에 속집이 포함되어 있고, 정조 20(1796)년 편찬된 『누판고』에도 수록되었으므로, 정조 12(1788)년 이전에 간행된 것이다. 판목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간본은 서울대, 숙명여대, 연세대, 영남대, 전북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갑진중간본도 부분적으로 보수하다가 순조 17(1817)년 정축년 대대적으로 보각하였다. 이 판본을 甲辰重刊丁丑補刻本이라 한다. 이때 보각한 전말은 『先生文集改刊日記』⁷⁹⁾에 수록되어 있다. 이는 어람용을 인쇄해 보내라는 감영에서 전달한 홍문관의 관문을 받은 후 판목에 마멸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고, 이이순(1754~1832)이 중심이 되어 보각한 것이다. 이 일기에는 보각한 배경, 진행 과정, 비용과 재원 마련 방안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때 廣瀨李野亭(1755~1831)의 箚疑 100여 조를 기존의 책판에 두주로 첨각하였고, 10분의 1에 달하는 극히 불량한 200판 정도를 보각하였다. 이 책판에는 판면

78) 李滉著·李守淵編, 『退溪先生續集』, 木板本, [陶山書院, 1922], 跋(李守淵), 張2.

79) 한국국학진흥원. 정보마당. 문화콘텐츠, 선인의 일상생활, 일기. 先生文集改刊日記

이나 마구리 등에 ‘丁丑改刊’이란 각서 또는 목서가 있다. 간본은 고려대, 성균관대, 영남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 소장되어 있다. 판목 서미에 두주를 새겨 붙이려고 첩판 조각을 덧대어도 견고하지 못한 폐단이 있었다고 하므로, 두주 탈락 정도로 정축보각본의 후인본을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癸卯三刊本 : 정축보각 이후 26년 만인 현종 9(1843)년에 전면적으로 새로 각판한 것이 계묘삼간본이다. 李泰淳, 柳暉作과 柳台佐 등이 주동이 되어 『퇴계선생문집』을 간행하였다. 癸卯校正重刊本이라고도 불리는데, 갑진본처럼 두주가 첨각되어 있다. 판식이 엄격하게 10행18자의 형식과 통일된 판심이고 자체도 해정한 편이다. 당시 간행 경위는 현종 9(1843)년 작성한 『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각판장소는 鳳停寺였으며, 그 판목은 도산서원에 장치하였다. 보각판을 포함하여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이 계묘삼간본은 원집 49권, 별집, 외집, 연보 4권으로 구성되었는데, 연보에는 현종 5(1839)년에 내린 치제문까지 수록되었다. 경북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영남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

24. 『退溪先生言行錄』

蒼雪齋 權斗經(1654~1726)이 숙종 33(1707)년에 『退陶先生言行通錄』 8권본을 편찬하였다. 퇴계의 언행을 學問·行實·出處·議論·雜記·考終記의 6類로 구분하고, 25門目으로 세분하였다. 창설재는 초고를 가지고 스승인 李玄逸(1657~1730)과 상의하였고, 이현일의 아들 李栽(1657~1730)의 발문을 받아 두었으나 생전에 출간하지 못하였다. 사후 경상도관찰사 趙顯命(1690~1752)의 도움으로 영조 8(1732)년 안동에서 간행하였다. 세칭 花山本이라 하는 초간본이다. 계명대, 단국대, 동국대, 부산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이 출간되자 안동과 예안의 선비 사회에서 적지 않은 물의가 있었다. 『화산본』에는 퇴계가 勿菴 金隆에게 강의한 ‘古文前集講解’ 18조목은 공맹정주의 정맥을 이은 학자로서의 위상을 드러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심통성정에 대한 명종의 물음에 대해 퇴계가 답한 『堂後日記』에서 멋대로 21자를 삭제하여 문맥이 통하지 않게 했다는 점, 명종 22(1567)년에 명나라 사신 許國과 魏時亮이 왔을 때 퇴계가 접반관으로서 한 활동을 기록한 『回示天使錄』에서 퇴계는 의도적으로 尹祥(1373~1455)을 생물연대와 다르게 뒤에 배치했는데, 창설재가 멋대로 연대순으로 고쳤고, 자신의 서문도 실어 퇴계 후손들의 심기를 불편케 한 점 등등이다.

마침 영조가 치제관 鄭亨復을 도산으로 보내어 사제의식을 거행하였는데, 이때 예안의 선비들이 『화산본』을 태워달라는 연명 정문을 올렸다. 영조는 이 문제는 관에서 개입할 일이 아니라 사림에서 알아서 처리토록 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전교를 내렸다. ‘按使金尙星啓辭’를 통해 저간의 사정을 볼 수 있다.⁸⁰⁾

이후 개간본은 3차례 간행되었다. 먼저 퇴계의 6세손 청벽 이수연이 중심이 되어 화산본을 대폭 수정하고 도산서원에서 간행하였다. 이 중간본이 영조 8(1732)년 도산서원에서 개간한 『퇴계선생언행록』 6권본이다. 권1에서 권5까지는 32문목으로 나눈 類編이며, 권6은 김성일이 지은 실기, 鄭惟一이 지은 『言行通述』 등이 수록된 부록이다. 근래 연구에 김성일의 전언이 가장 많이 채택되었고, 조목이나 류성룡 등은 현저하게 약화되거나 배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⁸¹⁾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英廟八年壬子(1732)陶山書院開刊’이란 간기가 있다. 이 중간본은 『누판고』에 수록되었으며, 판목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이 중간본은 성균관대와 전남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고종 4(1867)년의 삼간본에는 “英廟八年壬子陶山書院開刊, 今上四年丁卯重刊”이란 간기가 있다. 간본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광무 9(1905)년 사간본에는 “英廟八年壬子陶山書院開刊, 今上四年丁卯重刊,

80) 李守淵, 『靑壁集』, 木活字本, [刊年未詳], 卷3 按使金尙星啓辭, 張11.

金彥鍾, 「退溪先生言行錄 小考」, 『淵民學志』 4, 1996, 69~98쪽.

81) 정우락, 「퇴계언행록의 형성과정과 제자들의 ‘퇴계’ 인식」, 『퇴계학논집』 17, 2015.12, 215쪽.

四十二年乙巳重刊”이란 간기가 있다. 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경상대, 동국대, 부산대, 안동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삼각본의 판목을 활용하고 일부 보각한 것으로 보이는 사각본의 판목이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25. 『退溪先生自省錄』

퇴계가 스스로 성찰하기 위해 명종 10(1555)년부터 명종 15(1560)년까지 문인들에게 보낸 서한 가운데에서 수양과 성찰에 도움이 되는 서한 22통을 직접 선택해 엮은 것이다. 『주자서절요』가 완성된 후 명종 13(1558)년 5월 南彦經, 鄭惟一, 權好文, 金富倫, 李珥, 黃俊良, 奇大升, 盧守愼, 이들 8명에게 보낸 편지를 선별해 편찬하였다. 내용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퇴계선생문집』에도 전부 수록되어 있다. 학문과 관련된 내용과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 등을 담은 글인데, 초학자들의 병통에 대한 진단과 처방, 학문하는 자세, 학문하는 요체인 거경공리의 방법, 欺世盜名의 경계란 4주제로 분류될 수 있다.

이 편지를 통해 퇴계는 미발 시 존양, 이발 시 성찰을 가장 기본적인 공부법으로 제시했던 정자나 주자의 공부론을 계승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 敬의 의미를 ‘엄격한 도덕성’이나 ‘자기통제’를 넘어 ‘예술과 자연에의 감응의 유연성’으로 확대해석한 경의 공부론을 확립한 것이다.⁸²⁾

선조 18(1585)년 가을 학봉이 나주목사 재임시 간행한 초판본에는 “萬曆十三年乙酉(1585)冬羅州牧開刊”이란 간기가 있다. 초판본은 도산서원에 소장되어 있었고,⁸³⁾ 국립도서관, 계명대, 고려대, 단국대, 전남대에 소장되어 있다.

82) 柳鐸一, 「朱子書節要의 編纂 流通과 朴光前의 位置」, 『退溪學과 韓國文化』 32, 2003, 97~134쪽.

83) 李春熙, 『朝鮮朝의 教育文庫에 관한 研究』, 景仁文化社, 1984, 「現存書院藏書目錄」, 101쪽.

이 목록에 의하면 간기와 “陶山書院上”이란 기증기가 있다.

『陶山書院 古典籍』, 한국국학진흥원, 2006, 193, 305쪽.

이 목록에는 서적은 수록되지 않았고, 木板類에는 『退溪先生自省錄』 42점이 수

이들의 서명은 『퇴도선생자성록』이고, 판심서명은 “자성록”인데, 후쇄본으로 보일 정도로 마멸이 심한 판본도 있다.

나주판의 판목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나주목 초각판을 도산서원으로 옮겨 장치했다⁸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봉이 나주목에서 각판은 마쳤으나 인출은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임진왜란 때 판목을 약탈당했으며, 이후 일본에서 3차례 복각했고, 일본의 인본이 전해져 정조 17(1793)년에 각판했다⁸⁵⁾고 하는 것이다.

학봉은 선조 15(1582)년 8월에 나주목사로 부임하였고, 선조 19(1585)년 12월 면직되었다. 면직되기 전 가을에 『주자서절요』와 『퇴계선생자성록』을 간행하였다.⁸⁶⁾ 또한 나주목 간행의 간기와 함께 난외에 “陶山書院上”이란 기증기가 있는 서적이 도산서원에 수장되어 있다.⁸⁷⁾ “도산서원상”이란 기증기는 나주목에서 인출해서 도산서원에 기증할 책이란 의미로 나주목에서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각판 후 임진년까지 7년간이란 시간이 있었고, 학봉이 각판 후 곧 체임되었으므로 체임시에 도산서원으로 옮겨 장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조 18(1585)년본 『고사촬요』 나주목에 『자성록』이 수록되어 있고, 영조 16(1740)년경 편집된 『冊板置簿冊』과 정조 20(1796)년 편찬한 『누판고』에는 예안의 도산서원 장관으로 『퇴계자성록』이 수록되어 있다.⁸⁸⁾ 도산서원

록되어 있다.

84) 한국국학진흥원. 정보마당. 문화콘텐츠. 목판아카이브. 목판명. 退溪先生自省錄.

85) 呂增東, 「退溪先生自省錄 初刊羅州本 解題」, 『退溪學報』 61, 1989, 68, 72쪽.
나주에서는 각판한 후 인출하지 못하였는데, 임진왜란 후 왜군이 환국할 때 나주본 각판을 짚어지고 갔다고 추정했는데, 나주에서 각판 후 6년간 인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86) 金誠一, 『鶴峯先生文集』, 木版本, [純祖 3(1803)], 附錄, 卷1 年譜, 張15.

87) 李春熙, 『朝鮮朝의 教育文庫에 관한 研究』, 景仁文化社, 1984, 101쪽.

88) 魚叔權, 『攷事撮要』, 木版本, [宣祖 18(1585)], 羅州牧, 103쪽.

徐有渠, 『鏤板考』, 大同出版社, 1941, 189쪽.

『鏤板考』는 정조 2(1778)년 국왕의 諭示로 중앙관서와 8도의 관아를 비롯해 서원·사찰·私家에서 올린 판본을 규장각이 그 존일의 여부를 조사하고, 分門條例

에서 보관하던 책판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따라서 학봉이 체직 되었을 때 도산서원으로 이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는 나주목 인본이 임진왜란 중 전래되었고, 나주판을 저본으로 각판한 것이다.

26. 『後溪集』

퇴계의 9세손 後溪 李暉淳(1754-1832)의 10권본 문집이다. 자는 穉養, 초자는 斐彦, 호는 後溪·晚窩·兢齋·六友堂·六友軒·柀隱 등을 썼다. 정조 3(1779)년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이듬해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정조 23(1799)년 이후 효릉참봉, 선공감봉사, 군자감직장, 의금부도사, 군자감주부, 은진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은진현감 재직 때 竹林書院의 유생 중 균역을 기피하려는 양민을 정리하려다가 오히려 문책을 받아 9개월 만에 물러났다. 순조 11(1811)년에 後溪書堂을 짓고 독서와 예서 공부에 몰두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다.

이들 李彙炳과 宗姪 李彙寧 등이 후계의 초고를 정리하고, 李晚淑이 지은 유사와 姜必孝(1764-1848)의 묘갈명을 받아 증보하고 편차도 개편한 6권본을 철종 12(1861)년경 목활자로 간행하였다. 이 목활자본은 국립중앙도서관, 계명대, 단국대, 연세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 후 저자의 아들 이휘병이 초간본을 바탕으로 초간본에서 빠진 내용을 증보하고, 부록 문자도 추가하고 편차도 재편하여 철종말 또는 고종초에 목판으로 10권본을 간행하였다. 이 중간본은 서울대에 소장되어 있다.

융희 3(1909)년 간행한 판본이 삼간본이다. 융희 3(1909)년 도산서원에서 판각하면서 쓴 『先祖文集刊役時日記』가 있어 그 사정을 알 수 있다.⁸⁹⁾ 이 일

해서 정조 20(1796)년 완성하였다.

鄭亨愚·尹炳泰, 『韓國의 冊板目錄 上』, 保景文化社, 1995, 『冊板置簿冊』, [(1740)年頃], 369쪽.

89) 『先祖文集刊役時日記: 隆熙己酉正月 日』, 筆寫本, [1909].

한국국학진흥원. 정보마당. 문화콘텐츠, 선인의 일상생활, 일기. 先祖文集刊役時日記

기는 眞城李氏 下溪派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것이다. 이 판목은 정조 사후 각판되었으므로 『누판고』에 실릴 수 없다. 도산서원에서 기탁한 10권본의 256판목 가운데 극히 일부인 2판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수장되어 있다.

이외에 도산서원에서 판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서적이 2종이 있다. 하나는 『丹陽禹氏族譜』이다. 도산서원의 『傳掌記』에 광해군 10(1618)년 1월 19일 이씨족보와 우씨족보 판목을 인수인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⁹⁰⁾ 『傳掌記』의 기록을 미루어 생각하면 우씨족보도 도산서원에서 판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英祖 30(1754)년 大邱의 德洞講齋에서 간행한 9권본 木活字本의 『丹陽禹氏族譜』의 서문에 퇴계가 친히 단양우씨의 족보를 필사하여 역동서원에 수장시켰으나,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어 다시 隨聞叢錄하여 禮安에서 1권본을 간행한 바 있다⁹¹⁾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예안이라 표현했으나 도산서원에서 판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판목에 대한 내용은 더 이상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도 도산서원에서 각판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다음 기회에 살펴볼 수밖에 없다. 『소미가숙점교부음통감절요』는 북송 휘종 때의 학자인 少微 江贄가 찬한 『少微通鑑節要』를 眉山 史炤가 음석하고, 明의 鄱陽 王逢이 집의하였으며, 京兆 劉燾이 증교하여 선덕 3(1428)년 간행하였다. 북송 신종 원풍 7(1084)년에 강지가 司馬光이 편찬한 1,362년간의 편년체 통사 『資治通鑑』을 50권으로 요약해 『通鑑節要』를 저술하였다. 『통감절요』가 유통된 지가 오래되었으나 훈석이 소략하고 의문이 간소하기 때문에 훈석을 자세하게 하

90) 한국국학진흥원. 정보마당. 문화콘텐츠. 소장자료검색, 도산서원, 고문서.

崔宇景, 『陶山書院 光明室 장서의 변천과 서지적 분석』, 博士論文(경북대), 2020. 2. 29~31쪽.

91) 『丹陽禹氏族譜』, 木活字本, [大邱: 德洞講齋, 英祖 30(1754)年], 叙文(禹)命構, 宋明欽, 李瀾 張4~6.

고 구두를 명백히 한 것이 『소미통감절요』이다.

이 책의 도산서원 각판의 판목은 『누판고』에 수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재 판목도 전래되지 않았다. 그러나 草澗 權文海의 종손가에 ‘上之十九癸亥(1743)秋陶山書院⁹²⁾이란 간기가 있는 서적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 초간중가의 판본은 확인된 유일한 간본이다. 도산서원에서 각판했다면, 전래본이 더 없다는 것이 의아한 점이다. 혹 조사와 편목 과정에 착오가 있었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가을에 조사해서 단행본에는 반영해야 할 것이다.

Ⅲ. 陶山書院 刻版 過程의 記錄

도산서원에서 각판한 책판의 종수에 있어서 기록마다 얼마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조사한 시기의 차이, 책판의 범위 설정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서 생긴 것이다. 예로 문집의 경우 原集·外集·別集·年譜·續集·附錄이 동시에 간행되지 않았을 경우 각각 셈할 수 있고, 원각판에 보각판을 더한 경우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이도 일률적으로 셈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도산서원에서 각판한 서적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명상 刻板本은 26종에 달한다. 이는 조선시대 서원에서 간행한 서적으로서 가장 많은 종수의 서적을 간행한 것이다. 각판본 26종 가운데 각판 전말을 알 수 있는 서적은 5종이다. 즉 순조 17(1817)년 『퇴계선생문집』을 대대적으로 보각한 甲辰重刊丁丑補刻本의 각판 전말을 기록한 『先祖文集改刊日記』, 현종 9(1843)년 癸卯三刊本을 각판할 때의 전말을 기록한 『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 『도산급문제현록』 간행 전말을 기록한 『及門錄營刊時日記』, 광무 4(1900)년 『松齋集』 보각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先祖松齋先生文集重刊時記事』, 융희 3(1909)년 『後溪集』 간행시의 일기인 『先祖文集刊役時日記』이다.

92)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 1: 大邱,慶北』, 文化財管理局, 1986, 628쪽.

이들 5종 자료는 각판의 논의 과정·인적 구성·원고 교정·경비 규모와 마련·결산·판재마련·장인 동원·각판, 인출, 장황·간본의 반질 등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이에 5자료를 통해 도산서원에서 서적을 각판한 과정에 대해 일별해보기로 한다.

1. 『先生文集改刊日記 丁丑』

이 일기는 순조 17(1817)년 『퇴계선생문집』의 갑진중간정축보각본 각판시의 일기이다. 일기에는 순조 17년 1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 보각한 전말이 기록되어 있다. 권말에 ‘題文集改刊日記後’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題後는 약간 변형된 형태로 李頤淳(1754~1832)의 『후계집』 권7에도 수록되어 있다. 일기에서 1월 5일, 5월 22일, 6월 17일, 18일, 22일자 등에 山長 이이순을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작성자는 이이순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일기는 도산서원에서 2003년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하였다.

순조 16(1816)년 겨울 국왕이 『퇴계집』을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홍문관에 수장되어 있지 않아, 도산서원에 상송할 것을 명한 것이 각판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궁내에 『퇴계집』이 없었던지 국왕의 명을 받은 홍문관에서는 경상감영에 『퇴계집』을 인출해 올리라는 관문을 보낸 것이다. 막상 도산서원에서 『퇴계집』을 인출하려고 책판을 점검해 보니 마모되고 훼손된 판목이 많아 그대로 인출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에 몇 차례 논의를 거쳐 2월 13일 개각을 결정한 후, 6월 30일 고유제를 하였고, 8월 13일 완료하였다.

1) 간행논의와 도감선출

순조 17(1817)년 1월 5일 신년을 맞아 세배를 하는 堂會에서 『퇴계선생문집』을 인출해 상송해야 하는데 판목에 剝缺이 많아, 다시 각판하기로 논의하였다. 당시 도산서원의 원장 李頤淳⁹³은 2월 13일 향례 후 간역을 결정하였

고, 20일 서원의 부속건물인 隴雲精舍에 모여 책판 제작의 실무책임자로 도도감(전 참의 李龜雲)과 도도감을 보좌하여 책판 제작의 실무를 지휘하는 도감(金星儒, 李龜函)을 선출하였다. 전체를 개각할 물력을 감당할 수 없어 마멸이 심한 판목만 각판하기로 정하였다.⁹⁴⁾

2) 마모책판 조사와 등재본 필사

3월 5일부터 원장, 별임 2명, 재임이 간본을 살펴 가장 마멸이 심한 책장을 뽑아내었다. 6일부터는 간본에서 자획이 바르고 깨끗한 부분을 잘라내 붙이고, 획에 작은 결함 있는 곳은 획만 보충하고, 심한 결함이 있는 책장은 새로 필사해서 등재본을 마련하였다. 즉 영조 즉위(1724)년의 갑진중간본의 판목에서 온전한 인면은 지면을 잘 배치하고, 마멸이나 훼손된 부분이 극소수이면 埋木해 보충하고, 많이 손상된 책판은 등재본을 다시 작성한 것이다. 이 일은 李彙寧과 李晩受가 주관하였다. 4월 29일 많이 마모된 책판을 찾아 내니 모두 100여 판이었다. 5월 1일에는 책판을 직접 자세하게 조사해 또 70판을 더 찾아내었다. 전후 모두 180여판이고, 연보와 부록에도 여러 판을 개각해야 할 형편이었다. 인본에서 자획만 떼어내고 새겨 붙여 매목한 것은 자획의 모양을 잃어버려 조화가 되지 않아 등재본을 다시 쓰기로 정하니, 양이 많아 金永獻도 참여시켰다.⁹⁵⁾

93) 우인수, 「조선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 『退溪學과 儒敎文化』 53, 2013, 117쪽.

(19세기 도산서원 원장의 연도별 명단)에 의하면 1816년의 상유사는 李頤亨이었고, 1817년은 金熙周였다. 연도만 밝혀져 있는데, 아마도 각판이 끝난 후 바뀌었을 것으로 보인다.

94) 『先生文集改刊日記』, 筆寫本, [1817], 2月 20日, 張1.

한국국학진흥원. 정보마당. 문화콘텐츠, 선인의 일상생활, 일기. 先生文集改刊日記

95) 『先生文集改刊日記』, 筆寫本, [1817], 5月 1日, 張8.

3) 경비마련과 결산

3월 6일 도도감은 도각수와 각관 품삯을 1판에 1兩1錢으로 결정하였다. 3월 13일 관찰사 金魯敬이 지나는 길에 서원에 들렀다가 刑役都監望紙를 보고 감영에 알리지 않았음을 지적하자, 서원에서는 마모가 심한 판목만 보각하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에 관찰사가 돈 50궤미와 종이 1同의 扶助單子를 써주고 갔다.⁹⁶⁾ 5월 6일 소요되는 물자는 淸安邑과 知禮邑에서 변통하기로 하고, 판재는 영양 注谷 趙氏門中에서 빌리기로 하였다. 21일 淸安에서 돈 10궤미와 두어 근의 담배를 가져왔다. 이어 간행비용을 각처에 분정하였는데, 향교 3냥, 역동서원 5냥, 청계서원 5냥, 분강서원 2냥, 동계서원 10냥, 낙천서원 8냥, 마곡서원 2냥이다. 6월 9일 교정이 거의 완료단계인데, 모금액이 부족하여 땅을 팔기로 결정하였다. 12일 약속한 부조와 종이를 보내달라고 감영에 독촉하였고, 13일 감영에서 50냥을 보내왔다.

6월 21일 각판이 끝나 각수의 공임을 지불하였다. 도각수의 각판공임은 일반적으로 상공임의 2배를 지불하지만, 각판공임에 20냥만 별도로 지급하였다. 교정각수도 상공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원에서는 교정일수를 계산해 한 달 치 상공임에 그가 각판한 3판 공임을 합쳐 15냥을 지급하였다. 공임의 합계는 각수 246냥9전이 되었고, 목수는 15냥5전, 대장장이는 3냥이었다. 이외에 장인들의 식대, 연초, 기타 경비도 들었을 것이다. 7월 1일 결산에 소요된 경비는 쌀 22석10두와 512냥이 소요되었다.⁹⁷⁾ 8월 9일 감영에서 종이 100속을 보내왔다. 간역에 가장 큰 부조는 경상감영에서 하였고, 다음은 각지 향교와 서원에 할당해 부조한 것이었다.

4) 장인동원과 판재마련

96) 『先生文集改刊日記』, 筆寫本, [1817], 5月 1日, 張3.

李頤淳, 『後溪集』, 木版本, [刊年未詳], 卷7 題文集改刊日記後, 張6~8.

문집에 수록된 題後에는 돈 五千文과 종이 百束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97) 『先生文集改刊日記』, 筆寫本, [1817], 7月 1日, 張15.

앞서 素巖 金鎮東(1727~1800)이 원장이고 현 원장 이이순의 부친 李龜蒙(1733~1807)이 별임으로 있을 때,⁹⁸⁾ 개간 논의가 있어 판재 100餘部를 일월산에서 사서 淸涼寺에 보관해 둔 바 있었다. 판재를 마련한 것은 정조 23(1799)년이었는데, 이 판재를 가지러 2월 24일 도감 2명이 갔다. 그러나 십년여 지나서 좀 먹고 썩은 것이 많아 48판은 쓸 수 있겠으나, 52판은 새로 마련해야 했다. 도각수 金應俊과 목수 南哥가 일주일 정도 걸려 판재를 도끼로 깎고 소금물에 삶아 각판에 대비하였다. 5월 9일 도각수와 刊任 李龜恒이 영양 泣谷 趙氏門中에서 판재 100판을 가져왔다.

3월 9일 객사일로 治板木手를 관아에서 붙잡아 가서 판목을 다듬는 일이 중단되었다. 17일에는 산송으로 고지기도 갇히게 되어 일에 차질이 생겼다. 목수와 고지기는 21일에야 풀려났고, 이 일로 감영에 소장을 보내고 하느라 간역이 중단되었다가 4월 26일 간역이 재개되었다. 4월 26일 간역을 재개한 후 책판을 점검하니, 治板하였으나 각판하지 않은 책판과 각판하였으나 미처 마무리를 하지 못한 책판은 갈라진 것이 많았다.

3월 12일 안동에서 각수 2명이 왔고, 13일에는 영주에서 각수 2명이 왔고, 17일에는 龍潭寺 각수승 2명이 왔고, 29일 영주 각수 1명이 왔다. 목수가 잡혀가 각판이 중단되자 돌아갔던 4명의 각수도 4월 26일 돌아왔다. 5월 2일은 광흥사 각수승 1명이 왔는데, 각판에 능한 善刻이었다. 6일에도 각수 2명이 도착하였다. 5월 28일 기록에 전후 모인 각수는 16명이라 기록되어 있다.⁹⁹⁾ 각판이 끝나 6월 11일부터 각수가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각수의 품삯이 200여 금인데, 당시 80냥밖에 없어 다음 달 초에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다. 21일

98) 우인수, 「조선 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 『退溪學과 儒敎文化』 53, 2013, 111~112쪽.

이 논문에는 1799년의 원장은 李鎮東이라 오기되어 있으나, 김석하, 「陶山書院 前任案」, 『退溪學研究 2』, 단국대퇴계학연구소, 1988, 217쪽에는 金鎮東으로 기록되어 있다.

99) 『先生文集改刊日記』, 筆寫本, [純祖 17(1817)], 5月 28日, 張11.

에는 도각수와 교정각수도 돌아갔다.

5) 각판작업과 교정작업

5월 8일 각수 元敏이 잘못된 각판을 교정하기 시작하였다. 6월 1일 산장 李頤淳과 李心淳이 인출본을 교정하였다. 12일 도각수와 교정각수가 뒷마무리를 하기 시작하였다. 20일 각수가 교정을 완료하였는데, 책판은 모두 196판이었다. 8월 9일 책판 4장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각수 1명을 불러 구판 2부를 깎아내고 개각하게 하였다.¹⁰⁰⁾

이 일기에는 인출작업, 상황, 반질에 대한 기록은 생략되고, 8월 12일 인본 1부를 관찰사에게 보냈다는 것으로 끝나 있다. 관찰사에게 보낸 것은 상송용으로 보낸 것인지, 관찰사가 많은 부조를 했으므로 관찰사에게 기증한 것인지는 분간되지 않는다. 아마 상송용을 먼저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인출한 부수를 기록하지 않아 인출부수도 알 수 없으나, 경비를 부조한 곳에는 더 인출해서 보냈을 것이다.

6) 간역 과정의 어려움

간역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어려운 점은 공역은 크지만 재력이 미치지 못한 점이라 하겠다. 이는 모든 일에 다 해당되는 점이라 하겠다. 또 목수와 고지기가 구금되어 지체되었고, 관찰사가 행차했을 때 각수에 대한 원문만 받아놓고, 목수는 언급하지 않아서 객사 일로 목수가 잡혀가고, 관에서 나온 下吏가 행패를 부린 이후 4월 14일까지 간역사업이 중단된 점이었다.¹⁰¹⁾ 또 5월부터 한 달 넘게 장맛비가 쏟아져서

100) 『先生文集改刊日記』, 筆寫本, [純祖 17(1817)], 8月 9日, 張15.

101) 『先生文集改刊日記』, 筆寫本, [純祖 17(1817)], 文集改刊日記後叙, 張15~16.
李頤淳, 『後溪集』, 木版本, [刊年未詳], 卷7 題文集改刊日記後, 張7.

尙德祠 북쪽 담장이 무너졌고, 光明室에 물이 스며들어 서책이 젖을 정도였다. 이 뒷수습하느라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또 하나는 권차마다 장차마다 가려 뽑은 것에 따라서 각판하였기 때문에 수미가 이어지지 않고, 상하에 차례가 없으며, 책장을 건별로 기록한 것이 하도 잡다하여 정밀하게 살피고 명심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어긋나기 쉬웠다는 것이다. 이는 인본에서 훼손된 부분을 기록하고, 판목을 조사하여 마모된 부분을 가려내어 두 가지를 통합하여 기록한 후 각판하였기 때문이다.¹⁰²⁾ 그러다보니 권14 장35와 외집 장20은 개각한 것으로 잘못 알고서 빠트렸고, 구판 권33 장19와 장20은 애당초 개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8월 9일 다시 각판하였다.

그러나 이런 일기를 기록해두었기 때문에 오늘날 당시 보각과 인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2. 『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

현종 9(1843)년에 전면적으로 새로 각판한 『퇴계선생문집』의 계묘삼간본 간행의 전말은 통문관 주인이었던 李謙魯의 구장본 『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에서 볼 수 있다. 권말에 朴箕寧의 지문이 있다. 당시 『퇴계선생문집』의 판목이 마멸되어 현종 2(1836)년 10월부터 중각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으나, 간행이 완료된 것은 7년이 지난 현종 9(1843)년 윤7월이었다.

1) 간행논의와 도감선출

현종 2(1836)년 10월 李泰淳(1759~1840)이 주관하여 본향의 사람과 퇴계

102) 『先生文集改刊日記』, 筆寫本, [純祖 17(1817)], 文集改刊日記後叙, 張15~16. 李頤淳, 『後溪集』, 木版本, [刊年未詳], 卷7 題文集改刊日記後, 張7.

의 문집 중각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호계서원과 병산서원에서 호응하였으며, 도산별소에 간역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현종 3(1837)년 정월에 경향 각지의 관원과 선비들이 慈山府使 李彦淳의 집에 모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都摺監은 豐安君 柳相祚로 정하고 업무를 분담하였다. 아울러 영남 4鎭營에 통문을 보냈다. 9월에는 본부 향교에서 道會한 후 열읍에 통문을 보냈고, 10월에는 排錢에 기일이 지체되어 열읍에 다시 통문을 보냈다. 11월 도감 朴箕寧과 각각의 소임을 정하였다. 현종 5(1839)년 풍안군이 작고하여 도도감을 柳喆祚로 바꾸었다. 그러나 일은 지지부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종 9(1843)년 4월 5일 都所인 봉정사에서 도회하여 부서와 임원을 선임하면서 본격적으로 간행작업을 시작하였다. 도도감은 李彦淳, 도감은 朴光錫을 위시한 8명, 교정도감은 鄭象晉을 위시한 18명, 교정유사는 李在嵩을 위시한 88명, 도청에는 柳夏祚를 위시한 4명, 運板은 金道壽를 위시해 7명, 出板은 朴聃寧을 위시해 8명, 監寫는 趙熙龍을 위시한 34명, 監刻은 金永獻을 위시한 89명, 監役은 權奎度를 위시해 52명, 監印은 崔雲錫을 위시한 86명, 直日은 鄭昌德을 위시한 30명을 정하였다.¹⁰³⁾ 도합 425명이 동원되었다.

2) 원고교정과 등재본 필사

현종 7(1841)년 3월에는 李家淳과 金永獻 등이 亦樂齋에서 한달간 교정하였다.¹⁰⁴⁾ 현종 8(1842)년 12월에도 이가순 등이 도산서원과 각자의 집에서 간본을 고교하였다. 현종 9(1843)년 2월 3일 간본과 구분 6책을 도산서원에서 보내왔으며,¹⁰⁵⁾ 李彙寧 등이 간본을 교정하였고, 사본 곧 등재본이 거칠어 개사하였다. 3월에 목수 2명이 왔고, 鉅刀匠이 粧頭木을 만들었고, 3일에는 각

103) 『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 筆寫本, [憲宗 9(1843)], 憲宗 9年 4月 5日, 張 9~12.

104) 『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 筆寫本, [憲宗 9(1843)], 憲宗 7年 3月, 張3.

105) 『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 筆寫本, [憲宗 9(1843)], 憲宗 9年 3月 3日, 張5.

판작업을 시작하였다. 4월에 초교본을 인출했다. 도산서원에 수장되었던 문집 초본 42책, 속집 간본 4책, 하회 양진당 수장의 겸암(류운룡)의 수사본 5책이 왔다. 5월에 교본을 인출했다. 7월 오자와 탈자가 많아 구본에 근거해 여러 차례 교정하였다. 22일 초교를 마치고, 23일 재교 인출을 시작하고, 26일 교정을 마치고 정본을 인출하기 시작하였다.

3) 경비마련과 결산

현종 3(1837)년 읍마다 분정할 금전액수를 논의하였다. 9월에는 향교에서 가진 도회에서 배정한 액수에 관한 통문을 읍마다 보냈다. 10월이 되어도 배정한 금액이 모이지 않자 다시 통문을 보내고 임원에게 독려하게 하였다. 이즈음 收錢都摠廳을 두고 자금 확보에 주력하였다. 곧 이어 淸城 등지에서 돈을 보내왔고, 11월 후손인 개성유수로 전임된 李彦淳 등이 부조를 보내왔다. 12월 하회문중에서 돈을 보내왔다. 현종 5(1839)년에는 안동향교 등 각지에서 기부금이 도착하였다. 현종 6(1840)년 3월 九潭 광산김씨 문중에서 기부금 보내왔다. 현종 7(1841)년 각지 문중전과 助錢이 도착하였는데, 관찰사 尹聲大의 조전도 도착하였다. 현종 8(1842)년 11월에는 刊錢 1,259량이 마련되었다. 12월 각읍에서 보낸 排錢 700량도 도착하였다. 현종 9(1843)년 5월에 본손인 寧海府使 李孝淳이 돈과 해산물 보내왔고, 예안의 尹樂莘과 金載禧이 門助錢을 보내왔다. 7월 도도감 溪南公이 각수용 別供錢을 보내왔다. 교정유사 李師延이 三栢堂助錢을 가지고 왔다. 윤7월 25일 비용을 계산하니 便息과 排入金 도합 3,940량7전8푼이고, 出板·烹板·運板에 462량7전5푼 지불했고, 간역과 인출에 3,220량3푼이 들고, 잔금은 258량이었다. 남은 판목 매각대금 150량은 봉정사에 맡겨 이식을 늘려 이후 간행할 때 그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잔금 258량은 廬江書院과 屏山書院에 나누어 보내 다른 서적 인출용으로 남겨두었다.¹⁰⁶⁾ 결국 각판 경비는 각처 서원에 할당해 엄출하고, 퇴계 후손·각 문중·감영·군현의 협조로 마련되었다.

4) 판재마련과 각판작업

헌종 3(1837)년 10월 도각수 2명을 차출하였고, 11월 도각수가 赤城에서 出板하였다. 헌종 4(1838)년 봄에 烹板有司 金行源과 李彙璿이 판목을 점검하고 龍門寺와 天柱寺에 보관하였다. 헌종 6(1840)년 4월 구판을 가져와 봉정사에 장치하고, 등재본을 필사하기 시작하였고, 헌종 9(1843)년 5월 각수 4명이 왔고, 교본을 인출하였다. 6월 말경 연보의 사본과 구분이 왔다. 7월 1일 연보의 초본을 돌려보냈고, 7월말에는 사본의 付板을 끝냈다. 부판했다는 것은 각판하기 위해 등재본을 판목에 부착한 것이다. 이 간본은 헌종 7(1841)년 시작하여 부판이 끝나는 날까지 등사할 때 생긴 많은 오자와 탈자 때문에 구분에 의거하여 여러 차례 考準하였다. 구분에도 오자가 있어서 도산서원에 있는 초본과 다시 고정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았다. 2,500판을 각판했는데, 속집·습유·언행록도 각판하려 했으나 금전 부족으로 중단하였다.¹⁰⁷⁾

5) 인출작업과 상황

헌종 9(1843)년 6월 22일 초교를 마쳤다. 23일 재교 인출을 시작하고, 25일 각판을 완료하였다. 26일 재교를 마치고 정본을 인출하였다. 28일 2명의 인출장이 왔고, 윤7월 3일 裝潢匠 4명도 왔다. 6일 도산서원 수장본인 초본 44책, 구분 31책, 연보 1책, 속집 간본 4책을 돌려보냈다. 12일에 인출장이 돌아갔다. 23일 상황을 마쳤다.¹⁰⁸⁾ 2명의 인출장이 약 50일 걸려 인출을 완료한 것이다.

106) 『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 筆寫本, [憲宗 9(1843)], 憲宗 9年 윤7월 25일, 張 27.

107) 『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 筆寫本, [憲宗 9(1843)], 憲宗 9年 7월 16일, 張23.

108) 『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 筆寫本, [憲宗 9(1843)], 憲宗 9年 윤7월 23일, 張 27.

6) 반질

경비가 충분하지 않아 11질만 인출하여 도산서원·호계서원·병산서원·溪上宗家에 보내고, 도도감·도청·간사 2명이 나누어 가졌다.¹⁰⁹⁾ 11질만 인출한 최초인본 가운데 나머지 3질에 대한 언급이 없다. 11질은 급한 대로 우선 인출한 부수였을 것이며, 이어 경비를 부조한 곳에 보낼 인본을 인출했을 것이다. 그 기증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는 紙墨을 가져와 지속적으로 인출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종 2(1836)년 10월에 임원을 정하고, 도각수도 정하고, 판목을 검사하고, 경비도 모금하고, 등재본을 교정하였다. 현종 9(1843)년 정월 본격적으로 도감이 가동되어 윤7월 25일 상황을 마치면서 간행이 완료되었다. 그간 연인원 2,000명이 동원되었는데 校正有司 88명, 監印 86명, 監刻 88명, 監役 52명, 校正都監 18명, 監寫 34명이 동원되었다.¹¹⁰⁾ 이외 장인으로 각수(각수, 교정 각수) 55명, 목수, 鋸刀匠(粧頭木匠), 인출장, 장황장이 참여하였다. 유럽에서 퇴계의 위상이 높았던 만큼 全道的인 협조로 문집을 간행한 것을 볼 수 있다.

3. 『及門錄營刊時日記』

이 일기는 1914년 『도산급문제현록』을 간행한 전말을 기록한 일기이다. 일기는 1913년 4월 17일부터 기록되었으나, 6월 13일까지의 기록이 있고,¹¹¹⁾ 뒤는 탈락된 상태이다. 간행사업의 발의에서부터 교감 과정, 이 작업에 주도적

109) 『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 筆寫本, [憲宗 9(1843)], 憲宗 9年 윤7월 25일, 張 27.

110) 李謙魯, 「退溪先生文集 重刊時日記 解題」, 『奎章閣』 2, 1978, 6쪽.

111) 『及門錄營刊時日記』, 筆寫本, [1913].

한국국학진흥원. 정보마당. 문화콘텐츠, 선인의 일상생활, 일기. 及門錄營刊時日記.

으로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과 활동, 그리고 이 작업과 관련된 제자와 후손들의 동향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일기는 1913년 원장이면서 간행사업을 지휘한 李中轍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¹²⁾

1) 간행논의와 도감선출

『도산금문제현록』은 도산서원 또는 퇴계의 후손이 처음 발의해서 간행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18세기초 창설재가 처음 편집한 이래 3차의 증보와 개정을 거쳤으나, 200년이 될 때까지도 간행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1913년 정월 良齋 李德弘의 후손인 李運淵이 발간 의사를 밝힌 것에 자극을 받아 李忠鑣(1872-1951)를 비롯해 李麟鎬·李斗鎬 등 퇴계의 후손들이 나서서 文會를 열고 간행을 서두르게 되었다.

1913년 4월 20일 隴雲精舍에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금문록』 발간을 위한 당회를 열고, 24일 소임을 분담하고 수록될 인사의 후손가에 통문을 발송하였다. 이때의 『陶山諸子錄刊役時抓錄』에 따르면 도도감은 金基洛, 도감은 李昶淵을 위시해 8명, 교정도감은 李進和를 위시해 10명, 교정유사 2명, 사본 6명, 板校堵監 6명, 監刻堵監 6명, 監印堵監 6명, 都辦 6명, 時到 10명, 直日 9명을 정했다.¹¹³⁾ 한편 『及門錄營刊時日記』에는 5월 6일에 서원에서 교정을 담당할 인원으로 참봉 李中轍, 李康鎬, 유학 金魯憲, 李中協, 李善求, 진사 李中均을 정하고, 원임에 李昌淵, 首席에 李中喆, 齋席에 李用鎬를 정하였다.¹¹⁴⁾ 두 기록에 합치되는 인물은 李中轍, 李康鎬, 金魯憲, 李中協, 李善求,

112) 이현창·이수환, 「도산서원은 어떻게 책을 만들었는가: 조선시대 출판문화의 특질」,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269쪽.

113) 한국국학진흥원, 정보마당, 문화콘텐츠, 소장자료검색, 기탁문중, 도산서원, 고문서, 도산서원기탁.

金鍾錫, 『陶山及門諸賢錄 集成과 刊行』, 『韓國의 哲學』 28, 2000, 6쪽; 이현창·이수환, 「도산서원은 어떻게 책을 만들었는가: 조선시대 출판문화의 특질」,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282~283쪽.

李中均이고, 5명은 일치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업무분장에 있어 도도감은 대표자, 도감은 사업의 총괄, 교정도감은 교정 실무 담당, 교정유사는 교정 실무를 지원하는 사람, 도판은 경제 책임자, 시도는 방문인 관리자, 직일은 사무 관리와 집행자로 보인다.¹¹⁵⁾ 교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중복되어 보이는데, 교정도감의 인원은 원고에서 오류나 누락이 있는가를 살펴 바로잡는 일을 담당하였고, 판교도감에서는 각판한 후 판목의 오자를 교정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사본은 등재본의 필사를 담당하고, 감각도감은 각판사업 감독, 감인도감은 인출을 감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 원고교정과 등재본 필사

5월 7일 교정을 책임진 李中轍이 교감을 시작하면서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4종 원고 즉 蒼雪齋本(權斗經), 靑壁本(李守淵), 山後齋本(李守恒), 廣瀨本(李野淳)에 상락에 차이가 있고, 『理學通錄』의 범례를 따른 산후재본은 체제가 달라 논란이 생겨 진도가 빠르지 않았다. 처음 사본을 담당할 인원은 李裕容, 金夏鎭, 李智淵, 金東植, 趙炳昱, 李中器였다. 그러나 14일자에는 抄寫儒生으로 李養淵, 李晚靖, 李性鎬, 李世鎬가 언급되어 있다. 베풀어 쓰는 일은 19일 끝났고, 교감은 24일 마쳤다. 이후의 교감은 李中植, 李中轍, 李中喆, 李進和, 李晚燦, 李康鎬, 琴岱基, 李中協, 李善求, 李斗鎬, 李中均, 李秉鎬, 金輝晉, 金魯憲 등이 모여 逐條로 교감하였다. 『門錄』에 수록되지 않은 李中喆과 李斗鎬도 조력하였다. 6월 13일 월천의 「言行總錄」과 고봉의 「墓碣銘 序文」을 『이학통록』의 범례에 따라 권두에 넣을 것을 정하였다.¹¹⁶⁾ 아울러 「범례」를 제정하였다. 문인들의 약력 등 각종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교감작업을 하

114) 『及門錄營刊時日記』, 筆寫本, [1913], 5月 6日, 張1.

115) 이현창·이수환, 「도산서원은 어떻게 책을 만들었는가: 조선시대 출판문화의 특질」,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285쪽.

116) 『及門錄營刊時日記』, 筆寫本, [1913], 6月 13日, 張4.

였다. 간행 작업은 기초 자료의 교감, 등사, 감사, 판각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3) 경비마련과 결산

경비는 각 문종의 부조로 충당하였는데, 그 부조기가 남아 있다. 곧 『癸丑及門錄營刊時扶助記』이다. 여기에는 부조한 인물의 고을과 택호, 부조 금액, 부조금 수령자가 수록되어 있다. 모두 125곳에서 3,951냥을 부조하였다. 부조한 지역으로 보면 퇴계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안동권이 중심이었고, 멀리 경남 밀양, 전남 함평, 보성, 장흥에서도 부조가 있었다.¹¹⁷⁾

이 기록은 대학자 퇴계의 문인록의 간행 과정을 담고 있어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퇴계 문인의 범위, 지역, 영향권과 영향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일기에는 간행의 경비마련과 결산, 판재마련과 각수동원, 각판작업, 인출 작업과 장황, 반질에 대한 언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간행한 때가 일제강점기라 5월 25일에 일본군이 와서 판목을 보여 달라고 하기도 하고, 26일 일본인이 다시 와서 유목을 인출해달라고 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이와는 별도로 급문록 간행시의 경비내역을 기록한 『陶山及門錄刊役時下記』가 전래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소요된 액수와 용도가 기록되어 있다. 전체 소요된 경비는 4,898량9전1푼이었다.¹¹⁸⁾ 가장 많은 비용이 든 부문은 각수공임과 종이 값이었다. 각수공임이 23.0%, 종이값 19.2%, 인쇄와 장황경비가 9.5%였다.¹¹⁹⁾ 이들 비용이 51.7%이다. 경비의 절반이 넘는다.

117) 『癸丑及門錄營刊時扶助記』, 筆寫本, [1913].

1913년 급문록을 영간할 때 후손들이 낸 발간 기금 내역을 기록한 부조기.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 고문서. 치부기류. 부조기.

이현창·이수환, 「도산서원은 어떻게 책을 만들었는가: 조선시대 출판문화의 특질」,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318~319쪽.

118) 『陶山及門錄刊役時下記: 癸丑五月』, 筆寫本, [1913], 張16.

계축년 陶山及門錄刊役時 지출된 경비 내역을 기록한 하기.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 고문서. 치부기류. 용하기.

『도산급문제현록』은 한 문인의 문집을 간행한 서적이 아니었고, 과거시험 대비용의 서적은 더더구나 아니었다. 퇴계의 문인록이므로 안동문화권에서 여기에 누락되었음은 지역사회에서 도태된 것과 같은 의미였을 것이다. 따라서 각 문중에서는 조상과 관련 있는 자료를 보내거나 경비를 부조하였다. 범안동권의 서적 간행이었던 것이다. 여러 문중의 관심에서 간행되나 작성된 공식적인 통지문인 통문, 협의를 위한 편지와 패지, 간행 일기, 간행 조직을 기록한 파록, 간역소를 방문한 인사의 명단, 경비 부조한 부조기, 지출 경비를 기록한 도기와 하기 등을 기록한 문서도 도산서원에 전래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에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4. 『先祖松齋先生文集重刊時記事』

이 자료는 퇴계의 숙부 이우의 문집 『송재선생문집』을 중간할 때의 기록이다. 서원의 중대사로 간행한 서적이 아니었고, 퇴계 후손가의 문집 간행이었다. 문중에서 역원을 정해 임무를 분담해 판각한 때의 기록이다.

『송재집』의 초간은 외증손 죽유 오운이 선조 17(1584)년 충주목에서 退筆을 등재본으로 간행한 바 있었다. 초간판은 죽유가 체직되면서 도산서원으로 옮겨 장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광무 4(1900)년 碧溪 李元魯의 발문을 더해 12대손 李中麟과 李元魯가 속집과 부록을 간행하였고, 1937년 이원로의 손자 李鍾朱가 별집을 간행하였다.

『선조송재선생문집중간시기사』의 표지 우상각에 ‘庚子(1900)三月日’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紙釘으로 철한 가철본이다. 일차 사용했던 종이의 이면에 기록해 판독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다. 본 자료는 광무 4(1900)년 속집과 부록을 간행할 때의 기록이다.

119) 이현창·이수환, 「도산서원은 어떻게 책을 만들었는가: 조선시대 출판문화의 특질」,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305~6쪽.

광무 4(1900)년 봄 중간하자는 논의가 있어 3월 28일 문회를 자기 집에서 가지기로 정했다고 했는데, 이 자료의 필자는 이원로로 추정된다. 역원을 정했는데, 도도감은 전승지 李晩由, 교정도감 李中? 등을 정하였다. 등재본 서사는 龍溪 鎬元과 鹿洞의 敎鐸과 承鐸이 수행했고, 榮川 각수 崔致成 등이 각 판하였다.¹²⁰⁾ 중간하면서 원집도 함께 개간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도산에 가서 초간본 시집을 점검한 후 퇴필을 후대에 전하는 것도 盛事이므로 원집은 구분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보관하고 있던 10여수의 序와 記 각1편과 선현들의 문집에서 찾아내어 속집을 만들었다. 다만 원집에 수록된 습유와 부록은 저술가의 규례에 맞지 않고, 판각도 조악하여 다시 판각하였고,¹²¹⁾ 원집에 수록되지 않은 목록도 편성해 원집에 보충하였다.

5. 『先祖文集刊役時日記』

『선조문집간역시일기』는 진성이씨 하계파 근재문고에서 기탁한 필사본 자료이다. 이 일기에는 융희 3(1909) 1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후계집』을 삼각한 경위와 과정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다. 서명에 언급된 ‘선조’는 후계 이이순(1754~1832)이다. 이는 4월 그믐날 “礪銘의 고증 때문에 사람이 榮川 金寧洞과 李中麟(1838~1917)의 집으로 갔다” 하고, 그 주석에 “선조의 礪文은 雲山 李彙載(1795~1875)가 지었는데, 중린은 그의 胄孫이다”¹²²⁾라고 한 기록을 통해 선조는 퇴계의 9세손 이이순이며, 문집은 『후계집』임을 알 수

120) 『先祖松齋先生文集重刊時記事』, 筆寫本, [年紀未詳].

한국국학진흥원. 정보마당. 문화콘텐츠. 소장자료검색, 先祖松齋先生文集重刊時記事.

121) 김순희, 「李璣의 松齋先生文集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45, 2010.06, 215~233쪽.

122) 『先祖文集刊役時日記』, 筆寫本, [1909], 4月 晦日, 張1.

한국국학진흥원. 정보마당. 문화콘텐츠. 선인의 일상생활, 일기. 先祖文集刊役時日記.

있다. 그러나 이 일기의 작성자는 누구인지를 알기 어렵다.

『후계집』의 초간본은 철종 12(1861)년경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6권 본 목활자본이고, 이를 증보하고 편차도 개편하여 철종말 또는 고종초에 목판으로 간행한 10권본이 중간본이며, 이를 증보하고 개편해서 융희 3(1909)년에 간행한 판본이 삼간본이다.

1) 간행 준비

『후계집』은 서원의 중대사로 간행한 서적이 아니었고, 퇴계 후손가의 문집 간행이었다. 따라서 특별하게 당회를 열고, 소임을 분담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1월 24일에 연보 및 편차를 수정하였고, 2월 3일 유고를 서울로 보내 판서 金鶴鎭에게 발문을 청하였다. 3월 15일 蘆谷에서 李梅巖의 유고를 찾아 고증하였고, 4월 30일 榮川(영주) 운산공의 주손인 이중린의 집에 가서 운산공 이휘재가 지은 묘갈명의 고증을 받았다. 6월 7일 相基가 발문을 받는 일 때문에 紫山에 갔다가, 山城 重洞 묘갈문 첩을 가지고 돌아왔다.

2) 경비마련

5월 5일 追遠齋에서 부조 20궤미, 7월 25일 귀내(龜川) 全普鉉이 부조금 2궤미, 8월 13일 淵谷 金進海가 부조금 2궤미, 8월 14일 宋昌顯이 부조금 2궤미, 8월 16일 龔叟公 댁에서 부조금 2궤미, 龔遠이 부조 5궤미, 8월 21일 吳鼎洛과 吳應鍾이 부조금 2궤미, 東萊公 別廟에서 부조 3냥, 8월 30일 翠巖 댁에서 부조금 1냥을 보내왔다. 도합 35궤미이다. 순조 17(1817)년 『선생문집개간일기 정축』의 제후에 돈 50궤미를 돈 五千文이라 표현한 바, 3,500문이 마련된 것이다. 이 액수는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한 액수이다. 그렇지만 이는 인척들이 보내온 부조이고, 실제 친척과 후손들이 부담한 경비에 대한 기록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3) 등재본 필사와 각판작업

3월 1일 원고의 교열을 받기 위해 三山 柳必永에게 보냈다. 등재본을 필사 하면서 동시에 각판에 들어가 4월 6일 각수 崔致成과 각판비를 장당 4냥6전으로 정하였다. 최치성은 광무 4(1900)년 『송재집』을 각판한 바 있다. 순조 17(1817)년 『퇴계선생문집』의 갑진중간정축보각본 각판시의 공임 1냥1전에 비해 90년만에 물가가 무척 오른 것을 볼 수 있다. 4월 15일 각수 집에 가서 먼저 각판한 것이 잘 되었는지를 살펴본바 체제가 알맞지 않아 4월 20일에는 체제를 고쳐서 등재본을 東烈에게 쓰게 하였고, 이 일은 6월 8일 마쳤다. 7월 15일 각수 3인과 장정 3명이 새긴 판목을 운반하여 왔다. 각수 최치성은 교정본 한 질을 인출하여 갔다. 7월 26일 각수 두 사람(최치성, 劉宗烈)이 교정을 마치고 돌아갔다.

4) 인출과 장황

4월 8일 종이 2툼을 川城 시장에서 가져왔고, 7월 23일 浮浦에서, 7월 25일 佛亭에서 종이를 가져와, 7월 25일 인출을 시작하였다. 8월 3일 인출하는 일을 마쳤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출을 감독한 사람은 基益·東烈·復圭·錫昌·龍圭·相基·昌基이다. 7일 장황을 시작해, 13일 장황을 끝마쳤다. 16일 東烈이 집으로 돌아가는 편에 반질할 문집 10질을 보냈다.

따라서 등재본 필사에 약 50일이 소요되었고, 각판에 약 100일이 소요되었다. 또 인출에는 약 10일, 장황에는 약 7일 걸렸다. 당시 인출한 부수를 알 수 없다. 이 기록에는 판목 마련, 인출부수와 반질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앞의 3종 서적에 비해 규모가 작고 집약된 영남 사람의 노력이 아닌 퇴계 후손가에서 각판했다 뿐이지 과정은 동일했을 것으로 보인다.

IV. 陶山書院 冊板의 特徵과 意義

1. 主享者와의 관련성

이상으로 도산서원에서 각판하고 장판한 26종의 서적과 관련 기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서원 간본의 중심은 서원 주향자의 저작이고, 부차적으로 배향자의 저작이었다. 서원은 성균관이나 향교와는 달리 제향 대상이 공자와 그의 제자가 아닌 해당 지역과 연고가 있는 선현으로서 후학의 양성이나 학행으로 모범을 보였던 인물의 유서가 깊은 곳이었다. 따라서 서원에 제향된 인물의 인품과 학덕을 선양하고 추앙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을 때 서원은 건립되었다. 그러므로 도산서원의 간본도 퇴계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

도산서원의 주향자인 퇴계의 저작은 『經書釋義』·『古鏡重磨方』·『梅花詩』·『宋季元明理學通錄』·『易學啓蒙傳疑』·『吾家山誌』·『朱子書節要』·『眞城李氏族譜』·『退溪先生文集』·『退溪先生自省錄』인데, 10종이다. 약 38% 수준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퇴계집』은 전면적으로 3차례 각판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한다면 실재는 과반이라 하겠다.

퇴계 일문의 저작은 『溪山世稿』·『蒙齋先生文集』·『誣書辨破錄』·『松齋先生詩集』·『溫溪先生逸稿』·『後溪集』 포함 6종으로 23%이다. 퇴계의 제자와 그 학맥을 이은 영남학파의 저작은 『溪巖先生文集』·『陶山及門諸賢錄』·『文純公退陶李先生墓碣銘』·『月川先生文集』·『耻齋先生遺稿』·『退溪先生言行錄』 6종 23%이다. 주향자 퇴계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학파와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대다수 퇴계학파와 관련이 있는 저작이다. 다만 『嶠南賓興錄』·『近始齋文集』·『龔巖先生文集』·『雲巖逸稿』의 4종은 예외라고 하겠다.

대개 당해 서적, 또는 『누판고』와 『읍지』를 통해 도산서원에서 각판 또는 장판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계산세고』·『계암선생문집』·『몽재선생문집』·『무서변파록』·『오가산지』·『진성이씨족보』·『후계집』의 7종은 간기도 없고, 도산서원에서 간행했다는 직접적인 기록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판목이 남아있어 도산서원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했고, 방증이 있으므로 도산서원 각판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산서원에서 간행한 것은 증명되지만, 판목이 전혀 전래되지 않은 경우는 『경서석의』이다.

2. 각판시기

도산서원에서 최초로 각판한 서적은 선조 9(1576)년 각판한 『송계원명이학통록』이다. 장판된 『송재선생문집』은 선조 17(1584)년 충주목에서 각판한 후 옮겨 장치되었고, 『퇴계선생자성록』은 선조 18(1585)년 나주목에서 각판한 후 옮겨진 경우이다. 16세기 각판은 3종이지만, 도산서원 각판은 1종이다.

17세기에는 『경서석의』, 『고경중마방』, 『농암선생문집』, 『역학계몽전의』, 『월천선생문집』, 『진성이씨족보』, 『치재선생유고』, 『퇴계선생문집』의 8종을 각판하였다. 18세기에는 『계암선생문집』, 『교남반흥록』, 『근시재문집』, 『무서변과록』, 『온계선생일고』, 『운암일고』, 『주자서절요』, 『퇴계선생언행록』의 8종을 각판하였다. 19세기 각판된 것으로 추정되는 책판은 『계산세고』, 『매화시·대보잡』, 『후계집』의 3종이다. 20세기초에는 『도산급문제현록』, 『몽재선생문집』, 「문순공퇴도이선생묘갈명」, 『오가산지』의 4종을 각판하였다.

퇴계 재세시에는 각판은 없었으며, 사후 16세기에 1(+2)종, 17세기 8종, 18세기 7(+1)종, 19세기 3종, 20세기 4종을 각판하였다. 조선 후기 학술이 가장 발달했던 17·18세기에 가장 많은 서적을 간행하였으며,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게 된다. 현대에는 오히려 현대 인쇄술로 도산서원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서적이 더 많이 간행되고 있다.

한편 도산서원에서 초각한 서적은 『경서석의』, 『계산세고』, 『계암선생문집』, 『고경중마방』, 『근시재문집』, 『농암선생문집』, 『매화시·대보잡』, 『몽재선생문집』, 『무서변과록』, 「문순공퇴도이선생묘갈명」, 『역학계몽전의』, 『오가산지』, 『온계선생일고』, 『운암일고』, 『진성이씨족보』, 『퇴계선생속집』의 16종이다. 이 가운데 『경서석의』의 『대학』과 『중용』의 석의인 『庸學釋義』는

실제에는 중간본이다. 그러나 퇴계의 뜻에 따라 휘판했으므로, 초각으로 보았다. 도산서원에서 초각과 중각한 서적은 『도산급문제현록』이며, 초각·중각·삼각을 도산서원에서 한 서적은 『퇴계선생문집』이다.

도산서원에서 중각한 서적은 『교남빈흥록』, 『송재선생문집』, 『월천선생문집』, 『치재선생유고』의 4종이다. 도산서원에서 중각하고 삼각한 서적은 『송계원명이학통록』, 『퇴계선생언행록』과 『후계집』의 3종이다. 가장 빈번하게 각판된 서적은 『주자서절요』인데, 도산서원에서 각판한 책판은 九刊本の 책판이다. 여러 차례 각판된 만큼 『주자서절요』의 영향력은 지대했다고 볼 수 있다.

도산서원에서 초각한 서적은 16종, 초각·중각한 서적은 1종, 초각·중각·삼각한 서적도 1종이다. 도산서원에서 중각한 서적은 4종, 중각·삼각한 서적은 3종이다. 九간본을 각판한 서적은 1종이다. 따라서 도산서원에서 초각한 서적이 중심인 것을 볼 수 있다.

3. 주제

조선의 서원은 송대 서원의 영향을 받아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양송시대에는 몇 세대의 노력으로 서원의 각판이 국자감본과 어깨를 겨루게 될 정도로 발전하였다. 송대 서원간본의 주제는 유학 원전과 주해서, 주향자의 저작과 문집, 史學 서적, 과학 서적(의학), 문집과 家學書籍으로 크게 5방면으로 분류한 바 있다.¹²³⁾ 그러나 도산서원 간본의 주제는 상당히 다르다고 하겠다.

주제로 분류하기에는 난해한 점도 있지만, 우선 경부는 『경서석의』·『역학계몽전의』의 2종, 사부는 『도산급문제현록』·『무서변파록』·『문순공퇴도이선생묘갈명』·『송계원명이학통록』·『진성이씨족보』의 5종으로 19%, 자부는 『고

123) 趙國權, 「『重文』의 시각에서 본 양송시기 서원의 도서간행에 대한 고찰」, 『한국서원학보』 5, 2017.12, 116~117쪽.

경중마방·『주자서절요』·『퇴계선생언행록』·『퇴계선생자성록』의 4종, 집부에 『계산세고』·『계암선생문집』·『교남빈흥록』·『근시재문집』·『농암선생문집』·『매화시』·『몽재선생문집』·『송재선생집』·『오가산지』·『온계선생일고』·『운암일고』·『월천선생문집』·『치재선생유고』·『퇴계선생문집』·『후계집』의 15종 57%로 볼 수 있다.

집부의 문집류가 가장 많아 과반수가 넘는다. 다음이 사부와 자부 순이다. 자부는 모두 유가 서적이다. 이는 자부서적이 상대적으로 많이 각판된 중국 송대와는 매우 다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과학기술 특히 의학서적도 상당히 간행된 것으로 보이나, 도산서원 각판본은 유가류 서적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형편이다. 역사학 서적의 간행도 성행되지 않았다. 당시 조선의 사조가 그대로 반영되어 주자학 교조주의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하겠다.

실제 조선시대의 서원간본의 주제를 보면 경남지방은 집부 52%, 사부 43%의 순으로 간행되었다.¹²⁴⁾ 따라서 조선의 서원에서는 유가류 서적을 제외하고 자부서적의 간행은 전무하고, 집부 별집류와 사부 전기류가 주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선상이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경남지방에서는 서원에 제향된 인사 또는 그 후손의 문집 또는 전기류와 관련이 있는 서적들을 많이 간인하였다.¹²⁵⁾ 그러므로 경남의 서원에서는 제향의 기능에 치중해 서적을 판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산서원에서도 주향자의 사상과 학문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퇴계의 문집과 저서를 간행하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또한 서원에서 강학에 사용한 주된 교재는 『四書三經』·『小學』·『家禮』·『周禮』·『儀禮』·『孝經』·『近思錄』·『心經』·『性理大全』·『春秋三傳』·『資治綱目』·『二程全書』·『朱子大全』·『朱子語類』·『聖學輯要』¹²⁶⁾ 등이었다. 강학과 관련

124) 윤상기, 「조선조 경남지방 서원판본」, 『書誌學研究』 60, 2014.12, 30~31쪽.

125) 윤상기, 「경남 함양군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32, 2006.06, 268쪽; 윤상기, 「鏤板考에 수록된 경남지역 서원 藏板」, 『서지학연구』 50, 2011.12, 226쪽; 윤상기, 「경남 산청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52, 2012.9, 132쪽.

126) 朴鍾培, 「學規 조선 서원교육의 이념과 실제」, 『한국학논총』(국민대)33, 2010,

있는 칠서 또는 경서, 예서, 사서류 서적은 유생들이 대개 각자 수장하고 있었을 수 있고, 상당수는 중앙기관과 감영에서 간행한 서적을 기증받은 조상 전래본이 있었으므로 굳이 각판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도산서원에서 각판한 서적은 강학과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서적이 주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서원에서는 강학과 관련있는 서적의 간행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인데, 도산서원에서 판각한 서적에는 강학과 관련있는 서적도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경서석의』·『역학계몽전의』·『송계원명이학통록』·『고경중마방』·『주자서절요』·『퇴계선생언행록』·『퇴계선생자성록』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도산서원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판종

활자본 간행에는 활자만 마련되어 있으면 그다지 큰 비용은 들지 않는다. 처음 활자를 제작할 때 큰 비용이 들지만, 일단 활자가 제작된 이후에는 조판과 인출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목판본을 각판할 때는 판목 마련, 각판 비용, 인출 비용 등 무척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단 각판된 판목을 활용해서 거듭 인출할 때는 활자로 조판해서 인출하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되고 판목이 있는 한 얼마든지 인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장점이 있다.

따라서 小量多種 간행에는 활자가 적합하고, 多量小種 간행에는 각판이 훨씬 더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그런 까닭에 조선 후기 조정에서 전국적으로 배포할 서적에는 활자를 많이 이용하였고, 민간에서는 간행할 서적의 종류가 많지 않으면서도 지역에서의 수요가 많으므로 각판이 성행하였다. 따라서 도산서원 간본의 절대다수는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각판된 책판은 도산서원에 장치되었다. 『몽재선생문집』은 각판 외에도 도산서원에서 거의 동시에 석판

으로도 간행하였다. 『후계집』은 3차례 간행하였는데, 초간은 목활자를 이용하였고, 중간은 도산서원에서 현종 6(1840)년에 각판하였고, 융희 3(1909)년 다시 각판하였다.

도산서원에 장치되어 있는 판목은 26종 가운데 21종이다. 도산서원에서 소장하였으나 후에 증가로 반출된 판목은 『계암선생문집』, 『근시재문집』, 『농암선생문집』, 『운암일고』의 4종이다. 한편 도산서원 장판본은 3종이었다. 『교남빈홍록』은 경상감영이 주관해 각판하고, 책판은 도산서원에 장치하였다. 이때 각판장소는 감영이었기보다 도산서원 인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송재선생문집』은 충주목에서 각판해서 도산서원으로 이판하였고, 『퇴도선생자성록』은 나주목에서 각판해서 도산서원으로 이판한 것이다. 『누판고』와 『영남읍지』에 수록된 판목의 대다수는 전체 판목은 아니더라도 판목의 일부는 확인되었다. 도산서원에 장치되지 않은 나머지 1종은 『경서석의』의 판목인데, 행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영남읍지』에 수록된 퇴계의 유목판으로 「陶山記」·「元朝五箴」·「林居十八詠」·「漁父辭」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도산서원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책판에서 「陶山十二曲」·「屏銘」·「四勿箴」·「四時吟」·「惺齋八詠」·「退溪雜詠」·「丹砂八詠」·「晦齋詩板」은 확인할 수 있다. 『누판고』와 『영남읍지』에 수록되지 않았으나, 책판이 전래되는 것은 20세기에 각판된 경우이다.

판목수에 있어서 가장 적은 수량이 전래되고 있는 판은 『무서변과록』 1판, 『후계집』의 2판이며, 가장 많은 수량이 전래된 경우는 『퇴계선생문집』 계묘판 1,143판이다. 낙장 없이 전체 판목이 전래되고 있는 것은 『교남빈홍록』, 『근시재문집』, 『농암선생문집』, 『도산급문제현록』, 『몽재선생문집』, 『문순공퇴도이선생묘갈명』, 『송계원명이하통록』, 『송재선생집』, 『역학계몽전의』, 『오가산지』, 『운암일고』, 『퇴계선생자성록』의 12종이다. 『계암선생문집』, 『고경중마방』, 『온계선생일고』, 『주자서절요』는 1판이 부족하다. 상당수 완판이 전래되고 있어 다행이지만, 문제는 마멸도라고 하겠다.

조선은 중국과 달라 인구수 즉 문인과 학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 영리

를 목적으로 각판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가나 지방 관청을 제외하고는 여건이 되는 사찰, 서원, 서당, 대가에서 간행해 기증으로 유통시켰었다. 이 경우 사찰은 신도들의 시주로 성사시킬 수 있었지만, 서원은 당해 서원의 힘으로만 간행하기 버거워 여러 서원과 주향자와 관련있는 가문의 찬조를 받아야 했다. 문집의 경우 대개 후손의 가문에서 각판하였으나, 드물게는 鴻儒가 남긴 거질의 서적을 각판하자면 많은 비용을 한 집안의 형편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우므로 대개 지역사회가 협조하여 간행하였다. 퇴계의 문집 간행시 도내 여러 서원 또는 관련 문종과 문인들의 협조로 간행비를 조성하였다.

도산서원의 院規에 크게 영향을 미친 퇴계 선생이 작성한 伊山書院의 원규에 제생들이 독서하는데 『사서오경』을 본원으로 삼고 『소학』과 『가례』를 문호로 삼으며, ... 여러 사적과 자서와 문집, 문장과 과거 공부 또한 널리 힘쓰고 두루 통달하여야 한다¹²⁷⁾고 하였다. 서원은 교육기관이었으므로 교육의 본원과 문호가 되는 서적을 필수적으로 간행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산서원에서는 이들 서적은 전혀 간행하지 않았다. 이는 서원에 입원한 제생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마친 후였으므로, 이들 서적은 모두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서원도 이미 수장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보다 수준 높은 서적을 간행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도산서원은 교육과 서적 생산을 통해 조선 지식사회의 지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V. 結言

도산서원은 조선 首院으로서 학문과 교육에 있어 단연 조선을 선도하였다. 서적의 각판에 있어서도 다른 서원을 선도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도산규

127) 李滉, 退溪先生文集, 影印本, 學民文化社, 1990, 卷41 伊山院規, 3517~3521쪽.

문제현록』의 최종고인 이아순의 증보본에는 경향 각지의 260여명의 문인이 수록되어 있다. 그만큼 영향력이 전국적이었다. 또 그에 걸맞은 각판활동도 하여 선조 9(1576)년 각판한 『송계원명이학통록』을 위시하여 1924년 『오가산지』까지 23종의 서적을 각판하고, 외지에서 판각한 책판도 3종을 장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서원 간본의 중심은 주향자의 저작이다. 도산서원의 주향자인 퇴계의 저작은 10종 38%, 퇴계 일문의 저작은 6종 23%, 영남학파의 저작은 6종 23%, 기타 4종 15%이다. 주향자 퇴계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학파와의 관련성에 있어서도 대다수 퇴계학파와 관련이 있는 저작이다.

퇴계 재세시 각판은 없었으며, 도산서원에서 최초로 각판한 서적은 선조 9(1576)년 각판한 『송계원명이학통록』이다. 마지막으로 1924년 『오가산지』를 각판하였다. 16세기 도산서원 각판본은 1종이며, 장판본이 2종이 있어 16세기 각판은 3종이다. 17세기 8종, 18세기에는 7종에 장판 1종, 19세기 3종, 20세기 4종이었다. 조선 후기 학술이 가장 발달했던 17-18세기에 가장 많은 서적을 간행하였으며,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게 된다. 서원의 흥성이 조선 문예의 흥성과 궤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도산서원에서 초각한 서적은 16종, 초각·중각한 서적은 1종, 초각·중각·삼각한 서적도 1종이다. 도산서원에서 중각한 서적은 4종, 중각·삼각한 서적은 3종이다. 九간본을 각판한 서적은 『주자서절요』 1종이다. 따라서 도산서원에서 초각한 서적이 중심인 것을 볼 수 있다.

주제에 있어서는 경부서적 2종, 사부서적 5종, 자부서적 4종, 집부서적 15종 57%이다. 집부서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경남지방 서원에서 자부별집류를 가장 많이 각판해 45%를 간행한 것과 동일선상이었음을 볼 수 있다. 자부서적에 있어 중국에서는 과학기술 특히 의학서적도 상당히 간행된 것으로 보이나, 도산서원 각판본은 유가류 서적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형편이다. 당시의 사조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주자학 교조주의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하겠다.

도산서원에서 각판한 서적은 강학과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서적이 주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서원에서는 강학과 관련있는 서적의 간행이 거의 없었을 정도인 반면 도산서원에서 판각한 서적에는 강학과 관련있는 서적도 상당수 판각했다는 점이다. 바로 『경서석의』·『역학계몽전의』·『송계원명이하통록』·『고경중마방』·『주자서절요』·『퇴계선생언행록』·『퇴계선생자성록』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도산서원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련해둔 활자가 없는 상태이고 당시 민간에서는 각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26종 모두 각판하였다. 대개 도산서원에서 각판한 판목이지만, 藏板한 판목도 3종이 있었다. 『교남빈흥록』은 경상감영이 주관해 각판했고, 『송재선생문집』은 충주목에서 각판했으며, 『퇴계선생자성록』은 나주목에서 각판한 것인데, 도산서원으로 이관한 것이다. 또 도산서원 각판본으로 서원에 수장되어 있던 판목이 후에 증가로 반출된 판목은 『계암선생문집』, 『근시재문집』, 『농암선생문집』, 『운암일고』의 4종이다.

당시 도산서원에서 각판한 서적은 『누판고』와 『영남읍지』에서 확인된다. 한편 『영남읍지』에 수록된 퇴계의 유목판으로 「陶山記」·「元朝五箴」·「林居十八詠」·「漁父辭」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도산서원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책판에서 「陶山十二曲」·「屏銘」·「四勿箴」·「四時吟」·「惺齋八詠」·「退溪雜詠」·「丹砂八詠」·「晦齋詩板」은 확인할 수 있다.

판목수에 있어서 가장 적은 수량이 전래되고 있는 판은 『무서변과록』 1판, 『후계집』의 2판이며, 가장 많은 수량이 전래된 경우는 『퇴계선생문집』 계묘판 1,143판이다. 낙장 없이 전체 판목이 전래되고 있는 것은 『교남빈흥록』, 『근시재문집』, 『농암선생문집』, 『도산급문제현록』, 『몽재선생문집』, 『문순공퇴도이선생묘갈명』, 『송계원명이하통록』, 『송재선생집』, 『역학계몽전의』, 『오가산지』, 『운암일고』, 『퇴계선생자성록』의 12종이다. 『계암선생문집』, 『고경중마방』, 『은계선생일고』, 『주자서절요』은 1판이 부족하다. 상당수 완판이 전래되고 있어 다행이지만, 문제는 마멸도라고 하겠다. 반면 『경서석의』 판목의 행방을 알 수 없다.

또한 간행의 전말을 기록한 일기도 편찬하였는바 『퇴계선생문집』의 보각과 증각시의 간행과정을 기록한 『선생문집개간일기』와 『퇴계선생문집중간시일기』, 『도산급문제현록』의 간행과정을 기록한 『급문록영간시일기』, 퇴계의 숙부 이우의 문집 속간시의 『선조송재선생문집중간시기사』, 이이순의 문집 『후계집』의 간행과정을 기록한 『선조문집간역시일기』의 5종이 확인되었다. 이들 5종을 통해 책판의 간행논의 과정·인적인 구성·원고 교정·경비의 규모, 마련과 결산·판재마련·장인 동원·각판, 인출, 장황의 제작 과정·간본의 반질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그 간행과정과 당시의 경제사정까지 알 수 있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퇴계선생문집』과 같은 거질의 서적을 각판하자면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이 비용을 한 집안의 형편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우므로 지역사회가 협조하여 간행하였다. 퇴계의 문집은 刊所를 별도로 설치하여 도내 여러 서원 또는 관련 문중과 문인들의 협조와 특정 유지의 기부금으로 간행비를 조성하였다. 『도산급문제현록』을 판각할 때는 퇴계의 제자들이 모두 대상이 되므로 역시 도감을 구성하고 업무를 분장해서 간행했다. 일기에는 간행의 경비마련과 결산, 판재마련과 각수동원, 각판작업, 인출작업과 장황, 반질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경비를 부조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扶助記』에 기록되어 있고,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下記』에 기록되어 있어 그 내역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도산서원에서 간행한 서적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바 도산서원에서 간행한 서적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도산서원에는 간행과 관련한 각종 필사본, 간본, 판목과 일기가 남아있어서 조선시대 서원에서의 서적간행의 과정과 내용을 거의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도산서원은 학문적인 면에서도 선도적인 서원으로 기능하였고, 서적간행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기능을 한 것이 증명되었다.

【참고문헌】

- 강경현, 「宋季元明理學通錄의 구성과 의의」, 『한국학연구』 32, 2014.2, 491~530.
 『경북지역의 목판자료 (1)』, 한국국학진흥원, 2005.
 『及門錄營刊時日記』, 筆寫本, [1913].
 金建佑, 「이언적 관서문답록 휘판시비」, 『藏書閣』 14, 2005.12, 5~34.
 金남기, 「규장각 소장 嶺營藏板의 현황과 성격」, 『嶺南學』 61, 2017.06, 7~33.
 金性潑, 『東國文獻院字錄』, 木板本, [刊行也未詳].
 金순석, 「유교사회와 책판 제작의 사회문화사적 의의-『선생문집개간일기』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2, 2014.03, 439~466.
 金순희, 「李堉의 松齋先生文集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45, 2010.06, 215~233.
 金彦鍾, 「退溪先生言行錄 小考」, 『淵民學志』 4, 1996, 69~98.
 金鍾錫, 「陶山及門諸賢錄의 集成과 刊行에 관하여」, 『韓國의 哲學』 28, 2000, 1~20.
 『陶山書院 古典籍』, 한국국학진흥원, 2006.
 陶山書院, 『藏書置簿』, 寫本, [光武 1(1897)].
 『東儒書院總錄』, 筆寫本, [刊寫地未詳].
 卞洪波·趙偉, 「조선왕조 서원제도 수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 『韓國書院學報』 9, 2019, 207~230.
 문석윤, 「退溪文集의 정본 편성 과정에 대한 일 고찰」, 『退溪學論集』 17, 2015.12, 9~48.
 朴容大 等, 『增補文獻備考』, 鉛活字本, [隆熙 2(1908)].
 朴鍾培, 「學規에 나타난 조선시대 서원교육의 이념과 실제」, 『한국학논총』(국민대)33, 2010, 43~73.
 裴賢淑, 「紹修書院 收藏과 刊行 書籍考」, 『書誌學研究』 31, 2005, 263~296.
 裴賢淑, 「書院 板刻本の 淵源 研究」, 『韓國書院學報』 11, 2020.12, 219~250.
 『汾李誥錄事變日記』, 寫本, [1931].
 徐有渠, 『鏤板考』, 大同出版社, 1941.
 徐廷文, 「退溪集의 初刊과 月川·西厓 是非」, 『北岳史論』 3, 1993, 215~265.
 서종학, 「경서석의 서지 및 국어학적 고찰」, 『人文研究』 17, 1989.8, 1~24.
 『書冊目錄』, 寫本, [純祖 15(1815)].

- 『先生文集改刊日記』, 筆寫本, [1817].
- 『先祖文集刊役時日記』, 筆寫本, [1909].
- 설석규,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필사본 月川先生文集」, 『국학연구』 5, 2004, 233~258.
- 沈慶昊, 「錦城開刊 溪山齋永和 庚子本 退溪文集의 刊行 經緯에 대한 일 고찰」, 『季刊書誌學報』 19, 1997, 65~98.
- 魚叔權, 『攷事撮要』, 木版本, [宣祖 18(1585)].
- 『嶺南邑誌』, 寫本, [高宗 8(1871)].
- 呂增東, 「退溪先生自省錄 初刊羅州本 解題」, 『退溪學報』 61, 1989, 65~72.
- 우인수, 「조선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 『退溪學과 儒敎文化』 53, 2013.08, 85~134.
- 우정임, 「退溪 門徒의 서적간행과 書院의 기능」, 『지역과 역사』 22, 2008.4, 215~258.
- 윤상기, 「密陽 禮林書院版本考」, 『인문학과 문화』(동의대학교), 2004.2, 367~402.
- 윤상기, 「山淸 德川書院版本考」, 『東義論集』 40(인문사회과학편 I), 2004.2, 423~443.
- 윤상기, 「조선조 경남지방의 서원판본」, 『書誌學研究』 60, 2014.12, 5~35.
- 李謙魯, 「退溪先生文集 重刊時日記 解題」, 『奎章閣』 2, 1978, 102~129.
- 李東厚, 「眞城李氏 族譜의 柳名」, 『東洋禮學』 12, 2004.2, 105~110, 85~120.
- 이병훈, 「도산서원의 자료정리, 성과·현황·과제」, 『서원 기록문화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2012, 125~137.
- 이병훈, 「경주 옥산서원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민족문화』 58, 2016.2, 423~480.
-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52, 2012.12, 423~447.
- 이수환, 「영남지역 퇴계문인의 서원건립과 교육활동」, 『국학연구』 18, 2011.6, 9~38.
- 李源周, 「退溪先生文集 研究」, 『嶠南漢文學』 1, 1988, 1~108.
- 李源周, 「退溪先生文集과 退溪先生全書」, 『退溪學報』 62, 1989.6, 63~72.
- 李頤淳, 『後溪集』, 木版本, [刊年未詳].
- 李春熙, 『朝鮮朝의 敎育文庫에 관한 연구』, 景仁文化社, 1984.
- 李鉉式, 『慶尙道誌』, 鉛活字本, 具翰會方, 1936.
- 李滉, 『退溪學文獻全集』 啓明漢文學研究會, 1992.

- 임기영, 「古鏡重磨方の 刊行과 版本」, 『書誌學研究』 56, 2013.12, 213~247.
- 전재동, 「퇴계학과 經傳註釋의 전승과 論語釋義」, 『국학연구』 25, 2014.12, 168~201.
- 정만조 등,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 鄭錫胎 外, 「陶山書院 光明室 및 上溪 光明室 所藏資料 撮影 結果 解題」, 『退溪學報』 114, 2003, 254~257.
- 鄭錫胎, 「書簡 중심의 문집 출현과 退溪集: 退溪集 諸 異本에 대한 한 고찰」, 『退溪學論集』 17, 2015.12, 141~178.
- 鄭錫胎, 「退溪集의 編刊 經緯와 그 體裁」, 『退溪學論集』 2, 2008, 157~326.
- 鄭錫胎, 「퇴계언행록의 형성과정과 제자들의 '퇴계' 인식」, 『退溪學論集』 17, 2015.12, 179~222.
- 鄭源鎬, 『嶠南誌』 鉛活字本, 李根泳房, 1940.
- 正祖, 『弘齋全書』, 整理字本, [純祖 14(1814)], 卷184 羣書標記.
- 鄭亨愚·尹炳泰, 『韓國의 冊板目錄』, 保景文化社, 1995.
- 趙國權, 「重文의 시각에서 본 양송시기 서원의 도서간행에 대한 고찰」, 『한국서원학보』 5, 2017.12, 105~126.
- 『俎豆錄』, 木版本, [刊年未詳].
- 趙穆, 『月川先生文集』, 木板本(初刊本), [刊年未詳].
- 崔宇景, 『陶山書院 光明室 장서의 변천과 서지적 분석』, 博士論文(경북대), 2020.2.
- 崔彩基, 『退溪 李滉의 朱子書節要 編纂과 刊行에 관한 研究』, 博士論文(성균관대), 2013.2.
- 『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 筆寫本, [憲宗 9(1843)].
- 한국국학진흥원. 홈페이지.

Abstract

A Study on the Publications of Tosan Seowon in Andong

Pae, Hyon-suk*

Seowon began originally as an educational institute for Ganghak (mastering of study and researching) and Jangsu(reading books and striving in studying).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students had to read books and think over and over again. At that time, books were published mainly by xylographic prints, or woodcuts in the private se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ublications by Tosan Seowon that has worshiped Yi Hwang and analyze their characteristics. The woodblocks of a total of 26 titles were investigated. The bibliographies of these publications are described in detail. An analysis of these foun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

First, whole story of publication for 5 titles were passed down. They are 『Seonjo Munjib Gae-gan Ilgi』, 『Toegye Seonsaeng Munjib Jung-gansi Ilgi』, 『Geubmunrog Young-gansi Ilgi』, 『Seonjo Songjae Seonsaeng Munjib Jung-gansi Gisa』, 『Seonjo Munjib Gan-yeoksi Ilgi』. In these books were recorded that a process of consultation for engraving of woodblocks, composition of a commission, manuscript proofreading, raise operation

* Keimyung College University, Emeritus Professor / hspae7714@nate.com

expenses and scale, the closing account, prepare printing block, artisans participated, engraving on wood blocks, print process, binding, distribution of printed books.

Second, there was not published during Yi Hwang's lifetime. And the period when the woodblocks were made was from the late in the 16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The first woodcuts was 『Song-gye Wonmyung Lihag Tongrog』 in the year 1576. The last woodcuts was 『O-gasanji』 in the year 1924. 3 editions were published in the 16th century, 8 editions were published in the 17th century, 8 editions were published in the 18th century, 3 editions were published in the 19th century, 4 editions were published in the 20th century. The first edition engraved by Tosan Seowon were 16 titles. The first and second edition engraved by Tosan Seowon were 1 title. The first, second and third edition engraved by Tosan Seowon were 1 title. The second edition engraved by Tosan Seowon were 4 titles. The second and third edition engraved by Tosan Seowon were 3 titles. The 9th edition engraved by Tosan Seowon were 1 title, 『Jujaseo Jeolyo』. Thus, we can see the first edition engraved by Tosan Seowon is majority.

Third, as the authors were all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Toegye shrined by the Seowon. Works written by Toegye Yi Hwang were 10 titles(38%). Toegye's family were 6 titles(23%). Toegye school, descendents and disciple were 6 titles.

Forth, Examined these publications by subjects. The large parts of the publications, 15 titles(57%) belong to the class of Collection of Works. Next 5 titles belong to the class of History. Next 4 titles belong to the class of Fellow Philosophers and Scholars. Lastly, 2 titles are in the class of Scriptures of Confucianism. Most of titles were not connected with

Ganghak(mastering of study and researching).

Fifth, All of the above mentioned titles were published from woodblocks. All of them were stored by Tosan Seowon. Among them 3 titles were engraved by another place and brought from another place. And 4 titles were engraved by Tosan Seowon and were transferred to another place. 21 titles among 26 titles were wholly stored in Tosan Seowon. Only 1 title, 『Gyeongseo Seog-eui』 were wholly lost.

Tosan Seowon functioned as the leading authority for Ganghak, Jangsu and Collection of books. And functioned as the leading authority for publication of books.

Key word : Tosan Seowon, Toegye, Yi Hwang, engraving, deposit woodblock, woodblock, whole story of publication

논문 투고일: 2021. 5. 31 심사 완료일: 2021. 6. 21 게재 확정일: 2021. 6. 22

조선시대 학파의 ‘도통’ 의식과 서원의 확산*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퇴계학파를 중심으로—

이 광 우**

- I. 머리말
- II. 퇴계학파의 성립과 서원
- III. 퇴계학파의 분기와 서원의 확산
- IV. 17세기 전반 西厓學派의 ‘도통’ 의식과 서원 설립
- V. 17세기 전반 寒岡學派의 성립과 서원 확산
- VI.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학파의 ‘도통’ 의식이 서원 확산에 끼친 영향을 영남 지역 退溪學派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영남은 사림의 淵藪로서 이른 시기부터 서원이 활발하게 설립되었다. 특히 재야 南人の 거점으로 그들의 집단적 ‘도통’ 의식이 구현된 퇴계학파 계열의 서원이 다수 설립된 지역이다. 그밖에도 봉당정치에 따른 정치적 부침 속에 南冥學派와 栗谷學派 계열의 서원도 공존하였기에 개별 서원의 학파적 성격에 대한 연구도 적지 않게 진행되었다. 즉, 영남 서원은 교육·교화 공간이라는 본연의 성격보다 특정 학맥의 구심점 또는 黨派의 공론처라는 성격이 어느 지역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 ‘도통’ 의식의 전개에 따른 서원 설립 양상을 살펴보면 좋은 사례가 된다. 특히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전반까지 퇴계학파가 분화되는 가운데, 月川 趙穆, 西厓 柳成龍, 寒岡 鄭逵 등 퇴계의 高弟로부터 이어지는 再傳 문인 집단은 퇴계학파의 ‘도통’을 자신들에게 귀결시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2813).

** 영남대학교 강사 / ikw38@ynu.ac.kr

키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서원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서원이 '도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으로는 학문적 계보가 권력이 되던 조선후기 사회에서 각 학파의 '도통' 의식이 서원 남설의 단초가 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주제어 : 退溪學派, 道統, 書院, 趙穆, 柳成龍, 鄭述

I. 머리말

중국 宋代에 체계화된 성리학을 道學이라 일컫는다. 송대 학자들은 孔孟 이후 근본 유학이 단절되고 훼손되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방법은 正學과 異端의 구분이었다. 송대 유행하던 정통 관념에 입각하여 유학의 계보를 설정하고, 이를 계승한 儒賢을 전면에 내세웠다. 학문적 계보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道統' 의식이 본격적으로 성립된 것이다. '도통' 의식은 朱子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그는 「中庸章句序」를 통해 '堯-舜-禹-湯-文王-武王-周公-孔子-孟子'로 전승되는 계보를 '도통'으로 내세우면서, 先聖들에 의해 이어져 온 도통이 老子·佛家 등의 이단으로 인해 단절되고 어지럽혀 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맹 이후 단절되었던 '도통'이 송대에 이르러 二程에 의하여 다시 이어지게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주자가 '도통'을 체계화했다면, 그 문인들은 주자를 '도통'의 嫡傳으로 내세웠다. 공맹의 학문이 송대 二程에 의해 계승되었고, 그 '도통'을 주자가 계승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주자 문인들은 학문적 계승 관계를 통해 자신들이 '도통'의 전수자임을 경쟁적으로 피력하였다.¹⁾ 이들은 주자 성리학을 연구하

1) 지준호, 「주자문인의 도통의식」, 『동양철학연구』 35, 동양철학연구회, 2003, 367~368쪽.

고 그 실천으로 정치에 참여했으며, 자신들이 내세우는 '도통'에 정당성과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단을 배척해 나갔다. 특히 書院 운영은 '도통'을 매개로 한 성리학 확산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른바 '慶元僞學之禁'을 겪으면서 성리학은 한동안 정치적 탄압을 당했다. 이에 관직에서 멀어진 주자와 일련의 도학자들은 지방 서원을 중심으로 강학과 학문 전파에 힘썼다. 이들은 科擧 위주의 官學 교육을 비판하고, '義理'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학문을 전파해 나갔다. 정치적 격변을 겪으면서 내실화가 이루어지고 저변이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후 도학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더욱 부각되면서, 주자 성리학의 官學化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서원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私學 기관임에도 관학에 준하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었다.²⁾ 이로써 서원은 성리학을 계승한 각 '學派'에 의해 '도통'을 계승하고, 학문적·정치적 입장의 공유 집단을 부식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6세기 조선에서 서원 설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송대 서원의 확산 배경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원 설립의 주체였던 士林 세력은 관학의 부진으로 '도통'이 제대로 계승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처로 서원을 주목하였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서원의 典型을 완성한 退溪 李滉 [1501~1570]은 1549년(명종 4) 慶尙道觀察使 沈通源에게 白雲洞書院의 賜額을 청원하기 위해 쓴 편지에서 관학의 부진을 지적하였고,³⁾ 紹修書院 사액 후 申光漢은 應襲記文을 통해 관학의 부진 속에 공맹의 도통이 계승될 수 있었던 것은 송대 서원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평가했던 것이다.⁴⁾ 조선에

2) 이범학, 「남송 후기 이학의 보급과 관학화의 배경 - 이학계 인사들의 정치·사회적 행동을 중심으로 -」, 『한국학논총』 17,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4, 6~16쪽; 지준호, 앞의 논문, 2003, 374~377쪽.

3) 『退溪集』 권9, 書, 〈上沈方伯〉, “저 國學과 鄉校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성곽 안에 있어서 한편으로 學습에 구애되고, 한편으로 과거 등의 일에 유혹되어 생각이 바뀌고 정신을 빼앗기니, ...”.

4) 『竹溪志』 권1, 行錄後, 〈白雲洞召修書院誌〉, “漢·唐·魏·晉 이후 학교를 숭상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나, 모두 한갓 그 이름만 있고 직접 인도한 것이 없었기 때

서도 서원은 관학의 대안으로 등장하였고, 정부에 의해 공적 영역에서 관리되었다. 그런데 서원은 사림의 사적 교육기관에 머물지 않았다. 사람에게 있어 서원 설립과 운영은 조선의 통치 이념인 성리학의 실천이었고, 주자에 의해 체계화된 ‘도통’ 의식의 계승이었다. 따라서 사림 세력은 서원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사회적 집단성을 구현하였는데, 그 집단성은 ‘학파’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16세기 중반 이후 사림 세력은 당대를 대표하던 성리학자와 학문적 수수관계를 바탕으로 각기 ‘학파’를 형성하였다. 특히 16세기 후반 붕당정치가 시작됨에 따라 ‘학파’는 각 黨色의 정치적 성격도 함께 띠게 되었다. 정치 세력은 ‘학파’별로 결집하였으며, 소속된 ‘학파’에 ‘도통’을 부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집단성에 대해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도통’ 의식을 달리하는 여러 ‘학파’가 동시대에 공존하며 경쟁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림의 부식 공간인 서원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정치 세력 간의 경쟁에서 ‘학파’는 이념적 명분을 제공하였는데, 서원은 그 명분에 대한 지지 여론을 확장시키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 서원의 설립과 확산 과정에서 ‘학파’의 영향력은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

한국사에서 조선후기 성리학의 흐름은 교조주의로 나아갔으며,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17세기 이후 ‘학파’와 접목된 붕당 간의 극단적 당쟁, 중앙 정치 세력의 闕闕化에 따른 재지사족의 현실 안주와 보수적 정세 인식이 거론된다. 그러나 그 단초는 우리나라에서 성리학파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에 등장한다. 16세기 중반 소위 성리학의 ‘巨儒’들이 등장한 이후, 그 문인들은

문에 그 다스림의 효과는 거의 세상에 알려진 바가 없었다. ... [宋太宗이 천하의 군주로서 작은 隱士의 서원에 편액과 서책을 하사하여 학문을 진작시킴으로써, 송나라가 다할 때까지 眞儒가 배출되고 도학이 크게 천명되어 그동안 단절되었던 孔孟의 도통을 계승하였다. 이를 본다면 宋朝에서 이룬 성과는 서원에서 나왔지 국학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학파'를 형성하고 '도통'을 둘러싼 경쟁을 시작하였다. '학파'를 매개로 정치 세력은 성리학적 대의명분을 제공받았고, '학파'를 매개로 재지사족은 향촌 사회에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각 '학파'가 주창하는 '도통' 의식은 곧 권력이 되었다. 이에 '학파'의 문인들은 先師를 경쟁적으로 추송하였고, 그것은 서원 설립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파' 분기 이후 학문 또는 사적 연구에 의해 많은 서원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학파의 '도통' 의식이 서원 확산에 끼친 영향을 영남 지역 퇴계학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영남은 사림의 淵藪로서 이른 시기부터 서원이 활발하게 설립되었다. 특히 재야 南人の 거점으로 그들의 집단적 '도통' 의식이 구현된 退溪學派 계열의 서원이 다수 설립된 지역이다. 그밖에도 봉당정치에 따른 정치적 부침 속에 南冥學派와 栗谷學派 계열의 서원도 공존하였다. 즉, 영남의 서원은 교육·교화 공간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더불어 특정 학맥의 구심점 또는 黨派의 공론처라는 성격이 어느 지역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⁵⁾ '도통' 의식의 전개에 따른 서원 설립 양상을 살펴보면 좋은 사례가 된다.

II. 퇴계학파의 성립과 서원

서원의 설립 주체는 해당 지역의 지방관과 鄉人, 제향 인물의 門人和 後孫 등 다양하다. 지역 및 시기별로 설립 주도 세력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여러 세력의 상호 협조 하에 진행되었다.⁶⁾ 초창기 서원 설립은 지역 사림의 공론과 지방관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아직 봉당정치가 시작되지 않았고 '학파'의 분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一鄉 사림의 합의가 있으면 순조롭게

5) 김학수, 「영남지역 서원의 정치사회적 성격」, 『국학연구』 11, 한국국학진흥원, 2007.

6)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107~133쪽.

서원은 설립될 수 있었다. 사림 세력은 공통된 현실 인식과 학문관을 바탕으로 서원을 관학의 대안처로 운영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초창기 서원의 제향 인물에서도 드러난다.

제향 인물의 성격은 서원 설립 세력의 지향점을 말해준다. 특정 지역의 사림이 특정 ‘학과’를 표방하는데 있어 가장 적극적인 행위 중 하나가 바로 서원 설립이다. 표방하고자 하는 ‘학과’의 주요 인사 중 서원 설립지와 연고가 있는 인사를 제향함으로써, 해당 ‘학과’가 주창하는 ‘도통’ 의식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초창기 서원의 제향 인물에서 ‘학과’ 계승 의식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지역과 연고가 있는 前 왕조의 名儒나 사림과 계열 인사를 제향함으로써, ‘尊賢’ 기능을 가진 관학의 대안처임을 자부하는데 그쳤다. 제향 인물이 적당하지 않으면, 아래 퇴계의 언급처럼 형편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어 유생 張壽禧를 나에게 보내어 부탁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고장은 받들어 제사할 만한 先正을 아직 정하지 못하였고, 서원 규모도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우선은 서원의 이름을 書齋로 지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문의하였다. 내가 거듭 사양하다가 마지못하여 “옛날 서원에서 선현을 배향할 때에는 어찌 모두 그 고장의 인물들만을 고집했겠는가! 先聖과 先師를 모시는 곳도 있고, 또한 사묘를 세우지 못한 곳도 있으니 오직 그 힘과 형편에 따라 할 뿐이다.”라고 했다.⁷⁾

榮川 伊山書院 설립 과정에서 제향 인물에 대해 문의 받은 퇴계는 지역 출신의 先正·先聖·先師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다만, 유학에 직접적인 공이 있는 인사들만 제향하는 것이 올바르며, 도학자가 아닌 충절인이나 유학에 공이 없는 자를 제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방하였다.⁸⁾ 그렇기에

7) 『퇴계집』 권42, 記 〈伊山書院記〉.

8) 이병훈, 「16세기 한국 서원의 출현과 정비」, 『한국서원학보』 10, 한국서원학회, 2020, 91~92쪽.

1560년 星州 迎鳳書院에 李兆年·李仁復을 제향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반대하는 뜻을 드러냈으며,⁹⁾ 慶州 西岳書院의 金庾信·薛聰·崔致遠 제향에 대해서는 못마땅해 하면서도 단지 학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것만 당부하였던 것이다.¹⁰⁾

이러한 경향은 서원의 전형을 확립한 퇴계 생전까지는 어느 정도 지켜졌다. 이와 관련하여 1574년(선조 7) 설립된 陶山書院 이전의 영남 지역 서원과 제향 인물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1543~1573년 영남 지역 서원 설립 현황과 제향 인물¹¹⁾

설립연도[사액연도]	명칭	지역	제향 인물 ¹²⁾
1543년(중종 38)[1550]	白雲洞書院 [絲修書院]	豐基 [順興]	安珣[1543, 安軸·安輔[1544], 周世鵬
1552년(명종 7)[1566]	濼溪書院	咸陽	鄭汝昌[1552] 姜翼·俞好仁·鄭臨·鄭弘緒
1553년(명종 8)[1554]	臨臯書院	永川	鄭夢周[1553], 張顯光·皇甫仁
1555년(명종 10)	白鶴書院	新寧	李滉·黃俊良
1556년(명종 11)[1576]	水溪書院	義城	金安國·李彦迪[1556], 柳成龍·金誠一·張顯光
1558년(명종 13)[1560]	迎鳳書院 [川谷書院]	星州	程頤·朱子·金宏弼[1568] 鄭述·張顯光·李兆年·李仁復
1559년(명종 14)[1574]	伊山書院	榮川	李滉
1561년(명종 16)[1623]	西岳書院	慶州	金庾信[1561], 薛聰·崔致遠[1563]
1564년(명종 19)	濼溪書院	草溪	李希顔[1564], 全致遠·李大期
1564년(명종 19)[1660]	研經書院	大丘	李滉·鄭述·鄭經世·全慶昌·李叔樸
1567년(명종 22)[1669]	禮林書院 [德成書院]	密陽	金宗直[1567], 朴贊柱·申季誠
1568년(선조 1)[1607]	道東書院	玄風	金宏弼[1568], 鄭述
1568년(선조 1)	金谷書院	醴泉	朴忠佐[1568], 朴諤·朴孫慶
1568년(선조 1)	仙巖書院	淸道	金大有·朴河澗[1568]

9) 이수환, 「성주 영봉서원 연구」, 『역사교육논집』 54, 역사교육학회, 2015, 198~201쪽.

10) 『퇴계집』 권4, 詩, <書院十詠>.

11) <표 1>은 '임근실, 「16세기 영남지역 서원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9, 16~18쪽에 수록된 표를 참조한 것이다.

1570년(선조 3)[1575]	金鳥書院	善山	吉再·金宗直·鄭鵬·朴英[1570], 張顯光
1570년(선조 3)[1684]	易東書院	禮安	禹倬[1570]
1573년(선조 6)[1574]	玉山書院	慶州	李彦迪[1573]

1543년부터 1573년까지 설립된 서원의 제향 인물은 크게 중국의 名儒, 신라·고려의 名賢, 사람과 인사로 구분되며, 중국 명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원 설립지와 뚜렷한 연고를 가지고 있다. 조선 조 인물은 모두 사람과 인사로 당시 서원 설립이 사람 세력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 및 그들의 영향력 강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은 영남 지역뿐만 아니었다. 비슷한 시기 설립된 他道 서원의 제향 인물 역시 중국의 箕子·孔子·주자, 고려 명현 徐熙·崔冲·崔惟善, 사람과 金宏弼·趙光祖·金淨·金安國·成守琛 등과 같은 인사가 주축을 이루었다.¹³⁾ 즉, 초창기 서원은 당대 사람의 보편적 관점에 입각한 선현의 존현처였다.

그러나 16세기 중·후반 嶺南學派의 쌍벽을 이루던 퇴계와 南冥 曹植 [1501~1572]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문인들은 즉각적으로 서원을 설립하고 스승을 제향하였다. 이들은 각각 퇴계학파와 남명학파의 학통을 계승하며, 서원 설립을 통해 자신들의 학문적 집단성에 대한 ‘도통’ 의식을 드러내었다.

일찍이 퇴계는 출세주의와 공리주의에 매몰된 관학을 비판하였다. 대신 신진 사람을 양성하는 공간으로 서원을 주목하였으며,¹⁴⁾ 소수서원 사액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서원 보급에 앞장섰다. 퇴계는 소수서원을 필두로 여러 서원의 설립과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는데, 〈서원심영〉은 서원에 대한

12) 〈표 1〉의 제향 인물 중 1543~1570년 사이에 제향된 인물만 연도를 표기하였다. 해당 서원 중 伊山書院은 처음에 제향 인물이 없다가 퇴계 사후 廟宇를 짓고 퇴계를 제향하였다. 研經書院은 퇴계의 生祠堂에서 출발하였으며, 仙巖書院은 鄉賢祠였다가 1577년 서원이 되었다.

13) 임근실, 앞의 논문, 2019, 19~24쪽.

14) 이우성, 「퇴계선생과 서원창설운동—이조성리학의 토착화와 아카데미즘—」, 『퇴계학보』 19, 퇴계학연구원, 1978, 208~209쪽.

그의 깊은 관심을 상징한다.¹⁵⁾

퇴계 문인들도 서원 보급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경주 서악서원과 밀양 禮林書院은 퇴계 문인 李楨[1512~1571]과 裴三益[1534~1588]이 각각 慶州府尹과 密陽教授로 있으면서 설립하였다. 훗날 이황·黃俊良[1517~1563]을 제향하게 되는 白鶴書院도 퇴계 문인 황준량이 新寧縣監 재임 시 설립한 것이다. 이산서원·임고서원·연경서원은 해당 고을의 퇴계 문인이 설립을 주도하였으며,¹⁶⁾ 역동서원은 예안의 퇴계 문인들이 스승의 지시를 받고 설립하였다.¹⁷⁾ 퇴계 사후 문인들의 서원 설립은 더욱 활발해졌다. 퇴계 문인들은 대략 중종 연간부터 광해군 때까지 활약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설립된 전국 125개소 서원 중 43개소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다시 영남으로 한정하면 49개소 중 절반이 넘는 29개소가 퇴계 문인이 설립을 주도하였다.¹⁸⁾ 이들은 鄉人의 공문을 모아 고을별로 서원을 설립해 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관직에 진출한 동문으로부터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 내었다.

그런데 퇴계 사후 진행된 문인들의 서원 보급 활동에서는 이전과 비교해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난다. 바로 문인들이 퇴계를 직접 제향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直傳 문인에 의한 서원 제향은 퇴계 문인들이 사실상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퇴계의 3년상이 끝난 직후인 1573년(선조 6) 8월 東方五賢의 文廟從祀 청원이 시작되었으며,¹⁹⁾ 문집 인출과 贈諡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퇴계를 존송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퇴계 문인들도 1573년 11월 제향 인물이 비어있던 이산서원에 우선

15) 『퇴계집』 권4, 시, <서원십영>. 竹溪書院(소수서원)·임고서원·영봉서원·남계서원·이산서원·西岳精舍(서악서원)·畫巖書院(연경서원)과 海州 文憲書院, 江陵 丘山書院(五峯書院)에 대한 讜詩이다.

16) 권시용, 「16-17세기 초반 퇴계 문인의 서원 건립 활동」, 『한국서원학보』 8, 한국서원학회, 2019, 9~13쪽.

17) 『梅軒集』 권2, 雜著, <易東書院記事>; 『月川集』 권5, 잡저, <易東書院事實>.

18) 권시용, 앞의 논문, 2019, 9~13쪽.

19) 『宣祖實錄』 권7, 6년 8월 28일.

적으로 퇴계의 위판을 봉안하였으며, 1574년 봄 도산서원의 설립, 1575년 사액, 1576년 위판 봉안이 차례로 이루어졌다.²⁰⁾

당시 퇴계 문인들은 서원 제향의 명분으로 퇴계가 우리나라 성리학 ‘도통’의 적통임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다. 일찍이 조광조를 필두로 한 기묘사림이 鄭夢周[1337~1392]를 우리나라 ‘도통’ 연원으로 삼았으며, 이후 ‘정몽주-吉再-金宗直-金宏弼-鄭汝昌-조광조’로 이어지는 도통 계보가 성립되었다.²¹⁾ 사림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567년(선조 즉위)에 이르러 되자 퇴계는 朝講에서 김굉필·정여창·조광조·李彥迪 4인의 학문적 업적을 논하였다.²²⁾ 이듬해에는 이조에서 김굉필·정여창은 성현의 학문에 뜻을 두어 斯文에 공로를 남겼고, 조광조·이언적은 서로 잇달아 일어나 斯道를 강론했음을 선조에게 아뢰었다.²³⁾ 그리고 1570년부터는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 四賢에 대한 성균관 유생들의 문묘종사 청원이 시작되었다.²⁴⁾ 즉, 기묘사림이 우리나라 ‘도통’ 연원을 설정했다면, 퇴계는 ‘도통’ 계보를 사람과로 귀결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도통’ 연원과 계보가 성립하자, 문인들은 곧바로 그 계보의 계승자로 퇴계를 내세우게 된다. 이산서원에 퇴계를 봉안할 당시 문인 朴承任[1517~1586]은 奉安文을 지어 퇴계학과의 ‘도통’ 의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위대하도대! 성인의 도여! 그것은 원래 하늘에서 나왔다. 못 성인이 위업을 계승하여 앞뒤를 번갈아 전하였다. 공자가 聖道를 집대성했으나 맹자 이후에는 전해지지 않았다. 세상에 건줄 수 없는 周程[周敦頤·程顥·程頤]이 끊어진 줄을 오랜만에 이었다. 성도가 크게 유행함은 오로지 큰 賢인이 나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탁월하시다. 주자여! 선성을 빛내고 後人을 일깨웠다. 성도가

20) 『退溪年譜』 권2.

21) 『中宗實錄』 권103, 39년 5월 29일.

22) 『선조실록』 권1, 즉위년 11월 4일.

23) 『선조실록』 권2, 1년 6월 4일.

24) 『선조실록』 권4, 3년 4월 23일.

高明하여 하늘이 열리고 해가 빛나게 되었다. 덕이 넓게 베풀어져 우리 海東에도 미치었다. 圃老(정몽주)가 유독 높은 경지에 이르렀으나 불행히 뜻을 펴려다가 중도에 그치었다. 文運이 다시 청성하는데 100년을 심고 가꾸었다. 四儒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가 서로 이어서 淳朴篤實하고 한결 같이 성도를 정진하였다. 그러나 橫匠을 당하여 돌아가시니 탐구하고 선양하지 못하였다. 하늘이 성도를 버리지 않아 선생(이황)을 태어나게 했다.²⁵⁾

박승임을 필두로 한 퇴계 문인은 송대 도학자들이 체계화한 '도통' 계보를 우리나라에서는 '정몽주-4현-퇴계'로 이어짐을 천명하였고, 이를 명분으로 퇴계에 대한 적극적인 서원 제향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동안 퇴계를 제향하는 서원은 宋時烈 [1607~1689] 다음으로 많은 31개소인데, 이 중 퇴계 사후부터 광해군 때까지 제향된 것이 ⅓에 이르는 20개소이다. 이 시기 퇴계를 제향한 영남 지역 서원을 일람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선조-광해군 연간 퇴계 제향 서원²⁶⁾

명칭	지역	설립연도(사액연도)	제향 인물
伊山書院	榮川	1559년(명종 14)[1574]	李滉[1573]
研經書院	大丘	1564년(명종 19)[1660]	李滉[1613]·鄭述·鄭經世·全慶昌·李叔樸
陶山書院	禮安	1574년(선조 7)[1575]	李滉·趙穆
廬江書院 [虎溪書院]	安東	1575년(선조 8)[1676]	李滉·柳成龍·金誠一
鳳覽書院	眞寶	1602년(선조 35)[1690]	李滉
文巖書院	奉化	1604년(선조 37)[1694]	李滉·趙穆
道南書院	尙州	1606년(선조 39)[1677]	鄭夢周·金宏弼·鄭汝昌·李彥迪 李滉·盧守慎·柳成龍·鄭經世
龜溪書院	泗川	1606년(선조 39)[1676]	李滉·李楨·金德誠
鼎山書院	醴泉	1612년(광해군 4)[1677]	李滉·趙穆
南江書院	盈德	1621년(광해군 13)	李滉·許詔·朴世茂·李文健·盧守慎 金梯甲·柳根·全有亨·李眞義

25) 『嘯臯集』 권3, 祭文, 〈伊山書院奉安退溪先生文〉.

〈표 2〉와 같이 광해군 연간까지 약 50년간 영남 지역에 설립된 퇴계 제향 서원은 모두 10개소에 이른다. 해당 지역은 퇴계와 직접적으로 연고가 있거나, 문인들이 활동하던 지역이다. 우선 퇴계의 주요 활동지였던 예안·안동·榮川에서는 문인들이 즉각적으로 퇴계를 서원에 제향하였고, 이어 다른 고을에서도 직전 및 再傳 문인에 의한 퇴계 제향이 진행되었다.

이 무렵 서원에서 퇴계를 제향하는 비율은 당쟁으로 말미암아 급격하게 서원이 증설되던 17세기 중반 이후 서원 남설기와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이 시기 퇴계가 집중적으로 제향되는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퇴계 문인들은 “우리 동방에서만 비견될 만한 인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비슷한 사람조차 찾아볼 수가 없으니, 실로 주자가 돌아가신 뒤에는 오직 퇴계 선생 한 분뿐이다”²⁷⁾라고 한 曹好益(1545~1609)의 언급처럼, 퇴계를 동방의 주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중국에서 주자를 제향한 서원이 武夷·考亭·晦菴 등 20개소에 이른 사실에 근거하여,²⁸⁾ 적극적으로 서원을 설립하고 퇴계를 제향해 나갔다. 16세기 중반까지 우리나라 성리학 계보에서 ‘학파’라는 개념은 뚜렷이 설정되지 않았었다. 따라서 사람의 보편적 시각에서 지역과 연고가 있는 인사를 ‘尊賢’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마땅한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중국 명유나 따로 제향자를 두지 않았다. 우리나라 제향 인물 중 세 번째로 많은 인물이 주자인데, 명종-선조 연간에만 9개소가 설립된 것도 이와 같은 이유로 볼 수 있다.²⁹⁾

조선시대 서원 확산에 ‘학파’가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것은 퇴계 문인들의 적극적인 서원 설립에서 비롯되었다. 퇴계 문인들은 보편적인 ‘존현’을 넘어

26) 〈표 2〉는 ‘채광수, 「퇴계 문인의 서원 보급 활동」, 『민족문화논총』 7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9, 602~604쪽’에 수록된 표를 참조한 것이다.

27) 『芝山集』 권5, 잡저, 〈退溪先生行錄〉.

28) 설석규, 「퇴계학파의 분화와 병호시비(II)-여강(호계)서원 치폐 전말-」, 『퇴계학과 유교문화』 45,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9, 321쪽.

29) 정현정, 「조선중기 주자제향 서원의 사회사적 성격」,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94-98쪽.

서, 서원 설립과 제향을 통해 퇴계학파라는 집단성에 '도통'이라는 권위를 부여하려 했던 것이다. 물론, 퇴계가 가지는 학문적 위상과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차치하더라도, 학문적 우수관계를 바탕으로 서원 제향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례 없는 현상이었으며, 각 학파 별로 '존현'의 대상이 사적 연고에 기인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서원 확산에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나, 각 학파별로 서원을 배타적으로 운영하며 경쟁적으로 설립하는데 단초가 될 수밖에 없었다.

Ⅲ. 퇴계학파의 분기와 서원의 확산

16세기 중·후반 각 학파를 성립시켰던 거유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면서 서원의 '존현' 대상은 더욱 확장되었다. 종전까지 제향 인물은 공자·주자와 같은 중국의 명유와 지역 출신의 명현 및 사림과 인사들이 주 대상이었지만, 이때부터는 시기별·지역별로 각 학파의 계보에 있는 인사를 주로 제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임진왜란 이후 향촌 복구와 더불어 서원 설립이 활발해졌으며, 17세기 이후부터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서원의 증가와 더불어 폐단도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이미 임진왜란 당시 전시 정국 운영과 군비 확보에 서원은 걸림돌로 치부되었다.³⁰⁾ 1595년 7월에는 선조가 文弊의 온상으로 서원을 직접 지목하며 혁파를 지시하는 전교를 내렸는데, 『宣祖修正實錄』의 해당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사론이 실려 있다.

서원 설립은 명종 때부터 시작되었다. 周世鵬(1495~1554)이 豊基郡守로 있으면서 竹溪에 백운동서원을 창설하여 선현인 安裕를 제사지냈고, 그 뒤 이황이 풍기군수가 되어 조정에 사액과 頒書를 청하였다. 당시에는 자못 士子の 講業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잇따라 설립된 것이 국내에 겨우 10여 군테에 불과했

30) 『선조실록』 권41, 26년 8월 3일.

다. 당시 이황이 김종직을 제사지내려 하자 문인 중에 부당하다고 의혹을 가지는 자가 있을 정도로 그때는 尊祀된 자도 적었으며, 서원만 있고 제사지내지 않는 곳도 있었다. 그런데 그 뒤에 국내에서 마구 본받아 “우리 고을에도 제사지낼 만한 현인이 있다”고 굳이 청하면서 연달아 서원을 세우고 祠宇를 세웠다. 그러나 이때는 그래도 그다지 폐단이 심하지 않았는데도 上敎가 이미 이와 같았던 것이다. 지금은 서원이 없는 고을이 없고, 제사를 받는 자도 하찮은 사람이 많다. 儒籍이 역할을 도피하는 소굴이 되어 絃誦의 미풍이 땅을 쓴 듯이 없어졌으니, 文弊를 운위할 것도 못 된다 하겠다.³¹⁾

1657년(효종 8) 완성된 『선조수정실록』의 사론은 당시 서원이 남설되는 현상을 지목하면서, 그 원인이 ‘존현’을 내세우며 경쟁적으로 서원을 설립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도학’에 업적을 가지고 있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님에도 서원 제향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영남 지역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임진왜란 이후부터 현종 대까지 모두 93개소의 院祠서원 70, 사우 23가 설립되었으며, 21개소에 해당되는 원사가 사액을 받았다. 그러나 21개소 중 14개소는 임진왜란 이전에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앞서 사론에서처럼 제향되는 인물의 보편적 위상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³²⁾ 서원 제향 인물 선정에 학문적 수수 관계 같은 사적 연고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17세기를 전후해 서원이 증가하는 현상은 학파의 분화에 따른 사람들의 경쟁의식, 서원을 이용한 각 붕당의 여론 정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서원의 향촌자치 기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 중에서도 ‘도통’ 의식에 입각하여, 특정 학파의 주요 인사를 제향하고 ‘도통’의 계승자로 천명하는 행위는 해당 서원에 성리학적 명분을 부여하는 일반적인 모습이 되었다. 각 서원의 운영자들은 제향된 선현의 ‘도통’ 계승자라는 명분으로 자신들

31) 『宣祖修正實錄』 권29, 28년 7월 1일.

32) 이병훈, 「조선후기 영남지역 원사의 건립과 변화 검토, 『한국서원학보』 6, 한국서원학회, 2018, 93~94쪽.

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주도권을 확보해 나갔다.

영남에서 서원 설립을 주도한 것은 퇴계학파이다. 퇴계학파는 당시 영남에서 가장 높은 학문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 권위를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에 투영하기 위하여, 퇴계의 직전 문인들은 스승을 우리나라 ‘도통’의 적전임을 내세우며 우선적으로 퇴계를 서원에 제향하였다. 이어 재전 문인들은 자신들에게 ‘학파’를 이어준 직전 문인을 퇴계가 제향된 서원에 配享·從享하거나, 퇴계의 적전이라는 명분으로 별도의 서원을 경쟁적으로 설립하며 영남 지역 내 퇴계학파의 규모를 확장시켜 나갔다.

이와 관련해 『陶山及門諸賢錄』에 등재된 영남 출신 퇴계 문인의 서원 제향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퇴계 문인의 서원 제향 현황³³⁾

소재지	연도[사액]	서원명	제향 인물
安東	1575[1676]	廬江書院 [虎溪書院]	李滉 柳成龍[追1620] 金誠一[追1620]
	1607[1618]	臨川書院	金誠一
	1612[1693]	龍山書院 [周溪書院]	具鳳齡 權春蕪[追1622]
	1612	靑城書院	權好文
	1572[1863]	屏山書院	柳成龍[1613] 柳軫
	1649	魯林書院	南致利
	1686	鏡光書院	裴尙志 李宗準 權宇 裴三益 張興孝
	1693	道淵書院	鄭述[星州] 許穆 蔡濟恭
	1709	泗濱書院	金璉 金克一 金守一 金明一 金誠一 金復一
	1741	陶陽書院	孫洪亮 金自粹 柳仲淹
	1778	龍溪書院	金彥璣 權大器[追]
	1791	花川書院	柳雲龍 柳元之 金允安
	미상	嶧陽書院	金瑛 金箕報

33) 퇴계 문인은 『陶山及門諸賢錄』을 참조했으며, 서원 현황은 『燃藜室記述』 別集 권4, 祀典典故, 書院 편과 『嶠南志』에 수록된 각 고을별 ‘校院’ 편을 정리한 것이다.

榮川	1615	龜江書院	金淡 朴承任[追1669] 金功[追1669] 金榮祖
	1650	三峯書院	金爾音 李壑 金蓋國 金隆
	1663	迂溪書院	李德弘
	1786	寒泉書院	張壽禧 吳雲 朴檜茂 朴檜茂
星州	1558[1560]	迎鳳書院 [川谷書院]	程頤 朱子 金宏弼 鄭述[追1623] 張顯光
	1627[1690]	檜淵書院	鄭述 李潤雨 ○鄭應禎 宋師頤 李弘器 李弘量 李弘宇 李竹[舒][追1670]
	1713	柳溪書院	鄭崑壽 朴燦 李享
	1729	晴川書院	金宇顯 金聘壽 朴而章
醴泉	1612[1677]	鼎山書院	李滉 趙穆[禮安, 追1615]
	1634	鳳山書院	權五福 權孟孫 權檣 文權 金復一[追, 安東] 權文海[追] 權旭
	1640	道正書院	鄭琢 鄭允穆
善山	1642	洛峯書院 [1787]	金叔滋 金就成 朴雲 金就文 高應陟
	1707	松山書院	崔應龍 崔晈 金應箕 金振宗 康惟善 盧景任
	1807	景洛書院	吳湜 黃瑋 康居敏 黃耆老 尹弘宣
豐基	1662	郁陽書院	李滉 黃俊良[榮川]
	1704	愚谷書院	柳雲龍[安東] 黃暹 李垓 金光輝
尙州	1606[1677]	道南書院	鄭夢周 金宏弼 鄭汝昌 李彥迪 李滉 盧守慎 柳成龍[追1631, 安東] 鄭經世
	1635	涑水書院	孫仲墩 申祐 金宇宏[追1730, 星州] 趙靖 趙羽
義城	1556[1576]	永溪書院	金安國 李彥迪 柳成龍[追1689, 安東] 金誠一[追1689, 安東] 張顯光
	1671	藏待書院	金光粹 申元禎[追1685] 申之悌 李民疚
新寧	1555	白鶴書院	李滉 黃俊良[追1678, 榮川]
大丘	1564[1660]	研經書院	李滉 鄭述[追1622, 星州] 鄭經世 ○別祠 金慶昌[追1707] 李叔樸[追1707, 禮安]
玄風	1568[1607]	道東書院	金宏弼 鄭述[追1678, 星州] ○別祠 郭承華 裴紳[追1634] 郭起 元概
禮安	1574[1575]	陶山書院	李滉 趙穆[追1615]
安陰	1583[1662]	龍門書院	鄭汝昌 林薰 林芸[追1586] 鄭臨
山陰	1606[1677]	西溪書院	吳健
泗川	1606[1676]	龜溪書院	李滉 李植 金德誠
永川	1613[1678]	道岑書院	曹好益
奉化	1616[1694]	文巖書院	李滉 趙穆[禮安]

昌寧	1638[1711]	冠山書院	鄭述[星州] ○別祠 姜訥 安餘慶
軍威	1627	南溪書院	柳成龍[安東] 李好閔[追1787]
昌原	1634	檜原書院	鄭述[星州] 許穆
龍宮	1643	三江書院	鄭夢周 李滉 柳成龍[安東]
漆原	1651[1678]	德淵書院	周世鵬 ○別祠 裴世績 周博[追1678] 裴錫祉 黃悋 周孟獻
漆谷	1651	泗陽書院	鄭述[星州] 李潤雨 李遠慶
英陽	1655[1694]	英山書院	李滉 金誠一[安東]
高靈	1667	道巖書院	金沔 李起春
順興	1676	龜灣書院	琴軼 南夢鰲 朴善長 權虎臣
咸安	1684	道林書院	鄭述[星州] 李僈 朴齊仁 李靜
河東	1698	永溪書院	鄭汝昌 金誠一[安東]
青松	1699	松鶴書院	李滉 金誠一[安東] 張顯光
聞慶	1712	瀾陽書院	鄭彥信 金樂春[安東] 南嶸 沈大孚 李得
彥陽	1712	礪龜書院	鄭夢周 李彥迪 鄭述[星州]
知禮	1771	道洞書院	李崇元 李淑琦 李淑臧 李後白 李好閔[追, 軍威]
晉州	1821	慶林書院	金誠一[安東] 趙宗道
固城	1854	道淵書院	許麒 許千壽 許栽

* 제향 인물 중 퇴계 문인은 ‘_’로 표시

** 제향 인물의 거주지와 출신지가 다르거나 추향 되었을 경우 ‘[]’로 별도 기재

『도산금문제현록』에는 모두 144명의 영남 출신 인사가 등재되어 있는데,³⁴⁾ 영남 지역 서원에 제향된 인물은 <표 3>과 같이 50명에 이른다. 여기에는 吳健·金宇宏·金宇顯·吳澐·金沔·鄭述·李僈처럼 퇴계·남명 양 문하에 출입한 인사도 있지만,³⁵⁾ 대체로 퇴계의 활동 범위인 안동권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영남에서 이들을 제향하고 있는 서원은 모두 59개소인데 절반 정도는 17세기 중반 이전에 제향한 것으로 나타난다.

34)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403쪽 참조. 이를 다시 권역 별로 구분하면 안동권 115명, 진주권 8명, 성주권 8명, 상주권 7명, 경주권 6명이다.

35) 김종석, 「『도산금문제현록』과 퇴계 학통제자의 범위」, 『퇴계학과 유교문화』 26,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98, 170~187쪽.

이 무렵 재지사족에게 특정 ‘학파’의 계승 여부는 향촌사회에서의 권위와 직결되었다. 안동권을 중심으로 한 퇴계학파 구성원들은 ‘주자-퇴계’로 이어지는 성리학 ‘도통’의 계승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향촌사회 활동은 곧 주자·퇴계가 구상하던 성리학적 이상의 실현이었다. 그렇기에 지역별로 퇴계의 적전을 자부하는 움직임이 경쟁적으로 나타났고, 그 과정에서 퇴계의 재전 문인들은 직전 문인을 서원에 제향하였다.

퇴계 사후 퇴계학파는 月川 趙穆[1524~1606], 西厓 柳成龍[1542~1607], 鶴峯 金誠一[1538~1593], 寒岡 鄭述[1543~1620]에 의해 각각 영도되었다. 이들 중 먼저 퇴계의 적전으로 추송된 이는 禮安의 조목이다. 그는 퇴계와 동향인으로 지근거리에서 스승을 보필하였으며, 퇴계 사후에는 각종 추송 사업을 주도하였다. 또한 조목은 『退溪集』 편집을 둘러싸고 류성룡과 갈등을 겪었으며, 복인 세력에 동조하여 그를 ‘主和誤國’으로 비판하였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조목은 복인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퇴계학파를 주도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 위상은 조목의 문인에게로 이어져, 1615년(광해군 7) 그를 도산서원에 중향하였다.³⁶⁾ 당시 조목 중향을 주도한 이는 金中淸[1566~1629]·金澤龍[1547~1627]이다. 이들은 도산서원 중향을 전후하여, 퇴계를 제향하는 예천 鼎山書院과 봉화 文巖書院에도 조목을 중향하였다. 퇴계학파의 다른 재전 문인들은 곧 반발하였는데, 예안의 金埰[1577~1641]은 이 일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 무리들의 본래 계획은 자신의 스승을 위한 것이 아니요 자기들만 위한 것에 불과하니,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것을 빙자하여 이것에서 중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하물며 李訢의 무리들이 퇴계 선생의 ‘도통’이 월천에게 전해졌고 월천은 中淸에게 전했다고 하는 것에 서러 대개 그 전에도 이

36) 조목의 정치적 향방과 도산서원 중향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이상현, 「월천 조목의 도산서원 중향논의」, 『북악사론』 8, 북악사학회, 2001; 박인호, 「17세기 초 퇴계학파 월천계의 동향과 구전 김중청의 활동」, 『국학연구』 33, 한국국학진흥원, 2017.

미 이런 말은 있었고, 오늘날의 이 소행은 이 같음에 불과할 따름이다. 심하도다! 소인배들의 허물이어!³⁷⁾

김령의 평가처럼 김종청은 '퇴계-월천-김종청'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도통'으로 설정하여, 다른 퇴계학과 계열보다 우위를 점하려고 했던 것이며, '도통'의 상징으로 도산서원 중향을 성사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예안을 중심으로 한 퇴계학과 내 월천 계열은 인조반정 이후 복인 정권의 몰락과 함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였다. 17세기 중반 이후 당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퇴계학과와 정치·사회 활동은 안동의 문인들이 주도하게 된다. 그러나 퇴계학과 내에서 도산서원의 위상은 막대하였기에 18세기 영·정조는 도산서원에 여러 차례 致祭를 지시하였으며, 정조는 邪學이 영남에서 번성하지 않는 이유가 도산서원 같은 데서 先正의 학문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³⁸⁾ 비록 월천 계열은 학파로 전개되지는 못하였으나, 예안 사림은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퇴계학과와 적통을 계승했다는 인식하에 그 위상을 이어 나갈 수 있었다.

광해군 연간 월천 문인들의 '도통' 계승 활동은 또 다른 퇴계학과와 거점인 안동 사림을 자극하였다. 1575년 류성룡·김성일을 주축으로 한 안동의 문인들은 퇴계를 제항하기 위해 廬江書院(虎溪書院) 설립하였다. 여강서원 설립에는 조목·金彦璣 등 예안의 문인들도 적극 협조하였다. 이 무렵 퇴계를 제항하는 이산서원·도산서원·여강서원 등이 잇달아 설립된 것은 퇴계학과 내 동질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³⁹⁾ 하지만, 17세기 초 재전 문인들의 경쟁 속에 조목이 도산서원에 중향되자, 안동 사림도 '도통'의 적전임을 표방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표 3>에서처럼 17세기 초반 안동에는 퇴계 문인을 단독으로 제항

37) 『溪巖日錄』 2, <壬子 2월 13일>.

38) 『正祖實錄』 권34, 16년 3월 2일.

39) 설석규, 앞의 논문, 2009, 322쪽.

하는 臨川書院(김성일), 龍山書院(具鳳齡), 屏山書院(류성룡), 靑城書院(權好치)이 이미 설립되어 있었다. 4개 서원 모두 설립 명분을 퇴계와의 학문적 수순관계에서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⁴⁰⁾ 이 또한 퇴계 ‘도통’의 적전을 계승하려는 포석으로 이해된다. 비슷한 시기 도산서원·정산서원·문암서원에 조목 중향을 추진한 세력들도 분명 이를 의식하였을 것이다. 안동의 여러 퇴계 문인 중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서애 류성룡 계열이었다. 김성일의 경우 임진왜란 중에 세상을 떠나, 서애 계열만큼 학과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다.⁴¹⁾ 張興孝·黃女一·崔暉·申之悌·金涌 등의 문인이 있었으나, 하나의 학과로 부상된 것은 17세기 후반 李玄邈(1627~1704)이 등장한 이후이다.

그런 가운데 조목이 도산서원에 중향되자, 류성룡과 김성일을 여강서원에 합향하여 ‘도통의 적전’을 안동 쪽으로 귀결시키려는 움직임이 전개되었다.⁴²⁾ 여강서원 합향을 주도한 인물은 류성룡의 문인인 尙州의 愚伏 鄭經世(1563~1633)였다. 이는 병산서원과 임천서원에 봉안된 위패를 여강서원에 합향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몇 가지 난제가 있었다. 위패를 옮길 경우 기존 서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제향 방식, 位次 및 호칭 문제가 그것이었다. 정경세는 그 과정에서 반대 여론을 설득하고, 자신의 재량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정리하여 1620년 합향을 성사시키게 된다. 합향은 ‘중향인 조목보다 격이 높은 ‘배향’의 형태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 하나는 합향을 통해 안동 사림의 단일대오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제향의 형식을 ‘배향’으로 높임으로써 ‘도통’ 계승에서 상징적인 우위를 점하였다.

합향 시 가장 난제였던 위치는 정경세의 중재로 年齒가 아닌 官爵을 우선

40) 『愚伏集』 권16, 祭文, 〈臨川書院奉安祭文〉·〈屏山書院奉安西厓先生祭文〉; 『蒼石集』 권15, 祭文, 〈龍山書院檀潭先生奉安祭文〉

41) 설석규, 앞의 논문, 2009, 331쪽.

42) 이하 여강서원 합향 과정은 다음 논문 참조. 김학수, 앞의 논문(2007), 91~99쪽; 설석규, 앞의 논문, 2009.

시하여,⁴³⁾ 이른바 '厓東鶴西'로 결론이 났다. 이 과정에 대해 김령이 “그들의 본래 의도는 서애를 높이 받들어 반드시 선생의 지위로 떠받들려 한 것일 것이다. ... 실제로 퇴도 선생의 사당에서 配食하게 함으로써 도통을 받아 전하는 결과를 얻어 선생과 같은 반열에 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⁴⁴⁾라고 평가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정경세는 합향의 형식을 빌려 스승인 서애를 퇴계학파의 적전으로 내세우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한편, 여강서원 합향을 전후해서 드러난 몇 가지 사안은 17세기 이후 봉당 정치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하게 분기되던 '학파'가 서원 설립과 제향 기준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보여준다.

첫 번째로 '一邑一院'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무너지고 '一邑多院'이 보편화 되어 갔다는 것이다. 안동에서 이를 주도한 것은 다름 아닌 퇴계의 재전 문인이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17세기 초반 안동에는 여강서원 이외에도 퇴계 문인을 제향하는 서원만 4개소였다. 이미 16세기 후반부터 정부에서는 서원의 남설 현상을 문제시 삼고 있었다. 당초 서원이 지방 관학인 향교의 대안처로 설립되었기에 한 고을에 여러 서원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서원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안동에서는 1605년 홍수로 여강서원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류성룡은 아직 제향 인물이 없던 병산서원에 여강서원을 설립하자고 건의하였다. 하지만 류성룡·조목 양 문하에 출입했던 裴龍吉[1556~1609]은 류성룡이 병산서원을 중심으로 퇴계학파의 적전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졌다. 이에 편지를 보내 불가함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여강서원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병산서원을 철폐해서 여강서원에 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또한 『一統志』를 근거로 중국에서는 하나의 縣에도 3~4개소의 서원을 설립하고 각기 다른 사람을 봉향하지만 폐단은 없

43) 『우복집』 권13, 書, 〈答三書院廬江屏山臨川諸士友〉.

44) 『溪巖日錄』 3, 〈庚申 10월 28일〉.

다고 하였다.⁴⁵⁾ 해당 사안의 이면에는 서원 운영을 주도하여, 다양하게 분기되는 학과 내부에서 자신들의 계열을 유지시키고 확장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一邑一院’의 원칙은 서원 제향을 원하는 여러 계열의 학과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여강서원에 류성룡·김성일 합향이 성사된 후 일련의 재전 문인들은 賁趾 南致利[1543~1580]와 松巢 權宇[1552~1590] 같은 퇴계 문인을 추향하려 했다. 특히 惟一齋 金彥瓚[1520~1588] 계열이 남치리의 추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그는 안동의 대표적인 처사형 문인이었다. 남치리는 일찍이 김언기에게 수학하다가, 퇴계의 문인이 된 인사였다. 이 또한 재전 문인 대에 퇴계학파가 분화되는 상황 속에서 처사형 삶을 지향했던 계열들이 독자적 계보를 형성하려는 의도로 추향을 추진하였던 것이다.⁴⁶⁾ 하지만 서애·학봉 계열의 반대로 추향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들은 남치리가 一鄕의 善士에 불과한데, 一國의 善士가 제향되어 있는 여강서원에 추향하는 것을 불가하다고 반대하였으며,⁴⁷⁾ 대신 권호문이 제향된 청성서원에 합향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⁴⁸⁾ 그렇게 추향 추진이 무산되자, 1649년 남치리를 제향하는 魯林書院을 별도로 설립함으로써, ‘퇴계-유일재-분지’로 이어지는 학문적 계열에 ‘도통’의 권위를 부여하였다. 이처럼 ‘一邑一院’의 원칙은 서원 제향을 통해 학문적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여러 계열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그렇기에 남설로 인한 폐단이 지적되는 와중에도 각 학과별로 연결고리가 되는 인사를 제향하기 위한 서원이 경쟁적으로 설립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주목되는 것은 한 고을 내의 ‘疊享’이다. 여강서원 합향 당시 안동의 재전 문인들은 주로 서애와 학봉 계열로 결집하였는데, 17세기 전반에는 사회·경제적으로 기반이 튼튼했던 서애 계열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양

45) 『琴易堂集』 권3, 書, 〈西厓柳先生〉.

46) 설석규, 앞의 논문, 2009, 338~346쪽.

47) 『廬江誌』 권2, 續志, 〈本府士林通文〉.

48) 『계암일록』 3, 〈甲戌 8월 21일〉.

계열은 여강서원 배향으로 퇴계학파의 '적전'임을 과시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병산서원과 임천서원에 있던 류성룡·김성일의 위패가 여강서원으로 옮겨졌다.⁴⁹⁾ 하지만 병산서원 측은 위패를 옮김으로써, 서원이 퇴락할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1629년(인조 7) 여강서원과는 별개로 류성룡의 위패를 다시 병산서원에 봉안하였다. 당연히 '豊享'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이를 주도했던 정경세는 중국 建寧에 주자를 제향한 서원이 2개소라는 사례를 내세우며 반박하였다.⁵⁰⁾ 여강서원 합향이 퇴계학과 내 '도통' 계승을 목적으로 한다면, 병산서원은 류성룡 일족의 결속력 강화와 사회적 지위 유지와 관련되어 있다. 각 학파와 관련되어 있는 개별 가문은 학파의 적통 유지와는 별개로 일족이 주도할 수 있는 서원을 운영함으로써, 같은 학파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갔다.

세 번째는 '학파'의 고착화에 따라 '家學'의 전통이 부각되면서, 일족 간 사적 연고에 따라 서원 설립과 제향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본 '첩향'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1662년 병산서원은 류성룡의 삼남인 柳軫[1582~1635]을 중향하였다. 당시 중향 명분은 '克紹家學'⁵¹⁾이었다. '퇴계-서애'로 이어지는 '도통'을 풍산류씨 일족에게 계승되는데 공을 세웠다는 것이다. 실상 '克紹家學'은 류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조선 후기 특정 '학파'의 학맥이 '가학'의 전통과 일치되는 가운데, '克紹家學'은 서원에서 제향 인물의 후손을 추향하는데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명분이 되었다.

한편으로 사적 연고는 제향자 일족을 대우하는데도 영향력을 미쳤다. 1635년 김령은 다음과 같은 연락을 듣게 된다.

49) 임천서원은 이후 사당이 비워지면서 임천서당으로 존속하다가, 사빈서원과 결합하였고, 19세기에 이르러 다시 개별 서원으로 증건되었다. 이재현, 「안동 임천서원의 치폐와 사액 청원」, 『한국서원학보』 6, 한국서원학회, 2018, 132~137쪽.

50) 『우복집』 권16, 제문, 〈屏山書院西厓先生位版再奉安祭文〉, “주자 모신 병산 담로 두 곳 사당이 건녕 땅에 둘이 함께 나란히 있네 한 고을에 두 개 사당 같이 있는 건 그 징험이 아주 밝아 분명한 거네[屏山湛盧 同在建寧 一府兩祠 其徵甚明].”

51) 『木齋集』 권7, 祭文, 〈屏山書院修巖奉安文〉.

善山府使를 지낸 金孝徵(金應祖, 서애 문인이 이산서원의 원장이 되었는데, 편지를 보내서 말하기를, “도산서원과 여강서원 및 이산서원은 한 몸과 같습니다. 柳持平(류진)의 장례를 다음달 6일에 치르니 각 서원에서 奠을 올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以志(金光繼)에게도 편지를 보냈다. 이 같은 일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으니, 이 역시 末世의 弊習이다.⁵²⁾

당시 퇴계를 제향하는 도산·이산·여강서원은 류진의 장례를 맞이하여 奠을 올렸다. 류진이 단지 여강서원에 배향된 류성룡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명분은 분명 先正 후손에 대한 예우이며, ‘도통’을 계승해 온 ‘가학’ 전통에 대한 존숭일 것이다.⁵³⁾ ‘末世의 弊習’이란 언급처럼 사학을 표방하고 있지만 공적 영역에서 관리되는 서원이 사적 연고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후기로 갈수록 심해져 서원 남설의 원인 중 하나가 된다. 당색이 ‘학파’와 일치되어 가는 상황에서 특정 학통을 고수하는 것이 도학의 가치라 생각하였다. 그에 따라 학문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학파의 가치를 이어가는 ‘가학’의 전통이 높게 평가 받았으며, 그것이 서원 제향의 명분으로 활용되었다.

이상과 같이 17세기 초반 퇴계학파의 분기는 당시 서원이 증설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퇴계학파를 계승한 각 계열은 자신들에게 ‘도통’을 귀결시키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퇴계 직전 및 재전 문인을 서원에 제향하였다. 일찍이 퇴계는 서원 享祀의 기준으로 道學을 제시하였으나,⁵⁴⁾ 이 시기 서원

52) 『계암일록』 6, 〈乙亥 3월 27일〉.

53) 퇴계학파 내 학봉계를 주도하는 김성일 일족도 泗濱書院을 설립하여 결속력을 강화하고 고을 내 지위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사빈서원은 金璣를 주향으로 하고, 그의 다섯 아들인 金克一·金守一·金明一·김성일·金復一 형제를 배향한 서원이다. 원래 1685년(숙종 11) 影堂에서 출발했다가 1709년 서원으로 승격하였는데, 봉안의 명분은 “일찍이 淸溪公(김진)은 사문을 일으킨 공이 있고, 또한 五賢子는 모두 퇴계 문하에서 종유하여 ... 가히 六賢의 家學이 盛大함을 알 수 있다”로 역시 ‘퇴계-학봉’으로 이어지는 가학의 전통을 계승해 온 것에 두고 있다. 『雨溪集』 권3, 잡저, 〈呈備局文〉.

54) 『퇴계집』 권12, 書, 〈答盧仁甫〉, “서원에 있어서는 도학이 더욱더 주가 되니, 賢

제향 과정에서 제향 인물의 도학적 우열 관계를 언급하는 사례는 확인하기 쉽지 않다. 학문적 업적에 대한 보편적 공감보다는 ‘학파’ 내에서의 위상과 영향력, 그리고 사적 연고를 중요시했다. 훗날 ‘屏虎是非’의 단초가 되는 병산서원 위치 논쟁도 도학에 대한 이론적 경쟁이 아니라, ‘年齒’와 ‘官爵’ 중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가에 있었다. 조선후기 ‘학파’의 전개는 이론의 분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도통’ 계승을 둘러싼 학문적 정통성 경쟁에 가까웠다. 17세기 전반 퇴계 직전 및 재전 문인에 대한 서원 제향도 이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VI. 17세기 전반 西厓學派의 ‘도통’ 의식과 서원 설립

퇴계학과 문인들은 퇴계 사후 월천·서애·학봉 계열을 중심으로 결집하였다. 이들은 각기 예안·안동·상주 등을 중심으로 學團을 형성하였고, 경쟁적으로 후속 세대를 확산시켜 나갔다. 당초 재전 문인은 월천·서애·학봉 문하를 번갈아 출입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퇴계학과 ‘도통’ 계승을 두고 서원 설립과 추향이 논란거리가 되자, 각 계열별로 분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 17세기 전반 퇴계학과 내에서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컸던 것은 서애 계열이었다.

서애의 학문은 크게 두 계열로 계승되었다. 하나는 柳仲郢[1515~1573]을 시작으로 ‘서애-류진-柳元之·柳宜河·柳世哲·柳世鳴·柳後章’ 등으로 전개되는 ‘가학’ 계열이다.⁵⁵⁾ 이 계열은 서애가 퇴계 문하를 ‘首登’한 이래 퇴계학과의 ‘도통’을 ‘가학’으로 계승해 왔음을 자부하였으며,⁵⁶⁾ 서원 활동을 통해 ‘가

人を 향사함에 있어서도 도학을 위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55) 『家學淵源錄』. 이 책은 1902년 柳柳陸이 정리한 서애학과 문인록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43-안동 갈전 순흥안씨편-, 1999, 701~731쪽에 영인·수록되어 있다.

학'의 위상을 천명하였다. 서애 가문은 안동의 여강서원과 병산서원에 류성룡을 제향함으로써, 퇴계학과 내에서도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여강서원 배향을 통해 퇴계의 적전임을 자부하였고, 가학의 전통을 상징하는 병산서원에서 일족들이 결집하였다.⁵⁷⁾ 그런 가운데 1666년(현종 7) 류세철은 병산서원을 거점으로 영남 유생 1,000여 명과 함께 서인 송시열의 禮論을 공박하는 服制疏를 올렸다. 이는 17세기 중반 서애학과와 병산서원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가학' 계열과 더불어 서애의 학문은 '퇴계-서애-우복-류진-鄭宗魯-柳壽春'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西厓學派'로 전개되었다. 서애학파는 퇴계의 직전 문인으로 서애, 재전 문인으로는 우복을 '嫡傳'으로 인식하였다.⁵⁸⁾ 이들 역시 류성룡 사후 서원 제향을 통해 '도통' 계승 의식을 적극적으로 표방하였다. 이에 17세기 전반기 동안 안동의 병산서원·여강서원 이외에도 尙州 道南書院, 軍威 南溪書院, 龍宮 三江書院에 류성룡을 제향함으로써, 학파의 지역적 외연을 확대해 나갔다.

안동 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서원은 남계서원이다. 군위는 류성룡 가문의 先塋이 있으며, 1586년(선조 19)에는 류성룡이 직접 南溪書堂을 짓고 머물렀던 곳이다.⁵⁹⁾ 남계서원은 1627년(인조 5) 남계서당 옛 터에 설립되었다. 봉안문은 李堧(1560~1635)이 작성하였는데, 다음 구절이 주목된다.

도를 장차 일으키려 하늘이 陶翁(퇴계)을 내셨다. 溪上에서 학문을 가르치시

56) 『家學淵源錄』, 〈家學淵源世系圖錄跋〉.

57) 1791년(정조 15)에는 퇴계의 高弟이자 친형인 謙庵 柳雲龍을 비롯해 손자 柳元之, 문인 金允安을 제향하는 화천서원을 화회 인근에 설립하여, 가학의 전통을 강화해 나갔다.

58) 『溪堂集』 권16, 行狀 〈王考江皋府君家狀〉. 이 행장에서 柳壽陸은 '世稱陶山再傳之嫡者'라 하여, 퇴계학파의 재전 문인 중 서애에게 수학한 정경세가 '도통'을 계승했다고 평가하였다.

59) 『西厓年譜』 권1.

니 英才들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先生[서애]의 전수가 홀로 그 宗을 얻었다. ... 큰 재앙임진왜란이 참혹하게 일어나 천동이 大義를 올리고 해가 외로운 患을 비추었다. 세상과 백성을 구제하였으니 舜임금이 홍수를 다스린 공과 같다. 도적의 난리가 사라지고 吾道가 동쪽 땅에 퍼지니 그 은택은 장맛비와 같고 아리따움은 무지개와 같은데, 모여서 혈뜻음이 바야흐로 한창 치성하고 참소하는 공격을 번갈아 받았다. 물여우가 그림자라도 쏘려고 엿보나, 큰 기러기는 날개를 널리 펴고 높이 날아간다.⁶⁰⁾

이준은 봉안문에서 류성룡이 퇴계의 '도통' 계승자임과 임진왜란 때 백성을 구제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복인 세력과 월천 계열이 류성룡을 '주화오국'으로 참소한 사실도 언급하였다. 인조반정으로 월천 계열이 퇴락해 가는 가운데, 류성룡의 정치·학문적 당위성을 정립했던 것이다. 한편, 서애 계열은 1643년(인조 21) 용궁에 삼강서원을 설립하였다. 용궁은 류성룡의 매부인 李潤壽가 정착한 지역으로 삼강서원 설립을 주창한 李煥은 류성룡의 생질이며 류진과 교류했던 인사이다.⁶¹⁾

그런데 안동 지역보다 서애학파가 더욱 활발하게 활동한 지역은 상주이다. 류성룡은 1580년(선조 8) 尙州牧使로 부임하였는데, 정경세가 이때 문인이 되었다. 1617년에는 류성룡의 삼남 류진이 상주로 이거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정경세·이준·류진 등이 머물고 있는 상주 지역은 서애학파의 중심지가 되었다.

〈표 4〉에서와 같이 조선후기 동안 영남에서는 모두 21개소의 서원에 서애 문인이 제향되었다. 지역적으로는 상주가 6개소로 가장 많고 안동과 군위에 각각 4개소와 2개소가 확인된다. 그 외에도 榮川·예천·문경·선산·개령 등지에 서원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곳을 서애학파의 주요 활동지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慶尙道觀察使를 지낸 정경세의 경우 모두 5개소에 제향되어 있다. 이는 퇴계와 직접 연결되는 재전 문인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이다.

60) 『蒼石續集』 권7, 제문, 〈南溪書院奉安西厓先生文〉.

61) 『목재집』 권7, 碣銘, 〈湖憂李公墓誌〉.

〈표 4〉 서애 문인의 서원 제향 현황⁶²⁾

소재지	연도[사액]	서원명	제향 인물
尙州	1606[1677]	道南書院	鄭夢周 金宏弼 鄭汝昌 李彥迪 李滉 盧守慎 柳成龍 <u>鄭經世[追1635]</u>
	1631	玉城書院	金得培 申潛 金範 <u>李鼎[追1710]</u> <u>李埈[追1647]</u>
	1688	鳳山書院	盧守慎 沈喜壽 成允諧 丁好善 <u>金弘微[追]</u> 曹友仁 黃翼再
	1685	孝谷書院	宋亮 金沖 <u>高仁繼[追]</u> 金光斗
	1714[1789]	玉洞書院	黃喜 <u>全滉</u> 黃孝獻 <u>黃紐[追1783]</u>
	1796	愚山書院	鄭經世 鄭宗魯
安東	1572[1863]	屏山書院	柳成龍 柳珍[追1662]
	1661	勿溪書院	金方慶 金九容 金楊震 <u>金應祖[追1670]</u> <u>榮川</u>
	1686	鏡光書院	裴尙志 李宗準 權宇 裴三益 <u>張興孝</u>
	1791	花川書院	柳雲龍 柳元之 金允安[追1803]
軍威	1786	良川書院	洪彥博 洪璋 洪灌
	1795	松湖書院	李叔璜 李軫 <u>李輔</u>
榮川	1615	龜江書院	金淡 朴承任 金玘 <u>金榮祖[追1669]</u>
	1664	義山書院	李介立 <u>金應祖[追1799]</u>
醴泉	1640	道正書院	鄭琢 鄭允穆[追1786]
開慶	1712	瀟陽書院	鄭彥信 金樂春 <u>南嶸</u> 沈大孚 李榑
善山	1707	松山書院	崔應龍 崔峴 金應箕 金振宗 康惟善 盧景任[追]
豐基	1704	愚谷書院	柳雲龍 憲黃暹 <u>李埈[尙州]</u> 金光燁
開寧	1669[1676]	德林書院	金宗直 鄭鵬 <u>鄭經世</u>
慶山	1693	孤山書院	李滉 鄭經世[尙州]
大丘	1564[1660]	研經書院	李滉 鄭述[星州] <u>鄭經世[追1676]</u> <u>尙州</u> ○別祠 全慶昌 李叔樑

* 제향 인물 중 서애 문인은 ‘_’로 표시

** 제향 인물의 거주지와 출신지가 다르거나 추향 되었을 경우 ‘[]’로 별도 기재

병산서원과 더불어 서애학과 계열 내에서 가장 높은 위상을 차지하는 것은 상주 도남서원이다. 도남서원은 이른바 ‘商山三老’라 불리던 정경세·全滉 [1563~1642]·이준 등 상주의 류성룡 문인과 金覺[1536~1610]·宋亮[1534~

62) 서애 문인은 ‘『가학연원록』, 〈匡門弟子錄〉’을 참조했으며, 서원 현황은 〈표 3〉 참고 자료와 동일.

1618] 등 상주 지역 인사들이 설립을 주도하였다.⁶³⁾ 특히 대외적으로는 정경세의 역할이 컸다. 도남서원에는 정몽주·김굉필·정여창·이언적·이황을 처음 제향했고, 이후 추향이 이루어져 모두 8인을 제향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정경세를 중심으로 한 서애학파의 ‘도통’ 계승 의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경세는 1605년(선조 38) 고을 내 士子들에게 通文을 보내어 서원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당시까지 상주에 서원이 없는 것을 큰 ‘欠事’로 생각했기에 서원을 세워 영남 출신의 國朝 儒賢 네 분(김굉필·정여창·이언적·이황)을 제향하자고 건의했던 것이다.⁶⁴⁾ 또한 정경세는 스승 류성룡에게 서원 명칭 등 제반 사항을 자문하였으며, 상주목사·경상도관찰사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청원하였다.⁶⁵⁾ 그 결과 1606년 정몽주를 포함해 5인을 제향하는 도남서원이 설립되었다.

1611년(광해군 3) 정경세가 쓴 奉安祭文에는 5인을 제향하는 명분에 대하여 “히늘 이미 우리 사문 도우시었고 또한 역시 우리 동방 도우시었네 이에 대현 이 세상에 나게 했으니, 바로 우리 영남 땅에 나게 하셨네(天既右文 亦右東方 篤生大賢 于嶺之陽 有倡其始)”⁶⁶⁾라고 했다. 당시 문묘종사가 추진되고 있던 ‘동방오현’ 중 4인과 우리나라 성리학의 鼻祖로 알려진 정몽주가 모두 영남 출신이기에 이 5인을 함께 제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정경세가 5인의 제향지로 상주를 내세운 데에는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존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상주는 얼마 전까지 경상감영이 있었던 행정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영남에서 낙동강이 시작되는 고을이었다. 우리나라 ‘도통’ 계보의 중심이 영남이라면, 영남 ‘도통’ 계보의 중심은 상주가 되어야 한다는

63) 김형수, 「17·18세기 상주·선산권 지역사회와 서원·사우의 동향」, 『영남학』 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5, 138쪽.

64) 『우복집』 권14, 잡저, 〈道南建院通文〉.

65) 김형수, 앞의 논문, 2005, 132쪽; 김학수, 「정경세·이준의 소재관-정경세의 비판적 흡수론과 이준의 계승적 변호론을 중심으로-」, 『영남학』 7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9, 142~143쪽.

66) 『우복집』 권16, 제문, 〈道南書院奉安五先生祭文〉.

명분을 내세워 도남서원에 5인을 제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정경세는 5인 중에서도 퇴계의 업적을 강조하였다. 그는 1606년에서 도남서원 상량문에서 앞선 4인은 간단히 성리학에 기여한 바를 언급하였지만, 퇴계에 대해서는 ‘集成一代諸子’와 ‘世適千載晦翁’⁶⁷⁾이라고 평가하였다. 16세기 중반을 대표했던 여러 ‘거유’ 중에서도 우리나라 성리학을 집대성한 이가 바로 퇴계이니, 이는 주자에 빚달 만한 업적이라고 본 것이다. 결과적으로 5인 제향은 상주를 중심으로 ‘주자-퇴계’로 이어지는 퇴계학파의 ‘도통’ 계승을 위한 포석이었다.

5인 제향에 이어 1617년 盧守愼[1515~1590] 추향(추향), 1631년 노수신 陸配 및 류성룡 배향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노수신 추향 과정에서 사적 제향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⁶⁸⁾ 당시 상주목사로 재임하던 康復誠[1550~1634]에 의해 노수신 추향이 발론되었는데, 그가 5인과 합향할만큼 학문적 업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여기에는 안동·예안의 사람들도 합세하여 이론을 제기하였으며, 당시 도남서원을 주도했던 정경세와 이준도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중향을 거쳐 승배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지만, 사적 제향이 이루어졌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김령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상주 도남서원서 盧蘇齋[노수신] 相公을 중향하려 한다고 하니, ‘末世의 私情의 우세함이 어찌 이와 같단 말인가? 주론자는 상주목사 강복성이고, 부회한 자는 舍湜이다. 강복성은 노소재의 3촌 조카이고, 전식은 문하 제자이다. 관직의 위세로 ‘私恩’을 값으려고 하여 때를 틈타 꾀를 내었다. 鄭江陔[정경세]도 바로 잡지 못하고 따라서 봉안제문을 지었다.’⁶⁹⁾

김령은 강복성이 관직의 위세로 ‘私恩’에 따라 노수신 추향을 추진한 것으

67) 『우복집』 권16, 上樑文, 〈道南書院廟上樑文〉.

68) 노수신 제향 과정에 대해서는 ‘김학수, 앞의 논문, 2019, 143~151쪽 참조.

69) 『계암일록』 3, 〈丁巳 3월 18일〉.

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행태를 '末世의 私情'으로 보았다. 17세기 초반 학파가 분기되고 지역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서원 제향은 '도통'의 계승자임을 확증하는데 가장 권위 있는 수단이 되었다. 이에 사적 연고를 바탕으로 서원에 배향 및 중향하거나, 별도로 서원을 설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서원 설립과 제향이 공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 번 제향이 이루어지면, 비록 사적 연고로 제향을 했다 하더라도, 제향 추진자들은 자신들의 집단성에 대한 학문적 정통성을 부여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김령과 같은 인사는 노수신 추향을 '말세의 사정'으로 비판하였던 것이다. 물론 서원 설립과 제향을 통해 '도통'에 편승하려는 시도는 도남서원에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양태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한편, 노수신 추향은 결과적으로 성사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경세와 이준 간 견해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준이 적극적으로 존모한 것에 반해 정경세는 제문을 쓰기는 했으나,⁷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경세가 구상하고 있던 '도통' 계보에 노수신 추향으로 차질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1620년 여강서원 합향에서 드러났듯이 그는 '퇴계-서애'로 이어지는 '도통' 계보를 구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世稱陶山再傳之嫡者'⁷¹⁾라고 평가받았던 정경세는 향후 '퇴계-서애'의 '도통'까지도 자신에게로 귀결시키려 했기 때문에 노수신 추향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⁷²⁾ 비록 '말세의 사정'이라는 비판은 있었지만 서원 설립과 제향은 '도통' 의식을 매개로 향촌사회에서 권위를 확보하려는 여러 사림의 공통된 열망이었다. 정경세 입장에서도 이러한 열망을 도외시킬 수 없었으며, 장기적으로 '도통'을 자신에게 귀결시키는데 있어 외연 확장 또한 필요하였기에 노수신 추향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노수신 추향과 승배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경세를 필두로 한 상주의 퇴

70) 『우복집』 권16, 제문. 〈蘇齋先生從享五賢廟祭文〉.

71) 『계당집』 권16, 행장. 〈王考江皋府君家狀〉.

72) 김학수, 앞의 논문, 2019, 156쪽.

계학과 재전 문인들은 퇴계학파의 ‘도통’을 확보하기 위해 류성룡의 도남서원 추향을 추진하였다. 류성룡 제향을 통해 상주를 안동·예안에 버금가는 퇴계학파의 嫡傳地로 부상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정경세는 스승 류성룡에게 가해진 각종 혐의를 씻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앙의 여러 당국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복인 세력에 의해 ‘주화오국’으로 지목된 혐의를 변호함으로써, 제향에 대한 정치적 명분을 확보해 나갔다.⁷³⁾ 그 결과 1631년(인조 9) 류성룡 배향이 성사되었고, 이른바 ‘서애학파’라는 학문적 집단성을 구축할 수 있었다. 배향 당시 봉안문은 이준이 지었는데, 다음과 같은 ‘도통’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黃河와 五岳의 신령함이 조선에 鍾粹하였도다. 생각하건대 영남이 가장 온전함을 얻어, 여러 哲人이 번갈아 일어나 斯道가 날로 드날렸다. 중간에 불행을 만나 時運이 험난해졌지만, 文純퇴계께서 倡道하여, 끊어진 거문고 줄을 이어 나갔다. 공서에께서 溪上에서 어린 시절 執贄하셨다. 스승께서 감탄하시니, 하늘에서 재주 있는 분을 내었도다. 끈고 맑음이 그 속에 있으며 英邁함은 전에 없도다. ... 얼굴빛을 엄숙히 하고 조정에 서서 길이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한 세상을 彌綸하여 여러 현인의 儀表가 되었다. 鯨鯢가 독기를 뿜고 八路에 비린내를 진동하나, 人傑이 있지 않아 누가 그 전복됨을 도와줄까? 대대로 陸沈하다 患을 다해 임금을 환도하였다. 큰 은혜 다 풀지 못했는데 讒說이 交謫하니, 이제 그만 거두어 가슴속에 감추고서 낙동강 가 언덕으로 돌아왔네.⁷⁴⁾

위의 봉안문에서 이준은 우리나라의 ‘도통’ 계보는 영남에서 번성하였으며, 사화 이후에는 ‘퇴계-류성룡’에게 ‘도통’의 적통이 계승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임진왜란 당시 扈聖功臣으로서의 공적과 충도를 지키다 政敵에게 讒說 당한 사실을 배향의 당위성으로 내세웠다.

류성룡 사후 서애학파를 이끈 정경세의 도남서원 추향은 예견되어 있었다.

73) 『愚伏別集』 권7, 부록, 〈年譜〉; 김형수, 앞의 논문, 2005, 137~138쪽.

74) 『창석집』 권15, 제문, 〈五賢廟西涯先生配享祭文〉.

정경세는 관료 생활 중 당색을 불문하고 폭넓은 관인적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사후에는 인조와 동궁의 致祭를 받기도 했다. 또한 상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문인들이 愚伏學團을 형성하고 있었다.⁷⁵⁾ 이러한 학문적·정치적 기반을 바탕으로 1635년(인조 13) 삼년상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맞추어, 그의 문인들은 발 빠르게 정경세를 추향하였다. 당시 도남서원 원장이었던 金廷堅 [1576~1645]을 비롯해 韓克述·洪鏞가 주도하였으며, 동문인 전식은 추향을 지휘하고⁷⁶⁾ 직접 봉안문을 지었다. 정경세 서원 제향은 류성룡 문인뿐만 아니라, 퇴계의 재전 문인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 이루어졌다. 전식이 봉안문에서 ‘學傳閩洛 統茲奚珪⁷⁷⁾’라고 언급한 것처럼, 정경세 문인 집단은 ‘주자-퇴계-서애-우복’으로 이어지는 ‘도통’ 계보를 도남서원 추향을 통해 완성하였다.

이상 살펴본 도남서원 설립과 추향은 ‘학파’ 집단이 ‘도통’ 계보를 특정 지역으로 귀결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일찍이 정경세는 상주를 우리나라 ‘도통’의 중심지로 구상했으며, 서원을 그 매개체로 인식하였다. 그는 상주가 영남의 首邑이니, 영남 명현도 상주에 제향됨이 마땅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도남서원 설립을 성사시켰다. 5현이 우리나라 ‘도통’을 이어왔다면, 류성룡 제향을 통해 그런 ‘도통’을 상주 지역으로 연결하고 퇴계학파의 ‘도통’ 계승을 표방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주 출신의 정경세를 도남서원에 추향함으로써, ‘도통’ 계보는 상주 지역으로 귀결되었다. 즉, 상주를 도학의 연원과 統緒로 이해되는 ‘泗水’와 ‘閩洛’에 대응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75)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된 『愚伏先生門人錄』에는 류진을 필두로 67명의 문인이 수록되어 있다.

76) 채광수, 「우복학단의 성격과 계보학적 갈래」, 『한국계보연구』 10, 한국계보연구회, 2020, 72~73쪽.

77) 『沙西集』 권7, 祝文, 〈道南書院愚伏奉安文〉.

V. 17세기 전반 寒岡學派의 성립과 서원 확산

17세기 전반기 퇴계학파가 분화되는 가운데 영남을 관통하는 낙동강 중앙부를 중심으로 또 다른 퇴계 문인인 한강 정구가 활발하게 학문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정구가 퇴계에게 학문을 수수 받는 양상은 앞서 살펴본 월천·서애·학봉 등 예안·안동 일대의 문인들과는 사뭇 다르다. 성주 출신의 정구는 13세 때 남명 문인 吳健[1521~1574]에게 학문을 배웠고, 21세 때 퇴계, 24세 때 남명을 각각 배알하면서 퇴계·남명 양 문하에서 수학하였다.⁷⁸⁾ 정구는 퇴계의 다른 高弟들과 비교해 직접 서신을 주고받거나 배알한 횟수도 적은 편이다. 실록의 卒記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정구 스스로도 어느 문하에서 전적으로 수업한 적은 없다고 하였다.⁷⁹⁾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한강 계열은 예안·안동·상주권의 다른 재전 문인처럼 배타적 ‘도통’ 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⁸⁰⁾

1603년(선조 36) 정구는 남명 문하에서 동문수학했고 당대 남명학파의 적통으로 인식되던 鄭仁弘[1536~1623]과 절교하며, 남명 문인이 주축을 이루었던 북인 정권과 거리를 두었다. 그런 가운데 인조반정으로 남명학파가 퇴락하자, 종전까지 남명학파와 연결되어 있던 사림들이 정구를 통해 퇴계학파와의 연접을 시도했다.⁸¹⁾ 한편, 정구는 성주·칠곡·대구 등지에서 왕성한 학문 활동을 전개하였기에 낙동강 연안을 중심으로 많은 문인을 양성하였다. 또한 安東府使로 재임하면서 안동 권역에도 문인이 분포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檜淵及門諸賢錄』에 수록된 한강 문인은 모두 342명으로 월천·서애·학

78) 『寒岡年譜』 권1, 〈年譜〉.

79) 『光海君日記』[중초본 권148, 12년 1월 5일, “어려서는 덕계 오건을 스승으로 모셨고, 겸하여 퇴계와 남명의 문하에 드나들었다. 일찍이 말하기를 ‘퇴계는 德宇가 渾厚하며 행실이 독실하고, 남명은 才氣가 호걸스럽고 高邁하여 우뚝 서서 홀로 행하는 어른이다’ 하였는데, 그가 마음에 정한 견해가 그러하였다.”

80) 김중석, 앞의 논문, 1998, 163~165쪽.

81) 이수건, 앞의 책, 1995, 402~403쪽.

봉 계열을 수적으로 압도한다. 거기다 남명학과 계열인 정인홍을 비롯해 퇴계 직전 문인과 중첩된 사승 관계를 보이는 인사도 적지 않다. 물론 문인의 상당수는 낙동강 연안에 집중되어 있지만, 앞서 살펴본 퇴계학과 계열과 비교해 영남 전역에 두루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⁸²⁾ 퇴계가 직접 활동했던 예안·안동 지역의 문인들은 '도통' 계승을 둘러싸고 배타적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에 반해 정구 이전 뚜렷한 구심점이 없었던 낙동강 연안과 학문 외적인 사유로 와해 된 진주·합천권의 남명학과 계열의 사람들이 '도통'에 대한 배타적 성격이 적었던 한강 계열로 수렴되었던 것이다. 영남을 벗어나 '퇴계-한강-眉叟-星湖'로 이어지는 近畿 지역의 퇴계학과 연원이⁸³⁾ 정구에게 연결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되었다.

한강학과 계열의 서원 설립과 제향 현상도 '도통' 의식과 학파의 외연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수 있다. 실제 정구는 문묘중사 된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서원에 네 번째로 많이 제향된 인물이다. <표 3>에서 정구는 영남에만 10개소의 서원에 제향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퇴계의 직전 문인 중 가장 많은 수치일뿐더러, 상대적으로 고른 지역적 분포를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정구를 제향한 서원은 대구의 연경서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연경서원은 1563년 퇴계의 지원 아래 그의 문인 李叔樛 [1519~1592]과 全慶昌 [1532~1585]이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설립 초기에는 별도로 존현 기능이 없었다.⁸⁴⁾ 『회연급문제현록』에는 대구 출신의 정구 문인이 30명 내외로 확인되는데, 이는 성주 다음으로 많은 수치이다. 대구 지역 문인 중 주목할 만한 인사는 徐思遠 [1550~1615]과 孫處訢 [1553~1634]이다.⁸⁵⁾

82) 김학수, 「조선중기 한강학파의 등장과 전개-문인록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4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0, 110~127쪽.

83) 『樊巖集』 권51, 墓碣銘, 〈星湖李先生墓碣銘〉.

84) 홍원식, 「연경서원 제향 인물과 그 배경」, 『퇴계학논보』 16, 영남퇴계학연구원, 2015, 16~17쪽.

85) 대구 지역 한강 문인 집단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김학수, 앞의 논문, 2010, 121~127쪽 참조.

서사원은 蔡應麟[1529~1584]·鄭師哲[1530~1593]에게 먼저 공부했으며, 1577년(선조 10) 한강 문인이 되었다. 당시 서사원은 정구가 퇴계에게 친히 수학했다는 말을 듣고 학문의 연원이 그에게 있다고 생각했으며, 마음으로 매우 사모했다고 한다.⁸⁶⁾ 손처눌은 일찍이 퇴계 문인인 전경창에게 수학했으며, 19세가 되던 1571년 한강 문하에 입문하였다.⁸⁷⁾ 대구 지역에서는 임진왜란 이전에 전경창·채운린·정사철 등 퇴계의 학통을 계승한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다시 퇴계학파의 재전 문인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들 재전 문인 층은 확고한 재지적 기반을 바탕으로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을 전개했으며, 전란 후에는 향촌 복구 사업을 주도해 나갔다.⁸⁸⁾ 1613년(광해군 5)에는 퇴계를 연경서원에 제향함으로써, 퇴계학파의 '도통'을 대구 지역에 부식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퇴계 제향을 전후하여 정구는 대구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1612년 당시 성주 속현이었던 八莒縣 蘆谷으로 이주하자,⁸⁹⁾ 대구 지역 문인의 출입이 빈번해졌다. 이에 앞서 정구는 1605년 仙查齋 강학과 금호강 船遊, 1609년 연경서원 강학을 통해 대구 지역에 자신의 학문적 영역을 넓혀 갔으며, 1617년에는 연경서원 근처에 泗陽精舍를 짓고 만년의 거처로 삼았다.⁹⁰⁾ 그런 가운데 정구는 퇴계의 연경서원 제향과 관련해 손처눌의 자문에 응하였으며,⁹¹⁾ 제향 시 봉안문을 직접 작성하기도 했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공맹의 도 높임에는 고금이 다 한가지고 程朱 학문 숭상함은 중화나 외국이 나 마찬가지로, 귀의하면 그만이니 지역 무슨 문제 되랴 ... [퇴계 선생이] 우뚝

86) 『樂齋集』 연보 권1, 〈연보〉.

87) 『慕堂集』 권6, 부록, 〈연보〉 상.

88) 김형수, 「임진왜란 직후 대구향촌세력의 재편과 갈등」, 『국학연구』 44, 한국국학진흥원, 2021, 13~34쪽.

89) 『한강연보』 권1, 〈연보〉.

90) 김학수, 앞의 논문(2010), 125~127쪽; 홍원식, 앞의 논문(2015), 15~17쪽.

91) 『모당집』 권6, 부록, 〈연보〉 하.

출현하셔서 끊긴 학통이었으니 ... 연경 이 곳은 비록 이웃 고을이나 설립 경위 따져 보면 선생의 교화가 아닌가! 서원 설계 운영 규칙 빠짐없이 여쭙는데 외람되어 은혜 입어 가르치심 자상 하네 ... 서원의 모든 제도 가르침에 의한 것이니, 그에 따라 행할 따름이다.⁹²⁾

위의 봉안문에서 정구는 우리나라 도통이 퇴계로부터 시작됨을 강조하였다. 대구 지역과 '도통'과의 연관성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퇴계가 관여한 연경서원으로 말미암아 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부각시켜 놓았다. 정구는 사후 2년 만인 1622년(광해군 14) 퇴계가 모셔진 연경서원에 배향의 형태로 제향되었는데, 당시 봉안문은 손처놀이 작성하였다.

일찍이 스승[퇴계]에게 나아가 그 嫡傳을 전해 받고, 이제 같은 사당에 배향되니 돌아가신 후 합함이 있다. ... 지난 기유년[1609] 동쪽으로 유람하실 때 작은 가마를 타고 우리 고을에 왕림하여 이 서원에 유숙하셨다. 바야흐로 문순공 퇴계 선생을 위해 사당 건립을 위한 모의를 했는데, 선생이 집터를 보고 여기에다 사당을 지었다. 한 번 정당한 말씀을 하시니, 들뜬 의논이 이에 그치어 당시 고을 선비들이 다투어 뒤를 따랐다. ... 말년에 이르러 또한 강론하는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기를 원근이 비록 고르나, 우리 고을이 선생의 거처와 접경이어서 가장 후하고 또한 친했다.⁹³⁾

봉안문에서 손처놀을 필두로 한 대구 사림은 정구가 퇴계학파의 적전임을 천명하였다. 이어 만년의 강학처가 대구 또는 그 접경지였음을 강조하며, '퇴계-한강'으로 이어지는 퇴계학파의 '도통'이 대구 지역에 뿌리내렸음을 부각하고 있다. 이는 앞서 퇴계의 재전 문인들이 성사시킨 도산서원의 조목 종향, 여강서원의 류성룡·김성일 배향과 비견되는 대목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임진왜란 이전 대구 지역에는 전경창·채응린·정사철 등 퇴계의 직전 문인이 포진하고 있었으며, 서사원·손처놀 등으로 대

92) 『寒岡集』 권11, 祝文, 〈研經書院奉安退溪李先生文〉.

93) 『모당집』 권5, 축문, 〈研經書院寒岡先生奉安文〉.

표되는 인사들도 정구 이전에 이들로부터 학문을 배웠었다. 이를 감안할 때 퇴계를 제향하는 대구 최초의 서원에 정구가 배향되었다는 것은 주목한 만한 대목이다. 대구 출신의 직전 문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명망이 높았고, 퇴계의 高弟로 평가받던 정구를 먼저 제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역적 위상이 더욱 컸기 때문인 것이다.

정구의 고향 성주에서도 삼년상이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 서원 설립이 추진되었다. 당시 성주에서는 정구의 고제 李濶雨[1569~1634]가 추승 사업을 주도했다. 이운우는 어린 시절 종고모부인 손처눌에게 학문을 배웠으며,⁹⁴⁾ 21세부터는 정구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스승 정구의 『五先生禮說』의 편찬을 도왔고, 후일에는 간행을 주도하게 된다. 정계에서는 광해군 연간 정인홍의 복인 세력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1622년 정구의 상례가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 성주 檜淵에다 사당을 설립하였다.⁹⁵⁾ 이 사당은 5년 뒤 檜淵書院으로 승격되었다.

그런데 사당 설립과 별개로 1623년 程頤·주자·김굉필이 제향된 성주 川谷書院에 정구 종향이 이루어졌다. 천곡서원은 퇴계의 자문에 의해 설립된 영봉서원이었는데, 이후 정구가 퇴계에게 문의하여 개칭한 것이다.⁹⁶⁾ 천곡서원 종향 역시 이운우 주도로 진행되었다. 분명 회연의 사당은 서원 승격을 염두하고 설립되었다. 그러나 그 계획은 5년 동안 지연되었고, 대신 천곡서원 종향이 먼저 이루어졌다. 비슷한 시기 같은 고을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사당 설립과 서원 종향이 함께 진행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사유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당시 성주의 정치적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성주는 정구의 고향이지만 임진왜란 이후에는 오히려 정인홍의 영향력이

94) 구본욱, 「석담 이운우의 사승과 교류에 관한 고찰」,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5, 4~9쪽.

95) 『石潭集』 연보, 〈石潭先生文集年譜〉.

96) 『한강연보』 권1, 〈연보〉, “선생이 그곳에 伊川·雲谷의 지명이 있음으로 인하여 臥龍의 고사에 따라 이선생[퇴계]에게 여주어 ‘川谷’이라고 이름을 정하였다”.

켜져 갔다. 이는 곧 정구와 정인홍 문인 세력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1610년 일어난 朴而立 고변 사건으로 두 세력 간의 대립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성주의 향약 모임에서 정구가 ‘不道之言’을 했다고 박이립이 고변 하자, 정구 문인들은 그 배후로 정인홍을 지목하였고, 상소문을 올려 박이립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인홍 문인 및 복인 세력의 압박이 거세지자 정구는 自明疏를 올리는 지경에 이르렀으며,⁹⁷⁾ 거처 또한 고향의 檜淵草堂과 武屹亭을 떠나 팔거현 노곡으로 옮겨야만 했다.⁹⁸⁾ 박이립 고변 사건은 이듬해 정인홍이 올린 <晦愚辨斥疏>와 더불어 남명학파의 분열상을 선명하게 보여준다.⁹⁹⁾ 이러한 분위기로 말미암아 고향 성주에 서원을 설립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대신 정인홍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대구에서 정구 제향이 먼저 성사되었다.

정구의 천곡서원 중향은 인조반정 6개월 후에 이루어졌다. 성주의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이윤우 등의 한강 문인은 새로 서원을 갖추기보다는 사액서원인 천곡서원에 먼저 중향하였다. 이 역시 퇴계학파의 ‘도통’ 계승과 관련지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비록 천곡서원은 퇴계가 제향된 서원은 아니지만, 초창기 제향 인물 선정과 이름 개칭이 퇴계의 자문에 의해 결정되었다. 즉, 천곡서원은 성주 지역 내에서 퇴계의 교화를 상징하는 장소였다. 따라서 대구 연경서원의 정구 제향과 같은 맥락에서, 성주 사람은 천곡서원 중향을 통해 ‘도통’이 ‘퇴계-한강’으로 이어지는 한강학파에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조반정 이후 급변한 정치적 분위기 속에 천곡서원 중향을 빠르게 성사시킴으로써, 광해군 연간 이어졌던 정인홍 세력과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정치적·학문적 우위를 확인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97) 『한강집』 권1, 疏, <庚戌疏>.

98) 『한강연보』 권1, <연보>, “선생이 평소애 선영 밑에서 떠나지 않다가 선영이 정인홍이 사는 곳과 가깝다는 이유로 마침내 단안을 내려 팔거현으로 옮겼다”.

99) 김형수, 「임란 전후 한강학단의 활동과 성주지역 사족사회의 동향」, 『민족문화연구』 7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275~278쪽.

이윤우가 정구 중향을 청원하기 위해 성주 사림을 대표하여 경상도관찰사에게 올린 ㅁㅁ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본 고을의 故 贈 判書 鄭某[정구는 어린 시절부터 이미 古人的 爲己之學에 뜻을 두었으며, 성리서에 심취한 채 과거 공부는 謝絶하였습니다. 겨우 약관의 나이에 文純公 李先生[퇴계]에게 가서 중유하였습니다. ... 廢朝 초반에 臨海君의 옥사가 일어났을 때 ㅁㅁ을 청하는 차자를 거듭 올렸습니다. 드디어 時論이 크게 어그러지자 전원으로 돌아와 생을 마치려 했지만, 계축년[1613]의 변고가 일어나 賊臣 鄭造·尹勣 등이 별궁에 두자는 의논을 부르짖으며 없는 죄를 조작해서 엮어매니, 그 화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정모는 비록 몸은 시골에 있었지만 나라에 큰 변고가 있자 물러나 편안히 있는 것은 불가하다며 병든 몸을 이끌고 길을 나서서 연달아 두 번의 차자를 올려 『春秋』에 수록된 佞夫의 고사를 인용하여 반복해서 비유하니, ... 일개 節義之士가 우연히 강직한 말과 곧은 의론을 발한 것이 아닙니다. ... 학문의 醇正함, 造詣의 정묘함, 논어의 정당함, 거취의 명백함은 5현 이후 이 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본 고을에는 천곡서원이 있는데, 伊川[정이]·雲谷[주자] 양 선생을 봉향하고 文敬公 金某[김굉필]를 종사하고 있습니다. 정모는 문경공의 외손으로서 그 학문의 연원에는 명백한 단서가 있습니다. 함께 제향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합니다.¹⁰⁰⁾

위와 같이 이윤우를 필두로 한 성주 지역 한강 문인은 퇴계로부터 비롯된 스승의 학문 연원과 광해군 연간 정치적 행보에서 보여준 절의를 부각하였다. 특히 학문과 행적이 모두 동방오현에 버금감을 강조하면서, 천곡서원 중향의 당위성을 적극 피력하였다.

천곡서원 중향이 성사되면서 성주 지역 도통을 ‘퇴계-한강’으로 빠르게 귀결시킬 수 있었다. 그런 가운데 1627년(인조 6) 비로소 정구를 단독으로 제향하는 회연서원을 설립하였다. 정구가 ‘도통’의 적전임을 입증하기 위해 천곡서원 중향을 했다면, 회연서원 설립은 한강학파의 거점 마련을 위해 이루어졌다. 1622년 연경서원과 1623년 천곡서원 제향, 그리고 1627년 정구를 주

100) 『석담집』 권3, ㅁㅁ, 〈星方伯文〉.

향으로 하는 회연서원 설립은 한강학파의 ‘도통’ 성립과 확산에 서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렇지만 천곡서원 종향과 회연서원 설립 역시 사적 연고에서 비롯되었다는 혐의를 피할 수 없었다. 성주 사림은 ‘도통’ 확보와 선현 추송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4년 사이 한 고을 내에 ‘첩향’이 이루어진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이에 대해 예안의 김령은 『계암일록』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성주 崔慶興·李竹 / 舒·李天封 등 수십 명이 여러 읍에 통문을 내었다. 회연서원이 완성되어 장차 다음 달 4일에 鄭寒岡의 향사를 지낸다고 하면서, 士子들 모여 참관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런 험난한 때에 시기가 맞지 않은 것 같거니와, 하물며 이전에 이미 천곡서원에 제향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읍에서 중복하여 이와 같이 하니 드문 일이라 할 것이다.¹⁰¹⁾

정구의 천곡서원·회연서원 ‘첩향’은 안동에서 일어난 류성룡의 여강서원·병산서원 ‘첩향’ 보다 2년 앞서 이루어졌기에 김령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물론 제향을 추진했던 문인들도 ‘첩향’에 대한 지적을 의식했던 것 같다. 이에 文緯[1554~1631]는 회연서원 설립 후 지은 봉안문에서 비록 천곡서원에 제향되어 있으나, 攸息하던 곳에 서원이 없을 수 없음을 강조하며 이는 모든 문인들의 숙원이라고 했다.¹⁰²⁾ 張顯光[1554~1637]은 또 다른 봉안문에서 천곡서원 종향 이전에 이미 사당을 세워 놓았지만 ‘정리상 그만둘 수 없는 일 [淸所罔已]’이라며, 문위와 같은 이유로 회연서원 설립이 사리에 합당하다고 했다.¹⁰³⁾ 이처럼 17세기 전반 퇴계학파의 분화 속에 각 학파는 서원 설립으로 자신들의 ‘도통’을 천명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훗날 사회적 문제가 되는 서원 ‘첩향’의 전례가 만들어지기도 했던 것이다.

한편, 17세기 전반에는 성주·대구 지역 이외에도 昌原 檜原書院과 昌寧 冠

101) 『계암일록』 5, 〈丁卯 8월 28일〉.

102) 『茅谿集』 권3, 제문, 〈檜淵書院奉安文〉.

103) 『旅軒集』 권11, 축문, 〈寒岡先生奉安檜淵文〉.

山書院에 정구가 제향되었다. 1587년 咸安郡守 재임 중이던 정구는 지역의 사류들과 창원을 방문한 후 觀海亭 터를 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창원·함안의 문인이 주축이 되어 1634년 관해정 옆에 회원서원을 설립하였다. 관산서원이 설립된 창녕은 1580년 정구가 昌寧縣監으로 부임한 고을이다. 그는 재임 중 서재를 짓고 학문 진작에 앞장섰다. 이에 창녕의 문인들이 주도하여 1638년 관산서원을 설립하였다.¹⁰⁴⁾ 앞서 언급하였듯이 영남 지역 내에서 정구의 활동 범위는 동 시기 퇴계의 직전 문인과 비교해 매우 넓은 편이었다. 그는 지방관 부임, 船遊와 浴行, 강학 등으로 여러 지역에 자신의 학문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회원서원과 관산서원도 그렇게 형성된 지역적 연고를 매개로 설립되었다.

퇴계학과의 적통을 둘러싸고 재전 문인 간 경쟁이 일어났던 예안·안동·상주 권역과 달리 낙동강 중부 연안에는 정구를 제외하고 뚜렷한 학문적 중심점이 없었다. 거기다 인조반정 후 진주·합천권의 남명학파마저 쇠락하는 가운데 한강학파와 학문적 연접을 시도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러한 가운데 17세기 이후 한강 문인을 제향하는 서원이 영남 각지에 설립되었다.

〈표 5〉 한강 문인의 서원 제향 현황¹⁰⁵⁾

소재지	연도[사액]	서원명	제향 인물
대丘	1563[1660]	研經書院	李滉 鄭述[星州] 鄭經世[追1676, 尙州] ○別祠 全慶昌 李叔樸
	1639	伊江書院	徐思遠
	1691	南岡書院	朴漢柱 朴壽春[密陽]
	1692	百源書院	徐時立
	1694	靑湖書院	孫肇瑞 孫處訥 柳時藩 鄭好仁
	1708	龍湖書院	都聖俞 都汝俞 都愼修

104) 『한강연보』 권1, 〈연보〉.

105) 한강 문인은 『檜淵及門諸賢錄』과 ‘권연웅, 『회연급문제현록』 소고, 『퇴계학과 유교문화』 13,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85’를 참조했으며, 서원 현황은 〈표 3〉 참고 자료와 동일.

	1764	琴巖書院	鄭師哲 鄭光天
	1781	西溪書院	李文和 李輅[追1801]
	1784	柳湖書院	蔡應麟 郭再謙
	1785	屏巖書院	都慶俞 都慶俞
	1799	鳳山書院	孫遜
	1824	西山書院	蔡貴洞 蔡應麟 蔡先見 蔡先修
尙州	1606[1677]	道南書院	鄭夢周 金宏弼 鄭汝昌 李彥迪 李湜 盧守慎 柳成龍 鄭經世[追1635]
	1631	玉城書院	金得培 申潛 金範 李埶[追1710] 李竣
	1635	涑水書院	孫仲墩 申祐 金宇宏 趙靖[追1730] 趙翊
	1714[1789]	玉洞書院	黃喜 全湜 黃孝獻 黃紐[追1783]
	1745	洛巖書院	金聃壽 金廷龍 金廷堅
	1796	愚山書院	鄭經世 鄭宗魯
星州	1627[1690]	檜淵書院	鄭述 李潤雨[追1677] ○抱賢祠 宋師頌 李弘器 李弘量 李弘宇 李竹[舒]
	1656	伊陽書院	張鳳翰 張以俞
	1725	道川書院	裴尙龍 裴尙虎
	1782	鰲巖書院	崔恒慶 崔轅 崔(車+濫)
	1794	德泉書院	金關石 金天澤 金轅 金楸
安東	1572[1863]	屏山書院	柳成龍 柳紆[追1662]
	1686	鏡光書院	裴尙志 李宗準 權宇 裴三益 張興孝
	1693	道淵書院	鄭述 許瓊[京] 蔡濟恭
	1791	花川書院	柳雲龍 柳元之 金允安[追1803]
漆谷	1651	泗陽書院	鄭述[星州] 李潤雨[追1664] 李遠慶
	1705	梅陽書院	宋遠器 宋命基 宋履錫
	1748	梧陽書院	鄭鍾
昌寧	1695	燕巖書院	李承彥 李長坤 成安義
	1712	勿溪書院	成松國 成三問 成聃壽 成守琛 成運 成梯元 成允諧 成渾 成思齊 成勝 成守琮 成汝完 成愷 成守慶 成濫 成濟 成汝信 成安義[追1814]
	1829	東山書院	盧善卿 盧克弘 盧世厚 盧垓
晉州	1702	臨川書院	李俊民 姜應台 成汝信 韓夢參 河燈
	1720	鼎岡書院	鄭溫 姜叔卿 河潤 俞白溫 李濟 李琰 河天澍 陳克敬 朴敏 朴旨瑞
善山	1707	松山書院	崔應龍 崔峴 金應箕 金振宗 康惟善 盧景任
	1796	勝巖書院	金寧

榮川	1786	寒泉書院	張壽禧 吳澐 朴檉茂 朴樞茂
	1615	龜江書院	金淡 朴承任 金功 金榮祖[追1669]
義城	1671	藏待書院	金光粹 申元祿 申之愷 李民戎
	1856	丹邱書院	申適道 申悅道
義興	1786	羅溪書院	李堰 朴敏樹 朴從男
	1833	道岡書院	朴敏樹 朴從男
陝川	1766	會山書院	朴良佐 朴而文 李重茂 權養
	1832	河南書院	文景虎
咸安	1780	道溪書院	李瀟 李休復 朴震英 趙益道
	1789	廬陽書院	趙參 安宅 朴忬 李明志[追1802] 李景藩 李景茂
慶山	1693	孤山書院	李滉 鄭經世[尙州]
	1786	玉川書院	徐思選
居昌	1661[1662]	道山書院	金宏弼 鄭汝昌 李彥迪 鄭蘊
	1686	龍源書院	文緯
漆原	1850	清溪書院	李三老 李時積[丹城]
	1864	泰陽書院	安挺
丹城	1787	浣溪書院	權濤 權克亮
	1612[1727]	道川書院	文益漸 權濤[追1672]
咸陽	1552[1566]	濼溪書院	鄭汝昌 姜翼 俞好仁 鄭蘊[追1677, 安陰] ○別祠 俞好仁 鄭弘緒[追1820]
安陰	1583[1662]	龍門書院	鄭汝昌 林薰 林芸 鄭蘊[追1642]
昌原	1634	檜原書院	鄭述 許稔[追1708, 京]
醴泉	1640	道正書院	鄭琢 鄭允穆[追1786]
永川	1657	立巖書院	張顯光 鄭四震 權克立 鄭四象[追1713] 孫宇男
開寧	1669[1676]	德林書院	金宗直 鄭鵬 鄭經世
玄風	1674[1677]	禮淵書院	郭越 郭再祐
奉化	1676	盤泉書院	金中清
靈山	1703	德峰書院	李碩慶 李厚慶 李道孜
高靈	1707	文淵書院	朴潤 朴澤 尹奎 朴廷璠 崔汝契
河陽	1798	南湖書院	金是聲
仁同	1803	嘯巖書院	蔡夢硯[大丘] 張乃範[追1847] 蔡稭
宜寧	1825	峯淵書院	許稔[京]
英陽	1830	明阜書院	鄭湛 吳克成

* 제향 인물 중 한강 문인은 ‘_’로 표시

** 제향 인물의 거주지와 출신지가 다르거나 추향 되었을 경우 ‘[]’로 별도 기재

〈표 5〉에서처럼 한강 문인의 서원 제향 양상은 다른 퇴계학과 계열의 재건 문인층과 사뭇 다르다. 중첩적 사승 관계에 있는 예안·안동·상주 권역의 문인들을 제외하더라도 지역적 범주가 매우 넓으며, 제향된 인물 수도 많은 편이다. 〈표 5〉에서는 제외했지만 정구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장현광도 6개 지역 8개 서원에 제향되었다.¹⁰⁶⁾ 한강 문인의 제향도 '퇴계-한강'으로 이어지는 '도통' 계승이 주요 명분으로 활용되었다. 한강 문인 중에서는 서사원이 1639년 대구 伊江書院에 가장 먼저 제향되었는데, 그 명분은 '淵源甚寒'과 지역에서의 강학 활동이었다.¹⁰⁷⁾ '퇴계-한강'으로 이어지는 '도통'을 지역에 뿌리내렸다는 명분으로 서원 제향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도통'의 지역적 계승이 서원 설립과 제향의 중요 명분이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다른 퇴계학과 계열의 문인들과 비교해 배타적 '도통' 의식이 열었고 학과 연접에 유연함을 보였던 한강학과 문인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러나 지역적 계승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사적 연고에 의한 서원 설립의 여지가 커졌음을 의미한다. 1639년 김령은 안동·대구에서 진행되고 서원 설립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仁同에서 통문을 내어 “장차 다음달 14일에 旅韓[장현광]을 吳山書院 吉治

106) 장현광을 제향한 서원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연도[사액]	서원명	제향 인물
仁同	1574[1609]	吳山書院	吉再 張顯光[追1639]
	1655[1676]	不知巖書院 [東洛書院]	張顯光
永川	1553[1554]	臨臯書院	鄭夢周 張顯光[追1642] 皇甫仁
	1657	立巖書院	張顯光 鄭四震 權克立 鄭四象[追1713] 孫宇男
星州	1558[1560]	迎鳳書院 [川谷書院]	程頤 朱子 金宏弼 鄭述 張顯光[追1642]
善山	1570[1575]	金鳥書院	吉再 金宗直 鄭鵬 朴英 張顯光[追1642]
義城	1556[1576]	冰溪書院	金安國 李彥迪 柳成龍 金誠一 張顯光[追1689]
靑松	1699	松鶴書院	李滉 金誠一 張顯光[仁同]

107) 『낙재집』 권2, 부록, 〈伊江書院奉安文〉; 〈春秋常享文〉.

隱[길재] 사당에 함께 배향하고자 하니, 와서 관람하시기를 요청합니다"라고 하였는데, 張慶遇 등이 통문을 내었다. 며칠 전에는 대구의 孫處約 등도 역시 여러 고을에 통문을 내어 이르기를 “樂齋 徐先生을 장차 10월 24일에 仙槎書院에 봉향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른바 낙재는 淸安 수령을 지낸 徐思遠이다. ‘末世의 事情’ 너무 심하여 廟宇에 제향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폐습이 이미 고질병이 되어 버렸다.¹⁰⁸⁾

앞서 김령은 상주 도남서원의 노수신 추향을 ‘末世의 私情’이라 비판한 적이 있었다. 노수신 추향을 주도한 강복성과 진식이 각각 노수신의 조카이자 문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장현광의 仁同 吳山書院 제향과 서사원의 대구 仙槎書院[이강서원] 제향을 같은 이유로 비판하였다. 두 서원의 설립을 주도한 인사들이 대부분 제향자의 친족·동문·문인 등 뚜렷한 사적 연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퇴계학과 분화 이후 각 학통을 계승한 영남 사립들은 경쟁적으로 ‘도통’을 자신들의 연고지와 접목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한강학과 문인들의 서원 설립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학파의 지역적 전개와 경쟁은 17세기 이후 서원의 남설 현상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VI. 맺음말

조선시대 서원은 사학 교육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공적 영역에서 관리되었다. 서원이 관학의 대안처로 인정받았기에 관의 지원 하에 설립과 운영이 이루어졌다. 서원 설립이 지역 사립의 공론과 제향 인물에 대한 추승 의식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한다면, 서원 제향은 곧 제향 인물의 학문적 권위를 관부에서 공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6세기 이후 우리나라 성리학파가 분

108) 『계암일록』 3, <己卯 10월 21일>.

화되는 과정에서 각 학파는 자파의 儒賢을 경쟁적으로 서원에 제향함으로써, 학문적 권위를 공인 받으려 했다. 그렇기에 17세기 이후가 되면 학문적 성과 보다는 학문적 계보, 즉 학파별 '도통' 계승이 서원 제향의 중요한 명분이 되었다. '도통'의 계승 여부는 학문적 권위를 넘어 정치·사회적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논문에서는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영남 지역 퇴계 학파의 분화가 따른 서원의 설립 양상을 살펴보았다. 퇴계는 일찍이 관학의 대안처로 서원을 주목하였으며, 정부에 건의하여 공적 관리를 받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한 서원 운영의 기본 운영 규칙과 제향 인물의 선정 기준도 제시하였다. 16세기 중·후반 등장한 서원은 전통시대 우리나라 사학 기관 중 가장 진일보한 형태였으며, 결과적으로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관료 국가 형성에도 적지 않게 기여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원은 관학의 대안처라는 본연의 기능 보다 특정 인물의 제향처라는 성격이 짙어져 갔다. 퇴계 사후 영남 사림의 서원 설립은 '도통' 계승에 주안점이 맞추어졌다. 우리나라 도통 연원을 퇴계로 설정하면서, 그 문인 집단에 의해 선조-광해군 연간 퇴계를 제향하는 서원이 영남 지역에만 10여개 소가 설립되었다. 퇴계의 학문적 위상은 차치하더라도, 문인들이 직접 스승을 서원에 제향하는 것은 전에 없던 이래적인 현상이었다. 이는 각 학파별로 사적 연고로서 '존현'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전례가 되었다.

17세기로 넘어가면서 서원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이러한 현상에는 학파의 분화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각 학파는 '도통' 의식에 입각하여, 특정 학파의 주요 인사를 제향함으로써 자신들을 '도통'의 계승자로 천명하였다. 이는 해당 서원에 성리학적 명분을 부여하는 일반적인 모습이 되었다. 퇴계 사후 퇴계학파가 분화하는 가운데, 각 학파의 재전 문인은 자신들과 연결된 직전 문인을 경쟁적으로 서원에 제향하였다.

이와 관련해 먼저 주목한 것은 월천 조목 계열이다. 조목은 퇴계를 지근거

리에서 보필한 고제로 퇴계 사후 복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이에 그의 문인이자 퇴계의 재전 문인들은 월천을 도산서원에 중향함으로써 퇴계학파의 적통이 '퇴계-월천'에게로 이어짐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계열은 복인 정권의 몰락과 함께 퇴락하였고, 그 위상은 안동권으로 넘어가게 된다.

안동의 재전 문인들은 월천 계열과 경쟁하며, 더욱 발 빠르게 자신들의 스승들을 서원에 제향하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세력은 서애 류성룡 계열이다. 특히 상주의 우복 정경세는 예안의 월천 계열과 경쟁하며 자신의 스승인 서애를 '퇴계의 적전'으로 추송하였다. 이에 병산서원과 임천서원에 있는 서애·학봉의 위패를 퇴계가 제향된 여강서원에 합향하였다. 제향의 형태는 배향이었다. 이를 통해 도산서원에 중향된 월천과 비교 우위를 점하고, 서애를 퇴계학파의 적전으로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강서원 합향을 전후하여 이전과는 다른 제향 현상이 나타났다. 서원 설립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제향 기준과 명분에 자의적인 해석이 많아지고, 기존의 암묵적인 원칙은 붕괴되었다. 먼저 '일읍일원'이라는 암묵적 원칙이 무너지고 '일읍다원'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류성룡이 병산서원과 여강서원에 제향된 것처럼 고을 내 '첩향'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학파의 고착화에 따라 가학의 전통이 부각되면서, 일족 간 사적 연고에 의한 서원 설립과 제향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퇴계학파를 계승한 계열 가운데 17세기 전반 사회·경제적 영향력은 서애 학파가 가장 컸다. 서애 계열은 '서애-류진-류세철'로 이어지는 가학 계열과 '퇴계-서애-우복-류진'으로 이어지는 상주 지역 사림 계열이 있다. 특히 후자는 퇴계학파의 적통을 상주의 서애학파로 귀결시키고자 했는데, 이는 도남서원의 제향 추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도남서원 설립은 정경세·전식·이준 등 상주의 서애 문인이 주도하였다. 정경세는 도남서원 설립 시 봉안문에서 당시 문묘종사가 추진되고 있던 '동방오현' 중 4인과 우리나라 성리학의 鼻祖로 알려진 정몽주가 모두 영남 출신이기에 이 5인을 상주에 함께 제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주는 얼마 전까지 경상감영이 있었던 행정 중심지였

을 뿐만 아니라, 영남에서 낙동강이 시작되는 고을이었다. 우리나라 ‘도통’ 계보의 중심이 영남이라면, 영남 ‘도통’ 계보의 중심은 상주가 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도남서원에 5인을 제향한 것이다. 이어서 서애가 도남서원에 제향되었다. 정경세 등은 류성룡 제향을 통해 상주를 안동·예안에 버금가는 퇴계학파의 嫡傳地로 부상시키려 했다. 이를 통해 서애학파라는 학문적 집단성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경세 추향이 이루어지면서 ‘주자-퇴계-서애-우복’으로 이어지는 ‘도통’ 계보가 성립되었다. 이는 ‘학파’ 집단이 ‘도통’ 계보를 특정 지역으로 귀결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일찍이 우복은 상주가 영남의 first에 영남 명현도 상주에 제향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도남서원 설립을 성사시켰다. 5현이 우리나라 ‘도통’을 이어왔다면, 류성룡 제향을 통해 그런 ‘도통’을 상주 지역으로 연결함과 동시에 퇴계학파의 ‘도통’ 계승을 표방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복을 도남서원에 추향함으로써, ‘도통’ 계보는 상주 지역으로 귀결되었다. 즉, 상주를 도학의 연원과 統緒로 이해되는 ‘泗水’와 ‘閩洛’에 대응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한강 정구는 퇴계·남명 양 문하에서 수학했으나, 어느 한 곳에 경도되지 않았다. 다만 남명의 직전 정인홍과 정치적인 문제로 결별했을 뿐이다. 또한 퇴계에게 수학했지만 월천·서애·학봉에 비해 그 빈도와 친숙도는 떨어진다. 이런 한강의 활약지는 경상도 중부의 낙동강 연안이며, 『회연금문제현록』에 수록된 문인을 보면 342명으로 다른 계열을 압도한다. 정구 이전 뚜렷한 중심점이 없었던 낙동강 연안의 사람과 학문 외적인 사유로 와해된 진주·합천권의 남명학과 계열이 ‘도통’에 대한 배타적 성격이 열었던 한강 계열로 수렴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 또한 한강학과 계열의 서원 설립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정구를 먼저 제향한 곳은 대구의 연경서원이다. 정구는 비록 성주 출신이지만, 광해군 연간 성주 지역은 정구 문인과 정인홍 문인과의 반목이 심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서사원·손처눌로 대표되는 대구 사람이 ‘퇴계-한강’

으로 이어지는 ‘도통’ 계보를 전면에 내세우며 퇴계가 제향된 연경서원에 한 발 먼저 정구를 추향하였다. 그런데 대구에는 일찍이 전경창·채응린·정사철 등으로 대표되는 퇴계의 직전 문인이 활동하였으며, 정구 문인 중에서도 이들에게 먼저 수학한 인사들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구를 먼저 제향한 것은 정구를 제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위상과 ‘도통’ 계승에 대한 명분이 더욱 컸으며, 무엇보다 정구를 통해 학과의 구심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조반정 이후 성주의 한강 문인은 즉각적으로 천곡서원에 정구를 종향하였다. 이는 광해군 연간 이어졌던 정인홍 세력과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정치적·학문적 우위가 ‘퇴계-한강’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조치였다. 이어 그가 강학하던 장소에 정구를 주향으로 하는 회연서원을 설립함으로써, 한강학과 전개의 구심점으로 삼았다. 그러나 성주의 천곡서원·회연서원 제향은 훗날 사회적 문제가 되는 서원 ‘첩향’의 단초가 되었다.

한편, 한강의 문인들은 ‘퇴계-한강’으로 이어지는 ‘도통’의 지역적 계승을 명분으로 여러 지역에 서원을 설립하고 그 문인을 제향하였다. 지역적 계승을 서원 제향의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반대로 사적 연고에 의한 서원 설립의 여지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17세기 이후 서원 남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燃藜室記述』, 『竹溪志』, 『嶠南誌』, 『廬江誌』, 『退溪集』, 『退溪年譜』, 『西厓年譜』, 『梅軒集』, 『月川集』, 『嘯臯集』, 『芝山集』, 『寒岡集』, 『寒岡年譜』, 『愚伏集』, 『愚伏別集』, 『琴易堂集』, 『蒼石集』, 『蒼石續集』, 『沙西集』, 『木齋集』, 『樊巖集』, 『溪堂集』, 『雨溪集』, 『慕堂集』, 『樂齋集』, 『茅谿集』, 『放軒集』, 『石潭集』, 『陶山及門諸賢錄』, 『檜淵及門諸賢錄』, 『家學淵源錄』, 『愚伏先生門人錄』, 『溪巖日錄』

구본옥, 「석담 이윤우의 사승과 교유에 관한 고찰」,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5.

권시용, 「16-17세기 초반 퇴계 문인의 서원 건립 활동」, 『한국서원학보』 8, 한국서원학회, 2019.

권연웅, 「『회연급문제현록』 소고」, 『퇴계학과 유교문화』 13,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85.

김종석, 「『도산급문제현록』과 퇴계 학통제자의 범위」, 『퇴계학과 유교문화』 26,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98.

김학수, 「영남지역 서원의 정치사회적 성격」, 『국학연구』 11, 한국국학진흥원, 2007.

_____, 「정경세·이준의 소재관－정경세의 비판적 흡수론과 이준의 계승적 변호론을 중심으로－」, 『영남학』 7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9.

_____, 「조선중기 한강학파의 등장과 전개－문인록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4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0.

김형수, 「17·18세기 상주·선산권 지역사회와 서원·사우의 동향」, 『영남학』 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5.

_____, 「임란 전후 한강학단의 활동과 성주지역 사족사회의 동향」, 『민족문화연구』 7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박인호, 「17세기 초 퇴계학파 월천계의 동향과 구전 김중청의 활동」, 『국학연구』 33, 한국국학진흥원, 2017.

설석규, 「퇴계학파의 분화와 병호시비(II)－여강(호계)서원 치폐 전말－」, 『퇴계학과 유교문화』 45,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9.

이범학, 「남송 후기 이학의 보급과 관학화의 배경－이학계 인사들의 정치·사회적 행동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17,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4.

- 이병훈, 「16세기 한국 서원의 출현과 정비」, 『한국서원학보』 10, 한국서원학회, 2020
- _____, 「조선후기 영남지역 원사의 건립과 변화 검토」, 『한국서원학보』 6, 한국서원학회, 2018
- 이상현, 「월천 조목의 도산서원 중향논의」, 『북악사론』 8, 북악사학회, 2001
- 이수건, 『영남학과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 이수환, 「성주 영봉서원 연구」, 『역사교육논집』 54, 역사교육학회, 2015
- 이우성, 「퇴계선생과 서원창설운동-이조성리학의 토착화와 아카데미즘-」, 『퇴계학보』 19, 퇴계학연구원, 1978
- 이재현, 「안동 임천서원의 치폐와 사액 청원」, 『한국서원학보』 6, 한국서원학회, 2018
- 임근실, 「16세기 영남지역 서원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 정현정, 「조선중기 주자제향 서원의 사회사적 성격」,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 지준호, 「주자문인의 도통의식」, 『동양철학연구』 35, 동양철학연구회, 2003
- 채광수, 「우복학단의 성격과 계모학적 갈래」, 『한국계보연구』 10, 한국계보연구회, 2020
- _____, 「퇴계 문인의 서원 보급 활동」, 『민족문화논총』 7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9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43-안동 갈전 순흥안씨편-, 1999
- 홍원식, 「연경서원 제향 인물과 그 배경」, 『퇴계학논보』 16, 영남퇴계학연구원, 2015

Abstract

The Ideals of 'Dotong(道統)' and Expansion of
Seowon(書院) for Academic Factions During the
Joseon Dynasty

—Focusing on Toegye(退溪) School from the Later Part of
16C to the First Part of 17C—

Yi, Gwang-woo*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take a look at the influence of the 'Dotong' of the academic faction with the expansion of seowon from the later period of 16C to the first part of 17C with the focus on Toegye School in the Yeongnam region. Yeongnam was the hub site of scholars where many seowons were established actively during the period ranging from the early period. In particular, with Namin(南人) as the focal point, this is the region where a number of seowon was established by Toegye School that realized the ideals of 'Dotong'. Furthermore, with the shifts in political situations due to the practice of factional politics, there were seowons stemming from Nammyeong(南冥) School and Yulgok(栗谷) School that there were a significant number of studies on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seowon for academic factions. Namely, Yeongnam Seowon showed more conspicuously features over other regions regarding its characteristics in focal point of specific academic lines or processing of

* Yeungnam University / ikw38@ynu.ac.kr

public opinions of political factions rather than its innate characteristics as the space of education and edification, and therefore, it has been a great case to take a look at the trend of establishing seowons following the deployment of the ideals of 'Dotong'. While Toegye School was divided from the later 16C to first half of 17C in particular, the re-conveyance of group of educated scholars continued from the pupils of Toegye, including Wolcheon(月川) Cho Mok(趙穆), Seoaw(西厓) Ryu Seong-ryong(柳成龍), Hangang(寒岡) Jeong Gu(鄭球) and others, competitively established seowons in order to conclude the ideals of 'Dotong' from Toegye School to themselves. Such a trend demonstrates that seowons have firmly established as the core site of 'Dotong'. On the other hand, in the later period of Joseon society when the academic hierarchy was directly correlated to the power, the ideals of 'Dotong' of each academic faction, it is shown that it was the beginning of the wide expansion of seowon.

Key word : Toegye School, Dotong, Seowon, Cho Mok, Ryu Seong-ryong, Jeong Gu

논문 투고일: 2021. 5. 30 심사 완료일: 2021. 6. 21 게재 확정일: 2021. 6. 22

한국 서원 장서의 구축과 관리 제도의 변화*

이 병 훈**

- I. 머리말
- II. 한국 서원의 장서 구축
- III. 한국 서원의 장서 관리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 서원의 도서관적 기능을 장서 구축과 관리라는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한국 서원 장서는 기증, 구매, 출판 등의 방법에 의해 구축되었다. 서원별·시기별로 차이는 나지만 장서의 토대를 형성한 것은 국가에서 내려준 내사본과 지방관, 후손, 문인들의 기증본이었다. 초창기 서원 운영과 관련하여 이들 서적의 기증은 서원 재정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다. 또한 당시 기증된 도서는 원규에 명시된 대로 유생들의 교육에 필수적인 경전과 사서, 성리서 등이 대부분이었다. 17세기 중반이후부터 국가에 의한 반질보다는 지방관 개인내지 여타 서원·문중에서의 서적 기증이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상호교환 내지 등서(필사)를 통한 서적 구비도 보인다. 한편 구매를 통한 서적 구입은 초창기 서원 이래로 서원 장서를 구성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또한 각 서원에서 필요로 하는 서적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활용되었다. 하지만 서적의 구입은 구매처의 제한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량 구매는 어려웠으며, 원하는 서적을 구매하지 못하기도 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이 적은 인출이나 필사, 교환을 통한 방법도 선호되었다. 출판을 통한 장서 구비는 제향인의 위상과 서원의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났다. 그래서 서원에서의 출판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2813).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yukhl@ynu.ac.kr

은 각 지역의 거점 서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8세기 이후에는 제향인의 후손과 문인의 문집을 서원에서 간행함으로써 혈연적,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서원의 사회적 위상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렇게 수집된 장서와 제작된 책판들을 관리하는 것도 서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였다. 서원은 서적을 장서각·어서각 등에 보관하였다. 이중에서 서원에서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책들은 별도의 상자에 보관하였다. 책판은 속사에 보관하거나, 장판각 등을 건립하여 보관하였다. 수많은 장서는 서원 교육뿐만 아니라 서원의 위상을 알리는데도 주요했다. 대부분의 서원은 원규로서 정기적 점검과 서책의 반출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18세기 이래로 서원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많은 원사가 건립되면서 서원 운영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지방관과 후손가 및 일부 유력 가문들의 서적대여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서적대여를 단속하고, 관리를 강화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래서 서적 반출을 막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서적을 대여하는 규정을 개정하되, 서적의 분실·훼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이래로 오랜 세월을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장서를 축적해 왔으며, 향촌의 지식인들은 서원을 이용하면서 지식을 습득·보급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서원은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확대하는 한편, 그것을 통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이자, 공론 형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서원, 도서관, 원규, 장서, 책판

I. 서론

전통시대에 학교는 ‘교화를 펼치는 근원이며, 도덕적 모범을 보이는 곳’이라는 말처럼 신민에 대해 교화를 하고,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기구였다.¹⁾ 이

1) 李滉, 『退溪先生文集』 卷41, 雜著, 「論四學師生文」. “學校 風化之原 首善之地 而士子 禮義之宗 元氣之寓也. 國家設學而養士 其意甚隆 士子入學以自養 寧可苟爲是淺穢哉.”

런 학교는 설립과 운영주체에 따라서 관학(官學)과 사학(私學)으로 나뉜다. 국가가 세우고 운영하는 관학에는 중앙의 성균관과 사학(四學) 및 지방의 향교(鄕校)가 있다. 사학에는 향촌자제들의 초등교육을 맡은 학당이나 서당 혹은 이름 있는 학자가 제자들과 학문을 강론하는 서재(書齋), 유생의 강학과 장수(藏修)를 기본으로 하는 서원(書院)이 있다.²⁾

서원은 중국의 당대(唐代)에 장서(藏書)와 독서처(讀書處)로서 등장하여, 송대(宋代)에 들어서 경전을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로 발전하고, 남송(南宋)대에 들어서는 성리학을 연구하며 토론하는 학술 기구적 면모를 더했다. 성리학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학자마다 달랐다. 그래서 이들 학자의 학설을 사제간에 수수(授受)하는 학파(學派)가 형성되고, 선사(先師)의 학설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거점으로서 서원 건립을 촉발시켰다. 또한 그 학파의 개조(開祖)를 현양(顯揚)하기 위해서 그를 제향하는 사묘(祠廟)를 서원 경내에 부설하였다. 이때부터 별개의 것으로 여겨졌던 강학처로서의 서원과 제향처로서의 사당 또는 사묘가 통합되어,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으로 구성되는 서원 제도가 확립되었다.³⁾

남송대 서원의 이러한 변화는 퇴계와 그 문인들에게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서원이 강학과 장수를 위한 기구임을 강조한 퇴계는 유생들의 교육을 위한 장서의 확보를 위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의 사액(賜額)을 청원하면서, 서적도 함께 요청하였다.⁴⁾ 조선시대 서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그 정신적인 가치와 교육적 기능을 강조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서책과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지식창고로도 기능했다. 특히 교육활동을 보조하고, 해당 지역사회의 지식창고 역할을 한 것은 장서(藏書)제도였다. 책의 보급과 열람이 어려웠던

2) 이병훈, 「16세기 한국 서원의 출현과 정비」, 『한국서원학보』 90, 한국서원학회, 2020.

3) 정만조, 「서원, 조선 지식의 힘」,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41~42쪽.

4) 이항, 앞의 책, 卷9, 書, 「上沈方伯(通源 己酉)」. “... 則欲請依宋朝故事 頒降書籍 宣賜扁額 兼之給土田臧獲 …”

시대에 서원의 장서제도와 출판문화는 지식 확산과 문화의 형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 실제로도 서원의 장서는 조선시대 서적문화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간행되거나 소장된 서적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전반의 문화, 역사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⁵⁾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성장과 확산에 기여한 서원은 17세기 이래로 정치·사회적 기능이 확대되면서 사림의 강학·장수처라는 초기의 설립 취지는 많이 쇠퇴하였다. 그렇지만 성리학의 지방 확산과 정착이라는 점에서 서원의 교육적 역할은 지대하였다. 이것은 서원이 가지는 출판·도서관적 기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서원의 교육적 기능은 시대의 진전에 따라 약화되어 갔지만, 사액서원을 중심으로 한 서원의 출판·도서관적 기능은 강화되는 측면도 나타났다. 이것은 18세기 중반이후 양반지배체제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사액서원을 중심으로 유학 교육을 강화하여, 대민 교화를 통한 신분질서 확립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사액서원은 일향(一鄕)을 영도할 정도의 위상과 경제적 기반을 가진 각 고을의 대표적인 서원이었다. 하지만 다수의 장서를 구비하고, 제향인의 학덕을 기리기 위한 문집과 저서의 출판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였다. 그렇기에 장관각(藏板閣), 장서각(藏書閣) 등 별도의 장서 및 책판을 보관하는 건물을 가진 곳들은 문묘중사 대현을 제향하는 사액서원이 대부분이다. 서적의 수집과 출판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소용되기에 그만큼 경제적 기반을 갖추어야 했으며, 제향인의 위상에 따라 국가와 수령, 문중, 개인들의 부조가 달랐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대원군의 원사 휘철령 당시에도 존치했던 47개 서원·사우는 문묘중사 대현과 충절인을 제향하는 대표적인 원사였다. 특히 27개소의 서원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일도(一道)를 대표하는 서원으로서 조야(朝野)의 주

5) 옥영정, 「한국 서원의 장서와 출판문화」, 『한국의 서원문화1』, 한국서원연합회, 2013.

목을 받아왔다.⁶⁾ 이 서원들은 해당 지역 사람들의 여론을 결집하고, 중앙의 정치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그 정치적 입지도 신장해왔다. 문화사적으로는 향촌사회에서의 성리학 보급과 정착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지식확산과 보급은 건립 이래로 크게 성장해온 서원의 사회적 위상과 더불어 수많은 서원 장서와 목판 인쇄로 대표되는 출판의 중심처였기에 가능하였다.⁷⁾

그러나 서원의 출판·도서관적 기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서지학 분야에서 일부 언급할 뿐이며, 역사학에서는 별다른 연구 성과가 없다.⁸⁾ 그러나 2000년 이래로 개별 서원에 소장된 전적과 고문서, 목판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도산·옥산·도동·병산서원 등 일부의 다량 소장처에 국한되었다.⁹⁾ 이것은 관련 자료가 부

6) 『고종실록』 권8, 고종 8년 3월 9일(기해), 3월 18일(무신), 3월 20일(경술). 미취 칠된 27개소의 서원은 경기도(8) : 개성 崇陽書院(鄭夢周), 용인 深谷書院(趙光祖), 파주 坡山書院(成渾), 김포 牛渚書院(趙憲), 포천 龍淵書院(李德馨), 과천 四忠書院(金昌集·李頤命·李健命·趙泰采), 양성 德峰書院(吳斗寅), 과천 鷺江書院(朴泰輔), 충청도(2) : 연산 遯巖書院(金長生), 노성 魯岡書院(尹焯), 전라도(2) : 태인 武城書院(崔致遠), 장성 筆巖書院(金麟厚), 경상도(10) : 경주 西岳書院(薛聰), 선산 金烏書院(吉再), 함양 藍溪書院(鄭汝昌), 예안 陶山書院(李滉), 상주 玉洞書院(黃喜), 안동 屏山書院(柳成龍), 순흥 紹修書院(安珣), 현풍 道東書院(金宏弼), 경주 玉山書院(李彥迪), 상주 興巖書院(宋浚吉), 강원도(2) : 영월 韓節書院(死六臣), 금화 忠烈書院(洪命壽), 황해도(2) : 배천 文會書院(李珣), 장연 鳳陽書院(朴世采), 함경도(1) : 북청 老德書院(李恒福) 등이다. 노론을 대표하는 송시열은 華陽書院이 대표적 제향처였지만 萬東廟와 함께 우선 훼손되면서, 여주 江漢祠가 존치되었다. 이외에도 金尙容의 강화 忠烈祠, 金尙憲의 광주 黷節祠도 대표적 제향처로 존치되었다.

7) 남권희, 「조선시대 경주 간행의 서적」, 『신라문화』 33, 2009.

8) 서원 장서와 관련하여 이춘희의 선구적 연구 이래로 오랫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李春熙, 『李朝書院文庫目錄考』, 『李朝書院文庫目錄』, 국회도서관, 1969). 그러나 서지학에서는 90년대 이래로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연구가 진행되어왔다(박현규, 「병산서원서적목록의 분석과 그 특징」, 『季刊 서지학보』 94, 한국서지학회, 1994; 전라남도·전남대 문헌정보연구소, 『전남 서원의 목판』, 1998). 역사학에서는 윤희면의 연구가 2005년에 처음 진행되었다(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의 도서관 기능 연구」, 『역사학보』 986, 역사학회, 2005).

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조선시대 모든 서원이 출판·도서관적 기능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으며, 그런 기능을 가졌다고 해도 대원군의 원사 휘철 당시 대부분 망실하였던 것이다. 미휘철 서원이라 하더라도 한국전쟁과 근대화 과정에서 소실 및 도난을 당하였다. 그 결과 현전하는 장서와 책판 등은 전란을 피해 철저한 관리를 이어온 소수의 서원에 국한되며, 그 외 서원은 관련된 인물의 문집이나 가문에 일부가 산재되어 있다.

- 9) 2003년 이래로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많은 서원 관련 자료가 소개되었다. 또한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비롯한 국학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한 자료 수집과 정리가 이뤄지면서 이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서지학 분야에서 두드러졌다(朴章承, 「慶州소재 書院·祠에서 간행한 典籍考」, 『신라문화』 9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1; 배현숙, 「소수서원 收藏과 刊行 書籍考」, 『書誌學研究』 31, 2005; 김윤식, 「조선조 서원 문고에 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41, 한국서지학회, 2008; 김종석, 「도산서원 고전적의 형성과 관리」, 『古典籍』 4, 2008; 남권희, 「조선시대 경주 간행의 서적」, 『신라문화』 33,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9; 윤동원, 「옥산서원 소장 고전적 서목 비교 고찰」, 『경주문화』 97, 경주문화원, 2011; 옥영정, 「한국서원의 장서와 출판문화」, 『한국의 서원문화1』, 한국서원연합회, 2013; 윤상기, 「조선조 경남지방의 서원판본」, 『서지학연구』 60, 한국서지학회, 2014; 배현숙, 「영남지방 서원 장서의 연원과 성격」, 『대동한문화』 46, 대동한문화회, 2016; 최우경, 『도산서원 광명실 장서의 변천과 서지적 분석』,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역사학에서는 2005년의 윤희명이 서원의 도서관 기능을 연구한 이래로 우정임·이병훈·임근실·김정운 등에 의해 사례연구가 진행되었다(우정임, 「퇴계 이황과 그의 문도들의 서적 간행과 서원의 기능」, 『지역과 역사』 22, 부경역사연구소, 2008; 이병훈, 「경주 옥산서원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 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민족문화』 5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임근실, 「16세기 서원의 藏書 연구」, 『한국서원학보』 4, 한국서원학회, 2017; 김정운, 「18세기 동동서원의 지식체계구축과 공유」, 『한국서원학보』 7, 한국서원학회, 2018). 한편 자료의 수집과 정리가 본격화되면서 서원 장서와 목판에 대한 학제간 연구도 진행되었다. 서원 장서는 안동 도산서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한국국학진흥원 편,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이후 영남지역 목판을 중심으로 학제간 연구가 진행되면서, 서원에서 제작한 책판에 대해서도 다루었다(한국국학진흥원 편,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글항아리, 2014).

본고는 한국 서원의 장서 구축 경위와 그 관리 실태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 성과와 현전하는 관련 자료들을 통해 확인해 본다. 앞서 언급했듯이 관련 자료들이 특정 지역의 일부 서원에 집중되어 있기에 본 연구도 이들 서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서원들은 한국 서원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며, 높은 위상을 유지했던 곳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들 서원을 통해 한국 서원이 가진 출판과 도서관적 기능의 실제와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한국 서원의 장서 구축

서원의 장서제도는 오늘날 도서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서관의 기본 기능이 서적의 수집과 정리, 열람을 통해 사회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서원의 장서 제도 역시 전통사회에서 도서관적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¹⁰⁾ 지방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유생들은 그들이 필요한 서적을 구입할 때 교서관(校書館)이나 서울의 서사(書肆)를 이용하길 원치 않았다. 대부분 개인적인 친분을 통하거나 혹은 빌려서 보았다. 그런 면에서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를 간행하는 서원은 유생들이 자주 찾는 도서관이었을 것이다.

서원의 주된 기능은 선현 향사와 교학이었다. 따라서 서원에서 장서를 마련하는 것은 교학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며, 수집되는 도서의 주제는 서원의 교육목표 및 내용과 관련성이 깊었다. 서원의 장서는 국왕에게 내사(內賜)받거나 지방관, 개인(문중), 교원(校院)의 기증(寄贈) 내지 직접 구입(購入), 출판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이들 장서는 주로 경전(經典)과

10) 옥영정, 「한국서원의 장서와 출판문화」, 『한국의 서원문화1』, 한국서원연합회, 2013, 345~346쪽.

성리학의 기본 서적 및 중국의 역사서가 많았다. 이는 서원 장서가 강학을 위한 교재나 당시의 사상서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서원 교육의 대강을 제시한 원규들을 보면 지역에 따라 조금씩 교육 순서를 달리할 뿐 공통 필수과목으로 『소학』과 『사서오경』을 두고, 기타 『가례(家禮)』, 『심경(心經)』, 『근사록(近思錄)』 등의 성리서 및 사장(詞章), 제사(諸史) 등을 강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1) 각 서원 강학 교재

구 분	내 용	전 거
伊山書院院規(1558)	四書五經, 小學, 家禮, 史書, 子書, 文集	이항, 『퇴계집』 권41
學校模範 (1582)	소학, 大學, 近思錄, 논어·맹자·중용, 五經, 史書, 性理書	이이, 『율곡전서』 권15
隱屏精舍學規(1578)	性理書	이이, 『율곡전서』 권15
魯岡書院齋規(1675)	소학, 가례, 근사록, 四書六經, 子書, 程朱書	윤중, 『명재유고』 권30
道東書院院規(17C 초)	사서오경, 성리서, 史書, 子集	정구, 『한강속집』 권4
文會書院院規(1673)	사서오경, 소학, 가례, 경서[周禮·儀禮·孝經], 성리서[근사록, 心經, 性理大全, 史書春秋三傳, 資治通鑑綱目], 정주서[二程全書, 朱子大全, 朱子語類]	박세채, 『남계속집』 권19
紫雲書院院規(1693)	사서오경, 소학, 가례, 심경, 근사록, 朱子書節要, 聖學輯要, 性理大全, 程朱書, 先儒文集, 史書	박세채, 『남계속집』 권19
老江書院講規規目 (1766)	소학, 사서, 오경, 가례, 심경, 근사록, 주자서 절요(퇴계), 성학집요(율곡)	윤봉구, 『병계집』 권34

퇴계가 제정한 「이산서원 원규」¹¹⁾는 도산서원과 옥산서원 등 그 후 건립되는 서원 강학의 모범이 되었다. 특히 영남지역 서원들은 대부분 이산원규에 따라 강학을 진행하였다. 정구가 제정한 「도동서원 원규」 역시 ‘이산원규’를 토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차이뿐이다.¹²⁾ 을

11) 李滉, 『退溪先生文集』 卷41, 雜著, 「伊山院規」. “一. 諸生讀書 以四書五經爲本原 小學家禮爲門戶 遵國家作養之方 守聖賢親切之訓 知萬善本具於我 信古道可踐於今 皆務爲躬行心得明體適用之學 其諸史子集 文章科舉之業 亦不可不爲之 勞務專通”

곡이 제정한 「은병정사 학규」와 「학교모범」은 16세기 말 이래로 서인계 서원들의 모범이 되었다. 조선시대 서원들은 퇴계와 율곡의 학규를 계승하여, 답습만 한 것이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주자학적 정통론에 충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17세기 이후 조선 학자들의 자찬 성리서와 강학 교재들을 교육 과정에 정식으로 편입시켜 그 위상을 높여나갔다.¹³⁾

한편 서원이 존현을 통해 도학(道學)을 수학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과거를 도외시키고 순수한 위기지학(爲己之學)만을 위한 서원으로 존재하였다면 서원제도의 정착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서원들은 건립 이래로 경학을 중심으로 수기를 위한 성리학에 중심을 두었지만 과거시험을 위한 사장이나 역사 등의 교육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그러한 사정이 퇴계의 이산원규에 나타난다. 반면, 율곡은 서원에서 과거 공부를 배제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서인계 서원들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하지만 화양서원(華陽書院)과 같이 제술시험을 정규과정에 포함시켜서 과거 공부를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학규도 있었다.¹⁴⁾

12) 도동서원 원규에서는 “겨울과 봄에는 五經과 四書 및 伊洛의 여러 성리서를 읽고, 여름과 가을에는 역사서, 자서, 문집을 대상으로 하여 마음을 내키는 대로 입도록 한다. … (양몽재 제생에 대해서는) 『소학』을 읽어서 익힐 것을 명하되, 그 과정을 엄격히 세워 혼계한다. 莊子, 列子, 老子, 釋氏의 서책은 모두 서원으로 들여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구, 『寒岡續集』 권4, 雜著, 院規). 반면, 용인 深谷書院(趙光祖)에서는 “小學을 먼저 읽고 다음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시경』, 『서경』, 『역경』 순으로 읽고, 『심경』, 『근사록』, 『가례』 등의 諸書는 혹 먼저 읽기도 하고 혹은 뒤에 읽기도 하여 번갈아 읽는다”(『深谷書院誌』, 本院學規)고 하여 경학과 성리학만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사장에 대한 항목이 없는 경우도 있다.

13) 박종배, 「學規에 나타난 조선시대 서원교육의 이념과 실제」, 『한국학논총』 33,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68쪽.

14) 金元行의 石室書院·武城書院 院規, 박세채의 文會書院·紫雲書院 院規, 李緯의 深谷書院·道基書院·忠烈書院의 학규와 考巖書院 講規 등에서도 율곡의 은병정사 학규를 계승하여, 서원 내에서의 과거 공부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박종배, 앞의 논문, 2010).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서원은 색목을 불문하고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기본방향은 같았지만, 과거공부에 있어서는 퇴계와 율곡의 입장이 달랐던 만큼 영남의 남인계 서원과 기호의 서인계 서원에서도 차이가 났다. 즉 정주성리학의 독서법에 입각하여 『소학』을 기초로 사서오경의 경서로 나아가고, 여기에 역사서와 성리서를 추가적으로 학습하였다.¹⁵⁾ 이러한 표준 교육과정을 토대로 보다 구체화하거나, 실정에 맞게 변용하는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17세기 후반부터는 『주자서절요』, 『성학집요』와 같이 조선 성리학의 성과를 서원의 교육 과정에 반영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처럼 서원에서는 건립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원규에서 정한 교육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그에 맞는 도서를 갖춰 나갔다. 여기에 시대의 진전에 따라서 조선 유학자들의 성과인 문집과 저술들이 포함되어 갔던 것이다. 특히 유현(儒賢)을 제향하는 서원에서는 해당 인물의 문집과 저술들을 출판하여 배포하고, 서원에서도 교육 교재로 활용하였다.

1. 서적 구입을 통한 장서 구축

서원이 강학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서의 확보가 우선이었다. 서적의 구입은 서원에서 필요한 장서를 구축하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이지만 서적을 판매하는 곳이 제한적이고, 가격이 비쌌기에 경제적 부담이 컸다. 그래서 지방관과 사람들의 서적 기증은 서원의 장서 형성과 재정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기증본만으로 서원 강학에 필요한 서적을 모두 갖추는 것은 어려웠

15) 이재는 삼곡서원·도기서원 학규에는 소학을 먼저 읽고, 다음으로 사서오경 즉 대학과 대학후문을 곁하며, 논어·맹자·중용·시경·서경·역경을 읽고, 심경·근사록·가례 등은 먼저 읽기도 하고, 혹은 뒤에 읽기도 하여 번갈아 읽도록 했다(李緯, 『陶菴集』 卷25, 雜著, 「深谷書院學規」. “一. 讀書次第 先小學次大學兼或問 次論語次孟子次中庸次詩經次書經次易經 而心經近思錄家禮 諸書或先或後 循環讀過”; 「道基書院學規」. “一. 每月朔 朔日有故則望 諸生齊會 相講所讀之書 先小學次四書五經 間以家禮心經近思錄”).

다. 그래서 사액유무와 위상과는 무관하게 서적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여 장서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실제 한국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은 숙수사에서 나온 동기(銅器) 300여 근을 팔아서 서적의 구입비용을 마련했으며, 그것으로 서울에서 경서와 정주서 등 500여 권을 구입하여 서원의 장서로 삼았다.¹⁶⁾ 영천의 임고서원도 건립 초기에 사림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서울에 올라가 서적을 구매했으며,¹⁷⁾ 함양의 남계서원에서도 1565년(명종 20) 원장 강익(姜翼)이 노관(盧禿)과 양홍택(梁弘澤)에게 재곡을 맡겨 100여 권의 서적을 마련하도록 했다.¹⁸⁾ 이들 서원은 이후 사액이 되면서 국가와 지방관, 향인들의 서적 기증이 이어졌지만, 초창기의 장서 수집 방법은 직접 구매하는 것이었다.

17세기 들어오면서 서원 장서는 구매를 통해 구비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임란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파탄과 조정에 보관되어있던 서적들의 소실¹⁹⁾ 등으로 조정에서도 이를 충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란의 피해를 입지 않았던 옥산서원에서는 왕명으로 경전 23권을 홍문관에 진상하기도 하였다.²⁰⁾ 서적이 부족한 상황은 중국에서의 구입과 사가(私家)에서의 입수 및 교서관을 통한 인출로 완화되어 갔다.²¹⁾ 하지만 사액서원의 증설로

16) 『중종실록』 권95, 중종 3년 5월 22일(丁未) 및 『雲院錄』 「白雲院創建識(金仲文). 주세붕이 서원 건립 직후에 설립 경위와 유래를 알릴 목적으로 편찬한 『竹溪志』에는 44종 500권에 달하는 도서목록이 기록되어 있다(『죽계지』 권2, 「順興白雲洞書院藏書錄」 참조).

17) 趙稜, 『慕庵先生文集』 권3, 「通列邑書院文(道南洞主時)». 永川의 사람들이 포은 선생의 서원을 건립할 때 서울에 와서 서적을 널리 구하였는데, 퇴계가 그 뜻을 가상히 여겨 內賜받은 『性理群書』 1질을 기증하였다고 한다.

18) 姜翼, 『介庵集』, 「年譜」. “院中學徒 交集講學 而書籍無存 財穀不多 先生大懼無以養育人材 以盧徙庵禿 掌備書之任 以梁竹庵弘澤 典稟賣之責 終始協心 克有成就 書秩凡百餘卷 …”.

19) 『선조실록』 권116, 선조 32년 8월 11일(정해); 권117, 선조 32년 9월 25일(신미); 권134, 선조 34년 2월 24일(계사); 권212, 선조 40년 6월 16일(정미).

20) 『열읍원우사적』 경상도 옥산서원 고적.

21) 『광해군일기』 권19, 광해군 1년 8월 24일(임신); 권27, 광해군 2년 윤3월 20일

모든 사액서원에 대한 서적 반질 요구를 조정으로서도 수용하기 힘들었다.²²⁾ 그 결과 영조대부터 문묘종사 대현을 모신 서원만 간혹 서적을 내려주는 경우가 나타났다.²³⁾ 지방관 및 개별문종과 서원에서의 서적 기증도 서원의 수가 증가하면서, 직접적인 연고가 있거나 기증을 통한 효과가 큰 거점 서원에만 이뤄졌다. 이처럼 중앙정부, 지방관 및 서원, 문종 등의 기증에 의한 서적 입수가 줄어들자 구매가 늘어갔다.

또한 기증된 서적들도 개인 문집의 비율이 높았다. 그래서 강학에 필요한 서적은 구매나 등서(필사(筆寫)), 인출, 교환 등의 방법을 통해 마련하였다. 일례로 경주 서악서원의 경우 1623년(인조 1) 사액되었지만 <표 2>처럼 ‘매장(買藏)’, ‘인장(印藏)’, ‘사장(寫藏)’ 등의 방법으로 서적을 구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⁴⁾ 특히 경전의 구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서 사액 당시 사서오경과 성리서 등을 하사하던 이전의 특전이 없었기에 강학에 필요한 이들 서적을 연차적으로 갖추나간 것으로 보인다.

<표 2> 서악서원 『고왕록』 내 서적 수집 내역

번호	연도	서적명	비고
1	1614	九經衍義	買藏
2	1615	唐音(2권), 禮部韻(1권)	印藏
3	1620	四遊錄(1권)	買藏

(을축); 권27, 광해군 2년 윤3월 22일; 권35, 광해군 2년 11월 20일(신유), 22일(계해); 권54, 광해군 4년 6월 3일(병인); 권106, 광해군 8년 8월 4일(임인); 권 113, 광해군 9년 3월 19일(갑신); 『인조실록』 권21, 인조 7년 8월 17일(기사); 『효종실록』 권14, 효종6년 3월 8일(계사); 『숙종실록』 권40, 숙종 30년 10월 13일(경진); 『영조실록』 권39, 영조 10년 12월 20일(신유); 권51, 영조 16년 6월 3일(임신); 권97, 영조 37년 3월 23일(임술)

22) 윤희면, 앞의 논문, 2005, 9~10쪽.

23) 김윤식, 「조선조 서원문고에 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41, 한국서지학회, 2008, 303~304쪽.

24) 『西岳書院考往錄摺草』(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4	1621	朱子節要疑釋(1部)	買藏
5	1623	忠烈錄(1部)	買藏
6	1624	小學(1건), 通鑑(1건)	買藏
7	1627	孟子(2건)	印藏
8	1628	陸宣公集(1건), 周易(1건), 晦齋集(1건)	買藏
9	1630	孔子通紀(1건)	買藏
10	1631	詩大全, 詩諺解, 書諺解, 諺解小學, 漢史 각 1집	買藏
11	1632	易上經(1집)	買藏
		箕子廟碑文	奇相印送
		四書諺解, 杜詩諺解, 詩學指南 각1집	買藏
12	1633	左傳(1집)	買藏
13	1635	東國地理志(1집), 佔畢齋碑文(1폭), 碑鑑志(1폭)	買藏
14	1636	小學諺解(1집)	買藏
		桂苑筆耕(1집)	寫藏
15	1637	周易諺解(1집)	買藏
16	1639	家禮(1집)	買藏

예안 역동서원 역시 17세기 들어와서 『대학연의』, 『주자어록류요(朱子語錄類要)』, 『회재집』, 『회재연보』, 『황명명신언행록』, 『문헌통고(文獻通考)』, 『주자대전』, 『회암아록(晦庵語錄)』, 『고문진보(古文眞寶)』(1707), 『포은집』(1733) 등을 매득(買得), 무득(買得) 하였다. 이외에도 1781년(정조 5)에는 『여씨향약』, 『육선생유고』, 『사략(史略)』, 사서언해 등 7종 19책을 새로 갖추었다고 전한다. 별다른 기록은 없지만 당시 언해본은 도산서원의 사례와 같이 구매를 통해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²⁵⁾ 모두 도학 연원의 인물 및 그들의 저서와 초학자들이 익히는 서적이었다. 즉 유생과 동몽의 교육을 위해 구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도산서원과 옥산서원은 퇴계와 회재가 1610년(광해군 2) 문묘에 종사되면서 그 위상에 더욱 높아졌다. 그래서 주로 기증과 간행에 의해 장서를 구비했기에 구매에 의한 사례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²⁶⁾ 그러나 도산서원의

25) 『易東書院記』, 「書冊條」(한국국학진흥원 소장).

26) 도산서원 『書冊秩』(1649, 인조 27)에 의거하면, 수록된 181종 1,507책 가운데 구입한 서책은 37종 479책이다. 내사본 16종 318책을 제외하면 기증에 의한

경우 17세기 이래로 1627년(인조 5) 『전한서(前漢書)』를, 1631년(인조 9)에는 『시경언해』, 『서경언해』, 1632년(인조 10)에 『오선생예설분류(五先生禮說分類)』, 『여문정선(麗文程選)』, 1633년(인조 11)의 『분류두공부시(分類杜工部詩)』, 1636년(인조 14)의 『서애선생문집』, 1642년(인조 20)의 『주역본의계몽익전(周易本義啓蒙翼傳)』, 1754년(영조 30)의 『자치통감강목집람전오(資治通鑑綱目集覽鑄誤)』 등의 구매가 확인된다. 또한 『자치통감강목』(150책)은 책지(冊紙)를 보내어 인쇄해 왔으며, 『익재난고』, 『효행록』, 『역옹패설』도 경주 부에 종이를 보내어 인출하였다. 『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는 1730년(영조 6) 경상감영에서 간행한 것으로서 감영의 관문을 받고서 종이를 보내어 인출해왔다. 1833년(순조 33)에는 권환(權奐)의 문집인 『이우당선생문집(二愚堂先生文集)』을 필사하여 구비했다.²⁷⁾ 직접 판목이 있는 곳에 종이를 보내어 인출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선호되는 방식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옥산서원의 경우에도 17세기 말 제작된 『역학도설』이 필사본이고, 1755년(영조 31)에 『맹자』를, 1756년(영조 32) 『사기평립』을, 1757년(영조 33)에 『포은집』을 추가 구입하였다. 또한 1757년 겨울에는 『예기』를 서적으로 완비된 것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종이값과 등서비, 인쇄에 필요한 묵값을 주고 등서하였다. 표지를 꾸미는 장황가(裝黃價)가 없는 것으로 보아 옥산서원에서 필사본을 직접 제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학봉집』과 『언행통록』도 종이 값만 지불하여 인출 하였다. 1762년(영조 38)에는 이항복이 편찬한 『노사영언』을 등사한 것을 구입하였다. 이처럼 책을 구비하는 방법으로 인출 외에도 등서(필사)의 방법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1782년(정조 6)에도 당판본 『예기』를 구매하였다. 당시 옥산서원

장서구비가 대부분이다(최우경, 『도산서원 광명실 장서의 변천과 서지적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54~59쪽). 구입한 서적은 역동서원과 비슷하며, 영천과 경주일대에서 간행된 서적의 구매가 많았다.

27) 최우경, 앞의 논문, 2019, 108~113쪽.

교육에서 『예기』가 필수였음을 알 수 있다. 옥산서원 「완의」를 보면,²⁸⁾ 재주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중용·대학·소학·예기를 고강(考講)한 후 이름을 유적(儒籍)에 붙인다고 되어 있다. 19세기 초반의 옥산서원 강안(講案)에도 중용·대학·소학·가례 등 4과목을 평가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종의 서적이 교육의 기본교재로서 옥산서원에서 가장 많이 읽혔으며 그만큼 훼손과 유실이 심하여 구입도 많았을 것이다. 『예기』는 그런 측면에서 자주 구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드물지만 상호 교환을 통해 필요한 서적을 구비하기도 했다. 옥산서원은 1734년에 『가례』 2권(1집)과 『근사록』 4권(1집)을 교환하고²⁹⁾, 1745년에는 『초사략(抄史略)』 2권과 『역대첩록(歷代捷錄)』 2권을 교환하였다.³⁰⁾ 역동서원에서도 1725년(영조 1)에 『대학연의』(7권)를 『여문정선』(6책)으로 교환하였다. 필요할 경우 여분이 있는 장서와 교환하여 비용을 절약한 것이다. 한편, 서적의 기증이 많았던 양 서원에서 경서와 사서, 성리서 등에 대한 구매가 많았다는 것은 꾸준한 강학 활동으로 해당 서적의 수요가 많았다는 점과 기증된 서적들이 주로 문집이었기에 때문이다. 즉 한국 서원의 서적 구입 목적은 유생 교육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서원의 격을 높인 내사본(內賜本)

서원 장서는 기본적으로 구매를 통해 구비하였다. 그러나 초창기 서원의 경우 지방관, 후손, 문인 및 향인들에 의한 서적 기증이 많았다. 초창기 서원에 제향된 인물들이 도학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인물들이었고, 사액 제도가 시행되면서 서원의 격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사액제도의 시행은

28) 「完議 乙亥2月13日」(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225쪽).

29) 『전여기』 갑인(1734) 2월.

30) 『전여기』 을축(1745) 12월 25일.

서원을 유생 교육기관으로서 국가의 공인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한 국가의 은전(恩典)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현판과 서적의 하사(下賜) 및 치제(致祭)였다. 일반적으로 현판은 1차례 내려지는 것이지만 서적과 치제는 해당 서원에 대한 국왕의 관심 정도에 따라서 수차례 내려졌다. 그런만큼 지방관과 향인들의 관심도 컸으며, 그것은 해당 서원의 위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1547년(명종 2) 백운동서원의 「사문입의(斯文立議)」를 보면 주세붕 당시 구매한 서적 525권과 순흥부에서 보내온 서적 49권³¹⁾이 있었다. 뒤이어 풍기군수로 부임한 이황의 요청에 따라 백운동서원은 1550년(명종 5) '소수서원(紹修書院)'으로 사액됨에 따라 편액과 서적을 받았다. 이때 하사받은 서적은 사서오경과 『성리대전』 등이었고,³²⁾ 이후에도 국가에서 책을 계속 반질(頒秩)하였다. 즉 1552년(명종 7)에는 『강목(綱目)』과 『사문유취(事文類聚)』를 내려 주고, 그 이후에도 『속강목(續綱目)』, 『주자대전』, 『정충록(精忠錄)』, 『주자어류(朱子語類)』, 사서언해가 내사되었다.³³⁾ 주세붕의 아들 주박(周勳)은 영천(榮川)군수로 재직하던 1581년(선조 14) 주세붕의 문집인 『무릉잡고(武陵雜稿)』(8권)를 기부하였으며, 원장 황인(黃訥)과 유사 등이 『주자서철요』(19권)를 기부하는 등 사람들도 서원도서 마련에 도움을 주었다.³⁴⁾ 그 결과 1602년(선조 35)에 작성된 『소수서원서책치부(紹修書院書冊置簿)』에는 모두 107

31) 순흥부에서는 1547년 2월 22일에 유생들이 읽을 책을 보내왔는데, 『大學』(1책), 『論語』(7책), 『中庸』(1책), 『孟子』(7책), 『詩傳』(10책), 『書傳』(9책), 『春秋』(8책), 『童蒙先習』(1책), 『童蒙須知』(1책), 『入學圖說』(1책), 『天運紹統』(2책), 『朝鮮圖說』(1책), 『張東海大法』(1권) 등 13종 50책이었다(『紹修書院謄錄』, 「分定行移謄錄」 가정 26년 2월 22일 在書院).

32) 『紹修書院謄錄』, 가정 29년(1550) 3월 24일.

33) 『紹修書院書冊置簿』(1602). 이 치부책은 소장된 책들을 <內賜>와 <道上院備>로 구분하고 있다. 내사란 국가에서 내려준 책이란 의미이고, 도상원비는 감영과 고을 관아로부터 기증 받은 것과 서원 스스로 마련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즉, 기증내사와 구입이라는 장서 구비 방법을 확인시켜준다.

34)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208쪽.

중 1,678권이 수록되어 있어서 건립 당시와 비교하여 3배가량 증가하였다.

1550년(명종 5) 백운동서원이 사액된 이래로 각 지역에서는 서원이 활발하게 건립되었다. 신설된 서원은 서적을 구입하거나, 서원을 세운 수령과 사람들이 자신의 책을 기증하기도 했다. 그리고 서원 건립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서적을 기증했다. 1550년(명종 5) 해주의 수양서원을 세운 주세붕은 자신의 책을 내어 서고를 채웠고, 1555년(명종 10) 사액되면서 현판과 서적을 하사 받았다.³⁵⁾ 1554년(명종 9) 영천(永川)의 임고서원은 설립 직후 사액을 받으며, 소수서원의 사례에 따라서 사서오경 1질을 교서관의 서고인 문무루(文武樓)에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내려 보내고, 『강목』 및 『사문유취』는 여분이 없어서 교서관이 사온 책 가운데 『소미통감(少微通鑑)』과 『통감속집(通鑑續編)』을 1질씩 보내었다. 당시 책마다 첫째 권에 연월일과 ‘내사임고서원(內賜臨臯書院)’이라고 써서 장려하는 뜻을 보이고, 편액은 ‘임고서원’ 4글자를 큰 글자로 쓰되 아래쪽에 연월일과 ‘선사(宣賜)’ 등의 글자를 함께 새겨서 보내었다.³⁶⁾ 이때부터 내사기(內賜記)와 편액의 서식이 정해졌다.

임고서원 이후 사액된 수양서원, 함양 남계서원³⁷⁾, 영천 이산서원³⁸⁾에도 모두 서적이 함께 내려졌다. 경주 옥산서원도 1577년(선조 10)에 사서육경 각 2질, 『주자대전』, 『주자어류』, 『유선록(儒先錄)』 각 1질을 받았으며, 조정으로부터 부족한 교재의 지원 방안으로 1583년(선조 16)에 『언해소학』 1질,

35) 『명종실록』 권18, 명종 10년 2월 25일(경인). “傳曰 扁額書籍等事 一依臨臯書院例 … 越明年庚戌 移而闢之于州庠之西 以安其靈 下建書院 以爲諸生肄業之所 乃出家藏書帙以實之 置田民立廚庫 …”

36) 『명종실록』 권17, 명종 9년 11월 2일(기해). “書冊 依紹修書院例 四書五經各一件 以文武樓所藏帙賜送 而綱目及事文類聚 則餘在只一件 賜給爲難 以外 校書館貿易冊內 少微通鑑通鑑續編各一件賜送 每書初卷 題其年月日 內賜臨臯書院 以示敦獎之意”

37) 『명종실록』 권33, 명종 21년 6월 15일(갑술).

38) 趙繼韓, 『玄洲集』 卷15, 「伊山書院興廢記. “萬曆甲戌 特賜扁額 額以伊山者 以其里卽山伊故 因里名而別之也. 丁丑秋 賜書 冬又賜書 己卯庚辰連賜書 書凡十七帙也.”

1585년(선조 18)에 『사서언해』 각 1권을 선사 받았다.³⁹⁾ 예안의 도산서원은 1575년(선조 8) 준공하여, 1576년(선조 9) 위패를 봉안하였다. 그러나 1575년에 이미 사액을 받은 상태였기에 도산서원 역시 현판과 서적, 전답, 노비 등의 은전이 이어졌다.

도산서원은 16종 318책의 내사본을 하사 받았다. 즉 1575년(선조 8) 사액 당시 『주자대전』(95책), 『주자어류』(75책), 『성리대전』(26책), 『논어』(2권 14책), 『춘추』(2권 16책), 『시전』(2권 18책), 『예기』(2권 32책), 『대학』(2권 2책), 『중용』(2권 2책), 『서전』(2권 18책) 등 경전과 성리서 10종 298책을 하사 받았다. 그 후 1585년(선조 18) 『정충록』(3책)을, 1588년(선조 21)에 『소학언해』(4책), 1590년(선조 23)에 『맹자언해』(7책), 『논어언해』(4책), 『중용언해』(1책), 『대학언해』(1책) 등 사서언해를 하사 받았다.⁴⁰⁾

이처럼 사액을 내릴 때 교육을 권장하는 뜻에서 서적을 함께 내리는 것이 소수서원 이래로 관례가 되었다. 이들 서적은 책 첫면에 내려준 연도와 날짜 및 ‘내사’를 표기하여, 국가에서 특별히 배려했음을 표시하였다. 내사본은 서원 장서 중에서도 특별히 관리를 하여, 별도로 마련한 함에 넣어서 보관하였다. 또한 서원에 따라서 어서각(御書閣) 등의 별도 건물을 지어서 보관했으며, 열람할 때에는 반드시 재배(再拜)하는 엄숙한 의식을 행하였다.⁴¹⁾

왕조 국가에서 국왕과 관련된 것은 가장 존엄한 것이었다. 서원의 사액은 왕명에 의해 편액 하사와 치제가 진행되면서 공식적으로 국학에 준하는 권위를 공인 받았다. 한번 진행되는 사액과는 별개로 치제와 서적 하사는 왕명으로 거듭 내려지기도 했으며, 서원의 위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었다. 서원의 위상이 높을수록 장서의 구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즉 지방관아에서 간행된 서적이나 서원·문중 등 민간에서 간행된 서적들의 기증과 지방관 및

39) 『列邑院宇事蹟』, 慶尙道 玉山書院.

40) 최우경, 『도산서원 광명실 장서의 변천과 서지적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54~55쪽.

41) 이춘희, 「李朝書院文庫目錄考」, 『李朝書院文庫目錄』, 국회도서관, 1969, 11쪽.

관련 인사들의 개인적인 서적 기부에도 영향을 주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정에서는 왕명으로 서적의 간행을 서둘렀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짐에 간행하는 서적은 제한적이었다. 17세기 이래로 서원의 건립과 사액은 증가했으나 관례대로 모든 사액서원에 서적을 하사할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사액을 하더라도 서적을 하사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관행으로 되었다. 대신 국가에서 서적을 간행할 때면 문묘종사대현을 제향한 서원이나, 충절사우에 서적을 하사하는 일이 간혹 있었다.⁴²⁾ 하지만 정치적 목적에 의한 서적 하사였기에 옥산서원을 비롯한 영남지역 서원들은 숙종 이래로 이전에 비하여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영·정조대에 비로소 퇴계와 회재의 학문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서적의 반질과 치제가 이어졌다.

실제 도산서원에서는 1794년(정조 18)에 사서삼경 7종과 『어정주서백선(御定朱書百選)』이 내사되고,⁴³⁾ 같은 해 옥산서원에는 『어정주서백선』과 『어제속대학혹문(御題續大學或問)』이 내사되었다.⁴⁴⁾ 이어서 두 서원에는 1796년(정조 20)에 『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⁴⁵⁾ 1797년(정조 21)에 『향례합편(鄉禮合編)』,⁴⁶⁾ 1798년(정조 22) 『어정오경백편(御定五經百篇)』,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⁴⁷⁾ 1799년(정조 23) 『어제아송(御製野雅誦)』⁴⁸⁾ 등이 거둬 내려왔다. 이처럼 두 서원은 치제와 함께 수차례 서적을 받으면서 18세기 후반부터 영남을 대표하는 수원(首院)으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었다.⁴⁹⁾

42) 『영조실록』 권127, 부록 「영조대왕행장」.

43) 『정조실록』 권39, 정조 18년 1월 24일(임자).

44) 『정조실록』 권41, 정조 18년 12월 25일(무인); 권40, 정조 18년 8월 30일(갑신).

45) 『정조실록』 권45, 정조 20년 8월 11일(계미).

46) 『정조실록』 권46, 정조 21년 6월 2일(신미); 권47, 정조 21년 7월 20일(정해).

47) 『정조실록』 권45, 정조 20년 9월 3일(을사); 『승정원일기』 1792책, 정조 22년 5월 22일(을유); 1795책, 정조 22년 8월 7일(무술) 및 옥산서원 소장본 內賜記.

48) 옥산서원 소장본 內賜記.

49) 정조는 자신이 편집에 관여했던 서적들은 인쇄하여, 전국의 향교와 사액 서원에 이를 배포하였다(『승정원일기』 1766책, 정조 20년 8월 11일(계미); 1777책, 정조 21년 6월 2일(신미); 1816책, 정조 23년 12월 8일(신묘); 1820책, 정조 24년

3. 서원 장서의 초석을 만든 기증본

서원 제도가 도입된 16세기에 건립된 서원들은 백세에 사표가 되는 도학자를 제향인으로 선정하고, 조정의 교학진흥책으로 인해 조야의 관심 속에서 서적의 기증(壽贈)이 많았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많은 서적이 소실되고, 조정의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서적의 품귀 현상이 심화되었다. 그로 인해 조정의 서적 반사(頒賜)와 지방관의 서적 기증은 16세기에 비하여 양적으로 줄었으며, 부족한 서적은 서원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 나아가 17세기 말 이래로 문중서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서적 기증은 교육적·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직·간접적인 연고가 있는 일부의 사액서원에 한정하여 이뤄졌다. 반면 신설된 문중서원에서는 제향인의 문집이나 저술을 출판하여 연고가 있는 서원·문중 등에 반질(頒發)하였다. 그 결과 18세기 이래로 서원 장서 가운데 문집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표 3〉 도산서원의 시기별 장서 분류

구분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경부(經部)	40종 385책	13종 46책	14종 75책	6종 46책
사부(史部)	22종 426책	13종 116책	16종 117책	27종 73책
자부(子部)	23종 186책	15종 39책	14종 42책	7종 19책
집부(集部)	17종 231책	37종 193책	89종 425책	182종 634책
계	102종 1,228책	80종 469책	133종 659책	223종 775책

〈표 2〉의 도산서원 사례를 보면, 16세기에는 경서와 사서, 유가(儒家)의 서적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서원을 건립한 초창기였기에 유생 교육에 필요한 서적들을 다수 구비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교육도 정주학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부터는 집부의 문집류가 계속해서 증

가하는 반면, 경서·사서·유가서 등은 크게 늘지 않았다. 문집류와 달리 새로운 내용의 서적이 나오기 어렵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꾸준히 새로 구비를 하는 것은 망실·훼손되거나, 수요 급증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18~19세기에 집부의 수량이 급증하는 것이 확인된다. 집부는 대부분 문집들로서 해당 인물의 문중과 그를 제향한 서원에서 현양(顯揚) 사업의 일환으로 간행한 것이다. 이처럼 문집 기증이 많은 것은 영남과 퇴계학을 대표하는 도산서원에 문집을 기증하여, 장서로 구비함으로써 퇴계학파의 일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효과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장서는 내사와 기증, 구매, 출판 등의 방법으로 수집되었다. 특히 도산서원은 퇴계를 제향하는 대표적인 서원으로서 건립 당시부터 조야의 관심이 컸다. 그래서 도산서원 장서는 기증을 통한 수집이 많았다. 이러한 서적 기증은 건립 당시부터 계속 이어졌다. 퇴계의 높은 위상만큼 서적을 기증하는 곳도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⁵⁰⁾ 도산서원의 초창기 장서 가운데 내사본 16종 318책 외에 퇴계가 소장하고 있던 3종 62책, 지방관 기증본 44종 154책, 사가기증본 4종 4책이 확인된다.⁵¹⁾ 이 가운데 퇴계의 수택본(手澤本)은 내사본과 더불어 도산서원에서 가장 중요한 서적으로 관리되었다. 도산서원에 기증된 퇴계 수택본은 도산서당의 서적과 본가에 소장되었던 서적의 일부로 추정된다.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는 1570년(선조 3) 퇴계에게 하사된 것이 도산서원에 기증된 것이며, 『의례집전』(20책)과 『의례경전통해속』(32책)도 퇴계의 수택본으로 '계상(溪上)'이라 주기되어 있다. 이관된 수택본은 이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확인이 불가능하다.

초창기 지방관 기증본은 호서감사 구봉령, 호남감사 심의겸, 영천(永川)군수 주박, 영남감사 윤근수, 현감 류몽정, 의흥현감 이준(李鶴), 영남감사 류성용, 나주목사 김성일, 안동현감 류운용, 경상감사 김수, 대구부사 권문해, 황

50) 최우경, 앞의 논문, 2019, 83~108쪽.

51) 배현숙, 「영남지방 서원장서의 연원과 성격」, 『대동한문학』 46, 대동한문학회, 2016, 307~308쪽.

해감사 최흥원 등 13명이 확인된다. 이들 외에도 19세기까지 영남감사 이시발·김지남·홍방·이명·이만·박문수 외에 안동·대구·영해·성주·봉화·양산·인동·榮川·예안의 수령을 지냈던 고용후·홍유형·심장세·이위·홍우원·송요보·이우주·이태순 등 퇴계의 문인 내지 후학들이 지방관으로 부임하여 재임지에서 간행하거나 비축하고 있던 서적을 보내왔다. 지방관들이 보내온 서적들은 대부분 사서삼경과 성리서 등이었다. 그러나 『무릉잡고』(주세붕), 『수현집』(권오복), 『정기록』·『제봉집』(고경명) 등과 같이 수령 자신의 선조 문집을 보내온 사례도 있다. 이것은 비록 현직에 있으면서 기증한 것이지만 개인 기증으로도 볼 수도 있다. 이외에도 개인 기증본으로 정량 심대(沈岱), 전현감 김부륜, 목천유생 김유성, 좌상 기자현, 별좌 정현세, 전현감 조원봉, 참의 허전, 승지 이인복, 예관 이익운 등 중앙관료로 재직하거나, 퇴임 후 서적을 보내오기도 했다. 주로 퇴계와 관련된 서적이거나 문집이 대부분이었다.⁵²⁾

도산서원 기증본의 다른 한축은 서원에서 보내온 기증본이다. 현재 총 81종이 확인되는데, 17세기에 간행된 것이 24종, 18세기에 간행된 것이 40종, 19세기에 간행된 것이 15종, 기타 2종이다. 모두 제향인의 문집과 저술들이며, 시비와 관련하여 해당 서원의 입장을 기술한 변무록(辨謄錄)도 있다.⁵³⁾ 이

52) 최우경, 앞의 논문, 2019, 93~94쪽. <표 20>의 도산서원의 개인기증 서책을 참고하였다.

53) 문집을 보내온 서원은 영천 이산서원·우계서원·옥양서원·우곡서원·삼봉서원·의산서원·구강서원·구호서원, 안동 병산서원·여강[호계]서원·삼계서원·주계서원·노림서원·경광서원·사빈서원·임천서원, 경주 구강서원·옥산서원·용산서원·운곡서원, 永川 송곡서원·도잠서원·매곡서원, 산청 덕천서원·서계서원·배산서원, 성주 회연서원·청천서원, 선산 송산서원·낙봉서원, 함안 송정서원·덕연서원, 상주 우산서원·옥동서원, 인동 현암서원·동락서원, 예천 도정서원, 의성 장대서원, 문경 근암서원, 청도 자계서원, 안음 용문서원, 사천 구계서원, 대구 청호서원, 거창 병암서원, 밀양 덕남서원 등이다. 반면, 경주 옥산서원에서 『태극문변』 논쟁과 관련해 성주 회연서원과 시비가 발생하자, 이를 해명한 『태극서찬집변무록』을 1726년(영조 2) 간행하였다. 또한 인동 동락서원에서 한려 시비와 관련하여 정구의 언행록의 오류를 지적한 『한강선생언행록류조변파록』을 1827년(순조 27) 간행하여 보내왔다(최우경, 앞의 논문, 2019, 101~104쪽의

외에도 현재 도산서원 장서 가운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역동서원 장서이다. 역동서원은 건립이후 퇴계가 기증한 서적들을 가장 중요한 장서로서 특별히 관리해왔다. 그래서 1871년(고종 8) 휘철이후 모든 장서가 도산서원으로 이관되자, 도산서원에서도 별도의 목록을 만들어 관리를 하였다. 이처럼 역동서원에 퇴계의 기증본이 많은 것은 퇴계와 그의 제자들이 건립을 주관했기 때문이다.

또한 퇴계는 역동서원 초기 장서를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그가 1570년(선조 3) 교서관 제조로 임명되었을 때 무역(貿易)하여, 사서오경과 『좌전』, 『통감』, 『송감』, 『성리대전』, 『운부군옥(韻府群玉)』, 『운회(韻會)』 등의 경서·사서·성리서·총집류 등 16종 195책을 보내왔으며, 이후 『연평문답(延平答問)』(2책), 『주자연보』(2책), 『성학십도』(1책), 『소학집성』(6책), 『근사록』(4책) 등 5종 15책을 추가로 보내었다.⁵⁴⁾ 그러자 지방관으로 부임했던 퇴계 문인들의 기증도 이어졌다. 청주목사 류중영은 『가례의절(家禮儀節)』(4책), 성주목사 김극일은 『계몽익전(啓蒙翼傳)』(3책), 대구부사 권문해는 『수현집(睡軒集)』(2책)을, 감사 이만(李曼)은 『소학』(8책 2권), 좌상 기자현은 『덕양유고(德陽遺稿)』를 보내왔다. 이외에도 인동 오산서원에서 『삼인록(三仁錄)』(1668), 영천(榮川) 우계서원에서 『간재집(艮齋集)』(1766), 봉화 삼계서원에서 『충재집(冲齋集)』(1671) 등을 보내왔다. 유생들의 교육을 위한 서적 외에도 현조를 현양하기 위한 문집의 기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주 옥산서원도 도산서원과 비슷한 사례이다. 지방관과 후손, 향인들에 의한 기증이 초창기 장서의 근간을 이루었던 것이다. 정확한 입수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주여강이(主驪江李)...가장(家藏)’, ‘독락당(獨樂堂)’, ‘회재(晦齋)’ 등

〈표 21〉, 〈표 22〉를 참조함.

54) 『易東書院記』, 『書冊條』(한국국학진흥원 소장). 퇴계가 교서관 제조로 임명되어 무역한 서적들은 『대학』(2책, 2권)·『대학후문』(2책, 2권)·『중용』(2책, 2권)·『중용후문』(2책, 2권)·『논어』(14책, 2권)·『맹자』(14책, 2권)·『詩傳』(9책)·『書傳』(9책)·『性理大全』(24책)·『春秋胡傳』(8책)·『좌전』(11책)·『주역』(12책)·『예기』(15책)·『宋鑑』(15책)·『韻府群玉』(10책)·『韻會』(10책) 등이다.

의 주기가 있는 것은 회재 후손가에서 기증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구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회재가 가장하고 있던 내사본과 수필고본(手筆稿本), 수택본(手澤本)은 옥산서원 장서 중 내사본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외에도 회재의 동생 이언팔(李彦适) 가장본은 그 후손들이 기증한 것으로 보이며, 문인 권사의(權士毅)가 『송조명신록(宋朝名臣錄)』을 기부하였다. 경주부에서는 『공자통기(孔子通紀)』를 비롯한 서원 건립 이전까지 간행되었던 성리서와 역사서, 문집 등을 보내왔는데, ‘옥산서원상(玉山書院上)’이라 묵기(墨記)되어 있다.

1574년(선조 7)에는 경주부윤 이제민이 경상감사 노진(盧禎)에게 건의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아 『회재집』을 간행하였으며, 그의 저술들도 뒤이어 간행하였다.⁵⁵⁾ 1575년(선조 8)에는 경주부에서 『회재선생집』, 『양산묵담』, 『대학장구보유』 및 부록 『속대학혹문』을 간행하였다. 당시 『회재집』 간행에 관찰사 노진과 경주부윤 이제민의 적극적인 부조가 있었는데⁵⁶⁾, 여타 서적들의 간행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옥산서원은 건립 당시 경주부에서 간행한 서적들을 기증받음으로써 서원 장서의 초석을 이루었던 것이다.

경주부는 1561년(명종 16) 부윤 이정(李楨, 1512~1571, 재임 :1560.9~1563.1)이 주도하여 김유신을 제향하는 서악서원을 건립하고, 스승인 퇴계의 자문을 받아서 『공자통기』(1562), 『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속록(續錄)』(1561), 『이정수어(二程粹語)』(1562), 『황명이학명신언행록(皇明理學名臣言行錄)』(1562), 『당감(唐鑑)』(1562), 『용학지남(庸學指南)』(1562), 『황극내편(皇極內篇)』(1562) 등의 서적들을 간행함으로써 경주일대 문풍(文風)을 진작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⁵⁷⁾ 그 외에도 경주부에서 1512년(중종 7) 경주부윤 이계복(李繼福)이 『삼

55) 『선조실록』 권8, 선조7년 9월 27일(무술); 선조7년 11월 4일(갑술). 이언적의 『九經衍義』는 유희춘이 인출할 것을 아뢰고, 옥당에서 이를 교정하였는데, 이후 1583년(선조 16) 경주부에서 初刊되었다.

56) 『晦齋先生集』, 柳希春 跋 “...願見全集者久矣 今鷄林尹李侯齊民請於方伯盧公禎鳩材募工開板...”

57) 李楨은 순천부사 재임시에 『程氏遺書·外傳』(1564), 『胡敬齋居業錄』(1564), 『景

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중간하거나, 1543년(중종 38)에 『춘추호씨전(春秋胡氏傳)』, 『서전(書傳)』, 『자경편(自警編)』을 소수서원으로 인송(印送)한 사실이 확인되는데,⁵⁸⁾ 이들 서적들도 옥산서원 건립 이후 경주부로부터 기증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17세기 들어 옥산서원 장서는 자체 간행과 기증에 의해 충당되었다. 구매도 있었지만 그 수는 제한적이었다. 경주부에서 간행한 서적들의 기증은 17세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대부분 경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란 이후 국가 주도로 각 감영에 서적 간행을 명하면서 경주부에서의 간행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감영에서는 직접 간행한 경전 및 『통감절요』와 같은 역사서를 보내오거나 감사들의 개인적 기증이 있었다. 일례로 1701년에 감사 최석항은 『광국지경록(光國志慶錄)』을 보내왔으며, 1748년에는 『탄옹집(炭翁集)』과 『시수(詩藪)』, 1755년에는 감사 이이장(李彝章)이 『음애집(陰崖集)』, 1838년에는 순사 박기수(朴岐壽)가 『금석집(錦石集)』을 보내왔다.

17세기 중반 이래로 서원의 건립이 증가하면서 서원에서 간행한 서적들의 기증도 이어졌다. 1631년 청도 자계서원에서 『탁영집』을 기증한 이래로 19세기 중반까지 문집의 기증이 계속 확인된다.⁵⁹⁾ 특히 18세기 중반 이후 문중

賢錄(1564), 『性理遺編·補遺』, 『朱子年譜』(1565), 『濂洛風雅』(1565) 등을 저술하고, 1564년에는 김굉필을 제향하는 玉川書院을 건립하는 한편, 함양 남계서원에 『通鑑』(17권)과 『程氏遺書』(8권)을 기증하였다(우정임, 「퇴계 이황과 그의 문도들의 서적간행과 서원의 기능」, 『지역과 역사』 22, 부경역사연구소, 2008, 217~220쪽; 안현주, 「구암 이정의 도서간행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1, 363쪽).

58) 남권희, 「조선시대 경주 간행의 서적」, 『신라문화』 33, 2009, 7~9쪽.

59) 다른 서원에서 옥산서원으로 기증한 서적은 다음과 같다. 1642년 서악서원의 『서악지』, 1709년 예림서원의 『점필재집』, 1722년 호계서원의 『학봉집』, 1733년 도산서원의 『퇴계언행록』, 1739·1756년 용산서원의 『정무공실기』, 1739~1740년 의성 장대서원의 『경정집』·『송은집』·『오봉집』, 1748년 공주 도산서원(道山書院)의 『탄옹집』, 1756년 동강서원의 『우재실기』, 영주 오계서원의 『간재집』, 영해 인산서원의 『존재집』, 1801년 경주 장산서원의 『효경』, 1817년 영천 용계서원의 『경은유사』, 안동 구담서당의 『소산집』, 1819년 군위 송현사의

서원의 증가와 함께 서원 간행본의 기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와 궤를 같이하여 문중에서의 서적 반질도 이어졌다. 1606년 기준(奇遵)의 『덕양유고』가 나주의 행주씨 가문에서 보내져왔다. 1683년에는 조광조의 후예인 조위수가 『정암집』을 보내왔으며, 내시교관을 지낸 맹만택(孟萬澤)이 회재가 직접 점주(點朱)한 『대학연의』를 보내었다. 1703~1709년 사이에는 한음의 후예인 하양현감 이복인이 『한음선생수필』을, 1713년에는 대전 안동권씨 집안에서 권득기의 문집인 『만회집』을 보내왔다. 1755년에는 경주부윤 홍삼익이 그의 부친의 문집 『내재집』을 보내왔다. 이처럼 기증에 의한 것은 사적·공적인 관계가 전제되어 있었다.

건립 이래로 높은 위상을 유지하며 경주지역을 대표하였던 옥산서원은 18세기 중반이후 도산서원과 더불어 영남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공인되었다. 이러한 위상에 비례하여 기증되는 서적들도 계속 증가하였다. 『서책기』, 『서책전여도록』에 수록된 서적수를 보면 시대가 내려올수록 장서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였다. 1758년 184종 1,618책에서 1801년에는 253종 1,905책으로 증가하였다. 19세기 중반에는 310종 2,076책으로, 19세기말에는 370종 2,121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19세기 들어와서 문중서원·사우와 개별 가문 등에서 현조를 현창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문집과 유고의 간행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상에서 초창기 서원들은 장서 구비에 지방관의 도움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원 건립에 참여했던 향촌 유생들을 중심으로 자발적 기증이 있기도 했으나, 서원이 해당 지역의 대표적 교육기관으로서 면모와 권위를 갖추는 데는 사액과 함께 국왕으로부터 서적을 하사받으면서 가능하였다. 서원의 건립 초기에는 서원 운영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유지, 확대할 필요가 있던 시기였기에 서적의 구매에 소용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은 그만큼 서원 재정에

『송오집』, 1820년 영해 구봉서원의 『관감록』, 1828년 함창 임호서원의 『동계실기』, 광산사의 『전암실기』, 1842년 현풍 도동서원의 『경현록』, 1847년 청도 덕남서원의 『송은집』 등이 확인된다.

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하여 서원의 지위를 격상하고, 경제적 보조를 받기 위해 서원의 건립과 동시에 사액을 청원하는 것이 일반화되어갔다.

한편 조정에서는 교육을 권장한다는 의미에서 소수서원 이래로 사액과 동시에 서책을 하사하는 것이 관례였고, 이처럼 서로의 이해가 맞으면서 초창기 서원들은 사액시에 서책을 하사받아 서원 장서를 늘려갔던 것이다. 이러한 내사본은 책 첫 면에 내려준 연도와 날짜 및 내사기를 표기하여 나라에서 특별히 하사했음을 드러냈다. 또한 서원 장서 중에서도 특별히 관리를 하여 별도의 궤에 넣어 두었고, 서원에 따라 어서각 등의 별도 건물을 지어 보관하기도 했으며, 열람시에는 반드시 재배를 하는 의식을 행하였다. 그러나 기증과 내사에 의한 장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요의 증가와 장서의 분실 등으로 인해 서원에서는 필요한 서적을 구매하기도 하였다. 특히 미사액 서원의 경우에는 내사본도 없고, 서적의 기증도 전무했기에 자체 구매를 통한 장서 구비가 일반적이었다.

4. 출판을 통한 장서 구비

서적은 간행 주체에 따라 관판(官板)과 사판(私板)으로 구분하는데, 관판은 간행 주체를 중앙과 지방으로 구별하여 중앙판과 지방판으로 나눌 수 있고, 사판은 사찰판(寺刹板), 서원판(書院板), 사가판(私家板)으로 분류된다.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저술된 문헌의 보급을 위해서는 서책의 간행이 필수적이었다.⁶⁰⁾ 조선전기에는 국가 정체성의 확립과 유교문화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주도의 관판이 출판문화의 중심을 이루었지만, 17세기 중반이래로 문중 의식의 고취와 서원의 증가 등에 힘입어 출판문화의 중심이 사판 그 중에서도 서원판과 사가판으로 이동되어 갔다.

도서를 간행하는 일은 구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에 경제적

60) 박장승, 「경주 소재 서원·사에서 간행한 전적고」, 『신라문화』 99, 2001.

기반이 미약한 서원에서는 추진이 어려웠다. 그래서 초기 서원에서 간행된 판목은 평안도 중화의 청량서원(靑凉書院)에서 1566년(명종 21)에 『근사록집해』, 『한서전초(漢書傳抄)』와 1568년(선조 1)에 『고사통략(古史通略)』을 간행하였고, 1574년에는 성주 천곡서원에서 『설문청공독서록요해』와 『주자서절요』를, 1581년 서천 명곡서원에서는 『표제구해공자가어』, 『신간소왕사기』 등만이 확인된다.⁶¹⁾ 이후 서원의 확산과 국가의 지원이 이어지면서 서원제도가 확립되었듯이 서원에서의 간행 비율도 함께 높아졌다. 이것은 1796년 서유구의 『누판고(鑄板考)』에 수록된 ‘서원판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4〉 『누판고』 소재 서원 책판 목록

지역	소장처	제향인	책판명	비고
예안	陶山書院	李滉·趙穆	嶠南寅興錄	1권, 1792(정조 16), 경상감영
			經書釋義	8권, 李滉 撰
			啓蒙傳疑	1권, 이황 찬
			退溪言行錄	6권, 李滉門人 찬.[초판 權斗綱]
			理學通錄·外集	통록 11권, 李滉 撰 / 외집 1권 趙穆 跋, 成渾 點批
			古鏡重磨方	1권, 李滉 編
			朱子書節要	20권, 李滉 編
			松齋集	2권, 李隅 撰
			鶴巖集	5권, 李賢輔 撰
			雲巖逸稿	2권, 金祿 撰
			濶溪逸稿	5권, 李龜 撰
			退溪自省錄	1권, 이황 찬
			退溪集·續集·年譜	문집 51권, 속집 8권, 연보 3권, 이황 찬, 원집·연보-류성용 편, 속집-後孫 李守淵 편
			耻齋遺稿·附錄	유고 3권, 부록 1권, 洪仁祐 撰
			月川集	6권, 趙穆 撰
近始齋集	4권, 金垓 撰			
溪巖集	6권, 金垓 撰			

61) 천혜봉, 『한국서지학』, 민음사, 2006, 240쪽.

청도	紫溪書院	金駟孫	陽村入學圖說	1권, 權近 撰
			瀟纓文集	5권, 金駟孫 撰
			滄溪集	27권, 林泳 撰
仙巖書院	金大有·朴可淡	禮部階略·玉篇	운략 4권, 옥편 1권	
경주	玉山書院	李彥迪	奉先雜儀	2권, 李彥迪 찬
			大學章句補遺·續或問	보유 1권, 속혹문 1권, 이언적 찬
			近思錄	14권
			中庸九經衍義	29권, 이언적 찬
			求仁錄	4권, 이언적 찬
			太極問辨	2권, 鄭述 編
			晦齋集·年譜·附錄	문집 13권, 연보 1권, 부록 1권, 李彥迪 撰, 李晁 編
	西岳書院	薛聰·金庚信·崔致遠	帝王歷年通放	1권, 鄭克後 찬
			西岳志	1권, 정극후 찬
	龜岡書院	李齊賢	孝行錄	1권, 李齊賢 찬, 權近 註
樸翁樵說			4권, 이제현 찬	
益齋亂藁			10권, 이제현 찬	
東江書院	孫仲墩	愚齋實記·補遺	실기 2권, 孫汝斗 輯, 보유 1권 孫鼎九 編	
龍山書院	崔震立	貞武公實記	4권, 후손 편	
안동	屏山書院	柳成龍·柳珍	懲毖錄	16권, 柳成龍 찬
			西厓集·別集·年譜	본집 21권, 별집 4권, 연보 3권
			梧里集·附錄·續集·別集·附錄	본집 6권, 부록 4권, 속집 2권, 별집 2권, 부록 2권, 李元翼 撰
	虎溪書院	李晁·柳成龍·金誠一	朱書講錄刊補	6권, 李晁 刊補
			鶴峯集·行狀·續集	문집 8권, 행장 1권, 속집 5권, 金誠一 撰
	三溪書院	權機	冲齋集	9권, 權機 撰
	魯林書院	南致利	賁趾集	4권, 南致利 撰
	鏡光書院	襄尙志·李宗準·張興孝	敬堂集	2권, 張興孝 撰
	周溪書院	具鳳齡·權春蘭	晦谷進學圖	4권, 權春蘭 撰
			槿潭集	4권, 具鳳齡 撰
			晦谷集	2권, 權春蘭 撰
	黔溪書院	玉沽·金係行	凝溪實記	2권, 玉世寶 輯 [옥고]
			寶白堂實紀	2권, 金承鈺 輯, [김계행]
雲川集			6권, 金涌 撰	
柞溪書堂		麗澤齋遺稿	6권, 權在運 撰	

新寧	龜川書院	權應銖	白雲齋實紀	4권, 權弘運 輯, [權應銖]
풍기	郁陽書院	李滉·黃俊良	錦溪集·外集	문집 4권, 외집 8권, 黃俊良 撰, 李滉 校訂, 외집 - 鄭述 編
	愚谷書院	柳雲龍·黃暹·李埈·金光晔	息菴集·年譜	본집 5권, 연보 1권, 黃暹 撰
榮川	龜江書院	金淡·朴承任·金功·金榮祖	嘯臯集·續集·附錄	본집 4권, 속집 4권, 부록 2권, 朴承任 撰
	迂溪書院	李德弘	艮齋集	14권, 李德弘 撰
	三峰書院	金爾音·金蓋國·金隆	勿巖集·年譜·附錄	본집 4권, 연보 1권, 부록 1권, 金隆 撰
			晚翠集	4권, 金蓋國 撰
	義山書院	李介立·金應祖	省吾堂集	4권, 李介立 撰
		鶴沙集·外集·年譜·附錄	본집 9권, 외집 1권, 연보 1권, 부록 1권, 金應祖 撰	
성주	檜淵書院	鄭述	大河圖	1권
			小河圖	1권
			五先生禮敬前後集	전집 8권, 후집 12권, 鄭述 찬
			五服沿革圖	1권, 정구 찬
			心經發揮	4권, 鄭述 撰
			太極問辨	2권, 정구 편
			寒岡集·續集·別集·年譜	본집 15권, 속집 6권, 별집 1권, 연보 1권
	安峯影堂 [川谷書院]	李億年·李兆年·李仁復·李崇仁·李稷	亨齋集	4권, 李稷 撰 [京山李氏 世德祠]
晴川書院	金宇顥·金聘壽·朴而章	東岡集	19집, 金宇顥 撰	
柳溪書院	鄭崑壽·朴燦·李淳	柏谷集·年譜	본집 4권, 연보 1권, 鄭崑壽 撰	
인동	東洛書院	張顯光	易學圖說	9권, 張顯光 찬
			旅軒年譜	3권, 문인 張舉 편
			性理說	8권, 장현광 찬
			旅軒集	11권, 장현광 찬
永川	道峯書院	曹好益	家禮考證	7권, 曹好益 찬
			大學童子問答	1권, 조호익 및 문인 金鉉 찬
			心經質疑考誤	1권, 조호익 찬
			芝山集	11권, 조호익 찬
	環邱世德祠	鄭世雅·鄭宜蕃	湖叟實紀	8권, 鄭一鑽 輯 [鄭世雅·鄭宜蕃]
臨臯書院	鄭夢周·張顯光·皇甫仁	圃隱集·續集	본집 4권, 속집 3권	

	梅谷書堂		涵溪集	6권, 鄭碩達 撰
			梅山集	12권, 鄭重器 撰
밀양	禮林書院	金宗直·朴漢柱·申季誠	彝尊錄	2권, 金宗直 撰·金茂紘
			佔畢齋詩集·文集	시집 23권, 문집 2권, 金宗直 撰
산청	西溪書院	吳健	德溪集	8권, 吳健 撰
사천	龜溪書院	李禎	龜巖集	2권, 李禎 撰 - 원집 1권 - 許穆 撰, 속집 1권 - 魚有成 撰
진주 (산청)	新塘書院	趙之瑞	知足堂忠烈記	1권, 趙謙 撰(趙之瑞, 조지서 처 鄭氏)
			丹圃集	1권, 趙希進 撰
			槽巖集	4권, 趙昌期 撰
	德川書院	曹植·崔永慶	南冥集·別集	본집 5권, 별집 9권, 曹植 撰
	臨川書院	李俊民·姜應台·成汝信·河澄·韓夢參	浮查集	8권, 成汝信 撰
大覺書院	河沆·孫天佑·金大鳴·河應圖·李靜·柳宗智·河受一	覺齋集	3권, 河沆 撰	
		松亭集	6권, 河受一 撰	
상주	近岳鄉賢祠 (近岳書院)	洪彥忠·李德馨·金弘敏·洪汝河·李集·李萬敷·權相一	通國通鑑提綱	14권, 洪汝河 撰
			寓菴文集	4권, 洪彥忠 撰
			澗齋集	12권, 李德馨 撰
	西山書院	金尙容·金尙憲	仙源年譜·清陰年譜	선원 1권, 후손 撰, 청음 2권, 宋時烈 撰
			仙源遺稿	5권, 金尙容 撰
	玉成書院	金得培·申潛·金範·李竣·李垵	后溪集	2권, 金範 撰
			月礪集·부록·兄弟急難圖	본집 3권, 부록 1권, 급란도 1권, 李垵 撰
			蒼石集	18권, 李竣 撰
	淵嶽書院	朴彥誠·金彥健·康應哲·趙光璧·康用良	南溪集	1권, 康應哲 撰
	興巖書院	宋浚吉	同春堂集·別集	본집 24권, 별집 9권, 宋浚吉 撰
			洞虛齋集	1권, 成獻徵 撰
	道南書院	東方五賢·盧守慎·柳成龍·鄭經世·李竣	蘇齋集·續集·附錄	본집 10권, 속집 8권, 부록 1권, 盧守慎 撰
愚伏集			21권, 鄭經世 撰	
頤齋集			2권, 曹友仁 撰	

함안	西山書院	趙旅·元昊· 金時習·李孟專· 成聘壽·南孝溫	趙氏十忠實錄	1권, 趙希孟 편, 후손 趙輝晉 重訂 [趙旅·趙邗·趙鵬·趙宗道·趙俊男·趙 信道·趙敏道·趙凝道·趙益道·趙善 道·趙繼先]	
			漁溪集	2권, 趙旅 撰	
			損菴集	9권, 趙根 撰	
	德巖書院	趙純·朴漢柱· 趙宗道	大笑軒集	3권, 趙宗道 撰	
	松汀書院	趙任道	澗松堂集	7권, 趙任道 撰	
의성	藏待書院	申之悌·李民宥· 申元祿·金光粹	松隱集	2권, 金光粹 撰	
			悔堂集	2권, 申元祿 撰	
			梧峯集	8권, 申之悌 撰	
			敬亭集	12권, 李民宥 撰	
함양 (안의)	龍門書院	鄭女昌·林薰· 林芸·鄭蘊	葛川集	4권, 林薰 撰	
			瞻慕堂集	3권, 林芸 撰	
			槲溪集·附錄	본집 4권, 부록 2권, 鄭蘊 撰	
善山	金鳥書院	吉再·金宗直· 鄭鵬·朴英· 張顯光	三仁錄	1권, 善山諸儒 찬[金澍, 河緯地, 李 孟專]	
			冶隱言行拾遺	3권, 吉興先 編	
			兩賢淵源錄	1권, 朴晁·金濡 等編, [鄭鵬·朴英]	
	洛峯書院	金叔滋·金就成· 朴雲·金就文· 高應步	龍巖集	4권, 朴雲 撰	
			眞樂堂集	2권, 金就成 撰	
			久菴集	4권, 金就文 撰	
			喚醒堂逸稿	3권, 朴演 撰	
		健齋逸稿	2권, 朴遂一 撰		
	松山書院	金應箕·金振宗· 崔應龍·康惟善· 崔暉·盧景任	敬菴集	7권, 盧景任 撰	
			認齋集·別集·年譜· 附錄·續集	본집 13권, 별집 2권, 연보 1권, 부 록 1권, 속집 7권, 崔暉 撰	
논산 (尼城 礪山)	魯岡書院	尹煌·尹文學· 尹拯·尹宣舉	明齋禮禮問答	8권, 尹拯 門人 편	
			三韻通考補遺	5권, 朴斗世 찬	
			明齋言行錄	5권, 傍孫 尹光紹 編	
			明齋年譜	6권, 傍孫 尹光紹 撰	
			牛溪續集	6권, 成渾 撰	
			八松封事·附錄	봉사 1권, 부록 2권, 尹煌 撰	
			魯西遺稿·附錄	유고 20권, 부록 2권, 尹宣舉 撰	
竹林書院	李珥·成渾· 金長生·趙光祖· 李滉·宋時烈	伸冤牛栗兩賢疏	1권		

부여 (林川)	七山書院	俞榮	家禮源流·往復書	원류 16권, 왕복서 1권, 俞榮 찬
			市南集·附錄·年譜	본집 23권, 부록 3권, 연보 1권, 俞榮 撰
連山	遯巖書院	金長生·金集· 宋浚吉·宋時烈	家禮輯覽	11권, 金長生 撰
			喪禮備要	2권, 金장생 찬, 申義慶 修
			沙溪年譜	1권, 後孫 金憲 편
			沙溪遺稿	14권, 金장생 찬
			慎獨齋遺稿	15권, 金集 찬
청주	華陽書院	宋時烈	程書分類	30권, 宋時烈 編
			宋子大全·附錄	본집 217권, 부록 19권
보은	象賢書院	金淨·成運·成梯 元·趙憲·宋時烈	冲庵集	5권, 金淨 撰
			大谷集	3권, 成運 撰
서천 (한산)	文獻書院	李穀·李穡· 李鍾學·李埏· 李籽	稼亭集·雜錄	가정집 20권, 李穀 찬, 李穡 편 / 잡 록 1권, 이색 편, 후손 李泰淵 編
			牧隱集·附錄·年譜	본집 58권, 부록 1권, 연보 1권, 李 穡 찬
			麟齋集	1권, 李鍾學 撰
文義	黔潭書院	宋浚吉	同春堂集·別集	본집 24권, 별집 9권
鎭山	從容祠	趙憲	重峰集·附錄	본집 5권, 부록 1권, 趙憲 撰
光州	褒忠祠	高敬命·高從厚· 高因厚·柳彭老· 安瑛	霽峰遊瑞石錄	1권, 高敬命 撰
			霽峯集·遺集·續集	본집 5권, 유집 1권, 속집 1권
			正氣錄	1권
			白麓集	3권, 辛應時 撰
			晴少集	1권, 高用厚 찬
장성	筆巖書院	金麟厚·梁子徵	河西集·別集	본집 14권, 별집 9권, 金麟厚 撰
나주	眉泉書院	許穆	記言·別集	기언 67권, 별집 26권
고부	道溪書院	李希孟·崔安· 金齊閔·金地粹· 金齊頤	鰲峯集	5권, 金齊閔 撰
			苔川集	2권, 金地粹 撰
장흥	淵谷書院	閔鼎重·閔維重	老峯集·附錄	본집 10권, 별집 2권, 閔鼎重 撰
능주	竹樹書院	趙光祖·梁瑩孫	靜菴集	8권, 趙光祖 撰
영암	鹿洞書院	崔德之·崔忠成· 金壽巨·金昌協	烟村事蹟	2권, 崔挺 輯
전주	石溪書院	金東準	喪禮備要	2권, 金장생 찬
			疑禮問解·續解	문해 4권, 속해 1권, 金集 編, 속해 尹宣舉 編
순천	玉川書院	金宏弼	景賢錄	2권, 李禎 편, [金宏弼]
			擊蒙要訣	2권, 이이 찬

	忠愍祠	金贊吉·林慶業	忠武公家乘	6권, 신령현감 李弘毅 輯, [李舜臣]
	芝峯書院	李晬光	昇平志	2권, 李晬光 撰
鏡成	彰烈祠	鄭文學	彰烈祠志·續志	불분권, 李端夏 찬
平山	雲峰祠	申崇謙	壯節公遺蹟	불분권, 朴世采 찬
	九峯書院	朴世采	南溪年譜	4권
北靑	老德書院	李恒福·金德成· 鄭弘翼·閔鼎重· 吳斗寅·李尙眞· 李世華·李光佐 (黜亨)	北遷日錄	1권, 鄭忠信 撰, [李恒福]
해주	紹賢書院	朱子·趙光祖· 李滉·李珣· 成渾·金長生· 宋時烈	近思錄釋疑	14권, 金長生 撰
			聖學輯要	13권, 李珣 撰
			擊蒙要訣	2권, 이이 찬
			桑榆集	2권, 柳思規 撰
			栗谷集·續集·外集· 年譜	본집10권, 속집3권, 외집1권, 연보2권
개성	崧陽書院	鄭夢周·徐敬德· 金尙憲·金垕· 趙翼·禹玄寶	圃隱集·續集	본집 4권, 속집 3권, 鄭夢周 撰
	花谷書院	徐敬德·朴淳· 閔純·許華	花潭集	3권, 徐敬德 撰
용강	鰲山書院	金安國·金正國	慕齋集	15권, 金安國 撰
			思齋集	4권, 金正國 撰
연안	顯忠祠	李廷旹·申恪· 金大鼎·宋德潤· 張應其·趙光庭	四留齋集	12권, 李廷旹 撰

『누판고』에서 확인되는 서원 책판은 경상도 53개처 128종, 충청도 9개처 24종, 전라도 11개처 18종, 기타 9개처 14종 등 82개처 184종이다. 이 중 도산서원이 17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주 옥산서원·성주 회연서원·논산 노강서원(魯岡書院)으로 각 7종, 선산 낙봉서원·연산 돈암서원·광주 포충사·해주 소현서원이 각 5종, 인동 동락서원·영천 도잠서원·의성 장대서원 등이 각 4종씩이 수록되어 있다. 경상도에서의 책판 제작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이것은 재지사족의 분포와 그들의 활동과도 관련이 깊다. 조선 건국 이래

로 경상도 지역은 재지사족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이들은 16세기 이래로 퇴계와 남명을 영수로 하는 영남학파를 형성하고, 사림파의 집권이후 정치적으로 동인의 입장에서 인조반정이전까지 정국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인조반정과 예송논쟁, 숙종대의 환국을 거치면서 정치권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되었다. 이후 경상도의 사족들은 사회적 지위와 향촌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조 현양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그것은 서원 건립과 선조의 문집 간행 등으로 나타났다.

주지하다시피 서원 건립과 문집 간행은 기본적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렇기에 한 고을을 대표하는 서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실제 『누판고』에 수록된 서원들은 바로 해당 고을을 대표하는 서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서원이 기재된 곳은 안동 8개소, 상주 6개소, 경주 5개소, 영천(榮川)·성주·영천(永川)·진주 각 4개소, 함안·선산·순천 각 3개소이다. 이들 고을도 대부분 경상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읍이자 재지사족의 수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다수의 서원에서 서적 간행이 있었다. 그만큼 재지사족의 활동이 활발했으며, 향촌 내에서 가문 간 기득권 경쟁이 치열했음을 의미한다.

주목되는 점은 예안의 도산서원이다. 퇴계학의 본산으로 인식된 도산서원은 제향자인 퇴계의 문집과 저술을 주로 간행하였다. 생전에 많은 저술을 남겼던 퇴계는 그가 사망하자, 문인들에 의해 저술과 문집 편찬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도산서원에서 처음 간행된 것은 『송계원명이학통록·외집』이다. 이 책은 퇴계가 주자를 비롯한 송원명의 성리학자들의 행장·전기·어록 등을 서술한 책이다. 외집에는 비정통 주자학파를 수록하고 있는데, 1575년(선조 8) 안동부에서 간행하고, 1576년(선조 9)에는 조목 등의 문인들이 도산서원에서 간행하였다.

이후 예안과 안동의 문인들은 조목과 류성용을 중심으로 문집과 연보를 편찬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도산서원에서 1600년(선조 33) 『퇴계집·연보』가 처음 간행되었다. 그 후 1724년(경종 4)과 1843년(헌종 9)에 중간

하였으며, 1817년(순조 17)에 보각(補刻)이 있었다. 『퇴계속집』은 1600년에 문집을 간행할 때 수록하지 못한 유고(遺稿)를 수습하여, 1746년(영조 22)에 간행하였다. 또한 『계몽전의』는 주자가 지은 『역학계몽』의 주해서로서, 퇴계가 1557년(명종 12)에 저술한 것이다. 이를 도산서원에서 1600년(선조 33)에 문집과 함께 간행하였다. 또한 『경서석의』는 퇴계가 사서삼경을 주석한 책으로 1608년(선조 41) 경상도 관찰사 최관(崔瓘)의 지원으로 후학들이 소장하고 있던 전사본(傳寫本)을 구하여, 문인 금응훈(琴應薰) 등이 수정·보완하여 1609년(광해군 1) 간행하였다. 『퇴계언행록』은 권두경이 편찬한 『퇴계선생 언행통록』을 이수연(李守淵, 1693~1748)이 대폭 수정하여, 1733년(영조 9) 간행하였다.

이처럼 도산서원에서 처음 간행한 서적들이 있는 반면, 다른 곳에서 먼저 간행된 후 도산서원에서 간행한 사례도 보인다. 『주자서절요』와 『퇴계언행록』이 대표적이다. 『주자서절요』는 퇴계가 『주자대전』의 서간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선별하여 편집한 책이다. 1561년(명종 16) 황준량이 성주에서 처음 간행한 이래로 류중영·김덕룡·김성일·정경세 등이 지방관으로 부임하여 간행·배포하였다. 도산서원에서는 1743년(영조 19) 간행하였다. 『퇴계자성록』은 이황의 서간 가운데 수양과 성찰에 도움이 되는 22편을 선별하여 엮은 책이다. 1585년(선조 18) 나주목사로 재직 중이던 김성일이 처음 간행하였다가, 1793년(정조 17) 도산서원에 중간하였다.

이외에도 다른 곳에서 간행된 퇴계의 저술 판목이 후대에 도산서원으로 이관된 사례도 확인된다. 『고경중마방』은 퇴계가 중국의 성현 23인의 잠명(箴銘) 중에서 수양이 될 만한 76편을 선별하여 엮은 책으로 안동부사 정구(鄭逵)가 1607년(선조 40) 간행하였다. 그 후 안동부에서 도산서원으로 판목을 이관하여 보관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소현인 예안의 사족들만으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한 퇴계의 문집과 저술을 간행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그래서 다른 고을에 위치한 교원사(校院祠)와 문중 등의 협조를 받아서 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행에

협조한 곳에서는 퇴계학과의 일원으로서 인정되었고, 이를 통해 도산서원과의 교류도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한편 도산서원에서도 퇴계의 문집과 저술을 간행하면서 퇴계학과의 결속을 강화하고, 그의 학문을 계승·확산하는데 활용하였다.

이외에도 『송재집』(이우), 『은계일고』(이해) 등의 진성이씨 가문 인사들의 문집과 『계암집』(김령), 『근시재집』(김해), 『운암집』(김록), 『월천집』(조목), 『농암집』(이현보), 『치재유고』(홍인우) 등 광산김·황성조·영천이·남양홍씨 가문 인사들의 문집 및 『교남빈홍록』 등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들 문집이 도산서원에서 간행된 것인지는 확인이 어렵다. 일례로 홍인우의 『치재집』은 1639년(인조 17) 안동통판 홍유형(洪有炯)이 인쇄하여 보낸다는 주기가 현존본에서 확인되고 있다. 홍유형은 1636~1641년까지 안동판관을 역임하였다. 그렇기에 홍인우의 문집은 안동부에서 간행한 후 책판은 도산서원에 보관해 온 것으로 보인다.⁶²⁾

예안에서는 1667년(현종 8) 이석·이우·이해를 제향하는 청계서원(淸溪書院)이 건립되고, 1700년(숙종 26)에 이현보를 제향하는 분강서원(汾江書院), 1702년(숙종 28)에 이계양·김효로를 제향하는 향현사(鄕賢祠)가 건립되었다. 이처럼 예안을 대표하는 가문들의 문중원사가 건립되었지만 18세기 말에도 도산서원에서 이들 가문의 선조 책판을 보관한 것은 별도의 책판 보관시설이 이곳에만 있었기 때문이며, 서원 운영에서도 중요한 가문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집 간행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에 도산서원에서도 직접적인 연고가 없는 인물의 문집을 간행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런 점에서 조목은 도산서원에 종향되었기에 그의 문집은 예안현감 이석관(李碩寬)의 협조를 받아서, 도산서원에서 간행한 후 책판을 보관해 왔을 개연성이 높다. 이현보의 문집은 분강서원 건립 이전인 1665년(현종 6) 그의 외손 김계광(金啓光)이 간행하였다. 김계광은 당시 도산서원 원장을 역임했던

62) 최우경, 앞의 논문, 2019, 117쪽.

인물이다. 당시 도산서원은 인조반정 이후 향촌사회에서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예안의 대표적 가문이었던 영천이씨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퇴계가 향선배로 존경하였던 이현보의 문집 간행을 주관하고, 그 후 책판을 보관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성이씨는 청계서원이 건립되어 있었지만 도산서원에서 운영을 함께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우의 문집은 외종손 오운(吳雲)이 1584년(선조 17) 충주 목사 재직시 간행했던 책판을 도산서원에 옮겨와 보관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해의 문집은 1772년(영조 48) 간행되었다. 한편 도산서원 원장을 역임했던 김령의 문집도 같은 해 도산서원에서 간행되었다. 18세기 이래로 광산김씨와 진성이씨는 향현사에 선대의 위패를 함께 제향 해왔고, 도산서원 운영에서도 두 가문의 역할이 압도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렇기에 이해의 문집도 김령과 마찬가지로 도산서원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783년(정조 7)에 간행된 김록과 김해의 문집은 광산김씨 가문에서 간행한 후 책판만 도산서원에서 보관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17세기 중반 이래로 도산서원은 예안을 대표하는 가문들인 횡성조·영천이·진성이·광산김씨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선조의 책판을 도산서원에서 관리해왔다. 한편으로는 일찍부터 퇴계의 저서를 간행하면서 책판의 보관과 수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인 장판각(藏板閣)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가문에서도 책판을 매개로 도산서원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이용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도산서원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거점 서원은 해당 고을의 지식 보급과 생산의 기지로서 역할 하였다. 경주 일대에서는 옥산서원이 그 중심에 있었다. 옥산서원에서는 자체 간행한 책판 외에도 인근 서원과 경주부에서 간행한 책판도 보관하거나, 이를 수리한 것이 확인된다.⁶³⁾ 이를 위해 장판고, 장판각

63) '구인당' 현판은 1711년 이전에 改刊하고, 原板은 經閣에 보관하였으며, 1748년 이후 대소'병풍'판도 경주부 판목들과 함께 보이지 않는다. 청하 '해월루' 현판은 중수시에 청하 현감 鄭岐胤(재위:1692~1702) 推去해 갔다(『전여기』, 신유

등의 별도의 시설을 갖추기도 했는데, 옥산서원은 인근의 속사였던 정혜사에 책판의 수리와 보관을 맡겼다.

옥산서원에서 간행된 서적은 『전여기』와 『동경잡기(東京雜記)』(1670), 『누판고』(1796), 『금오승람(金鰲勝覽)』(1936)을 통해서도 그 대강을 확인할 수 있다.⁶⁴⁾ 옥산서원에서는 서적을 출판하기 위해 별도의 '간소(刊所)'를 속사인 정혜사에 두고 운영하였는데, 인출에 사용할 책판도 정혜사에서 보관하였다.⁶⁵⁾

1670년(현종 11) 『동경잡기』를 보면 당시 정혜사에는 『구경연의(九經衍義)』, 『구인록(求仁錄)』, 『김남창소서원조오잠급태극문변(金南窓所書元朝五箴及太極圖辨)』, 『대학보유(大學補遺)』, 『매월당사유록(梅月堂四遊錄)』, 『봉선잡의(奉先雜義)』, 『역옹패설(櫟翁樵說)』, 『익재집(益齋集)』, 『초한서(抄漢書)』, 『태극도설(太極圖說)』, 『한호소서적벽부(韓蘄所書赤壁賦)』, 『회재문집(晦齋文集)』, 『회재소제퇴계소서십육영급원조오잠(晦齋所製退溪所書十六詠及元朝五箴)』, 『효행록(孝行錄)』 등 14종의 책판이 있었다. 이중 경주부에서 간행한 『매월당사유록』, 『역옹패설』, 『적벽부』, 『효행록』, 『익재집』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옥산서원에서 간행한 것이다.

1711년(숙종 37)부터 1793년(정조 17)까지 작성된 『전여기(傳與記)』를 보면 책판의 종류가 31종에서 12종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1748년(영조 24)을 기점으로 옥산서원 판본만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효행록』·『심경』·『익재집』·『역옹패설』·『익재화상』·『동경지』 등은 경주부에서 판각한 것으로

(1711)).

- 64) 옥산서원 간행 판본과 책판 등은 이병훈, 「경주 옥산서원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 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민족문화』 5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이하 옥산서원 관련 서술은 이를 참고하여 정리했다.
- 65) 정혜사는 1572년 옥산서원 창건과 동시에 속사로 정속되어, 1834년 11월 화재로 소실될 때까지 옥산서원의 서적 간행 및 책판보관, 유생 공계 등 인적·물적으로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서원에서刊役을 시행할 때는 간소를 사찰 내에 두어 운영하였다(『文集刊役記事』, 1744)

개관을 위하여 잠시 옥산서원에 보관했던 것이다.

1796년의 『누판고』에는 옥산서원에 소장된 책판으로 『구인록』, 『근사록』, 『대학장구보유』, 『봉선잡의』, 『중용구경연의』, 『태극문변』, 『회재집』 등 7종이 확인된다. 1936년 『금오승람』에서는 1670년(현종 11) 정혜사 소장 책판 14종 외에 『동사찬요(東史纂要)』, 『회재별집』 등이 새로 확인된다. 이중 『동사찬요』는 1609년(광해군 1) 경주부에서 간행한 판본이며, 『회재별집』은 필사본으로 전해오던 것을 1934년 옥산서원에서 간행한 것이다. 『금오승람』에는 정혜사 소장 책판이 옥산서원으로 옮겨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1834년(순조 34) 정혜사가 화재로 전소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옥산서원에 소장된 『전여기』 등에 보이는 책판을 모두 망라하면 『구경연의』, 『회재선생문집(구)』, 『회재선생문집(신)』, 『대학장구보유』, 『근사록』, 『구인록』, 『봉선잡의』, 『대원조오잡』, 『십육영』, 『태극문변』, 『개정대학(改正大學)』, 『원조오잡(구)』, 『수십양성풍송한죽(收心良性風松寒竹)』 등 회재와 그의 저술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도 『동경지(東京誌)』, 『익재집』, 『역옹패설』, 『익재회상』, 『효행록』, 『십경』, 『대병풍(大屏風)』, 『소병풍(小屏風)』, 「구인당」 현판, 「해월루」 현판 등이 있었다.

『동경지』는 1669년(현종 10) 경주부사 민주면(閔周冕)이 진사 이채(李埰) 등과 함께 편찬한 『동경잡기』를 1711년(숙종 37) 경주부윤 남지훈이 재간행하면서 인출을 옥산서원 측에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대학』은 1602년 옥산서원에서 간행한 것이었는데, 앞선 기록들에서 누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옥산서원에서 간행된 목판은 옥산서원 경각과 정혜사 별고에 분장(分藏)하고 있었으며, 인쇄내지 책판을 수리하기 위하여 수시로 옮겨졌다. 경주부에서 간행한 일부 책판도 이 두 곳에 보관되기도 했는데, 1748년을 전후한 시기에 익재와 관련된 책판은 그를 제향한 구강서원(龜岡書院)으로 옮겨지고 옥산서원에는 회재와 관련된 책판만이 남게 되었다.⁶⁶⁾ 이처럼 조선시대

66) 성삼문의 『梅竹軒集』 책판은 辛亥年에 강원도 감영에서 영월 彰節書院으로 옮

서원 가운데 서적을 출판한 곳은 제한적이었다. 한편으로는 서적을 간행하더라도 책판을 보관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도 있었다. 책판 제작과 수리 관리 등에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향인의 문집과 저서의 출판은 해당 서원의 외부적 관계를 유지·확대하고, 제향인의 학문을 계승·확산한다는 점에서 서원 운영 및 위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마련된 책판과 수집된 장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원임의 노력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였다.

Ⅲ. 한국 서원의 장서 관리

한국의 서원 중 옥산·도산·병산서원은 현재까지도 많은 전적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원이다.⁶⁷⁾ 이것은 건립 이래로 철저히 도서를 관리해왔기에 가능했다. 이들 서원에는 원임의 인수인계시나 포쇄시에 작성한 『서책목록(書冊目錄)』, 『전여기(傳與記)』, 『서책기(書冊記)』, 『서책도록(書冊都錄)』 등의 자료가 남아있어서 서적 관리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현전하는 상기 서원들은 대원군의 훼철 당시에도 존치되었던 곳들이다. 특히 도산서원과 옥산서원은 임진왜란 당시에도 장서를 온전히 보존하면서, 수적·질적인 면에서 다른 서원을 상회한다. 한국 서원은 장서의 관리를 원규로

겨와서 西庫에 보관하였으며, 『牛溪集』의 刊記에는 성훈이 사망한 후 212년 후인 기사년에 7대손이 밀양에서 중간하여 창녕 물계서원에 책판을 보관하였다. 이외에도 河滸의 『台溪集』을 진주의 하씨 집안에서 만들어 家藏하다가 하진을 제한한 진주 宗川書院에 보관하였고, 홍여하의 『木齋集』을 함창의 홍씨 문중에서 만들었다가 함창 栗谷書院에 보관하기도 했다. 『六先生遺稿』는 신해년에 순흥 백운동서원에서부터 창절서원 西庫에 보관하기도 했다(윤희면, 앞의 논문, 2005, 20쪽).

67)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5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제정하여, 원임의 중요한 업무로 지정하였다. 실제 최초의 서원이었던 소수서원의 원규는 근사(謹祀), 예현(禮賢), 수우(修宇), 비름(備廩), 점서(點書)의 5가지를 기본 조목으로 하고 있다.⁶⁸⁾ 주세붕은 원규를 통해 서책의 점검을 강조하며, 수령과 그 자제의 무단 반출을 엄히 금하였다. 이후 건립된 모든 서원에서 이를 차용하여 장서의 이용과 열람은 서원 내에서만 허락되었다. 현전하는 소수서원 장서의 표지 이면에는 서원에서 청하여 책을 읽고, 서원의 문밖으로는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求讀院中 勿出院門) 글을 적어서 원규를 환기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퇴계 역시 이산서원 원규를 제정하면서 일체 서원 밖으로 서책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⁶⁹⁾

〈표 5〉 국가 지정 사적 9개 서원의 장서 등 현황

구분	고서	고문서	책판
영주 소수서원	30종 145책	110점	4종 428장
안동 도산서원	1,026종 4,605책	2,128점	28종 3,928장
안동 병산서원	1,071종 3,030책	1,439점	25종 1,907장
경주 옥산서원	943종 3,977책	1,156점	19종 1,121장
현풍 도동서원	10종 26책	214점	1종 71장
함양 남계서원	147종	717점	377장
논산 돈암서원	-	10점	11종 1,841장
정읍 무성서원	8종	49점	기타 51장
장성 필암서원	132종	64점	701장

68) 周世鵬, 『竹溪志』, 雜錄後, 「院規」. “一曰謹祀 二曰禮賢 三曰修宇 四曰備廩 五曰點書. 夫不謹則祀不享 不禮則賢不至 宇不修則必壞 廩不備則必匱 書不點則必散 五者 不可以廢一也. … 致齋日 獻官點灑藏書 … 邑宰子弟 不得擅便書冊. 擅便則必有因緣偷竊之弊 子弟之心 父兄豈盡知之. 若携出院門 或致遺失 則人必曰偷竊也. 其貽愧 當與竹溪司其流也 爲父兄者可不警哉 爲子弟者可不懼哉 某故不令子弟寓于此 欲防其源也 然有大志而無書冊 積誠來學之君子 則亦不可一切拘於此例也”

69) 李滉, 『退溪先生文集』 卷41, 雜著, 「伊山院規」. “一. 書不得出門 色不得入門 酒不得釀 刑不得用. 書出易失 色入易污 釀非學舍宜 刑非儒冠事 ….”

도산서원과 옥산서원에서도 같은 내용이 원규로 채택되었다. 영천의 입고 서원은 소수서원의 원규를 기본적으로 준수하면서, 「서원규범(書院規範)」을 별도로 제정하여 ‘서적 점검’에 대해 기준을 받거나, 매득(買得)하면 서책의 많고 적음과 전후로 다른 게 있는지 점검하고, 습기에 젖은 서적을 그냥 두면 좀 벌레가 생기므로 포쇄(曝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⁷⁰⁾ 이처럼 16세기에 건립되었던 초창기 서원들이 원규로 제정하여 공통적으로 준수하였던 장서의 점검이라는 전통은 이후 건립되는 모든 서원에서 공통적으로 준수되었다. 장서 점검의 목적이 서적의 분실을 확인하고, 책을 포쇄하여 습기와 좀 벌레를 방지하여 오랫동안 사용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서원의 장서는 원임이 관리하였다. 유생들이 장서를 보고자 한다면 서고에 직접 가서 꺼내주도록 하였다.⁷¹⁾ 그리고 원임의 교체시에는 장부의 장서 목록과 실제 장서를 점검하여 인수인계를 하였다. 이외에도 장서의 점검은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다. 소수서원에서는 매년 재일(齋日)에 현관이 점검하여 포쇄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장서가 증가하면서 각 서원에서는 목록을 작성하였다. 목록은 장서의 이용보다는 점검을 위한 것이었다. 「장서목록」은 일반적으로 책자 방식으로 만들어서 서명, 권책(卷冊)수를 기본적으로 기재하였다. 필요에 따라서 구비한 내역을 적기도 했는데, 〈내사(內賜)〉, 〈원비(院備)〉 등으로 구분했으며, 이외에도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서적명의 아래에 주기했다. 일반적으로 궤(櫃)나 책갑(冊匣)의 유무, 기준된 서적일 경우 보내온 곳을 적기도 했으며, 원칙적으로 대여가 불가했지만 부득이 대여를 했을 경우 대여자와 대여일, 반납 유무를 적고 있다.⁷²⁾ 목록에 기재하는

70) 臨臯書院, 『書院規範』, 「點書」. (1628년 8월 19일) “一. 書冊雖始入院門 終無還出之理 或有仁者之賜 或有院中之備 數之多寡 前後必異 且當霖雨應致蠹敗 必須釐以正之 且點且曬 毋令有污有損(川谷院規)”. 이 규정은 성주의 川谷書院에서는 제정한 것을 빌려온 것이다.

71) 「1862년 장성 필암서원 절목」. “敬藏閣의 開金은 執綱이 次知하고, 살펴보아야 할 책이 있다면 친히 가서 열어줄 것”.

72) 이병훈, 「경주 옥산서원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 본 도서관적 기능」.

순서는 내사본을 먼저 적고 그 다음은 책이 놓인 위치를 밝히고, 대체로 서가(書架)에 놓인 순서대로 기재하였다.

책을 점검하다가 책이 훼손되었으면 개장(改粧)하여 오랫동안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⁷³⁾ 서책을 분실한 것이 확인되면 매득하거나, 책판이 있는 곳에 종이를 보내어 인출해 와서 보충하였다.⁷⁴⁾ 책판도 점검하여 분실하거나 훼손된 것을 발견하면 판각을 하여 복구하였다.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도 화재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 상주 도남서원에서는 1660년(현종 1) 강당에 화재가 발생하여 장서 약 1천권이 소실되었다.⁷⁵⁾ 건물 중간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컸던 도남서원 유생들은 감영에 책을 인출해 주길 호소하거나, 여러 고을에 통문을 돌려 같은 책이 여러 권 있으면 나눠달라고 요청하였다.⁷⁶⁾

서원에서는 책을 구입하거나, 내사 받고 기증받으면 책의 첫 장에 들어오게 된 내력을 적고, 『고왕록(考往錄)』 등에 날짜와 사연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책의 목록을 작성하여, 한 군데 모아서 보관하였다. 보관 장소는 강당에 모아두기도 했으나 대개는 따로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서가를 만들어 관리하였다. 내사본이나 국왕의 글 등은 어서각, 어필각 등의 현판을 달은 건물에 보관하였고, 일반 서적들은 장서각, 경각(經閣)[옥산서원, 존경각(尊經閣)[성균관 등으로 이름한 건물에 두었다. 책판은 옥산서원과 같이 속사에 두거나

『한국민족문화』 5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73) 『臨臯書院 考往錄』. “庚寅年 봄에 좀먹은 서책 100여 권을 改粧”, “경인년 7월 15일에 좀먹은 서책 30여 권을 개장”.

74) 『임고서원 고왕록』. “무자년 10월 본원이 소장한 포은집을 잃어버렸다. 본소에서 紙本을 마련하여 인출하고 비치하였다”; 『고문서집성』 51, 406쪽. “갑술(1814) 정월 소장한 서책을 考閱하니, 『史漢一統』이 없어 거점때 가장 중요한 부분만 뽑은 16권을 인출하여 경각에 보관하였다.”

75) 『道南書院事實(下)』, 『道院古事』. “顯宗庚子 講堂火燒 藏書六百八十一卷 而見回祿則 今見在若干卷 極嘉慨歎”

76) 趙稜 『慕庵先生文集』 권3, 「通列邑書院文(道南洞主時)」; 『豊城世稿』 권2, 慕菴公稿 雜著, 「通列邑書院文」.

장소가 여의치 않으면 영천(榮川) 의산서원과 같이 관아에 두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관각, 경장각(敬藏閣)[필암서원이라 명명한 건물에 서기를 만들어 보관하였다.

일례로 도산서원은 건립 당시 강당인 전교당(典教堂)에 위치한 원장 집무실인 한존재(閑存齋)의 벽장에 장서를 보관하였다. 그러나 권질이 많아지자 벽장의 공간이 좁고, 여름에는 습기가 배이고, 겨울에는 굴뚝에 붙어 있어서 그을음과 화재의 위험이 높았다. 이에 1775년(영조 51) 정당의 동쪽에 1칸의 서고를 짓고, 역동서원의 광명실(光明室) 편액을 모사하여 걸고 ‘광명실’이라 하였다.⁷⁷⁾ 그러나 새로 지은 광명실은 화재의 위험은 없지만 햇볕이 들지 않아 습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었다. 이에 매월 삭망 때마다 문을 열어 점검해서 습기와 해충의 피해를 예방하고, 포쇄는 1년에 5~6차례를 하더라도 자주 하라고 당부했다.⁷⁸⁾

하지만 도산서원 서고는 원임의 교체나 포쇄라 하더라도 1~2인원이 개폐할 수 없었다. 반드시 삼임(三任)이 모두 참석하거나, 당회(堂會)시에만 개폐가 가능하고, 만약 부득이한 일이 있을 때에는 유사가 시임(時任)과 원임(原任)에게 품의하여 처리하도록 했다.⁷⁹⁾ 원임의 인수인계를 할 때는 별도의 장서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삼임이 모이지 않았다면 서고를 열어서 확인하지 못하므로 장부의 목록만을 대조하였다. 대신 당회나 포쇄를 할 때를 기다

77) 『乙未五月十五日 書冊置簿』. “本院書籍 舊藏于上齋夾室 卷帙浩穰 盈溢度架 烟煤蒸透 又不能無戒于火 乙未春 始造一間於正堂東頭 摸來易東書院光明室三字以扁之 卽先師手筆 而以其藏書 則同也 迺以五月十五日 移藏書冊及古蹟 別錄卷帙于此云爾”(도산서원 고문서, 유교넷 참고)

78) 『乙未五月十五日 書冊置簿』. “戊戌(1778, 정조2)六月日 書冊曝曬時 一一照檢 則從前外衣匣朽敗者二匣 其外亦有幾許卷(冊)傷者 且以新造書閣言之 既非煙火氣相通處 又非向陽引風之地 一遭封鎖 或累月不開 數千卷堆積中 雖非雨水滲漏 自然潤濕致傷 勢所必然 須因朔望時 時開視勘檢然後 可免腐蠹之患 則雖一年五六次爲之無妨 …”.

79) 『陶山書院儀節草』總則 光明室開閉. “必三任具位或堂會時 一二人不得 若有不得已之事 則有司稟于時原任句管”

렸다가 장서목록과 원본을 하나씩 비교하도록 했다.⁸⁰⁾ 서적의 구입·기증으로 인한 장서 보관 절차도 마찬가지로 포쇄나 당회시에 서고를 열 때 입고(入庫)할 수 있었다.⁸¹⁾

수천 권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던 도산서원에서 해충과 습기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포쇄는 중대한 사안이었다.⁸²⁾ 중요한 서적을 원속(院屬)에게 맡길 수도 없었기에 모든 작업은 원생들의 몫이었다. 그래서 포쇄가 결정되면 대규모 당회를 개최한다는 글을 보내어서 해당 업무를 맡았는지를 막론하고 모두 들어와서 성실히 힘쓰도록 했다.⁸³⁾

경주 옥산서원의 사례도 도산서원과 비슷하였다. 옥산서원은 별도의 장서목록인 『서책기』와 『서책전여도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목록에는 장서각인 ‘경각’ 내에 소장된 서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원 운영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들은 서적과 함께 존치하는 것이 경각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아서 제외하였다.⁸⁴⁾ 그러나 『전여기』에는 서책 이외에도 책판과 각종 집기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보면 서적을 선사질(宣賜秩)과 원비질(院備秩)로 나누고, 서적 간행시 조성된 책판은 책판질(冊板秩)에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서원 운영상에 생성된 각종 문서와 필사본을 대궐질(大櫃秩), 중궐질(中櫃秩), 잡문질(雜文秩)로 나누고 있다.

80) 『陶山書院儀節草』 傳掌. “... 書冊別置一簿 而光明室一二人不得開閉 故只以目錄考閱 署名着脚 待曝曬或堂會時 一一考準 ...”.

81) 『傳掌記』(己酉, 도산서원) “古溪亭實記一冊 琴湖世稿二冊 譜草辨證一冊 五月曝曬時入于光明室 前上有司前嶠監丁大植 前都事李昇九 齋有司李震鎬 李中憲”

82) 『庚寅六月二十六日 光明室傳掌記』. 이 전장기는 1890년(고종 27)의 포쇄시에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는 광명실에 東卓과 西卓을 두고서, 서탁에는 내사본과 퇴계 수택본 등의 중요 서적을 두고, 동탁에는 기타 서적을 보관하였다. 전임 3인과 시임 2인 및 회원 5인의 명단과 당시 포쇄하면서 확인한 서적 2,991책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83) 『도산서원의절초』 堂會. “... 光明室曝曬 與重大事項 發文大堂會 則勿論榜外榜內 咸入敦事.” 1900년의 『전장기』에는 6월 7일의 포쇄시에 77인이 참석했다.

84) 『서책전여도록』. “傳與時報置簿 恐有匱失之患 曾成一冊以爲點墨 而軍置雜文書中 亦非尊閣之意 故更爲此簿 此後則勿爲改書囊以下 只記有無 而墨之幸甚”.

문서의 경우 모든 기록이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대궐에는 『정서등록』과 노비·토지매매문서, 통문, 전답안, 노비추쇄안, 정혜사 및 각 점소(店所) 관련 문서 등 서원의 재정(경제) 및 사회활동과 관련된 대외 문건을 보관하고, 중궐에는 집사기(執事記), 홀기(笏記), 입원록(入院錄), 전여기 등 서원 제향 및 임원, 인수인계와 관련한 원내 문건을 보관하였다. 그 외의 명문, 완문, 관문, 통문, 추수기, 관문, 각종 회계록 등은 잡문서로 묶어 보관하였다.

서적은 책장에 보관하였는데 심원록, 서책기, 고왕록도 같이 관리하였으며, 내사본은 별도의 포갑(袍匣)에 보관하였다. 이외에도 『晦齋附錄草冊』과 『1513년 先生司馬榜目』, 『鄉案謄草』, 『先賢書疏』와 같이 옥산서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서적은 『유안(儒案)』을 보관하던 궐에 함께 보관하기도 했다. 대궐과 중궐 등은 경각(서각(御書閣))에 보관하고, 책판은 속사인 정혜사에서 보관했다. 그러나 1834년(순조 34) 정혜사가 화재로 전소되면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책판은 1835년(헌종 1) 옥산서원 정내에 문집판각(文集板閣)을 건립하여 모두 이관(移管)하였다.

한편, 임진왜란 이전에 건립된 한국의 서원 가운데 전란에도 불구하고 서적을 온전히 보존한 곳은 도산서원과 옥산서원이었다. 임진왜란 당시에도 피해를 입지 않았던 옥산서원은 오히려 전쟁의 피해를 입은 흥문관의 요청으로 1599년에 사서오경, 『주자대전』, 『국조유선록』, 『소학언해』, 사서언해본 등의 내사본을 대여해 주기도 했다.⁸⁵⁾ 이후에 부담하는 경주부윤들은 옥산서원으로부터 이들 내사본을 대여하여 열람하는 것이 하나의 통과의례처럼 이루어졌다. 지방관의 관심은 서원 운영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서적의 대여는 망실의 위험을 가지고 있었고 원규에도 어긋나는 일이었다. 실제 옥산서원에서는 18세기 중반 다량의 서적을 분실하였고, 그 원인으로 지방관의 서적 대여가 지목되었다. 그래서 옥산서원에서는 그때부터 경주부윤의 완문과 당중

85) 『열읍원우사적』, 경상도 옥산서원, 「고적」; 『선조실록』 권116, 선조 32년 8월 11일(정해).

완의, 국왕(정조)의 경연시 장서 보존에 대한 의견 등을 내세워서 지방관과 원유들의 장서 대여를 막고자 했다.⁸⁶⁾

1752년(영조 28)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임신년 부윤 완문(壬申年 府尹完文)」은 옥산서원의 서책 편낭(編囊)이 많고 또 선사(宣賜)된 것도 많은 것은 서원을 건립할 초기에 ‘불출원문(不出院門)’하는 절목을 정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동안 1권도 잃어버리는 폐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10여 년부터 관가로부터 혹 책자를 살펴볼 것이 있다고 서원에 하첩(下帖)하여 매번 왕래하는 사이에 편질이 훼손되거나 혹 오랫동안 추심(推尋)하지 않아서 잃어버리기에 이르렀다고 당시의 사정을 말하고 있다. 이에 부윤은 관장(官長) 또한 인편으로 책을 빌려보는 것이 불가하다고 완문에 명시하였다.⁸⁷⁾ 이처럼 옥산서원은 수백 년 동안 1권의 서적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해 왔지만 10여 년 전부터 관가에 의해 서적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는 일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옥산서원 『전여기』의 서적 대여 및 분실 내역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6〉은 옥산서원 『전여기』를 정리한 것으로 경전과 성리서 및 문집 등이 경주부로 반출되고 있음을 ‘관입(官入)’, ‘입부(入府)’로 표기하고 있다. 1753년(영조 29)에는 전년에 잃어버린 서적들을 기록하였다. 내사본 가운데 『주역』, 『시전』, 『서전』, 『춘추』 등은 61권이 전부 사라졌으며, 『맹자』, 『중용』, 『예기』 등은 일부인 6권이 사라졌다. 아울러 서원에서 구비하였던 『서전』, 『예기』, 『노사영언』, 『대학보유』, 『포은집』, 『퇴계언행록』, 『학봉집』 등은 57권이 전부 사라지고, 『주역』, 『시전』, 『선부초평』 등은 일부인 8권이 사라졌다. 당시 서적들이 어디에서 빌려갔는지 기록은 없지만 망실된 서적들이 내사본과 서원 초창기에 입수된 서적들이라는 점에서 관리가 매우 엄격했음을 짐작

86) 옥산서원에 현전하는 3책의 『서책(전여)도록』에는 서적 관리에 대한 원칙을 적은 「임신년 9월 부윤 완문」과 「임자년 치제시 예관문」, 「임술 5월 1일 당중 안의」가 있다.

87) 『書冊傳與都錄』 「壬申9월일 府尹完文」.

할 수 있다. 그러한 서적들을 대여했다는 것은 서원에 큰 영향력을 가진 경주 부윤일 개연성이 높다.

〈표 6〉 18세기 중반 이후 옥산서원『전여기』내 서적 대여 및 분실 내역

연도	내역
1753	선사 : 全失-주역(26권), 시전(9권), 서전(18권), 춘추(8권), 失 - 孟子(1권), 증용(2권내 1권), 예기(31권내4권) 院備 : 全失-書傳(10권), 禮記(15권), 魯史零言(14권), 大學補遺(1권), 楚辭(4권), 圃隱集(2권), 退溪言行錄(6권), 鶴峯集(5권) / 失 - 周易(11권내5권), 詩傳(17권내1권), 選賦詩話(4권내2권)
1755	선사 : 맹자(7권 1집)-官入 원비 : 詩傳(17권내 7권)-官入, 詩傳講義(14권내7권-官入), 退溪言行錄 - 7권내 4권(1집)在堤登
1764	원비 : 西岳誌-前任不傳
1765	선사 : 入府 - 논어(7권1집), 맹자(7권1집), 증용(1집), 대학(1집) 원비 : 入府 - 주역(13권), 주역언해(5권), 서전(10권), 시전(10권1집), 시전언해(7권1집), 맹자언해(7권), 논어언해(4권), 대학언해(1권), 서전언해(5권), 증용언해(1권)
1775	선사 : 入府- 논어(7권), 맹자(7권), 대학(1권), 증용(1권) 원비 : 入府(潤月11日出來) - 周易(12권), 주역언해(5권), 서전(10권), 서전언해(5권), 시전(7권), 시전언해(7권), 맹자언해(7권), 논어언해(4권), 대학언해(1권), 증용언해(1권), 史略(7권), 통감(14권), 三韻通考(1권)
1779	求仁錄(2권), 九經衍義(27권 3집) 代次還江界
1783	선사 : 孟子(7권 1집)-入府 원비 : 詩傳(7권 1집), 詩傳講義(7권 1집)-入府
1792	원비 : 奉先雜錄 - 6권내 1권 忠淸道 柳生員求講送, 1권 無忝堂 還去, 1권 龍宮 茂村 李參議宅送去 還去[1790(庚戌)2월 堂中傳與時 太極問辨(本院新刊本)-李佐良時去前任時
1793	원비 : 奉先雜錄(6권내 1권 迎日官求講送, 1권 忠淸道 柳生員求講送, 1권 無忝堂 還去, 1권 龍宮 茂村 李參議宅送去 還去 / 奎華名選(1794(甲寅)正月自本府來)
1798	선사 : 孟子 2卷 戊午(1798)失

한편 경주부윤의 완문이 있었음에도 경주부의 서적 대출은 계속 되었다. 서원 운영에 필수적인 원속, 전답, 노비 등에 대한 면역, 면세 등의 각종 혜택이 수령의 재량에 달려있었기에 부윤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전임 부윤의 명령을 후임 부윤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도 없었다. 그래서 1752년(영조 28)의 경주부윤 완문은 사족들에게만

영향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현전하는 각종 자료에서 19세기 이전에 사사로이 서적을 빌려간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서적이 필요할 경우 서원에 공식 요청을 하면 堂中에서 회의하여 서적을 보내거나 인출하였다. 즉 서적의 반출에 그만큼 엄격했음을 알 수 있다.

원문에도 불구하고 부윤의 서적 반출 요구가 계속되자 옥산서원 측은 1792년(임자) 치제시에 예관이만수(李晩秀)이 전달한 경연(經筵)에서의 국왕 [정조의 말을 부기하여 관에 의한 서적 반출을 엄금하였다.⁸⁸⁾ 즉 옥산서원에 ‘서원의 서책은 원문을 나갈 수 없다’는 원규가 이미 있으니 국왕이 책을 보고자 한다면 명을 내려 책을 가져오게 하면 되지만, 이는 원규를 어기는 것이 되기에 합당치 않다는 것이다. 옥산서원은 이러한 왕의 말을 「전여도록」에 부기하여 관아를 비롯한 유력자들의 서적 반출을 막고자 했던 것이다. 실제 1792년 이래로 경주부로의 반출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서적을 보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적의 서실(闕失)과 훼손은 심해지고 있었다. 1836년(헌종 2) 1월 15일 전여(傳與)할 당시에 당중⁸⁹⁾에서 서적을 점검해보니 권질(卷帙)이 중간에 서실된 것이 많음에도 이전의 전여시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서, 기록에는 있으나 뒤로 전수할 때는 없어서 새로운 신·구임 간에 많은 다툼이 생긴다고 하였다.⁹⁰⁾ 이후 서적의 반출을 금지하고, 그것의 근거를 드러내기 위하여 1840년(헌종 6) 경

88) 『서책전여도록』, “壬子 致祭時 仕臣領 筵教云玉山書院書冊不出院門已爲成規良庸嘉爲然 子欲見之則必當與之以此傳諭于士子處如有可觀 冊子卽爲齋來”

89) 『書冊傳與都錄』(經閣所藏書冊) 「丙申 正月十五日 傳與時 堂中」.

90) 1836년 전여 당시에 확인된 잃어버린 서적목록은 다음과 같다. 『宣賜 『孟子』(6卷前無), 『儀禮經傳圖解』(14卷內1卷前無), 『儀禮圖』(9권내1권전무), 『程氏臥書』(2권내1권전무), 『孔子通紀』(2권내1권전무), 『馬史』(3권내1권전무), 『註唐詩』(10권내1권전무), 『選詩少評』(6권내4권전무), 『小學講譜』(2권내1권전무), 『奉先雜義』(5권내3권전무), 『九經衍義』(3질내1질전무), 『武陵集』(8권내1권전무), 『孤松集』(2권 전무), 『瓶窩集』(9권내1권전무), 『修庵集』(3권내1권전무), 『省吾堂集』(2권내1권전무), 『孝經』(1권 전무), 『太極問辨』(新備1권전무) (『서책전여도록』, 『書冊傳與記中 前無來少出』)

각의 문미에 ‘서원서책 불출원문(書院書冊 不出院門)’ 현판을 걸었다.⁹¹⁾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적의 반출은 계속되었다. 이것은 1862년(철종 13) 5월 1일 당중 「완의」⁹²⁾에서도 확인된다. 완의를 보면, 근래에 책은 많으나 관리하는 사람은 적어서 혹 빌려간 것을 잊거나 오래되어 돌려받지 못하고 산실(散失)한 것이 허다하다고 하였다. 이에 서적을 일일이 점검하여 현전하는 실제 수량을 파악해서 다시 도록(都錄)을 작성하였다. 아울러 서적을 보고자 하는 자는 훼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임사(任司)를 경유하여 날짜와 사람, 책명을 기록한 후 열람을 하고, 열람이 끝나면 바로 반환하도록 했다. 혹 즉시 반환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임사가 따로 더욱 독려하고, 원임 교체 시에는 점을 찍어가며 책수를 도록에 의거하여 확인하되, 책을 잃어버리면 임사가 반드시 다른 것을 구하여 돌려놓도록 하였다.

이 완의는 서적의 관리에 있어서 임사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명시한 것이 특징인데 인수인계시에 잃어버린 서적의 책임소재로 분란이 많았기 때문이다. 주목되는 것은 서적의 열람을 원할 시 임사를 경유하여 날짜와 대여자, 책명을 기록하면 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서적의 반출이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 서원 운영에 유력한 가문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에서 나온 고육책이었다. 이런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옥산서원 「서책차거질(書冊借去稜)」이다. 여기서 확인되는 점은 서적의 주요 대출자들은 서원 인근에 거주하는 사족들로서 회재의 후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옥산서원이 인근 사족들의 지식문화 보급소로서 도서관적 기능을 했음을 확인시켜준다.

이상과 같이 장서와 책판을 소장한 서원에서는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이

91) 옥산서원에 전하는 「書院書冊 不出院門」 현판에는 1840년(庚子) 2월(仲春)에 의견을 수렴하여 적었다고 주기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서적 관리에 대한 서원 원규와 퇴계의 말, 1792년(임자)에 정조가 경연석 상에서 한 이야기를 판각한 것이다.

92) 『書冊現在都錄』, 1862(壬戌) 5월 1일. ‘完議翻附’

를 보관해왔다. 또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서 철저히 관리했다. 하지만 서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장서 관리도 부실해져서 장서의 망실이 증가하였다. 서원에서는 서고의 개폐 규정과 원임의 관리 책임도 강화하여, 훼손·망실된 서적은 해당 원임이 보상하도록 했다. 한편으로는 시대적 변화를 적용하여 서적의 대역을 공식화·체계화하였다. 이처럼 한국 서원은 철저하고도 능동적인 장서 관리를 통해서 향촌사회의 지식 보급과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IV. 맺음말

한국 서원 장서는 기증, 구매, 출판 등의 방법에 의해 구축되었다. 서원별·시기별로 차이는 나지만 장서의 토대를 형성한 것은 국가에서 내려준 내사본과 지방관, 후손, 문인들의 기증본이었다. 초창기 서원 운영과 관련하여 이들 서적의 기증은 서원 재정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다. 또한 당시 기증내사된 도서는 원규에 명시된 대로 유생들의 교육에 필수적인 경전과 사서, 성리서 등이 대부분이었다. 내사본은 사액과 함께 내려진 것 외에도 임란 이전까지 수차례 하사되었지만 전란 이후 국가 재정의 파탄과 당쟁의 영향 등으로 단절되었다. 이후 영·정조대에 도산·옥산서원과 같이 문묘중사 대현을 제향하는 서원은 왕명으로 내사본이 거둬 하사되었다.

17세기 중반이후부터 국가에 의한 반질보다는 지방관 개인내지 여타 서원·문중에서의 서적 기증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17세기 중반이래로 문중의 발달과 서원·사우의 증가와 궤를 같이하였다. 이외에도 상호교환 내지 등서(필사)를 통한 서적 구비도 보인다. 한편 구매를 통한 서적 구입은 초창기 서원 이래로 서원 장서를 구성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또한 각 서원에서 필요로 하는 서적을 갖추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활용되었다. 실제 대부분의 서원들은 건립 이래로 장서를 직접 갖춰야 했다. 기증과 내사를 통한 장

서 구비는 특수한 일부 서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적의 구입은 구매처의 제한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량 구매는 어려웠으며, 원하는 서적을 구매하지 못하기도 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이 적은 인출이나 필사, 교환을 통한 방법도 선호되었다. 하지만 18세기 이후 대부분의 서원에서 재정의 악화로 교육적 기능을 상실하면서, 장서도 갖추지 못한 서원이 많았다.

출판을 통한 장서 구비는 제향인의 위상과 서원의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났다. 그래서 서원에서의 출판은 각 지역의 거점 서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서원에서의 서적 출판은 제향인의 문집과 저서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옥산서원의 『한사열전초』, 『근사록』과 같이 교육 목적으로 제작된 것도 있다. 18세기 이후에는 제향인의 후손과 문인의 문집을 서원에서 간행함으로써 혈연적,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서원의 사회적 위상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렇게 수집된 장서와 제작된 책판들을 관리하는 것도 서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였다. 사액서원은 서적을 내사와 원비로 구분하여 책갑을 씌워 장서각·어서각 등에 보관하였다. 그 외에 서원 운영 과정에서 생성되는 필사본과 문서들은 그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였다. 이 중에서 서원에서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책들은 별도의 상자에 보관하였다. 책판은 속사에 보관하거나, 장판각 등을 건립하여 보관하였다.

수많은 장서는 서원 교육뿐만 아니라 서원의 위상을 알리는데도 주요했다. 대부분의 서원은 원규로서 정기적 점검과 서책의 반출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18세기 이래로 서원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많은 원사가 건립되면서 서원 운영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지방관과 후손가 및 일부 유력 가문들의 서적대여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완문과 완의 등을 제정하여 서적대여를 단속하고, 관리를 강화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래서 서적 반출을 막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서적을 대여하는 규정을 개정하되, 서적의 분실·훼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이래로 오랜 세월을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장서를 축적해 왔으며, 향촌의 지식인들은 서원을 이용하면서 지식을 습득·

보급해 나갔다. 이러한 도서관적 역할 외에도 제향인의 저서를 간행·보급함으로써 그의 학문을 전승·확산시켰다. 책판 제작과 서적 보급 과정에서 서원은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확대하는 한편, 그것을 통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이자, 공론 형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이수건 외, 『조선시대 영남서원자료』, 국사편찬위원회, 1999.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2.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 한국국학진흥원 편,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 한국국학진흥원 편, 『조선서원을 움직인 사람들』, 글항아리, 2013.
- 한국국학진흥원 편, 『도산서원을 통해본 조선후기 사회사』, 새물결, 2014.
- 한국국학진흥원 편,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글항아리, 2014.
- 李春熙, 「李朝書院文庫目錄考」, 『李朝書院文庫目錄』, 국회도서관, 1969.
- 박현규, 「병산서원서책목록의 분석과 그 특징」, 『季刊 서지학보』 94, 한국서지학회, 1994.
- 배현숙, 「퇴계 장서의 집산고:개인문고의 서원문고화의 일례로서」, 『서지학연구』 90, 한국서지학회, 1994.
- 이수건 외, 「조선후기 경주지역 재지사족의 향촌지배」, 『민족문화논총』 9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4.
- 이수환, 「회재 이언적과 옥산서원」, 『경주사학』 96, 동국대학교 사학회, 1997.
- 이수환, 「18~19세기 경주 옥산서원 원임직 소통을 둘러싼 적서간의 향전」, 『고문서연구』 96·17, 한국고문서학회, 2000.
- 박장승, 「경주소재 서원·사에서 간행한 전적고」, 『신라문화』 9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1.
- 배현숙, 「소수서원 수장과 간행 서적고」, 『서지학연구』 31, 한국서지학회, 2005.
- 설석규, 「조선시대 유교 목판 제작배경과 그 의미」, 『국학연구』 6, 한국국학진흥원, 2005.
-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의 도서관 기능 연구」, 『역사학보』 986, 역사학회, 2005.
- 김윤식, 「조선조 서원 문고에 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41, 한국서지학회, 2008.
- 김종석, 「도산서원 고전적의 형성과 관리」, 『고전적』 4,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 2008.
- 우정임, 「퇴계 이황과 그의 문도들의 서적 간행과 서원의 기능」, 『지역과 역사』

22. 부경역사연구소, 2008.
- 남권희, 「조선시대 경주 간행의 서적」, 『신라문화』 33,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9.
- 윤동원, 「옥산서원 소장 고전적 서목 비교 고찰」, 『경주문화』 97, 경주문화원, 2011.
- 이수환, 「영남지역 퇴계 문인의 서원 건립과 교육활동」, 『국학연구』 98, 한국국학진흥원, 2011.
-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5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 육영정, 「한국 서원의 장서와 출판문화」, 『한국의 서원문화1』, 한국서원연합회, 2013.
- 윤상기, 「조선조 경남지방의 서원판본」, 『서지학연구』 60, 한국서지학회, 2014.
- 육수환, 「조선시대 서적의 보급과 교육기관의 장서관리 -관 주도의 도서간행을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25(1), 교육사학회, 2015.
- 배현숙, 「영남지방 서원장서의 연원과 성격」, 『대동한문학』 46, 대동한문학회, 2016.
- 이병훈, 「경주 옥산서원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 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민족문화』 5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 임근실, 「16세기 서원의 藏書 연구」, 『한국서원학보』 4, 한국서원학회, 2017.
- 김정운, 「18세기 도동서원의 지식체계 구축과 공유」, 『한국서원학보』 7, 한국서원학회, 2018.
- 최우경, 『도산서원 광명실 장서의 변천과 서지적 분석』,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aks.ac.kr>)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https://www.ugyo.net>)

한국국학진흥원 소장자료검색 (<https://search.koreastudy.or.kr>)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디지털 아카이브 (<http://k-seowon.or.kr>)

Abstract

Changes in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Korean seowon collections of books

Lee, Byoung-Hoon*

The collection of seowon in Korea was built by donation, purchase, and publication.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by seowon and period, the foundation of the collection was formed by internal copies issued by the government and copies donated by local officials, descendants and writers. In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f the early seowon, the donation of these books greatly reduced the seowon's finances. Also, most of the books donated at that time were scriptures, librarians, and neo-confucian book, which were essential for the education of Confucian scholars as specified in the original rules. From the middle of the 17th century onwards, the donation of books from individual local government officials or other seowons and families increased rather than banjil by the state. In addition to this, the provision of books through mutual exchange or transcripts is also shown.

On the other hand, purchasing books through purchase has been the most common way to organize a collection of seowon since the early days of seowon. In addition, it was continuously used in that it was

* Reseaher Professor, Institute of Korean Cultural Studies in Yeungnam University / yukhl@ynu.ac.kr

possible to obtain the necessary books for each seowon. In fact, most seowon had to have their own collections since their establishment. The collection of collections through donation and visitation corresponds to some special vows. However, it was difficult to purchase books in bulk due to the restrictions and cost burden of the place of purchase, and some were unable to purchase the books they wanted. Therefore, methods such as withdrawals, transcriptions, and exchanges, which are less costly, were preferred. However, since the 18th century, most of the seowon lost their educational function due to financial deterioration, and many seowon did not even have a collection. The availability of collections through publication differed according to the status of the jehyangin and the economic power of the seowon. Therefore, the publication of the seowon was carried out centering on the base seowon in each region. Most of the books published in Seowon are the collections and books of Jehyangin.

One of the main tasks of the seowon was to manage the books collected in this way and the bookshelves produced. In the seowon, books were stored in Jangseogak and Seogak, etc., covered with bookcases. In addition, manuscripts and documents generated during the operation of the seowon were stored separately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mong them, the books considered particularly important in the seowon were kept in separate boxes. Bookboards were stored in the Jangpangak.

Most of the seowons wongyu, and regular inspections and taking out of books were prohibited. However, since the 18th century, as the finances of the seowon became difficult and many seowons were built, they had to comply with the book rental requests of local officials,

descendants, and some influential families who directly affect the operation of the seowon. In response, Wanmun and Wanui were enacted to crack down on book rental and strengthen management, but to no avail. Therefore, reflecting the reality that it is difficult to prevent books from being taken out, the regulations for lending books were revised, but responsibility for loss or damage of books was clarified.

As such, Korean seowon have accumulated collections in various ways over a long period of time since the 16th century, and intellectuals in rural areas acquired and disseminated knowledge while using seowons. In addition to this library role, Jehyangin's books were transmitted and spread by publishing and disseminating his books. In the process of book plate production and book dissemination, seowon was able to establish and expand social networks, and through it, it was able to establish itself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representing the region and an institution for forming public opinion.

Key word : seowon, library, Seowon regulations, collection of books, Wooden Printing Blocks

논문 투고일: 2021. 5. 30 심사 완료일: 2021. 6. 21 게재 확정일: 2021. 6. 22

19세기말 서원 강회를 통한 학파의 분화와 학설의 형성과정*

—주리사상을 중심으로—

정 순 우**

- I. 서론
- II. 산천재(山天齋) 강회와 제 학파의 만남
- III. 석사(禪石寺) 강회와 주리론의 분화
- IV. 오천강회(浣川講會), 도산 주리론의 대응
- V. 화서학파의 장담강회(長潭講會), 주리론적 척사론(斥邪論)
- VI. 결어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19말 조선의 강회(講會)가 사상의 분화(分化) 과정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지를 주리(主理) 철학의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주(寒洲) 이진상(李震相)이 제기한 심즉리(心卽理) 이론은 그의 사상적 모태 역할을 하였던 퇴계학파(退溪學派)로부터 맹렬한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미묘한 시점에 열린 산천재(山天齋) 강회(講會)는 한주 이진상의 주리론이 과연 남명학파(南冥學派)와 노사학파(蘆沙學派)의 중심부로 무난하게 진입할 수 있는지를 알려 주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이 모임은 사상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 모임에 주빈으로 참가한 박만성(朴晩醒)의 경우 이진상이 해설한 태극도설(太極圖說)과 심설(心說)에 대해 본격적인 비판을 제기하였다. 반면 조성가(趙性家)와의 토론은 이진상이 노사학파(蘆沙學派)와의 만남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특히 이 강회에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2813).

**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 chungsw@aks.ac.kr

참여하였던 후산(后山) 허유(許愈)는 스승인 이진상의 학설을 경상우도(慶尙右道) 지역에 뿌리내리고, 그의 사상을 남명 학파와 노사 학파 내부에 전달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어서 열린 선석사(禪石寺) 강회는 그 동안 퇴계 학파의 강력한 영향권 내에 경상우도 지역의 학문적 지형도(地形圖)가 재편되는 첫 단서를 보여 준다. 도산서원(陶山書院)의 원장(院長)을 역임하였던 이종기(李種杞)가 퇴계의 전통적인 학설을 대변하였다면, 장복추(張福樞)는 퇴계학과는 사상적 성향을 달리고 있던 여헌(旅軒) 학파의 주리론을 표방하였고, 이진상의 심즉리(心卽理) 설은 주리론의 또 다른 분화과정을 제시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선석사(禪石寺)의 강회는 영남(嶺南) 주리론의 분화과정을 잘 알려 준다. 한편 도산서원(陶山書院)의 학자들이 주관한 오천강회(浯川講會)는 퇴계의 주리철학이 이진상의 학설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리고 정치적 당파의 색깔을 뛰어 넘어 퇴계학파의 주리론(主理論)과 사상적 흐름을 공유하는 화서(華西) 학파의 장담강회(長潭講會)는 주리철학이 서양을 배척하는 척양(斥洋)의 논리로 전환하는 과정을 드러낸다. 이렇게 19세기 말 각각의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강회는 서로 다른 이념적 지평을 유지하면서도, 상호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새로운 시대정신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과 공감의 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강회(講會), 주리(主理), 심즉리(心卽理), 퇴계학파(退溪學派), 남명학파(南冥學派), 노사학파(蘆沙學派), 산천재강회(山天齋講會), 선석사강회(禪石寺講會), 오천강회(浯川講會), 장담강회(長潭講會), 이진상(李震相), 장복추(張福樞), 조성가(趙性家), 곽종석(郭鍾錫), 이종기(李種杞)

I. 서언

강회(講會)는 전통시대의 학자들이 상호간의 학설을 주고받는 가장 중요한 기회이다. 강회는 한 서원에서 행하는 소규모 강회에서부터, 주요한 학파나 한 지역의 유림집단이 함께 주관하는 대규모 강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을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는 19세기 말, 주리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체계를 놓

고 각 학파들 사이에서 진행된 다양한 논의들을 강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성주의 한주(寒洲) 이진상(李震相)이 제출한 ‘심즉리’의 강력한 주리론은 당대의 학인들로부터 격렬한 찬반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 논쟁에는 퇴계학과, 한주학과, 노사학과, 화서학과 등 주리론 계열의 여러 학파들과 경상우도의 남명학과 인물들도 강회에 참여하여 그들의 입장을 개진하였다. 19세기 말 조선의 지성계는 급변하는 국내외의 유동적 정세 속에서 강회를 통해 유학의 새로운 보편적 가치를 재정립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강회를 지나치게 미시적이고 분절적으로 해석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적어도 19세기의 강회는 여러 강회가 상호 연동적이고 유기적인 연쇄망을 구축하고 있었음을 논증해 보고자 한다. 즉 이 시기의 강회는 개별 서원의 교육활동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위기의 한말상황에 대한 사상적 응전이라는 공통의 화두를 갖고 있었다. 처음 살펴 볼 산천재 강회는 새로운 주리론을 주창하는 한주 이진상이 어떻게 남명학과와 노사학과의 중심부로 진입하는지를 알려 준다. 그 동안 퇴계학과의 강력한 자장안에 있던 경상우도의 학문적 지형도가 재편되는 첫 단서를 보여 준다. 한편 한주 이진상과 사미현(四未軒) 장복추(張福樞)가 주관한 禪石寺의 강회는 영남 주리론의 분화과정이 담겨있다. 도산서원의 학인들이 주관한 오천강회는 퇴계의 주리철학이 한주학설에 대응하는 양식을 알려주고, 화서학과의 장담강회는 주리철학이 척양(斥洋)의 논리로 전환하는 과정을 드러낸다. 이렇게 19세기 말 각각의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강회는 서로 다른 이념적 지평을 유지하면서도, 또 상호 연결되어 작동되는 ‘의미의 연쇄망’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II. 산천재(山天齋) 강회와 제 학파의 만남

1877년 이진상은 남명 소식을 추모하면서 강우지역 사람들과 함께 두 차례 지리산을 산행하였다. 이 시기 영남 학계는 퇴계의 주리론, 특히 그의 이

발론(理發論)에 대한 해석을 두고 매우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 파장의 중심 인물이 바로 한주 이진상이었다. 이진상의 아들인 한계(韓溪) 이승희(李承熙, 1847~1916)가 쓴 「한주선생행록」에는 “계문(溪門)의 정맥을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한강(寒岡) 정(鄭) 선생을 말하였고”, “후생과 리학(理學)을 말할 때에는 대신(大山) 이 선생의 설을 많이 인용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가 스스로 한강 정구와 대신 이상정을 잇는 퇴계학의 적통임을 자임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한주는 이렇게 퇴계학의 정맥을 자부하는 한편, 행장에서는 “부군은 젊을 때부터 남인·북인·노론·소론, 사가의 저술들을 통독하여 학설들을 폭넓게 보고 공정하게 취사하셨다”¹⁾라고 하여 한주의 학문적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기 한주(寒洲)가 주창하기 시작한 심즉리(心卽理)설과 이발일로설(理發一踏說)은 당대의 학자들로부터 엄청난 비판과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그의 학설이 퇴계의 심통성정설(心統性靜說)을 근거로부터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불만에서 연유한 것이다. 특히 한주의 학설이 양명학의 심즉리 설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하는 점이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안동권을 중심으로 한 퇴계학과는 한주의 주장이 퇴계의 철학적 명제인 심합이기설(心合理氣說)과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로부터 벗어난 것이기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주의 지리산 산행 길에는 경상우도의 학계를 주도하던 많은 학자들이 참여하였다. 박치복(朴致馥), 김인섭(金麟燮), 허유(許愈), 곽종석(郭鍾錫), 김진호(金鎭浩), 조성가(趙性家), 하용제(河龍濟) 등 30여인의 석유들이 참여하였다. 당시 경상우도에서는 한주의 심즉리설을 동조하는 학자들이 차츰 세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중심인물이 면우(旼于) 곽종석(郭鍾錫)이다. 그는 1870년 한주의 문하에 출입한 이후 심즉리설의 굳건한 계승자를 자임하였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퇴계학과 내부에서는 전통적으로 기의 역할과 지위를 승인하는 입장에 있었다. 그리고 마음은 이와 기의 합(心合理氣)이라는

1) 李承熙(이상하 옮김), 「寒洲先生行錄」, 한주 이진상 연구, 역락, 2006, 253~4쪽.

토대위에서 공부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곽중석은 한주의 학설에 기초해 기의 역할과 권능을 축소하고자 하였다. 그는 “그 근본은 리이고, 기는 단지 노복과 호위병인 것처럼 마련된 것이다”라고 하여 절대적인 이 우위론을 견지하고 있었다. 퇴계의 학설이 ‘리기호발설(理氣互發說)’에 터하고 있다면, 한주의 주장은 ‘리발일로설(理發一露說)’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곽중석이 수용한 한주의 성리설은, 이기론에서는 리의 역할과 지위를 강조한 리주기자(理主氣資)이고, 심성론에서는 심이 일신의 주재이며 심에 지각이 있다는 점에서 심을 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곽중석이 주장하는 ‘심과 성은 진실로 한물이다’라는 명제는 사실상 양명학적 심학으로 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안동의 퇴계학파들이 가장 우려한 대목이다.

강회가 있던 날, 우도의 대표적인 학자들은 한주의 방문을 환영하여 남사리의 사장(沙場)에서 한주를 빈(賓)으로, 만성(晩醒) 박치복(朴致馥)을 주인으로 한 향음례를 개최하였다. 이어서 강좌를 개설하여 한주가 태극도설을 강론하였다. 그리고 산천재로 이동하여 수십인이 참여한 가운데 조성가와 더불어 기호와 영남의 사철론의 이동(異同)에 대해 토론을 전개하였다.²⁾ 그의 이러한 강론은 경상우도에 상당한 찬반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우선 한주의 태극도설을 들은 박치복은 다음 해에 태극동정변(太極動靜辨)을 지어 그의 견해를 반박한다. 만성 박치복은 정재 유치명과 성재 허전, 두 문하에서 수학한 퇴계학파의 한 사람이다. 만성은 태극이 홀로 동정할 수 없고 반드시 음양이 함께 있어야 하니, 음양을 떠나서 태극의 동정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따라서 기(氣)를 떠나서 리(理)를 말하면 리(理)가 공허하고 추상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퇴계학의 종지를 극력 주장하였다. 만성은 심설에서도 만성은 리와 기의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 하였으며, 특히 기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였다. 이는 역시 리만으로 심을 정의한 한주의 심즉리(心卽理)를 논박하기 위한 것이다.³⁾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강우지역에는 아직도 퇴계학의 강한 영향력

2) 『晩醒先生文集』, 권10, 〈南遊記行〉.

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조성가와외의 토론은 그에게 노사학맥과의 만남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성가는 주리론을 주장하던 노사 기정진(奇正鎭)의 고제(高弟)이다. 율곡을 정점으로 하는 기호계열의 학자들은 리의 주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미묘한 차이를 드러낸다. 율곡은 기본적으로 기에 대한 리의 주재를 인정하고 있지만, 리무위(理無爲)의 입장을 견지하며 리를 기 운동의 추뉴 내지 근저로만 본다. 그러나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와 노사 기정진은 리의 주재를 근거나 추뉴라는 소극적 입장을 넘어서 명령과 같은 적극적인 측면으로 이해하며 강한 주리론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점에서 한주학과와 노사 학파는 상호 학문적 접점을 갖고 있었다. 산천재의 강회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시켜 준 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 강회에 참여하였던 후산(后山) 허유(許愈)는 스승인 한주의 학설을 경상우도에 뿌리내리고, 그의 사상을 남명학과와 노사학과 내부에 전달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는 남명의 <신명사도>에 대한 해석과정에서 노사 기정진의 적전인 노백헌(老柏軒) 정재규(鄭載圭)와 심교하게 된다. 후산은 남명을 통하여 강우 사림들의 사론을 결집하고자 하였다. 성양(聖養) 이정모(李正模)에게 보낸 글을 보면, 한주, 박만성, 광면우 등을 산천재로 초치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불발하였던 사정이 실려 있다.⁴⁾ 또한 원히(元可) 하재성(河在聖)에게 보낸 편지에서 “산천재에서 현송(絃誦)의 소리가 끊어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군이 만약 동지들을 불러 모아 그곳에서 독서를 한다면 노선생의 유품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니, 비록 절름발이라고 하더라도 낱아서 장차 풍교(風敎)의 바람 아래에서 몸을 솟구쳐 일어날 것이다”⁵⁾

3) 이상하, 「晩醒 朴致馥의 학문 淵源과 心畧理說 비판」, 『남명학연구』 23권, 2007년.

4) <與李聖養>. 3:52, “天齋會事 洲上遠不可請 醒丈姑未許可 鳴遠以座下不來亦爲觀望 書中引老先生海寺脫箕語辭”

5) <答河元可>. 3:119, “山天齋無絃誦久矣 君若唱同志讀於此 使老先生遺風 不墮於地 雖跛躄如愈者 亦將聳動於風下矣”

라고 하여 산천재를 유교 부흥의 중심지로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천재의 강회를 통해 한주학파와 노사학파, 그리고 남명학파의 사상적 결합을 꾀하고 있었다.

왜 한주학파는 주리론을 강화하는 전략을 세웠을까? 후산이 볼 때 율곡학파의 공부론은 지나치게 기국(氣局)의 세계, 즉 분수(分殊)의 세계에 매몰되어 이 세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가장 확실한 대안은 곧 심이 리라는 사실을 투철하게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우선 그 이론적인 근거를 퇴계에서부터 찾고 있다. 한주는 말하기를, “퇴계 이 선생은 심을 논하여 통성정(統性靑) 합이 기(合理氣)라고 하였다. 그러나 중도(中圖)에서는 이(理)만 가리켜 심이라 하고, 하도(下圖)에서는 기를 겸하여 가리켜 심이라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합이(合理氣)는 곧 옥과 돌이 함께 있는 것을 말하고, 이(理)만 가리켜 말한 것은 그 소용이 옥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고, 기(氣)를 겸하여 가리킨 것은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것이 실로 돌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하여 심의 본체는 궁극적으로 이(理)임을 강조하고 있다.⁶⁾

이들이 심즉리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이의 주재성(主宰性)에 있다. 심이 비록 이기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는 언제나 이의 명령을 따르고 추종하는 종속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이렇게 이(理)를 주장하는 것은 분수(分殊)를 기의 영역으로 놓고, 이(理)도 중국적으로는 기의 작용에 국한되고 종속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다.⁷⁾ 후산을 포함한 한주학파는 한말의 위기상황에서 퇴계와 남명의 사상적인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정신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후산은 그 대표

6) 『寒洲全書』 667쪽, “心爲太極之語 揭之於啓蒙之首 而以一動一靜未發已發之理當之 又曰 心固是主宰底 而所謂主宰者 卽此理也 又曰 元亨利貞 天地生物之心 而人得之爲心 未發而四德具 已發而四端著 又論良心以認之爲氣有存亡而欲其致養於氣爲非”

7) 졸저(공저), 『후산 허유의 학문과 사상』, 숲이, 2007, 233~257쪽

적인 인물이다. 그는 남명사상과 퇴계사상을 그의 고유한 심즉리설을 통하여 통합해 보고자 하였다. 그의 <신명사도혹문>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는 남명의 신명사도를 주리론적 형식 속에서 해석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심의 주재(主宰)적 권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그는 퇴계의 이발(理發)설을 더욱 밀고 나가 분수(分殊) 속에서 작동하는 기의 의미를 축소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그의 논의는 이미 상당 부분 양명학적 요소를 잉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퇴계학파가 한주학파를 공격하는 강력한 이유가 되었다. 산천재 강회는 영남의 학문적 지형도가 새롭게 재편되는 것을 알려 주는 신호탄이었다.

Ⅲ. 선석사(禪石寺) 강회와 주리론의 분화

1878년, 성주 서진산(棲鎭山) 자락에 있는 선석사(禪石寺)에서는 주목할 만한 강회가 있었다. 이 강회에는 70대의 한주 이진상(1818~1886)부터 30대의 면우 곽종석(1846~1919) 등이 참석하였다. 이 강회는 비록 서원에서 주관하는 강회는 아니었으나 조선 유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적지 않다. 강회는 여러 점에서 특징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강회를 한주학맥의 학술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⁸⁾ 그러나 이 강회의 성격은 몇 가지 점에서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임에 참가한 인물 중에서는 한주의 학설을 옹호하는 인물들이 있는 반면에, 그의 학설에 반대하고 기존 퇴계학의 학설을 충실히 승계하는 인물들이 다수 있었다. 이 강회는 특정 학파에 의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되었거나 주도된 것은 아니었다. 만구 이종기가 유선석록(遊禪石錄)에서 술화하고 있듯이 이 모임은 단성에서 면우 곽종석과 물천 김진호라는 걸출한 두 인물이 유산(遊山)을 위해 이 지역을 방문한 것이

8) 권오영, 「강우학자들의 학문활동」, 『남명학연구』 11집.

계기가 되었다.⁹⁾

그리고 이 강회는 성주, 칠곡 지역 명문가들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계회(契會)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성주, 칠곡 지역의 유력 가문들은 문한과 학연을 바탕으로 강한 지역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방산 허유의 조부인 허임(許愼), 사미현 장복추의 종조부인 장도(張勳), 완정(浣亭) 이언영(李彦英)의 후손인 이존영(李存永), 야계 송희규의 후손인 송천흠(宋天欽), 그리고 이진상의 부형인 한고(寒皋) 이원호(李源祐) 등 이 지역의 가장 유력한 학자들은 ‘향산구로(香山九老)’의 옛 고사를 본떠 ‘구계(九契)’를 조직하였다.¹⁰⁾ 이후 그들의 후손 대에 이르기까지 선석사를 중심으로 ‘담경부시(談經賦詩)’의 활동을 이어갔다. 선석사 강회에 참여한 인물들도 이 계회의 후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산청에서 온 김진호(金鎭祐)·곽종석(郭鍾錫) 이외에, 이종기(李種杞)·송내흠(宋來欽)·이만응(李萬膺)·송흥규(宋鳴奎)·허훈(許薰)과 그의 아들 허용(許庸), 이만수(李萬洙)와 그의 아들 이덕후(李德厚), 송진익(宋晉翼)과 그의 아우 송종익(宋宗翼), 이승희(李承熙)와 종제(從弟) 이건희(李健熙) 등이 참여하여 십 여일 동안 머물며 학문을 강토 하였다.

그럼 우리는 이 강회가 지닌 지성사적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강회에 참석한 만구(晩求) 이종기(李種杞, 1837~1902)의 경우에는 도산서원 원장을 역임할 정도로 퇴계학의 적통을 이은 인물이다. 그는 가학을 통해 대산 이상정과 정재 유치명의 학문적 계보를 잇고 있었다. 유치명은 1846년 고산서원(高山書院)에서 유생 수 백명을 대상으로 강회를 개최하면서 대산 이상정을 퇴계 도학의 적통으로 자리할 것을 주장할 정도로 안동 유림의 종장으로 자리한 인물이다. 그러나 한주는 그의 면전에서 심즉리의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유치명은 이진상과의 토론을 통해 ‘심즉기’설을 주장하는 이진상과는 달리 퇴계의 ‘심합이기(心合理氣)’설을 극력 변호한 바 있다.

9) 『晩求先生文集』 卷八, 〈遊禪石錄〉, “是會也. 初非約期毋邀. 只以二友之來. 或聞風而從. 或扳聯而至. 而有文行志向者. 少長咸集矣”

10) 『舫山先生文集』 권3, 〈遊禪石山房〉.

선석사 강회에 참석한 이진상은 주리적인 측면을 보다 부각시켜 리와 기의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입장이라면, 이종기는 유치명처럼 리와 기의 조화와 공존의 측면을 보다 강조하려는 입장이었다. 심성론과 관련해서도 한주학과는 심즉리설을 주창함으로써 이황의 심합이기설(心合理氣說)을 고수한 이종기와 대립하였다.¹¹⁾ 이진상이 퇴계철학을 이기불상잡(理氣不相雜)을 강조하는 수간(垂看)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주설(理主說)을 극단으로 밀고나가 당위론적 세계관을 구축하고자 하였다면, 이종기는 상대적으로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라는 횡간(橫看)의 입장에서 기의 존재론적 위상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세계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진상은 이종기를 강회에 초대하고 이종기는 열흘 동안의 강회 내내 객관적인 입장에서 강회의 진행과정을 기록하였다.

한편 산청에서 이 강회에 참석한 물천 김진호와 면우 곽종석은 평생의 지우였으나 그 사상적 결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앞에서 이미 말한 바처럼 면우 곽종석은 한주의 학설위에 그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반면 김진호는 평생 퇴계학문을 근간으로 하고, 그 위에 남명의 정신을 수용하려 한 인물이다. 그는 한주처럼 율곡의 이통기국설을 인정하였으나, 한주의 수간설(垂看說)을 받아들이지 않고, 퇴계 이후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이기불상리의 혼륜간(渾淪看)을 수용한다. 그는 한주처럼 이발일도(理發一途)를 주장하게 되면 사단과 칠정을 구분함에 소주(所主)가 흐려져서 이발과 기발로 나눈 근본 의미가 흐려진다고 보았다.¹²⁾ 이기론에 대한 퇴계학의 보편적인 학설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진상과 사돈 사이이자 막역한 학문적 동지인 또 다른 참가자 방산(舫山) 허훈(許薰, 1836~1907)조차도 「心說」을 지어서 이진상의 성리학적 입장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 모임에서 한주와 함께 강장을 맡았던 사미현(四未軒) 장복추(張福

11) 임종진, 「晩求 李種杞의 성리학적 입장에 대한 검토」 『영남학』 43집, 2008.

12) 이상하, 「물천 김진호의 학문성향과 성리설」, 『남명학』 21집, 2006, 135~137쪽.

樞, 1815~1900)도 그만의 독자적인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고, 강회를 통해 그의 학설을 강설하기를 즐긴 인물이다.¹³⁾ 사미현은 한주와 오랜 세의를 지니고 있었고 그의 학설을 존중하였지만, 한주가 주장하는 심즉리설(心卽理說)에 대해서는 선학(禪學)의 혐의가 있다고 하여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 사미현의 학설은 퇴계학과도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다. 사미현은 『숙흥아매잡집설』의 서문에서 이 책은 송유들의 제설을 섭취하고, 그 위에 퇴계와 대산, 그리고 한강 정구의 「심경발휘」, 그리고 그의 선조인 여헌 장현광의 학설을 종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당시 퇴계 적전들로부터 배척받았던 여헌의 학설을 공부론의 관점 속에서 다시 복권시키고, 그것을 대산 이상정의 학설과 종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그는 이 책에서 「숙흥아매잡」 해석을 둘러싸고 퇴계와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소재 노수신의 학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채택한다.

사미현의 『숙흥아매잡집설』은 조선조말 영남에서의 경론(敬論)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가를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그의 공부론에서는 형이상학적 주제에 관한 논의가 대폭 약화되었다. 예로 그의 공부론에서는 ‘상달처(上達處)’에 관한 고심이나 ‘천명(天命)’에 관한 관심이, 퇴계와 비교하여,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또한 그의 공부론에서는 ‘야기장’에 대한 해석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강우 지역의 독특한 기론(氣論)이 일정 부분 스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그의 경 공부가 지향하는 마지막 희원(希願)도 한말의 파멸적 상황을 구원할 ‘구시증세(救時拯世)’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구세(救世)’에 언제나 적극적이었던 남명학의 한 특성을 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⁴⁾

13) 그는 64세 때 이진상과 함께 선석사에서 강의한 후, 70세 때에는 모원당에서, 71세 때에는 하산(夏山)의 낙빈재(洛濱齋)와 월천(月川)에서, 72세 때 청천서당(淸川書堂)에서, 79세 때 동락서당(東洛書堂)에서, 80세 때 묵방(墨坊)의 송단(松壇)에서, 85세 때 구옥재(求勗齋)에서 강회를 열었다. 강회의 내용은 〈모원당강의(慕遠堂講義)〉·〈묵방강의(墨坊講義)〉·〈월천강의(月川講義)〉 등이 있다.

14) 줄고, 「사미현 장복추의 『숙흥아매잡집설』 연구」, 『영남학』 14호, 2008.

이렇게 참가자들이 비록 사상적 결은 달리 하였지만, 강회의 분위기는 매우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곽종석은 당시 강회의 분위기가 “인향(仁鄉)의 풍속의 아름다움과 사우들의 유종(游從)이 성한 모습이었다고 찬탄하였다. 본격적인 강회는 23일, 이진상의 아들인 한계 이승희(李承熙, 1847-1916)가 한주에게 회집을 고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첫 날에는 낮에는 『소학』을 강하고 밤에는 불도(佛道)의 극성함에 대한 대처 방안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이승희와 곽종석이 이단을 일소에 제거하는 방안을 논하자, 이종기는 이 세계의 구성이 '대대소장(對待消長), 불용독립(不容獨立)'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구과와 복과의 과사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승희 등은 불교 등 이단에 대한 좀 더 원칙적이고 과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이러한 이들의 토론의 밑바탕에는 기실 '이기불상잡'과 '이기불상리'를 둘러싼 양측의 이론적 다툼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29일에도 이 두 사람은 중용의 예지(叡智)설에 대해 이종기는 기질의 측면에서 보고, 곽종석은 '성리'의 측면에서 보아 심즉리설에 대한 양측의 이견을 조정하였다. 24일에는 이진상의 저작인 「중용의의 中庸疑義」에 대하여 토론이 있었고, 연이어 3일간 중용에 대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아쉽게도 중용 부분에 대한 자세한 강록(講錄)이 남아 있지 않아 그 전말을 알 수 없지만, 한주의 심즉리설에 대한 중점적인 토론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장석(丈席)에 함께 좌정한 한주와 사미현의 중용 해석은 경상우도의 학문적 풍향도가 어떻게 갈라지고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알려 주는 것이라 하겠다.

VI. 오천강회(浯川講會), 도산 주리론의 대응

오천 강회는 1892년 용산(龍山) 이만인(李晩寅, 1834~1897)¹⁵⁾이 주도하여 예천에 있는 오천의 향사당에서 시행되었다. 유사(遺事)에는 『대학』을 강론

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난다.¹⁶⁾ 죽인이자 제자인 봉강(鳳岡) 이만여(李晩興, 1861~1904)의 기록을 보면 영남 일원에서 대규모의 인원이 참가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강록 講錄>을 남겼다는 기록은 보이나 현재 실전된 상태다. 다만 그의 문집과 이만여의 『봉강집』에서는 당시의 실상을 알려 주는 자료들이 산견된다. 동전(東田) 이중균(李中均)이 쓴 이만여의 묘갈명은 당시 강회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이 때에 한주(寒洲) 이진상(李震相)이 책을 써서 심즉리(心卽理)설을 주장하였는데 공이 그 가장 핵심 되는 근원치를 부숴버리니, 그 책의 옳지 않은 바를 드러내었다. 또한 일찍이 『寒江續稿』의 9조 변답(辨答)에 관해 논했는데 대학 정심(正心)장은 전적으로 ‘성찰’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을 도산서원의 본지에 근거하여 밝혔다.¹⁷⁾

이 기록에서 우리는 오천강회가 한주 이진상의 심즉리설에 대한 도산서원 측의 공론을 모으기 위한 자리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리에는 강좌의 인물뿐만 아니라 강우의 학자들도 참여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성주와 합천, 산청 등의 퇴계학과 인물들이 다수 참여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 시기 도산서원은 한강 정구와 여헌 장현광 같은 이른바 강안학파의 새로운 학문적 분기(分岐) 양상에도 상당한 위기감을 가졌다. 인용문에 실린 『한강속집』의 9조는 여헌이 존양성찰에 관한 퇴계의 해석에 의문을 표한 부분이다. 이만인은 존양성찰설에 대한 여헌과 한강의 견해에 대해 반박하면서, 양인의 해석이 자칫 존양과 성찰 공부를 함께 중시하는 퇴계의 학설을 흔들 수 있음을 경계하였다.¹⁸⁾

15) 이황의 11세손. 1881년에는 영남만인소의 소본(疏本)을 기초하였다.

16) 『용산문집』, 권 11, 遺事, “壬辰 講會傳 于泗泉之浯川樹”

17) 『鳳岡先生文集』, 권3, <墓碣銘>, “壬辰陪龍山公 赴浯川講會 江左右多士 卽席問難 而公在其傍 隨所問辨 答條理明暢 人皆屬目 時寒洲李公震相 著書有心卽理之說 公辨破源頭 爲一書以言其非是 又嘗論寒岡續稿九條辨答 而於大學正心章 根據陶山本旨 專主省察”

18) 자세한 논의는 줄고, 「퇴계의 강학활동과 도산강회」,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강장(講長)인 이만인은 퇴계 학단 내에서 중망을 받던 인물이다. 그는 도산 서원의 갑인강회를 주도하였던 할아버지 이효순(李孝淳)으로부터 가학을 전수 받아 퇴계학의 종지를 이었다. 1850년 도산서원의 고강(考講)에서는 『서경(書經)』을 강해 고계 이휘령(李暉寧) 등으로부터 깊은 학문적 신임을 얻었다. 위의 시에서 “난쟁이 등 위에 천근의 무게를 지우네”라고 술회할 정도로 사림의 신망을 받고 있었다. 그는 강장으로 이 시기 이미 흔들리던 퇴계학의 위상을 고양할 책임이 있었다. 그는 강회를 통해 학과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의 도전에 학문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가 1881년에 이만손(李晩孫) 등과 함께 영남만인소의 소본(疏本)을 기초하였던 사실에서 이러한 위기의식을 읽을 수 있다.

이만인의 오천강회는 서학에 대한 대응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한주 이진상의 심즉리(心即理) 설에 대한 퇴계학과의 응전이라는 성격이 더욱 농후하였다. 그는 이 강회에서 대학을 교재로 삼아 새로운 학설을 반박할 수 있는 내부 논리를 가다듬고자 하였다. 당시 한주 이진상의 심즉리설은 퇴계학의 본격적인 분화를 알리는 신호탄의 역할을 하였다. 한주학파의 심즉리설은 심통성정론을 견지하는 퇴계학파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었다. 이만인(李晩寅)은 바로 한주의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그는 한주가 성(性)만이 아니라 칠정도 리발이라는 ‘이발일도설(理發一途論)’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것은 율곡 이이의 ‘기발일도설(氣發一途論)’을 부정하려다가 스스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공박하였다. 이에 대해 이승희는 이진상이 말한 리발일도론이 퇴계 이황과 대신(大山) 이상정(李象靖)에 연원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비판의 표적을 벗어난다. 곧 일찍이 퇴계는 성과 정이 하나의 리라고 말하였고, 그것을 대신 이상정은 성은 미발의 리이고 정은 이발의 리로 이어 받았는데, 이진상은 대신의 설을 그대로 따랐을 따름이라고 말하였다. 이승희의 이러한 말은 사실 퇴계의 도통은 한주에게로 전해졌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지의 주장이다. 이에 이만인은 이승희에게, 면우 곽중석과 객의 일화를 들어, 이 설은 양명학으로 오인될 위험성이 많으며, 양명학은 불교의 선학으로부터 유래된 것임을 강조한다.¹⁹⁾

이만인의 유사(遺事)에 따르면, 원래 오천 강회에 대하여 기록한 강록(講錄)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강록의 원본은 지금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이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이만인과 이만여의 문집에는 당시 강론한 『대학』에 관한 문답이 실려 있어 강회의 흐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만인은 이 문답에서 율곡설과 퇴계학설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한주 학설의 맹점을 드러내었다. <심성명덕(心性明德)조에서는 이들 각 개념이 퇴계와 율곡의 사상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논의하고, <이여기합(理與氣合)조에서는 율곡의 학설이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만 알고 ‘이기불상접(理氣不相接)’을 알지 못해 나정암의 선학(禪學)의 폐단으로 흘러들었다고 공격한다. <성발위정심발위의(性發爲情心發爲意)조에서는 율곡의 학설이 심과 성을 혼합함으로써 양자가 따로 발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오천강회에서는 한주 이진상의 ‘심즉리(心卽理)’설 뿐만 아니라, 율곡의 ‘심즉기(心卽氣)’설이 강회의 주요 쟁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²⁰⁾ 오천강회는 퇴계학과가 격변하는 한말의 사상사에서 주리론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기획한 모임이었다.

V. 화서학과의 장담강회(長潭講會), 주리론적 척사론(斥邪論)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 1792~1868)의 이기론은 ‘리(理)의 주재’만으로 일관된 체계를 꾀하는 것이다. 이항로는 ‘리의 주재’를 강조하기 위해 리를

19) 『용산문집』 권4, <答李繼道>, “此非陽明說與 應之日 陽明所謂心卽理者 由禪會而出者”

20) 『용산문집』, 권5, <答族弟希曾 萬興>.

‘능동적 존재’로 규정한다. 그런 점에서 이항로의 주리론은 놀라울 정도로 퇴계학과 대강을 같이 하는 것이다. 심을 ‘리기의 묘합’으로 규정하는 것도, 리기의 불상리(不相離)를 전제로 리발과 기발을 분개(分開)하는 것도 그렇다.²¹⁾

이들 화서학파도 강회를 통해 그들의 주리사상을 전파하고자 노력하였다. 평묵의 「연보」에 따르면, 그 역시 자신의 문인들과 활발하게 회강하였다. 김평묵은 이미 30대 후반부터 문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강회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 졌고, 김평묵의 강회기록이 남아있는 『석담일기(石潭日記)』가 남아 있다.²²⁾ 화서 문인 중 19세기 말 강회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한 인물은 성재(省齋) 유중교(柳重敎, 1832~1893)이다.

이미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성재 유중교(1832~1893)는 이항로를 종장으로 하는 화서학파의 적전을 이은 인물이다. 그는 중암(重庵) 김평묵(金平默)과 함께 한말 척사(斥邪) 의리사상의 중심을 이룬 인물이다. 그들의 의리론은 성리학의 수용에서도 기호학과 전통의 ‘심주기설(心主氣說)’이 아니라 ‘심주리설’을 주장하는 퇴계적 사유로 발전한다.²³⁾ 학통은 율곡의 적전을 이은 것으로 자임하였으나, 그 실제적 내용은 퇴계에 더욱 근사한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그들의 사유체계로 볼 때 논리적으로 지극히 당연하다. 화서는 ‘이기결사이물(理氣決是二物)’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퇴계의 철학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들 화서학파의 인물들은 세계사적인 지각변동의 외중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기존의 유학적 세계의 한 축을 고집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리우위론적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들 사상의 특징은 흔들리는 기적(氣的) 세계의 혼동 속에서도 리의 독존을 확인하는 존리적(尊理的) 태도에 있다. 화서학파는 기본적으로 이 세계를 이원론적인 구도 속에 갈라 둔다. 그들은 이 세계를 사(邪)와 정(正), 화(華)와 이(夷), 의(義)와 이(利) 사이의 대립적인 관계로 이해한다. 그들은 선악에 대한 명확한 논리적 구별이 바로 신

21) 이상익, 「화서 이항로의 주리론과 퇴계학」, 『퇴계학보』 117호, 2쪽

22) 김대식, 「화서 문인공동체 강회의 실제」 『교육사학연구』 21집, 2011.

23) 금장태, 『한국근대의 유교사상』, 서울대 출판부, 1990. 36면

범화되어 현실 속에서 실천성을 지닐 것을 요구하였다. 리(理)와 선(善)의 세계는 공허한 추상의 영역에서 홀로 부유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삶과 역사 속에서 그 기능을 다할 것을 기대하였다. 유증교가 주도한 장담강회(長潭講會)의 역사적 의의는 이러한 맥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²⁴⁾

1886년 그의 나이 55세일 때 유증교는 춘성(春城)에서부터 제천 장담(長潭)으로 이거하였다.²⁵⁾ 그리고 이거 후 3년째인 기축년 11월부터 매월 상순·중순·하순에 장담서사(長潭書社)에서 강회를 개최하고 이를 《장담강록 長潭講錄》이라는 문건으로 기록하였다. 이 강록에 대해서는 의병활동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상당한 관심을 불러 모았다.²⁶⁾ 장담강회와 강록은 크게 4기로 구분된다. 즉 1기는 1889년 11월부터 1893년 1월까지 성재에 의해 주도되었고, 2기는 1893년 6월부터 1895년 5월까지로서 성재 사후의 과도기이고, 3기는 1895년 윤 5월부터 동년 10월까지로 유인석에 의해 주도되어 의병항쟁으로 연결되었고, 4기는 1902년부터 1905년 사이에 성재(省齋)와 의암(毅菴)의 문도에 의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성재에 의해 주도된 제 1기의 경우에도 이미 후일 의병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수의 인물들이 강회의 구성원임을 알 수 있다. 예로 후일 제천 전투에서 순국한 하사(下沙) 안승우(安承禹), 낭천 전투에서 순국한 경암(敬菴) 서상렬(徐相烈), 충주성 전투에서 순국한 입암(立巖) 주용규(朱容圭), 강계에서 순국한 이범직(李範稷), 수안보 전투에서 순국한 괴은(槐隱) 이춘영(李春永) 등 후일 제천 의병이 핵심들은 모두 이 시기부터 강회에 참가하였던 인물들이다. 따라서 후일 유

24) 이하 장담강회에 관한 논의는 줄고, 「舊韓末 儒學教育에 나타나는 改革과 守舊의 論理」, 『종교교육학연구』 7집, 1998 근거하였다.

25) 이 해는 그가 김평목에게 그 유명한 「調補華西先生心說」을 보내 화서의 사상을明德과 心의 이기론으로 분석하여 화서학과 내부에 상당한 충격을 안겨 준 해이다.

26) 金祥起, 『甲午·乙未義兵研究』(한국학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및 “제천 을미의병의 전개와 성격”(『제천을미의병100돌 기념학술논문집』, 세명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6) 참조.

인석에 의해 주도되었던 을미의병운동은 이미 성재에 의해 주도된 초기 강회로부터 척사(斥邪)에 대한 그 사상적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시행했던 강회의 형식과 절차는 조선조의 여느 강회와 커다란 차이점을 보여 주지 않고 있다. 유중교의 <서사순강의 書社旬講義>에는 강회의 운영절차와 의례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강회는 통상적으로 매월 10일 20일 30일 마다 소강회가 있고, 춘추로 한 번씩 대강회를 열어서 학문을 연마하고 학습의 정도를 평가하고 학과의 단결을 공고히 하였다. 그리고 춘추로 향음례와 향사례를 개최하여 풍속의 교화와 단합을 도모한다. 또한 강회는 엄격한 의례에 따라 진행되며 강회의 주요한 업무는 기능적으로 분담된다. 우선 강회에는 그것을 주재하는 강장이 있고, 또 강회를 참관하는 초청인사(賓) 및 그 대표격인 빈장(貧長)이 있다. 그리고 사례(司禮)가 있어서 강회진행과 의전절차를 담당하고, 사강(司講)은 강회의 내용을 기록하는 역할을 하며, 사정(司正)은 강회가 질서 있고 성실하게 진행되도록 예의(禮義)를 감찰한다. 독홀(讀笏)은 홀을 잡고 읽어서 차례를 알린다. 그 외에도 시설과 물품 준비를 담당하는 사설(司設), 음식준비를 맡는 사궤(司饋), 상을 주는 것을 책임지는 사상(司賞) 등으로 기능을 분화하여 각자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강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돕는다. 강회의 순서는 필요한 시설과 물품준비(陳設), 자리에 나아가 앉기(就立), 차례로 외우고 강학하기(序誦), 마주보고 강론하기(面講), 회식(饋食), 시상과 벌(行賞), 암송(讀戒), 마치기(罷講)의 여덟 단계로 진행되었다.²⁷⁾

이러한 강의(講義)는 조선시대 서원을 중심으로 행해지던 강회의 일반적 패턴과 형식의 측면에서는 그 모습을 크게 달리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실제적인 분위기는 매우 엄숙하고 정제된 종교적 색채를 띠고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로 이정규(李正奎)의 『종의록 從義錄』에 의하면 을미년에 서사에서 향음례가 시행될 때, 관원이 새롭게 제정된 문패와 명령장을 갖고 오자 이

27) 『省齋集』 권36, 26-29면.

를 찢고 불태웠다²⁸⁾는 기록이 보일 정도로 그 분위기는 매우 고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회에 대한 초기의 기록을 보면 참석 인원은 처음 10명에서 출발하여 차츰 증가하여 대체로 20명 내외로 구성되었다. 기축년 최초의 강회에서는 강장인 성재를 중심으로 직분에 대한 별다른 구별이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2년 뒤인 신묘년(1891) 부터는 사강(司講)·독홍(讀笏)·사례(司禮)·고과(考課) 등의 직역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이한 사실은 학생들도 제생(諸生), 동몽(童蒙) 교생(校生) 등으로 신분적 차별을 두어 분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신분적 구분은 후일 제천의병에서도 평민출신 김백선 대장의 처형으로 나타난던 계층 간 불화의 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그들은 강회를 통하여 이념적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신분의 봉건적 차별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회에서 사용된 텍스트도 소학과 사서, 주역, 그리고 근사록을 포함한 성리학이 주로 사용되었다. 유인석이 소학에 대해 “천하와 국가를 다스릴 근본이니 이 책이 천지에 있게 된 것을 어찌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천지 사이에 이 책이 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근본이 섰다 할 것이다. 책을 읽는 자는 이 책을 근본으로 한 후에 성현의 경지에 함께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²⁹⁾라고 소학에 엄청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에서 그들이 지향하는 세계의 일단을 이해 할 수 있다. 수구(守舊)를 통해 척사의 세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수구는 단순한 복고적 취향의 수구가 아니라, 천하와 국가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존의(尊義)의 수구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기 강론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으나 을미의병을 전후한 시기에는 역사속에서의 의병활동과 척양에 기록이 다수 산견된다. 예로 「요동백 제문 遼東伯祭文」·「출사표 出師表」·「문천상 의대명문天祥衣帶銘」 등은 다른 시기

28) 李正奎, 『從義錄』, 16~17쪽.

29) 유인석, 『毅菴集』 권51 〈宇宙問答〉, 46~47쪽.

의 강록에는 나타나지 않고 3기 을미년 강록에만 나타나는 것으로서 의병항쟁과 관련되어 주목되는 내용이다.³⁰⁾ 그러나 의병활동을 정당화하는 춘추의 대의를 논한 이러한 기록이 산견된다고 하여 장담강회의 성격을 획일적인 의미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로 초기강회인 경인년(1890) 하순을 비롯하여 전후 최소한 6차 이상 강론된 <주자행궁편전주차 朱子行宮便殿奏筓>는 시강(侍講)의 자리에 임명된 주희가 영종에게 올린 글인데, 그의 독서론, 수양론, 정치론 등이 개진된 것으로 전형적인 성리학적 보편철학의 한 모습을 드러내 주는 내용이다.

한편 장담강회에서 교재로서 빈번하게 이용되었던 《양지록 養知錄》을 살펴보면, 화서학파의 내수외양론이 지닌 일반적 특징을 드러내 준다. 그들은 도덕과 규범을 만사의 근본으로 인식하고 도덕성이 무너지면 만사를 그르치게 된다고 본다. 이항로는 정덕, 이용, 후생 가운데 정덕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하였으며 유인석은 진정한 실력은 도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도덕을 전제로 한 실력만이 ‘가장 완전한 실력(萬全之實力)’이라고 말한다.³¹⁾ 또한 『양지록』의 교재구성의 토대는 존화양이론(尊華攘夷論)에서 발견할 수 있다. 존화양이론은 유가의 춘추 대일통사상으로부터 근원한다. 춘추 대일통사상은 역사의 해석 중심이 화하문화(華夏文化)에 있다. 이러한 대일통사상에 근거하여 양지록의 하권은 모두 중국 역사에 대한 소개로 일관되고 있다. 오대와 진한의 역사, 위진 남북조와 당송원명의 명현선철에 관한 고사가 하권 내용의 중심을 이룬다. 『양지록』에 있어서는 한국역사의 개체성과 특수성은 중국 문화의 보편성속에 깃들게 된다. 화서학파의 선비들은 춘추의리의 정신에서 척사의 문화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양지록』에서는 중화문화의 적통이 기호학파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그는 양지록에서 “朱子는 後孔子오 栗谷은 後朱子니 欲孔子니 當自栗谷始

30) 자세한 논의는 장승구, 「을미의병항쟁의 사상적 배경」, 『제천의병과 전통문화』, 1998, 111~142쪽.

31) 『毅菴集』 卷3 頁 61.

라하더라"라고 하여 중화문화는 율곡으로 도맥이 전하고, 그 율곡의 업은 다시 우암에게로 전승되었음을 주장한다.³²⁾ 이러한 이해의 바탕에는 그들 장담서사의 인물들이 사실상 중화 문화의 적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문화적 자존의식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들은 유교문화의 도통을 계승한 마지막 선비들로서 척사위정의 도덕적 책임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로 자임하였다. 이러한 기술원칙은 『장담강사』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구상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멀게는 척외의 의병활동을 염두에 둔 상호 보험적 성격의 제안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³³⁾ 강회를 통해 전승된 화서학파의 주리론은 척사의 논리로 발전하기는 하였으나 조선중화주의의 한계를 돌파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VI. 결어

본고에서는 19말 조선의 강회가 사상의 분화과정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지를 주리철학의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주 이진상이 접화한 심주리설은 그의 사상적 모태 역할을 하였던 퇴계학파로부터 맹렬한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미묘한 시점에 열린 산천재 강회는 한주 이진상의 주리론이 과연 남명학파와 노사학파의 중심부로 무난하게 진입할 수 있는지를 알려 주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이 모임은 표면적으로는 화기가 감돌았으나, 사상적으로는 일대 격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모임에 주인공으로 참가한 박만성의 경우 한주가 강설한 태극도설과 심설에 대해 이듬해 본격적인 비판설을 제기하였다. 반면 조성기와의 토론은 한주가 노사학파와의 만남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특히 이 강회에 참여하였던 후산 허유는 스승인

32) 『養知錄』上, “朱子之道 至栗谷而復明하고 栗谷之業이 至先生而益廣이라”

33) 줄고, 상동.

한주의 학설을 경상우도에 뿌리내리고, 그의 사상을 남명학파와 노사학파 내부에 전달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어서 열린 선석사 강회는 그 동안 퇴계학파의 강력한 영향권 내에 경상우도의 학문적 지형도가 재편되는 첫 단서를 보여 준다. 도산서원의 원장을 역임하였던 만구 이종기가 퇴계학의 전통적인 학설을 대변하였다면, 사미헌 장복추는 퇴계학파는 사상적 결을 달리하고 있던 여헌학파의 주리론을 표방하였고, 이진상의 심즉리설은 주리론의 또 다른 분화과정을 제시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선석사의 강회는 영남 주리론의 분화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한편 도산서원의 학인들이 주관한 오천강회는 퇴계의 주리철학이 한주학설에 대응하는 양식을 알려주며, 당색을 뛰어 넘어 퇴계학파의 주리론과 사상적 결을 공유하는 화서학파의 장담강회는 주리철학이 척양(斥羊)의 논리로 전환하는 과정을 드러낸다. 이렇게 19세기 말 각각의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강회는 서로 다른 이념적 지평을 유지하면서도, 상호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새로운 시대정신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과 공감의 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寒洲先生行錄』, 『晩醒先生文集』, 『寒洲全書』, 『舫山先生文集』, 『四未軒集』, 『龍山文集』, 『鳳岡先生文集』, 『省齋集』, 『從義錄』, 『毅菴集』

- 김장태, 『한국근대의 유교사상』, 서울대 출판부, 1990.
권오영, 「강우학자들의 학문활동」, 『남명학연구』 11집.
김대식, 「화서 문인공동체 강회의 실제」 『교육사학연구』 21집, 2011.
김상기, 「제천 을미의병의 전개와 성격」, 『제천을미의병100돌 기념학술논문집』, 세명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6.
이상익, 「화서 이항로의 주리론과 퇴계학」, 『퇴계학보』 117호.
이상하, 「물천 김진호의 학문성향과 성리설」, 『남명학』 21집, 2006.
이상하, 「晩醒 朴致復의 학문 淵源과 心學理論 비판」, 『남명학연구』 23권, 2007년.
임종진, 「晩求 李種杞의 성리학적 입장에 대한 검토」 『영남학』 43집, 2008.
장승구, 「을미의병항쟁의 사상적 배경」, 『제천의병과 전통문화』, 1998.
정순우, 「퇴계의 강학활동과 도산강회」,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정순우(공저), 『후산 허유의 학문과 사상』, 숲이, 2007.

Abstract

The process of differentiation of schools and the formation of theories through the lecture of seowon(書院講會)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Chung, soon-woo*

This thesis examines the role of Ganghoe(講會) in the late 19th century in the process of differentiation of ideas, focusing on the flow of Chu-li(主理) philosophy. The theory of simjeonri(心卽理) proposed by Han Ju(寒洲) Jinsang Lee(李震相) faced fierce criticism from the Toegye School(退溪學派), which served as the birthplace of his ideology. The Sancheonjae(山天齋) lecture(講會), held at such a delicate point, is a lecture that shows whether Hanju Lee Jinsang's theory of Chu-li(主理) can safely enter the center of the Nammyung(南冥) school and the Nosa(蘆少) school. Although this meeting had a very peaceful atmosphere on the surface, it can be seen that there was a major conflict in ideology. In the case of Park Man-seong(朴晩暉), who participated in this meeting as a guest, he raised a full-fledged critique of the Taegeukdo theory(太極圖說) and the heart-seol(心說) explained by Jinsang Lee. On the other hand, the discussion with Seong-ga Cho(趙性家) provided an opportunity to materialize Lee Jin-sang's meeting with the Nosa School. In particular, Husan(后山) Huo Yu(許愈), who participated in this lecture, took a

* Emeritus Professor, Academy of Korean studies / chungsw@aks.ac.kr

special role in establishing his teacher Jin-sang Lee's doctrine in the Gyeongsang-u-do province and transmitting his ideas to the Nammyung School and the Nosa School.

The lecture at Seonseoksa(禪石寺) Temple, which was held next, shows the first clue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academic topographical map of Gyeongsang-Udo(慶尙右道), which had been within the strong influence of the Toegye School. Lee Jong-gi(李種杞), who served as the director of Dosanseowon(陶山書院), consistently represented the traditional doctrine of Toegye(退溪). In the case of Jang Bok-chu(張福樞), he argued for the Chu-li theory of the Yeoheon(旅軒) school, which had a different ideological inclination from the Toegye School. Now, Jinsang Lee's theory of Simjeonri(心卽理) became a clear sign suggesting another differentiation process of Chu-li theory. The lecture at Seonseoksa Temple contained the process of eruption of Chu-li thought in Yeongnam(嶺南) province.

Meanwhile, the Ocheon Ganghoe(浯川講會) organized by the scholars of Dosanseowon(陶山書院) tells how Toegye's Chu-li philosophy responds to the theory of Lee Jin-sang. And the Jangdamganghoe(長潭講會) of the Hwaseo(華西) School, which shared the ideological flow with the Chu-li philosophy of the Toegye School beyond the color of political factions, turned the Chu-li philosophy into a logic that rejected Western ideology and culture. As described above, it can be seen that the lectures held in each region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were a forum for discussion and sympathy to seek a new spirit of the times while maintaining different ideological horizons and mutually influencing each other.

Key word : Ganghoe(講會), Chu-li(主理), simjeonri(心卽理), Nammyung(南冥) school, Nosa (蘆沙) school, Ocheon Ganghoe (渚川講會), Jangdamganghoe(長潭講會), Seong-ga Cho(趙性家), Jang Bok-chu (張福樞), Lee Jong-gi(李種杞), Jinsang Lee(李震相)

논문 투고일: 2021. 5. 30 심사 완료일: 2021. 6. 17 게재 확정일: 2021. 6. 22

- 후보

1. 주요 연혁

2019. 03. 25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학술회의 지원 대상 선정
2019. 04. 27 : 제19회 연구발표회(한중연)
2019. 10. 13 : 제8회 한·중서원학회 국제학술대회(중국 맥라 굴자서원)
2019. 11. 15 : 국내 공동학술대회(영남대학교)
2020. 02. 14 : 《총회》 잠정 중단(코로나-19), 이수환 회장 연임
2020. 05. 29 : 국내 공동 학술대회(영남대학교)
2021. 04. 23 : 국내 공동 학술대회(영남대학교)
2021. 05. 21 : 국제 학술대회(온라인 Zoom 진행)
2021. 06. 24 : 국내 공동 학술대회(구미 성리학 역사관)

2. 활동

- 제19회 연구발표회(2019. 4. 27, 한국학중앙연구원)
 - 발표 ① 공간을 통해 본 서애학의 계승양상 (김학수, 한중연)
 - 발표 ② 향(鄕)에 대한 퇴계의 이해와 실천(한재훈, 연세대)
 - 연구윤리 교육 (정수환, 한중연)

- 제8회 한중서원학회 국제학술대회(2019. 10. 13 중국 맥라시 굴자서원)
 - 기조발표 ①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 과정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이상해, 성균관대)
 - 기조발표 ② 한국 서원의 인문성과 현대적 발전(김학수, 한중연)
 - 발표 ③ 17세기 초반 盧守愼의 道南書院 祭享論: 朱子學과 陽明學의 拮抗 (김학수, 색션발표)
 - 발표 ④ 17~18세기 문경 근암서원의 변천으로 본 조선후기 서원 전승의 일사례(이병훈, 영남대)

- 발표 ⑤ 태주학과 왕간의 강화 활동 연구(이우진, 공주대)
- 발표 ⑥ 退溪의 ‘鄉’에 대한 化民易俗: 鄉約과 書院을 中心으로(한재훈, 연세대)
- 발표 ⑦ 조선 소수서원 운영의 공공성과 집단성(정수환, 한중연)
- 발표 ⑧ 1禮安 汾江書院의 창건과 請額 활동(채광수, 영남대)
- 발표 ⑨ 8세기후기 尚州 玉洞書院 請額活動과 賜額의 意味(김순한, 영남대)
- 발표 ⑩ 서원의 인문성: 강회를 통한 학풍의 형성과 전개(이종록, 한중연)
- 발표 ⑪ 書院의 社會史: 庶類系 儒賢의 登場과 社會의 外溢(권지은, 한중연)

■ 국내 공동학술대회(2019. 11. 15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 발표 ① 18~19세기 유교적 상장례의 정치·경제적 함의 (김성우, 대구한의대)
- 발표 ② 노상추 일가의 의례 활동과 친족 관계(김정운, 경북대)
- 발표 ③ 조선후기 선산지역 원사건립과 금오서원의 위상 변화(이병훈, 영남대)
- 발표 ④ 노상추의 중앙 관료 생활- ‘오위장과 금군장을 중심으로’(정해은, 영남대)
- 발표 ⑤ 노상추의 매매정보 수집과 토지매매(정수환, 한중연)

■ 국내 공동학술대회(2020. 5. 29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2층, 18층)

- 발표 ① 書院의 前史: 고·중세 한국 私學의 전통이 서원 설립에 이르기까지(이광우, 영남대)
- 발표 ② 16세기 한국 서원의 출현과 정비(이병훈, 영남대)
- 발표 ③ 唐代 書院의 형성에 대한 재검토(류준형, 영남대)
- 발표 ④ 일본과 베트남의 서원 연구 현황과 제언(이우진, 공주교육대)
- 발표 ⑤ 白鹿洞書院의 建立及其對中國書院的 景仰(등홍파, 중국 호남대)
- 발표 ⑥ 한국 서원 의례의 유형과 특징(한재훈, 연세대)
- 발표 ⑦ 岳麓書院清代學禮考述(란갑은, 중국 호남대)

발표 ⑧ 한국 서원 향사례의 지역적 특징 연구(임근실, 단국대)

발표 ⑨ 서원의 일상 의례와 복원(김자운, 공주대)

발표 ⑩ 서원 특수 의례 종류와 실제(채광수, 영남대)

■ 국내 공동학술대회(2021. 4. 23 영남대학교 박물관 강당)

기조 발표 ① 19세기 말 서원 강회의 지역성과 보편성(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② 신산서원의 강학전통과 소장자료 복원을 위한 전산아카이브 구축 방안(정석태, 부산대)

발표 ③ 대전 道山書院의 강학 관련 자료와 시사점(최광만, 충남대)

발표 ④ 호남 乙巳名賢의 학맥과 晩軒 丁焞의 강학 활동(채광수, 영남대)

발표 ⑤ 근기지역 서원의 강규와 강학(이병훈, 영남대)

발표 ⑥ 경상좌도 서원의 강학 자료 현황과 호계서원 강학자료에 대한 개괄적 검토(김자운, 공주대)

- 연구윤리 교육 (이병훈, 영남대)

■ 국제 학술대회(2021. 5. 21 온라인 Zoom 진행)

발표 ① 陶山書院 板刻活動 研究(배현숙, 계명문화대)

발표 ② 서원지의 출현과 지식의 전개(임근실, 한국국학진흥원)

발표 ③ 조선시대 서원 학규의 시기별(16~18세기) 경향(한재훈, 연세대)

발표 ④ 호남 乙巳名賢의 학맥과 晩軒 丁焞의 강학 활동(채광수, 영남대)

발표 ⑤ 中國書院刻書在東亞的流傳與影響(羅琴, 중국 호남대 약록서원)

발표 ⑥ 조선시대 학파의 '도통' 의식과 서원의 확산-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퇴계학파를 중심으로(이광우, 영남대)

발표 ⑦ 서원의 지식 네트워크 활동의 실제-상주 道南書院의 詩會를 중심으로(채광수, 영남대)

발표 ⑧ 晩清書院藏書制度研究(鄧洪波·張曉新, 중국 호남대)

발표 ⑨ 베트남 福江書院의 藏書와 그 의의(이우진, 공주교대)

발표 ⑩ 일본서원의 장서구축-이토 진사이(伊藤仁齋) 가문과 고의당문(古義堂文庫)(야규 마코토, 원광대)

■ 국내 공동 학술대회(2021. 6. 24 구미 성리학 역사관)

기조 발표 ① 영남지역 서원의 건립현황과 특성(이수환, 영남대)

발표 ② 구미지역 서원의 건립추이(정수환,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③ 금오서원의 五賢과 구미정신- '시문학'을 중심으로(류영수, 구미 성리학역사관)

발표 ④ 금오서원의 건립과 운영(이병훈, 영남대)

발표 ⑤ 文山書院의 변천과 운영 양상- '노상추 일기'를 중심으로(채광수, 영남대)

발표 ⑥ 洛奉·東洛書院 봉향 인물의 학문과 사상(한재훈, 연세대)

회 칙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서원학회(韓國書院學會)라 칭한다.(이하 “학회”라고 약칭한다)

제 2조(소재) 학회의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 필요한 경우 지역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 3조(목적) 학회는 한국 서원의 제분야에 걸친 학문적 연구와 자료 발굴·정보교환·토론 등의 학술활동을 벌이며, 연구 성과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대중화에 유념함으로써 한국사의 체계화에 기여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학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학술 활동을 한다.

1. 연구논문 발표회
2. 특별 학술회의 및 세미나
3. 문화 유적 학술 답사
4. 서원지 및 서원자료집 발간
5. 학회지 발간
6. 기타 학문 연구와 회원 친목에 필요한 사업

제 5조(회원) 학회의 회원은 서원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가입시에도 회비를 납부해야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8.12.15.〉

제 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회이나 세미나에서 연구물을 발표할 수 있으며, 또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를 배부 받고 여기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연구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 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학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회기 안에 납부해야 한다.

제 8조(명예회원) 회장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학회의 사업이나 재정에 기여한 인사를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9조(기록과 문서 보존) 각급 임원은 학회의 모든 활동상황을 소정양식에 의해 기록하고 대내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는 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제 10조(시행세칙) 학회의 운영은 본 회칙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우 시행 세칙을 따로 마련할 수 있다.

제2장 조직과 업무

제 11조(기구)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삭제 〈2017.01.20.〉
3. 이사회
4. 편집위원회

제 12조(임원과 직무)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각급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7.01.20.〉
2. 부회장(1인):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2인): 학회의 재정과 사업을 감독한다.
4. 삭제 〈2017.01.20.〉
5. 이사(20인 이내): 총무, 재무, 연구, 기획, 섭외, 출판, 지역이사로 하고 학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6. 편집위원(10인 내외):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학회에서 발표하는 논문을 심사 하며,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을 기획·편집한다.<개정 2018.12.15.>
7. 자문위원(무정수):학회의 회장과 감사를 역임한 회원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학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문한다.
8. 연구윤리위원(15인 이내):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행위를 심의 처리한다.

제 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1.20.>

제 14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이사,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2.15.>

제1절 총회

제 15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의결) 모든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중요 안건의 예심) 총회에서 의결할 중요 사안은 이사회에서 사전에 심의한다.<개정 2017.01.20.>

제18조(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
2. 삭제 <2017.01.20.>
2. 예산안 및 결산 승인
3. 회칙의 개정과 조직의 개편
4. 기타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절 평의원회

제 19조 삭제 <2017.01.20.>

제 20조 삭제 <2017.01.20.>

제3절 이사회

제 21조(구성과 소집)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 22조(기능)

1. 학회의 사업을 분장하고 추진하는 일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집행한다.
2. 편집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개정 2018.12.25.>

제 23조(업무분장) 이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분장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이사와 섭외이사를 둘 수 있다.

1. 총무이사:학회 조직·회원 관리, 재산·도서·문서·장부·기록·자료 관리
2. 연구이사:연구 발표회, 학술회의와 세미나, 유적 답사의 기획과 추진
3. 재무이사:재정·회계·기금의 관리, 예산·결의안 작성
4. 기획이사:사업계획, 연구프로젝트 수주 및 기획, 학회 발전 방안 연구
5. 출판이사: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실무 담당

제24조(간사) 학회의 연구, 행정, 연락, 도서관리 등의 제반 실무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절 편집위원회

학술지와 기타 출판물의 기획, 편집, 심사를 위해 학회 내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25조(구성과 운영) <개정 2018.12.25.>

1. 편집위원은 학회 이사를 포함하여 전공분야에 연구업적이 인정되는 자

를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단, 편집위원의 위촉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 실무는 출판이사가 담당하며, 편집간사가 보조한다.
4.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정기적(3월, 9월)으로 개최한다. 단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은 필요시 수시로 편집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편집위원회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한다.
7.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재임 중 연구윤리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속한다.

제 26조 (편집위원장의 임명과 역할)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회장이 임명하며, 유고시 회장이 재임명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편집위원장은 재임 중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 27조(기능)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및 심사자 선정
2. 심사 확정 논문에 대한 처리
3. 학보 내용과 관련된 기획 등 학보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4. 기타 학회 출판물에 대한 기획 및 심사
5. 학회지 등에 게재할 저작물의 심사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28조(편집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수준 제고를 위해 편집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편집자문위원은 필요시 전임 회장을 비롯해 학계의 원로 중진 가운데 편

집위원장이 회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2. 편집자문위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3. 편집자문위원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4. 학보의 편집과 간행에 대해 자문한다.
5. 기타 학회 출판물에 대한 자문

제5절 연구윤리위원회

제 29조(구성과 소집) 회장, 편집이사 및 연구이사 중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이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며,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 30조(기능) 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그 처리를 심의 결정한다.

제 31조(연구윤리 문제의 처리) 연구윤리 문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하게 시행한다.

제3장 재정

제 32조(예산 편성) 학회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익금 및 각종 보조비와 기부금 등으로 편성한다.

제 33조(수익사업) 학회는 공동 연구비, 공동 저작의 인세나 저작권 기타 학술활동과 관련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학회의 이름으로 행하 여진 사업에서 회원 수익금 중 일부를 헌납 받을 수 있다.

제 34조(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01.20.>

제 35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2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해 12월 정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제 36조(결산보고) 총무이사는 본 학회의 재정운영과 사업추진을 수시로 이사

회에 보고하고, 결산 내역과 사업 실적을 12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0.>

제 37조(기금의 조성¹과 운영) 학회의 특수 사업 추진이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특수 목적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기금은 일반 회계와 분리하여 관리 운영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편집 규정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03월 15일 개정

제1조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의 학회지인 『韓國書院學報』(이하 ‘학보’라 약칭함)의 편집 및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학보는 서원 연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한다.

- ① 연구논문
- ② 비평논문(說林, 論壇 등을 포함)
- ③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글

제3조(인쇄 및 발행)

학보는 년2회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 ① 인쇄일은 6월 23일, 12월 23일로 한다.
- ② 발행일은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제4조(투고 제한)

학보에는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주저자가 회원이어야 하며, 공동저자가 특수 관계인[미성년자·가족(배우자·자녀·4촌 이내 친인척)]일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에

만 투고를 인정한다. <개정 2021.3.15.>

제5조(논문 심사)

- 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연구윤리와 원고작성규정의 준수유무, 학회지 성격에 부합 여부를 우선 심의한 후 이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별도의 전문 학자를 위촉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8.12.15.>
- ②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학자 3인을 위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편집 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단 투고자와 같은 소속의 심사자는 배제한다.
- ③ 심사과정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이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6조(논문 심사 절차)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 독창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가 (A), 수정후 게재(B), 재심사(C), 게재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② 게재 판정을 제외한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판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일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A,A,A) (A,A,B):게재
 - (A,B,B) (B,B,B):수정 후 게재
 - (A,A,C) (A,A,D) (A,B,C) (A,B,D):편집위원 또는 제3자에게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의뢰
 - (A,C,C) (B,B,C) (A,C,D) (B,C,C) (B,B,D) (C,C,C):수정후 재심사
 - (A,D,D) (B,C,D) (B,D,D) (C,C,D) (C,D,D) (D,D,D):게재불가

- ⑤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하며, 심사위원 전원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원고의 기한)

원고의 투고와 논문게재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① 원고의 투고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01.20.>
- ②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에 한해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인쇄일(6월 23일, 12월 2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12.15.>

제8조(심사료와 게재료 청구)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심사료와 게재료를 청구한다. <개정 2018.12.15.>

제9조(지적재산권)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의거하여 《한국서원학보》에 수록된 원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학회에 귀속한다. <개정 2018.12.15.>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부 칙

이 편집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17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논문투고 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03월 15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 학술지 『韓國書院學報』에 게재하는 논문의 투고와 작성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의 종류)

논문은 기획논문과 일반논문으로 나뉘며, 모두 심사의 대상이 된다.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특정 연구자에게 집필을 위촉한 논문을 가리킨다. 일반투고논문은 기획과 무관한 개별적 자유투고 논문을 가리킨다.

제3조(원고의 분량)

논문은 편집된 논문집 기준으로 35쪽(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 쪽수는 본문, 각주, 도표, 그림, 참고문헌, 초록, 주제어 등을 모두 포함한다. 35쪽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 게재료(원고지 5매당 10,000원)를 부과한다.

제4조(원고의 조건)

- ① 논문은 기존에 발표되지 않은 창의적인 것이어야 한다.
- ② 국문으로 논문 제목, 저자 성명 및 소속과 직위,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5개 내외),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5개 내외) 순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 ③ 우리 학회의 특성상 본문은 외국어(중문, 일문, 영문)로 작성이 가능하다. 단 중문·일문 논문의 경우 초록은 한글과 영문의 2종을 제출해야 한다. 영문 논문의 경우에도 한글과 영문 초록을 제출한다. 한글 논문의 외국어 초록은 英文을 기본으로 하지만 우리 학회의 특성상 中文·日文 투고도 인정한다. 단 중문·일문으로 투고시에는 영문으로 제목, 필자명, 주제어를 병기해야 한다.
- ④ <원고작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투고 기한)

논문집은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 2회 발간한다. 논문의 투고 기한은 발행 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하며,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들 기한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될 수 있다.

제6조(원고의 투고 제한)

- ①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 ② 다른 학술지 등에 이미 발표했거나,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③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경우 향후 투고를 제한한다.

제7조(심사료와 게재료 납부)

- ①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논문은 위원회에서 투고자에게 심사비를 요청하며, 심사료를 납부한 논문에 한해 심사를 진행한다. <개정 2018.12.15>
-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책정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8.12.15>

- ③ 심사료와 게재료는 한국서원학회 개설 계좌로 납부한다.

제8조(논문 작성)

논문은 ‘한글과컴퓨터 워드프로그램[한글 2002이상, *.HWP]’ 또는 그것과 통용 가능한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제9조(원고 투고)

투고하는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원고작성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반려할 수 있다.

- ① 원고는 한국서원학회 홈페이지(www.ksw2007.or.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털에서 ‘한국서원학회’ 검색]
- ② 전자우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위에 정한 원칙대로 작성된 논문을 다음의 주소로 발송한다 (접수 : ksw2007@ksw2007.or.kr).
- ③ 논문 투고시 홈페이지에서 <논문접수신청서>와 <저작권이용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한다. <개정 2018.12.15>
- ④ 투고자는 해당 논문을 <KCI문헌유사도 검사 서비스> 내지 기타표절프로그램에서 검사를 마친 후 결과서를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18.12.15>

제10조(원고의 저작권 이양 동의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

논문 투고자는 우리 학회에서 정한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 및 단서’를 읽고, 투고자의 논문이 《韓國書院學報》에 게재됨과 동시에 투고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한국서원학회’ 이양함을 동의하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 이양 동의서>는 별도의 서명이 없더라도 논문 투고시 동의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논문접수신청서>와 함께 온라인 투고 시스템이나학회 메일로 제출하는 것으로 서명을 대신한다.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 및 단서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8.12.15>

1)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

- ① 논문의 내용으로 기술된 특허, 등록상표, 독창적인 신기술, 연구 기법 및 응용에 관한 권리 및 기타 법으로 보장된 권리.
- ② 저자가 저자의 논문을 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거나 저자의 취직, 진급,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작성, 연구 결과의 비수익성 광고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사, 복제 및 인쇄를 할 권리.
- ③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사실이 논문에 표시된 단체, 저자의 개인 WEB SITE에 논문의 전문 혹은 일부를 게재하고 배포할 권리.
- ④ 저자가 교과서 등 서적과 종설의 기술, 저자에 의한 강의, 연구발표 및 워크숍 등을 위한 교재 제작을 위하여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권리.

2)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서

- ① 위에 허락된 목적으로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이 한국서원학회에 속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이양할 수 없다. 단, I(1)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3) 저작권의 소유 및 서명에 대한 단서

- ① 저자 중 1인(논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저자)이 모든 저자를 대표하여 본 저작권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② 게재논문의 저작권이 저자가 아닌 저자를 고용하고 있는 학교, 회사, 연구소 혹은 단체에 속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는 해당 단체의 저작권 담당자가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③ 본 저작권이양동의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및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 혹은 단체가 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④ 본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저자는 본 논문이 학술대회에서의 초록을 제외한 다른 형태로 발간되지 않았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서약 한다.
- ⑤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학회지에 게재되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유포된 경우라도 학회지 게재 이후에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학회지에 발간된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함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작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
- ⑥ 상기인(들)은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⑦ 본 저작권이양동의서 파일을 작성하여 한국서원학회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에 제출하는 것으로 서명을 대신한다.

4) 온라인 투고시 시스템 상에서의 <저작권 이용 동의>에 서명하면, <저작권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1.3.15>

5) 공동논문의 경우 공동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친·인척일 경우 반드시 <논문접수신청서>에 주저자와 공동저자와의 관계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편집위원회에 메일이나 전화로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접수 여부를 심의·결정하여 통보한다. <개정 2021.3.15>

제11조(이해상충 보고 및 심사 배제 요청)

논문 투고자가 특정 인물에 대한 심사자 배제를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개정 2021.3.15>

- ① 논문 투고자는 특정인물에 대한 심사자 배제 요청시 그 사유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논문 투고시 학회 메일로 제출한다. 단, 사유서는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되 반드시 요청인의 성명, 소속 및 배제자의 성명, 소속을 명기하고, 배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이해상충 인물의 배제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접수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제3자를 논문 심사자로 선정한다.

부 칙

-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원고작성 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1조(기본 원칙) 투고하는 논문은 제목, 성명(소속과 직위),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초록(제목, 성명, 소속, 직위의 영문표기 or 병기), keyword(영문 or 영문 병기)의 순서로 작성한다. 투고된 원고가 작성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제2조(저자 표기) 투고자의 소속은 성명 다음에 괄호를 하고, 투고자의 소속과 직위를 병기한다. 공동연구의 경우는 제1저자를 명시한다.<개정 2018.12.15>

<예> 단독 : 이수환(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공동 : 제1저자 이수환(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이병훈(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제3조(장·절 표기) 장과 절의 기호 표기 방식은 I. 1. 1) (1) / II. 1. 1) (1) / III. 1. 1) (1) / IV. 1. 1) (1)의 순서로 한다.

<예> IV. 李天封의 한강학 계승과 한강학과에서의 위상

1. 寒岡學의 수용과 師門의 협찬활동

1) 寒岡學의 수용 양상

(2) 川谷書院 중건론

제4조(본문의 작성)

① 본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일문, 중문, 영문]로 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② 본문 작성시 활자크기는 한글 10포인트, 인용문과 각주는 9포인트로 한다.

- ③ 문단 모양은 기본적인 작성방식을 따른다. 왼쪽 여백(0), 오른쪽 여백(0), 들여쓰기(0), 문단 위(0), 문단 아래(0), 낱말 간격(0), 정렬 방식(양쪽 혼합), 줄 간격 160%.

제5조(한자 표기) 본 학술지의 특성상 漢字를 그대로 노출시켜야 되는 경우가 많으나, 한자어의 가독성을 위해 자주 중복되거나 일반적인 단어는 가급적 한글을 사용한다.

제6조(인용문 작성) 본문의 인용문은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로 번역된 인용문의 경우, 인용원문은 각주에 제시한다. 인용문은 두 칸을 띄우고 시작한다.

제7조(인용시 작성) 본문에 인용된 시의 경우는 원시를 먼저 쓰고 풀이를 병립하여 작성한다.

〈예〉 派者同水 갈래가 저도 근원이 같은 물이면

百川雖異則水 온갖 냇물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물

제8조(문헌 표기) 단행본·문집·학회지 등은 『 』(유니코드 300E, 300F)으로 표기하며, 논문·단행본 속의 작은 제목 등은 「 」(유니코드 300C, 300D)으로 표기한다. 단 학위논문은 『 』으로 표기하며, 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문은 연도 뒤에 알파벳(a, b) 붙여 구분한다. 논문명과 학술지명 사이에 쉼표(.)를 붙여 구분한다.

〈예〉 정만조, 「조선시대 파주 사족과 서원활동」,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김덕현, 「한국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대한 독해」,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a).

·추제협, 『근기 퇴계학의 형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김인걸, 「서원 연구의 현재적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p.214.

제9조(작품 및 인용 표기) 작품명은 〈 〉(유니코드 3008, 3009), 원문인용·대

화 등은 “ ”(유니코드 201C, 201D), 간접인용 및 강조는 ‘ ’(유니코드 2018, 2019) 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曹植 『南冥集』 卷2, 〈遊瑱流錄〉, “新雨水肥, 激石瀆碎 ….”

제10조(표·그림·사진의 구분) 논문에 사용된 표, 그림, 사진 등의 구분은 〈 〉(유니코드 FF1C, FF1E)로 표기한다.

〈예〉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

제11조(각주 번호) 각주의 번호는 기본적으로 쉼표(.)나 마침표(.) 다음에 붙인다.

〈예〉 언급이 여러 차례 보이는데,¹⁾ 심지어 유생들을 가르치기까지 하였다.²⁾

제12조(중복 인용) 중복 인용되는 책이나 논문의 경우 ‘앞의 책’ 혹은 ‘앞의 논문’을 사용한다. 같은 저자의 글이 중복되는 경우는 연도와 영문소문자로 구분한다.

〈예〉 김학수, 앞의 논문, 2007, 41~42쪽.

정만조, 앞의 책, 2012, 22쪽.

이수환, 앞의 논문, 2015, 17쪽.

정순우, 앞의 논문, 2013a, 213쪽.

제13조(각주와 참고문헌 작성) 각주와 참고문헌은 저자, 제목, 책이름, 편집기관(혹은 출판사), 출판연도, 수록 페이지의 순서로 기록한다. 참고문헌은 원서를 먼저 제시하고, 연구논문과 저서를 가나다순으로 정리한다.

〈예〉 이해준, 「노강서원 자료의 유형과 성격」,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17쪽.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5, 150~153쪽.

제14조(초록 작성) 국문과 외국어로 작성한 초록과 주제어를 제출한다. 국문 초록은 200자 원고지 5매 이내로 하며, 영문 초록은 300단어 이내로 한다. 주제어(keyword)는 5개 이하로 한다. 영문 이외의 외국어 초록은 제목과 저자, 소속, 주제어는 英文을 병기한다. 〈개정 2018.12.15〉

제15조(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계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른다.<개정 2018.12.15>

부 칙

이 원고작성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원고작성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03월 15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 관련 연구물을 간행함에 있어 연구윤리를 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능)

이 규정은 연구자의 창의적인 학술활동을 보호하고,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제재하는 기능을 갖는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제1조(목적)와 제2조(기능)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과 연구이사 중에서 10명 내외로 편집위원장
이 구성한다. 단, 편집위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개정 2018.12.15.>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모든 학술활동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
-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의 부재시에는 편집위원과 연구이사 중 위원장이 위임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8.12.15.>

제4조(표절 및 중복게재)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논문의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 ① 타인의 연구결과를 본문이나 주 등에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한다.
- ② 이미 타 학술지에 게재된 자신의 연구내용을 침삭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중복게재(자기표절)’로 간주한다.
- ③ 주저자는 논문 투고시 공동저자와의 관계와 논문에서의 역할, 기여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보고·신청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공동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자녀·4촌 이내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일 경우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공동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가족의 경우 19세를 초과한 성인이며,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30% 이상일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저자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15.>

제5조(심의 및 판정)

- ①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논문표절시스템(KCI 문헌유사도 검사서비스 등)으로 검증한 후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개정 2018.12.15.>
- ② 표절 및 중복게재와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로 제보된 논문의 심의 및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한다. <개정 2021.3.15.>

제6조(제재조치)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행한다.

- ① 해당 논문 투고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투고를 금지하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 ② 해당 논문이 이미 학보에 게재된 경우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제7조(공고)

표절 및 중복게재,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은 한국서원학회 회보에 공지하며,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이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 기관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개정 2021.3.15.>

제8조(소명기회)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논문 투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제9조(기타)

제4조에 해당하는 표절 및 중복게재 외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고의로 자료나 통계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 ② 학회 명의를 도용하여 연구사업이나 출판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6기 임원명단(2020.3~2022.2)

고 문 : 정만조, 이해준, 정순우
회 장 : 이수환(영남대)
부 회 장 : 김학수(한중연)
감 사 : 장동표(부산대), 최광만(충남대)
총무이사 : 이병훈(영남대)
재무이사 : 김자운(공주대)
연구이사 : 조영화(교남문화유산원), 김종석(국학진), 옥영정(한중연),
김경욱(목포대), 정우락(경북대), 손숙경(부산 가톨릭대),
김대식(경인교대), 권오영(한중연), 최석기(경상대)
기획이사 : 조준호(경기도박물관), 채광수(영남대)
출판이사 : 이우진(공주교대), 이근호(충남대)
지역이사 : 경기·강원 정수환(한중연), 전라·제주 김봉곤(원광대)
경상 정진영(경북독립운동기념관)
간 사 : 이신예(한중연), 김순한(영남대)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 김학수(정치사회사, 한중연)
편 집 위 원 : 강봉수(윤리교육, 제주대), 등홍패(중국서원, 악록서원),
이우진(교육사, 공주교대), 엄연석(철학, 한림대),
정수환(사회경제사, 한중연), 정우락(국문학, 경북대),
조재모(건축, 경북대), 진성수(철학, 전북대)
편집간사 : 김순한(영남대)

인쇄일 2021년 6월 27일
발행일 2021년 6월 30일
발행처 한국서원학회
38541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80 영남대학교 인문관 353호
전화 053-810-3706
팩스 053-810-4696
이메일 ksw2007@ksw2007.or.kr
홈페이지 www.ksw2007.or.kr
발행인 이수환
학회비 종신회원(60만원), 일반회원(3만원)
기관회원(5만원), 외국회비(\$50)
회비납부계좌: 대구은행 508-12-677669-6,
이수환(한국서원학회)

The Journal of Korean Seowon Studies

NO. 12

June, 2021

Contents

Articles

- The Actuality of Seowon's Knowledge Network Activities
- Focusing on the a Poetry Club of Sangju Donam-Seowon - Chae Gwang-Soo 7
- A Study on the Publications of Tosan Seowon in Andong Pae, Hyon-suk 49
- The Ideals of 'Dotong(道統)' and Expansion of Seowon(書院)
for Academic Factions During th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Toegye(退溪) School from the Later Part of
16C to the First Part of 17C - Yi, Gwang-woo 127
- Changes in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Korean seowon collections of books Lee, Byoung-Hoon 181
- The process of differentiation of schools and the formation of
theories through the lecture of seowon(書院講會)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Chung, soon-woo 241
- Bulletin 267
-

Association Notes

KOREAN SEOWON STUDIES ASSOCIATION

<http://www.ksw2007.or.kr> e-mail : ksw2007@ksw2007.or.kr

